

한국민속상징사전 • 寅
Encyclopedia of Korean Folk Symbols

호랑이 Tiger
虎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상징사전 • 寅

Encyclopedia of Korean Folk Symbols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발행일

2021년 11월 30일

발행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전화 02. 3704. 3141

발행인

김종대

총괄

이관호

기획

강경표

편수원

김나경, 류건욱, 은현정, 이란섭, 한효주

윤문·교열

엄민용, 유인선

디자인·제작

(주)디자인인트로 김은정

www.gointro.com

발간등록번호

11-1371036-000376-01

ISBN

978-89-289-0302-3: 비매품



한국민속상징사전

Encyclopedia of
Korean Folk Symbols

Tiger



호랑이

발간사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한국 민속학의 정체성 확립, 학술 연구의 기초 자료 제공과 함께 많은 분들이 민속문화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을 편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특별히 새로운 민속 백과사전 발간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 민속상징사전이 그것인데 이는 한국 민속에 반영되어 있는 문화적 상징에 대해 해설하는 사전으로 흥미롭고 재미로운 우리 민속 이야기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해설하였습니다.

올해는 한국민속상징사전의 첫 번째로 호랑이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민속 자료에 표현된 호랑이의 상징성을 집성하였고 호랑이의 생태와 관련한 해설부터 신성과 벽사, 설화 속에 등장하는 호랑이, 용어와 표상 속에 표현된 호랑이에 관한 해설까지 우리 문화 속에서 표현되고 다루어지고 이야기되는 호랑이의 상징성에 대해 다각적이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하였습니다.

한국민속상징사전은 띠 시리즈를 시작으로 앞으로 그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한국의 민속학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는 계기일 뿐 아니라 새로운 관심과 연구를 촉진하는 창조의 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사전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집필자와 감수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관계 기관과 사전이 나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국립민속박물관장 김종대

발간 개요

국립민속박물관의 한국민속상징사전은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 속한 것으로 2021년 첫 발간을 시작하였다.

올해 발간한 <한국민속상징사전> '호랑이 편'은 표제어 107항목, 원고지 1,500매, 사진 370여 장으로 구성하였다. 사진 자료는 집필자로부터 이용권을 구입한 사진과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사진, 타 기관에서 제공한 사진을 활용하였다.

이 사전은 관내·관외의 민속 상징 관련 연구 분야 전문가들에게 사전편찬팀에서 선정한 표제어의 적합성을 검증 받았고, 여기에서 빠진 중요한 표제어를 추천 받는 등의 도움을 받았다. 또한 민속 상징 관련 분야를 전공한 55명의 연구자가 원고를 집필하였다.

수합한 원고는 사전편찬팀의 검수를 받은 후 전문가의 교정·교열·윤문을 거쳤다. 최종 원고는 민속 분야에서 출중한 연구 업적을 쌓은 외부 학자의 감수를 거쳤으며 감수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한 원고는 수정·보완하여 사전의 신뢰성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사전에서는 범주를 크게 호랑이의 생태와 역사, 신성과 벽사의 호랑이, 설화 속 호랑이, 용어와 표상으로 나누어 정리·해설하였다.

사전은 발간사와 발간개요, 일러두기와 목차, 그리고 본문과 색인으로 구성하였다. 표제어 배열은 분야별 구성을 하였으며, 가나다 차례도 배치하여 가나다순으로 표제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집필자란을 마련하여 필자별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일러두기

사진의 전체 구성

〈한국민속상징사진: 호랑이 편〉은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어 선정 및 범주

1. 표제어는 〈한국민속상징사진: 호랑이 편〉에 독립 항목으로 배열되는 단어를 말한다.
2. 표제어는 호랑이의 생태와 역사, 신성과 벽사의 호랑이, 호랑이가 깃든 물건, 설화 속 호랑이, 용어와 표상의 범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3. 이 사진에서 사용되는 표제어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따랐다.

표제어 배열 및 목차

1. 본문에서의 표제어 배열은 분야별로 하였고, 각 분야 내에서의 배열은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2. 추가로 가나다순 목차를 구성하여 분야별 목차 뒷부분에 배치하였다.

표기방법

맞춤법과 표기법은 기본적으로 현행 교육과학기술부 규정 〈한글맞춤법통일안〉(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과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2008년 10월 발간)을 따랐다.

사진과 자료

사진, 도표, 삽화 등 내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는 본문의 해당 부분에 첨부하고 그 출처 또는 소장처(제공처) 등을 밝혔다.

부록

부록에는 우리 문화에 반영된 호랑이에 대해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1.국립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호랑이 관련 유물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고, 2.우리나라에 전래되는 호랑이 관련 설화를 지역별로 정리해 수록하였으며(한국구비문학대계 기준), 3.호랑이가 등장하는 속담과 고사성어를 수록하였다. 4.또한 1920년대 이후의 신문에 등장하는 호랑이 관련 소식을 정리·수록 하였으며, 5.영화, 드라마, 도서, 음악 등 대중매체에 등장한 호랑이 관련 목록을 수록하였다.

색인

표제어 및 표제어에 준하는 용어들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해당 쪽수를 기재하여 본문에서 찾아보기 쉽게 하였다.

필자

필자의 성명과 소속 그리고 집필한 표제어와 해당 쪽을 기재하여 필자란을 통해서도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016

호랑이의 생태와 역사

Ecology and History of the Tiger

054

신성과 벽사의 호랑이

Divinity and Purification through the Tiger

128

호랑이가 깃든 물건

Objects with Tiger Motifs

172

설화 속 호랑이

The Tiger in Folk Tales

244

용어와 표상

Terms and Symbols

268

부록

Appendix

목 차

Contents

수
록
순

호랑이의 생태와 역사

Ecology and History of the Tiger

· 호랑이의 생태와 역사	019
· 라이거	022
· 백두산호랑이	023
· 백호기	026
· 범골	029
· 범바위	030
· 복호	031
· 정호기	032
· 착호갑사	036
· 포호정책	038
· 한국표범	040
· 해수구제사업	043
· 호동	044
· 호랑이굴	045
· 호랑이벽화	046
· 호랑이포수	048
· 호암사	052
· 호암산	053

신성과 벽사의 호랑이

Divinity and Purification
through the Tiger

· 신성과 벽사의 호랑이	057
· 공주동해리산신제	060
· 금산진악산물굴봉기우제당	064
· 금산천내리용호석	067
· 밀양 용호놀이	070
· 백호	073
· 사신	076
· 사신반혼굿	079
· 산맥이	081
· 산신	088
· 삼재부적	092
· 삼척갈남마을백호서낭제	094
· 상인일	097
· 애호	099
· 제호이위신	100
· 창귀	101
· 청양 범놀이	103
· 침호두	105
· 태백황연동유령산령당	107
· 호랑이띠	111
· 호랑이부적	113
· 호살랑굿	116
· 호서낭	120
· 호식장	123
· 호탈굿	124

호랑이가 깃든 물건

Objects with Tiger Motifs

· 호랑이가 깃든 물건	131
· 까치호랑이	136
· 상여장식	142
· 어	145
· 용호문배도	147
· 호건	149
· 호골	151
· 호랑이발톱노리개	153
· 호랑이연고	155
· 호랑이풀	156
· 호랭이술	158
· 호랑이흉배	160
· 호석	164
· 호수	166
· 호자	168
· 호피	169



설화 속 호랑이

The Tiger in Folk Tales

· 설화 속 호랑이	175	· 호랑이 눈썹	223
· 강감찬	178	· 호랑이 배 속 구경	224
· 개가하지 않은 며느리	181	· 호랑이 별주부 상면 대목	225
· 도운 호랑이		· 호랑이 잡은 기름강아지	229
· 견훤	183	· 호랑이 잡은 비루먹은 강아지	230
· 광개우	186	· 호랑이가 잡아준 명당	231
· 김현감호	188	· 호랑이로 변한 남편	233
· 김호랑이굴	189	· 호랑이와 꽃감	234
· 꼬리 잘린 호랑이	191	· 호랑이의 보은	235
· 나도밤나무	192	· 호랑이형님	238
· 남매탑	193	· 호식당할 운명	240
· 단군신화	195	· 효부와 호랑이	241
· 메추라기의 꿈지	198	· 효자 태워 나른 호랑이	243
· 문자 쓰다 장인 잃은 사위	199		
· 반쪽이	201		
· 변신한 호랑이를 물리친 사람	203		
· 사람을 사랑한 호랑이	204		
· 시묘살이 도와준 호랑이	206		
· 신립	208		
· 여름에 홍시 구한 효자	212		
· 여자 음부 보고 도망간 호랑이	213		
· 임지한	214		
· 춤추는 호랑이	216		
· 토끼의 재판	217		
· 팔죽할멈과 호랑이	219		
· 해와 달이 된 오누이	221		

용어와 표상

Terms and Symbols

· 호랑이 관련 용어와 표상	246
· 구시월 도지는 호랑이도	250
· 무서워한다	
· 범이 불알을 동지에 열구고	250
· 입춘에 녹인다	
· 산중호걸	251
· 수호랑	252
· 오뉴월 손님은 호랑이보다	253
· 무섭다	
· 이빨 빠진 호랑이	253
· 조선표상화	254
· 종이호랑이	256
· 호돌이	257
· 호랑이꿈	259
· 호랑이선생님	261
· 호랑이 장가 가는 날	262
· 호열자	262
· 호환	265

부록

Appendix

· 호랑이 문화재	270
· 호랑이 이야기	298
· 우리말 속 호랑이	312
· 호랑이 소식	322
· 대중매체 속 호랑이	330
· 색인	342
· 필자	349

목 차

Contents

가
나
다
순

————— 기역 —————	
ㄱ	
강감찬	178
개가지지 않은 며느리 도운 호랑이	181
견훤	183
공주동해리산신제	060
곽재우	186
구시월 도지는 호랑이도 무서워한다	250
금산진악산물골봉기우제당	064
금산천내리용호석	067
김현감호	188
김호랑이굴	189
까치호랑이	136
꼬리 잘린 호랑이	191
————— 니은 —————	
ㄴ	
나도밤나무	192
남매탑	193
————— 디귤 —————	
ㄷ	
단군신화	195
————— 리을 —————	
ㄹ	
라이거	022

————— 미음 —————	
ㅁ	
매추라기의 꿈지	198
문자 쓰다 장인 잃은 사위	199
밀양 용호놀이	070
————— 비음 —————	
ㅂ	
반쪽이	201
백두산호랑이	023
백호	073
백호기	026
범골	029
범바위	030
범이 불알을 동지에 얼구고 입춘에 녹인다	250
변신한 호랑이를 물리친 사람	203
복호	031
————— 시옷 —————	
ㅅ	
사람을 사랑한 호랑이	204
사신	076
사신반흔굿	079
산맥이	081
산신	088
산중호걸	251
삼재부적	092
삼척갈남마을백호서낭제	094
상여장식	142
상인일	097
설화 속 호랑이	175
수호랑	252
시묘살이 도와준 호랑이	206
신립	208
신성과 벽사의 호랑이	057
————— 이음 —————	
ㅇ	
애호	099
어	145
여름에 흥시 구한 효자	212

여자 음부 보고 도망간 호랑이	213
오뉴월 손님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253
용호문배도	147
이빨 빠진 호랑이	253
임지한	214
————— 지읒 —————	
ㅈ	
정호기	032
제호이위신	100
조선표상화	254
종이호랑이	256
————— 치읓 —————	
ㅊ	
착호감사	036
창귀	101
청양 범놀이	103
춤추는 호랑이	216
침호두	105
————— 티을 —————	
ㅌ	
태백황연동유령산령당	107
토끼의 재판	217
————— 피을 —————	
ㅍ	
팔죽할멈과 호랑이	219
포호정책	038
————— 히읓 —————	
ㅎ	
한국표범	040
해수구제사업	043
해와 달이 된 오누이	221
호건	149
호골	151
호돌이	257
호동	044
호랑이 관련 용어와 표상	246

호랑이 눈썹	223
호랑이 배 속 구경	224
호랑이 별주부 상면 대목	225
호랑이 잡은 기름강아지	229
호랑이 잡은 비루먹은 강아지	230
호랑이 장가 가는 날	262
호랑이가 깃든 물건	131
호랑이가 잡아준 명당	231
호랑이굴	045
호랑이꿈	259
호랑이띠	111
호랑이로 변한 남편	233
호랑이발톱노리개	153
호랑이벽화	046
호랑이부적	113
호랑이선생님	261
호랑이연고	155
호랑이와 꽃갑	234
호랑이의 보은	235
호랑이의 생태와 역사	019
호랑이포수	048
호랑이풀	156
호랑이형님	238
호랑이흉배	160
호랭이술	158
호살랑굿	116
호서낭	120
호석	164
호수	166
호식당할 운명	240
호식장	123
호암사	052
호암산	053
호열자	262
호자	168
호탈굿	124
호피	169
호환	265
효부와 호랑이	241
효자 태워 나른 호랑이	243

호랑이의 생태와 역사

Ecology and History of the Tiger

- 상여장식
- 상인일
- 설화 속 호랑이
- 수호랑
- 시묘살이 도와준 호랑이
- 신림
- 신성과 벽사의 호랑이
- 애호
- 어
- 여름에 홍시 구한 호자
- 여자 음부 보고
- 도망간 호랑이
- 오뉴월 손님은
- 호랑이보다 무섭다
- 용호문배도
- 이빨 빠진 호랑이
- 입지한
- 정호기
- 제호이위신
- 조선표상화
- 종이호랑이
- 착호갑사
- 창귀
- 청양 범놀이
- 츄츄는 호랑이
- 침호두
- 태백황연동유령산령당
- 토끼의 재판
- 팔죽할멈과 호랑이
- 포호정책
- 한국표범
- 해수구제사업
- 해와 달이 된 오누이
- 호건
- 호골
- 호들이
- 호동
- 호랑이 관련 용어와 표상
- 호랑이 눈썹
- 호랑이 배 속 구경
- 호랑이 별주부 상면 대목
- 호랑이 잡은 기름강아지
- 호랑이 잡은 비루먹은 강아지
- 호랑이 장가 가는 날
- 호랑이가 깃든 물건
- 호랑이가 잡아준 명당
- 호랑이굴
- 호랑이꿈
- 호랑이띠
- 호랑이로 변한 남편
- 호랑이발톱노리게
- 호랑이벽화
- 호랑이부적
- 호랑이선생님
- 호랑이연고
- 호랑이와 꽃감
- 호랑이의 보은
- 호랑이의 생태와 역사
- 호랑이포수
- 호랑이풀
- 호랑이형님
- 호랑이홍배
- 호랭이술
- 호실랑곳
- 호서낭
- 호석
- 호수
- 호식당할 운명
- 호식장
- 호암사
- 호암산
- 호열자
- 호자
- 호탈곳
- 호피
- 호환
- 호부와 호랑이
- 호자 태워 나른 호랑이
- 강감찬
- 개가하지 않은 떠느리
- 도운 호랑이
- 견훤
- 공주동해리산신제
- 곽재우
- 구시월 도지는 호랑이도
- 무서워한다
- 금산진악산물골봉기우제당
- 금산친내리용호석
- 김현감호
- 김호랑이굴
- 가치호랑이
- 꼬리 잘린 호랑이
- 나도밤나무
- 남매탑
- 단군신화
- 라이저
- 매추라기의 꿈지
- 문자 쓰다 장인 잃은 사위
- 밀양 용호놀이
- 반쪽이
- 백두산호랑이
- 백호
- 백호기
- 범골
- 범바위
- 범이 불알을 동지에 열구고
- 입춘에 녹인다
- 변신한 호랑이를 물리친 사람
- 복호
- 사람을 사랑한 호랑이
- 사신
- 사신반흔곳
- 산맥이
- 산신
- 산중호걸
- 삼재부적
- 삼척갈남마을백호서낭제

史奏邇來猛虎入選軍兵刑部興國寺及閣
 宮中毅宗元年七月壬申夜虎入選軍太
 獐入兵部前路十五年二月辛丑狐鳴壽昌
 狐鳴都省廳及大倉北垣十一年五月丙寅
 戊午虎入太子行宮仁宗七年十月丙戌
 年十一月虎入都城多害人物十三年二月
 呼亭壬寅京畿多虎命軍士捕之睿宗六
 入城中害人八年十一月戊戌虎入禁苑山
 月虎屢入京城肅宗六年十二月癸卯虎

호랑이의 생태와 역사

강경표(국립민속박물관)

호랑이, 한국호랑이

호랑이 *Panthera tigris*는 고양이과에 속하는 대형 포유류이다. 19세기 후반까지 아홉 아종(亞種, Subspecies)의 호랑이가 존재하였으나 그중 네 아종이 멸종하여 현재 벵골·시베리아(아무르)·인도차이나·수마트라·말레이 등 모두 다섯 아종이 존재한다. 이 중 시베리아 동부,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 동북부에 걸쳐 서식하는 시베리아 호랑이(Siberian tiger) (아무르호랑이 *P. tigris altaica*, Amur tiger로도 불림)가 한반도에 살았던 백두산호랑이, 즉 한국호랑이라고 알려져 있다.

호랑이 중에서도 가장 큰 한국호랑이(시베리아호랑이 종)는 주로 해발 500~800m의 높지 않은 산림지대에 서식하며, 보통 하루에 80~100km를 이동하여 영역을 순찰한다. 관련 연구를 보면 한국호랑이의 생활면적은 수컷 호랑이의 경우 약 1,385km²의 영역을, 암컷의 경우 성공적으로 새끼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250~450km²의 영역을 필요로 한다. 즉 전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이며, 산맥으로 연결된 한반도는 호랑이의 서식조건과 맞아 오래전부터 한반도에는 우리 민족과 호랑이가 함께 살아왔다. 이는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의 역사서와 고대부터 그려져 내려온 벽화 그리고 민간에서 전승되어 온 설화 등을 통해 확인된다.

농지개간과 포호정책(捕虎政策)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산지를 영역으로 삼으며 한반도를 호령하던 호랑이는 조선시대에 들어서며 개체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조선이 민본주의를 국가의 이념으로 삼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농본주의를 구체화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은 백성에게 생업의 터전인 농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 농지개간을 시작하였다. 조선이 산을 개간하며 농경지를 확대하자 호랑이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었다. 호랑이는 같은 종족이라 해도 영역 내 침범을 허용하지 않는 동물이기에 농지개간은 호랑이가 사람을 해하는 일이 많아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호환(虎患)이 증가하고 가축 피해 또한 커지자 조선왕조는 호랑이를 잡아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포호정책을 펼쳤다. 포호 활동을 위한 군사적 기반으로 착호군(捉虎軍) 제도를 두었는데, 중앙에는 최정에 특수부대 착호감사(捉虎監士)를 설치하였고, 지방에는 호랑이 사냥 전문가 착호인(捉虎人)을 두어 호환을 방지하였

다. 이후 총포가 보급되면서 호랑이 사냥이 보다 쉬워졌다. 전보다 호랑이의 수가 많이 줄게 되자 착호군 제도는 18세기 후반 폐지되었다.

해수구제(害獸驅除), 호랑이 멸종

조선시대 한반도에서 호랑이의 개체 수가 많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1900년대 초까지도 꽤 많은 수의 호랑이가 한반도에 살고 있었다. 필요에 따라 개체 수를 감소시켰지만, 공생을 지향한 것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일본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짐승을 잡아 없앤다는 명목으로 해수구제(害獸驅除) 사업을 진행하였고, 우리나라에서 호랑이는 절멸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실제로 일본이 자행한 조선 호랑이 사냥은 『정호기(征虎記)』(1918)라는 책으로도 남아 있다. 기록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사업가 야마모토 다다사부로(山本唯三郎)는 조선의 호랑이를 사냥하기 위해 호랑이 포수들을 모아 '정호군'을 창설하였고, 조선에서 호랑이 사냥을 즐겼다. 그의 저서 『정호기(征虎記)』를 보면 사냥의 목적은 일제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정치적 행사였다. 그는 일본 내 유력인사들을 초청해 한국호랑이 고기 시식회를 열며 “저희가 일본의 영토(일본에 병탄된 한반도) 내에서 호랑이를 잡아 왔습니다.”라고 연설하였다. 『조선총동부통계연보(朝鮮總督府統計年報)』에 따르면 이렇게 23년 동안 죽임을 당한 호랑이는 141마리이다. 그 결과 백두대간을 호령하던 한국호랑이는 1921년 경상북도 경주 대덕산 기슭에서 마지막으로 포획된 기록 이후 자취를 감추었다.

지명 속 호랑이

한반도에서 야생 한국호랑이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한반도 곳곳에 지명으로 남았다. 국토지리정보원이 경인년(庚寅年)을 맞아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전국의 자연지명을 살펴봤을 때 10만 509개 중 호랑이 관련 지명은 0.4%인 389개로 나타났다. 호랑이 관련 지명은 대부분 단독(60%)으로 불리었는데 40%는 중복으로 나타났다. 그 예로 '범바위'가 전국에서 23곳으로 우리나라 호랑이 지명 중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지명은 호암·호동·범골·호암산·복호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74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상북도가 71개, 경상남도가 51개 등의 순이었다. 종류별로는 마을 명칭이 284개, 산의 명칭이 47개, 고개 명이 28개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호랑이 지명의 유래를 보면 호랑이의 형상과 관련한 것이나 출현설화와 관련한 것이 있다. 호랑이 형상과 관련하여서는 총 230개, 출현설화와 관련하여서는 총 157개의 지명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을 보면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이 가장 많다. 또한 호랑이 울음소리가 나는 동네라는 지명 유래도 있고, 마을의 모양이 호랑이 형상과 비슷하다고 하여 지명으로 쓰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우리나라 지명 속에 살아있는 호랑이 이야기(국토해양부, 2009), 호랑이의 생태와 관련민속(오창영 외, 국립민속박물관, 1997),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호랑이(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네이버 지식백과 terms.naver.com), 한국호랑이·아무르호랑이는 한 짝줄(이근영, 한겨레, 2012.2.7.), 한반도의 호랑이는 왜 사라졌을까(박태해, 세계일보, 2009.12.15.), 한국콘텐츠진흥원(culturecontent.com), EBS(ebs.co.kr), YTN사이언스(science.ytn.co.k).

라이거

liger

수사자와 암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난 이종 간 잡종 고양이과 동물.

개관 라이거(liger=lion+tiger)는 고양이과 동물이며, 같은 속Genus *Panthera*에 속하는 대형 포유류 동물인 호랑이·사자·표범·재규어는 자연환경에서 같은 지역에 사는 경우가 있더라도 야생에서 이종 간에 교배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인위적인 환경에서 함께 키우고 다른 배우자를 선택할 수 없게 되면 때로는 서로 교배하여 이종 간 잡종 동물을 생산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 중 수사자와 암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난 잡종 동물을 라이거라 하고 수호랑이와 암사자 사이에 태어난 동물을 타이곤(tigon=tiger+lion)이라 한다.

내용 사자는 주로 아프리카 대륙에, 호랑이는 주로 아시아 대륙에 서식한다. 이렇듯 서식지가 다르고 행동 양상도 다르기 때문에 두 종이 야생에서 만나 교배할 일은 거의 없다. 따라서 라이거와 같은 중간 잡종 동물은 모두 동물원과 같은 인위적 환경에서 태어난다. 타이곤에 비해 라이거는 성격이 온순한 편이고, 부모인 사자나 호랑이보다 훨씬 몸집이 크다. 전체적인 털 색깔은 연한 황갈색으로 사자를 닮았으나 동시에 호랑이의 줄무늬를 갖는 특이한 외양으로 인해 일부 동물원에서 인기 있는 동물이었다. 수라이거는 생식능력이 없으나 암라이거는 생식능력이 있는 경우도 있다. 암라이거와 수사자 사이에 태어난 새끼를 라일라이거(liliger=lion+liger)라고 한다.

특징 및 의의 라이거나 타이곤 같은 대형 고양이과 동물의 이종 간 잡종은 비만·기형·질병에 대한 취약성 등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짧으며, 사자나 호랑이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행동 양식을 보이므로 이들의 사회에 교란을 가져온다. 이에 따라 최근 라이거 같은 인위적인 잡종 동물 생산은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고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커져 권위 있는 동물원에서는 더 이상 라이거나 타이곤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 일부 동물원에서 라이거를 생산하여 전시한 일이 있으나 이후 라이거 생산은 중단되었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Interspecific Hybrids of Animals in Nature, Breeding and Science - A Review(Julia Gabrys et al, Annals of Animal Science21-2, De Gruyter, 2021).

필자 이항(李恒)

백두산호랑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일대에 역사적으로 서식하였거나 현재 서식하고 있는 호랑이 아종 중 하나.

개관 한반도 전체를 비롯하여 중국 동북지역과 극동 러시아 지역에 걸쳐 과거에 분포하던 호랑이 아종을 학명으로는 *Panthera tigris altaica*라 하고, 한국에서는 ‘백두산호랑이’나 ‘한국호랑이’ 또는 ‘한국범’이라고 한다. 현재는 러시아 연해주와 중국·북한·러시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약 500마리의 개체군이 생존해 있다.

국가, 지역, 시대, 사회에 따라 같은 아종의 호랑이를 다른 이름으로 지칭해 왔다. 세계적으로는 시베리아호랑이로 일반인들에게 더 널리 알려져 있으나 실제 러시아에서 시베리아로 알려진 지역에는 현재 호랑이가 서식하지 않으므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현재는 극동 러시아의 아무르강과 우수리강 유역이 주 서식지이기 때문에 아무르호랑이 또는 우수리호랑이가 더 적합한 명칭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는 한반도와 백두산 일대가 주 서식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백두산호랑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호랑(이)’이라는 용어는 한자의 호(虎)와 랑(狼, 즉 범과 이리(늑대)를 합쳐 만들어진 단어이다. 본래는 무서운 동물을 의미하는 일반적 단어였으나 후대로 가면서 범이라는 특정 동물을 일컫는 단어로 굳어졌다. ‘범’은 호랑이를 의미하는 순수한 우리말이다. 때로는 표범(돈범)과 구별하기 위해 호랑이를 갈범 또는 칩범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범은 호랑이라는 단일 종의 동물을 의미하기도 하였으나 때로는 호랑이와 표범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범의 새끼를 ‘개호주’ 또는 ‘갈가지’라고 하며, 호랑이의 별칭으로 대충(大蟲·병표)炳豹·산군(山君)이라는 한자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내용 전 세계에서 호랑이는 아시아 대륙에만 분포해 있었는데, 아시아의 호랑이는 20세기 초까지 모두 9개 아종(subspecies)이 존재하였다. 이 중 4개 아종(발리, 자바, 카스피, 남중국 호랑이)은 야생에서 멸종되었고, 5개 아종(벵골, 아무르, 인도 차이나, 수마트라, 말레이 호랑이)만이 현재 남아 있다. 100년 전 한반도에 살았던 호랑이 뼈의 표본에서 추출한 DNA를 분석한 유전학적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백두산호랑이가 극동 러시아의 아무르호랑이와 동일한 아종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한반도, 중국 동북부, 러시아 극동지역에 서식했던 호랑이들은 사실상 모두 같은 혈통으로 하나의 유전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호랑이는 한반도에서 적어도 10만 년 이상 사람과 함께 살아왔다. 충청북도 청원군(현재 충북 청주시) 두루봉 동굴유적에서 발견된 호랑이 뼈는 최소 12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된다. 오랜 기간 한민족과 함께한 호랑이가 한반도에서 사라진 것은 20세기 후반의 일이다. 일제강점기 해수구제(海獸驅除) 정책이 한반도에서 호랑이의 절멸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나, 그 이전 500년 간에 걸친 조선시대 포호정책(捕虎政策)도 한반도 호랑이 개체군의 쇠퇴에 큰 영향을 미쳤다.

호랑이는 식육목 고양이과 동물의 한 종이며, 황갈색 바탕에 몸의 아래위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짙은 갈색 줄무늬는 외관상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 암수 호랑이가 번식기에 함께 지낼 때, 그리고 암호랑이가 새끼를 키울 때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단독 생활을 한다. 호랑이는 그 서식 지역과 이종에 따라 그리고 개체에 따라 몸 크기, 바탕 및 줄무늬 색깔, 털 길이 등이 많이 다르다.

백두산호랑이는 모든 호랑이 아종 중 눈이 오는 추운 아시아 북방의 혹독한 기후에 적응한 유일한 아종으로, 털 색깔이 연하고 겨울털이 길며 몸집이 가장 큰 아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도의 벵골호랑이가 아무르호랑이보다 큰 경우도 있다. 수컷은 몸통 길이 190~230cm에 몸무게 180~300kg 정도이고, 암컷은 몸통 길이 160~180cm에 몸무게 100~170kg 정도이다.

호랑이는 나무 또는 덤불 등 주변 환경을 이용해 먹잇감 곁으로 몰래 다가가거나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불시에 공격하는 습격형 포식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은폐물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리를 지어 사냥을 하는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와 달리 호랑이는 사방이 트인 곳에 서식하지 않는다. 백두산호랑이의 주된 먹잇감은 멧돼지와 중대형 사슴류이지만, 때로 너구리·오소리·들개 같은 작은 동물을 사냥하기도 한다.

흔히 알려진 바와 달리 백두산호랑이는 험준한 산악지역보다는 평지 내지 구릉지를 서식지로 선호한다. 다만 이렇게 평탄하고 낮은 지역은 대부분 사람에게 의해 이미 개발되었기 때문에 산악지역으로 쫓겨 들어간 것이다. 참나무 또는 잣나무가 풍부한 숲에는 먹이동물인 사슴과 멧돼지가 많기 때문에 호랑이 역시 이런 활엽수림 또는 혼효림을 좋아한다. 또한 호랑이는 고양이과 동물 중 물을 마다하지 않고 헤엄을 잘 치는 동물에 속한다. 한반도의 여러 섬에서도 호랑이가 물을 오가며 서식한 많은 예가 있다.

한반도에서 한민족의 역사가 시작된 후, 호랑이와 한민족은 수천 년간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생각된다. 호랑이를 제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조선 건국 이후였다. 조선은 호환(虎患)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포호정책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16세기 초까지 호랑이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양란을 거치며 일시 증가하였으나 이후 조선 말기까지 낮은 서식 밀도를 유지하였다는 여러 증거가 존재한다.

한반도에서 호랑이의 명줄이 완전히 끊긴 것은 일제강점기였다. 일제는 해수구제정책, 즉 식민지 백성을 해로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맹수 사냥에 나섰고, 결국 1920년대에 호랑이는 일부 북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 땅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된다. 남한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호랑이가 잡힌 것은 1940년대였으며, 북한에서는 1987년 자강도에서 잡힌 수컷 호랑이가 마지막으로 포획된 호랑이였다.

조선과 일제가 호랑이 포획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단지 호환 예방의 목적만은 아니었다. 때로 호랑이 사냥은 군사훈련의 한 방식이기도 하였고, 값비싼 호피와 호랑이 뼈·고기 등 약재를 얻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전쟁 중이 아닌 시기, 출세하거나 돈을 벌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호랑이 포획이었다. 일제가 한민족의 기를 제거하기 위해 호랑이를 절멸시켰다는 주장이 있으나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한반도에서 호랑이 사냥을 일본 제국주의 이념 확산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특징 및 의의

호랑이는 청동기시대에 그려진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서부터 한민족의 문화에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고구려 고분 벽화의 사신도(四神圖)를 비롯하여 민화화 그림·장식품·석상·속담·전설·설화 등에 빈번히 나타난다. 한국인은 수천 년 동안 호랑이와 함께 살아오면서 호랑이의 엄청난 파괴력을 두려워하고 또 부러워하였으며, 그 힘과 용맹을 사랑하였다. 호랑이는 영험한 동물로 대접받았으며, 산신령 또는 산군(山君)으로서 산신각에 모셔졌다. 최남선(崔南善, 1890~1957)은 우리나라만큼 호랑이 이야기가 많은 나라는 없다고 하여 호담국(虎談國)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한반도에서 호랑이는 사라졌으나 그 역사·민속·언어·문화적 상징성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3/4 이상은 호랑이를 대한민국의 상징동물로 생각하고 있다. 호랑이는 서울올림픽대회(1988)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2018)의 마스코트였다. 또한 도쿄올림픽대회(2020) 한국선수단의 캐치프레이즈는 〈범 내려온다〉였다. 이는 이날치밴드가 판소리를 현대적 팝으로 재해석하여 전 세계에서 폭발적 반응을 얻은 퓨전 국악 〈범 내려온다〉에서 차용한 것이다.

모든 민속·문화적 상징성은 그 실물이 존재할 때 빛을 발한다. 일반적으로 백두산호랑이의 실체는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한반도에서 호랑이가 사라졌다고 백두산호랑이의 명맥이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니다. 북한·러시아·중국

접경지역 그리고 극동 러시아 지역에 아직도 약 500마리로 이루어진 백두산호랑이 개체군이 생존해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중국 당국은 이 호랑이와 표범 개체군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에 광범위한 대규모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적극적인 보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이 지역의 호랑이 개체군은 중국 내륙 쪽으로 급속히 확장하고 있으며, 머지않은 장래에 북한 지역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접경지역 호랑이 개체군이 살아 있는 한 미래 한반도에 호랑이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국내에서도 북한-러시아-중국 접경지역 호랑이 보호와 확산을 지원하는 비정부기구가 활동하고 있다.

참고문헌 정호기(山本唯三郎, 이은옥 역, 에이도스, 2014), 조선전기 포호정책 연구—농지개간의 관점에서(김동진, 선인, 2009),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遠藤公男, 이은옥 역, 이담북스, 2009), Mitochondrial Phylogeography Illuminates the Origin of the Extinct Caspian Tiger and Its Relationship to the Amur Tiger(Driscoll CA et al, PLoS one4, Public Library of Science, 2009), Subspecific Status of the Korean Tiger Inferred by Ancient DNA Analysis(Mu-Yeong Lee et al, Evolution and Diversity28-1, Animal Systematics, 2012).

필자 이항(李恒)

백호기

白虎旗

국왕을 상징하는 의장기의 하나로서 백호(白虎)를 그려 넣은 깃발.

내용 백호는 천상의 4대 신수(神獸) 내지 성수(聖獸) 중 하나이다. 오행(五行) 중 금을 관장하고, 오방(五方) 중 서방(西方)을 주재하며, 계절 중 가을을 다스리는 신령이다. 백호를 비롯한 청룡·주작·현무의 사신(四神) 개념이 형성된 것은 중국 전국시대 말기부터 전한(前漢) 시기 사이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고분인 무용총의 벽과 천장에 그려진 사신도에서 백호가 처음 확인되었다.

사신 신앙은 동양 천문학의 28수(宿)와 결합하여 사신이 7수씩을 나누어 통솔한다고 여겼다. 청룡이 동방칠수, 백호가 서방칠수, 주작이 남방칠수, 현무가 북방칠수를 거느리며 동서남북 하늘을 주재한다. 이처럼 백호는 서쪽 하늘의 수호신으로서 서방칠수(西方七宿)를 통솔한다. 서방칠수는 서쪽 하늘의 7구역에 포진한 별자리들로서 모두 56좌 298성으로 구성되는데, 마치 서쪽 하늘에서 백호가 위용을 드러내며 포효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백호는 백색으로 상징되며, 정의·위엄·용맹·권선징악의 화신으로서 귀물들을 굴복시키고 재앙을 물리치며 풍년을 불러오는 능력으로 인해 음(陰)의 신수를 대표한다. 동양에서는 일찍이 호랑이를 백수의 왕으로 여겼는데, 백수의 왕인



백호기 | 전체길이189 전체높이176 | 조선 말기 | 국립고궁박물관

호랑이가 500세를 넘기면 온몸의 털이 백색으로 변하여 신물인 백호가 된다고 믿었다. 백호는 전신(戰神)으로 인식되었고, 종종 청룡과 짝을 이루어 청룡의 뒤를 구름이 따르고 백호의 뒤를 바람이 따르는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하였다. 백호는 제왕이 덕정을 베풀거나 태평성대가 도래하면 출현한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백호의 관념이 국왕의 의장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백호기이다. 의장기로 출현한 것은 『신당서(新唐書)』의 황제 의장에서 확인되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사(高麗史)』 여복지(興服志)에 나타난다. 조선시대의 백호기는 고려시대의 의장을 계승한 것으로 이해된다. 백호기는 국왕을 상징하는 오방기 중 하나로 국왕의 행차 때 쓰이는가 하면, 국왕이 직접 군대를 훈련할 때 우군(右軍)·우위(右衛)·우영(右營)을 지휘하는 깃발로 쓰였다. 이때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백호기는 ‘깃발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고 해서 형명(形名)이라고 하였다.

『세종실록(世宗實錄)오례의(五禮儀)』 「가례서(嘉禮序例)」 노부(鹵簿)에 따르면 백호기는 백색 바탕에 백호(白虎)와 운기(雲氣)를 그리고, 청색·적색·황색·백색의 네 빛깔로 채색하며, 삼각의 화염각(火焰脚) (의장용 깃발의 사방 가장자리에 덧붙이는 불꽃 모양의 장식용 천)을 달았다. 깃대(旗竿)는 검은빛 칠을, 간두(竿頭)의 둥근 봉은 붉은 빛 칠을 하고, 아래쪽의 끝은 쇠로 장식하였다. 백호기의 이러한 형태는 『세종실록』 「오례」를 거쳐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제도화된 뒤 대한제국 때 편찬한 『대한예전(大韓禮典)』에까지 그대로 나타난다. 다만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의 단계에서 백호기는 가로가 세로보다 더 큰 직사각형 형태에서 방형(方形)으로, 간

두에 등근 봉 대신 삼지창 형태의 지극枝戟으로 바뀌었으며, 소꼬리의 털로 장식되었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 중인 백호기는 흰 바탕에 백호白虎와 운기雲氣가 그려져 있고, 가장자리와 화염각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다. 백호는 허리에 날개가 돋치고 다리에 상서로운 기운이 사슴뿔 모양으로 표현되어 마치 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또한 백호의 주위로 청색·적색·녹색·황색으로 채색된 2개의 구름 문양이 둘러싸고 있다. 상단과 하단, 한쪽 측면에는 노란색의 화염각을 부착하고, 다른 쪽 측면에는 4개의 끈이 달린 황색 기각旗脚을 잇대었다. 깃대의 길이는 15사이고, 그 밖에 영두纓頭·주락珠絡·장목(뿔의 끈지깃)이 있었다. 이 유물은 『대한예전』에 실려 있는 백호기와 다른 모습이나, 화염각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 대한제국 때 실제로 사용된 백호기로 짐작된다. 군주 또는 황제를 상징하는 백호기는 국가 의장으로만 사용되었을 뿐 왕세자의 의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백호는 일찍이 풍수지리설에서는 서쪽의 산이나 기운을 뜻한다. 즉 마을과 택지 및 묘지의 위치를 정할 때 높은 산을 주산으로 보면, 주산을 후편에 두었을 때 주산에서 서쪽으로 갈라져서 뻗어 나가는 산을 일컫는다. 이처럼 백호가 민간의 풍수지리에서 많이 쓰였으나 백호기의 형태가 민간에서 사용된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특징 및 의의

백호기는 바탕에 백호를 그려 넣은 깃발이다. 백호기는 크게 의장용儀仗用과 의물용儀物用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의장용 백호기는 대가의장大駕儀仗, 법가의장法駕儀仗, 소가의장小駕儀仗으로 구분되어 국왕 행차 때 군사들이 사용하는 깃발이다. 의물용 백호기는 종묘제례 때 <정대업定大業>처럼 무용수들이 춤을 출 때 쓰는 소품용 깃발이다. 흔히 백호기라고 하면 의장용 백호기를 말한다. 백호기는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문헌상 확인되는 것은 고려시대에 처음 나타난다. 국왕의 행차에 사용된 백호기는 조선왕조에 들어와 『세종실록오례世宗實錄五禮』를 거쳐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제도화되었으며, 『대한예전大韓禮典』에 실려 대한제국 말까지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高麗史, 國朝續五禮儀, 國朝五禮儀序例, 大韓禮典, 文獻通考, 世宗實錄五禮儀, 春官通考, 通典, 고려시대 법가노부의 구성과 운용(이민기, 한국중세사연구48, 한국중세사학회, 2017), 왕실문화도감-의장(국립고궁박물관, 2018), 조선전기 국왕 의장제도의 정비와 상징(강제훈, 사총77,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2), 조선시대 왕실문화 도해사전(kyujanggak.snu.ac.kr/doh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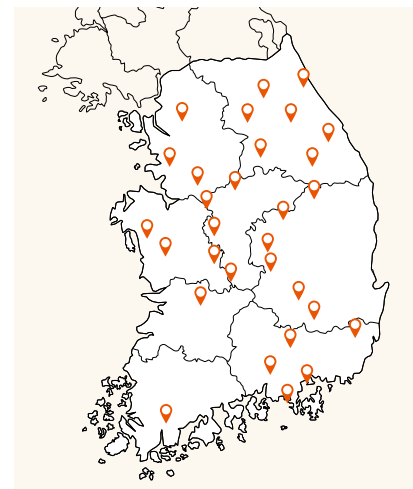
필자 심승구(沈勝求)

범골

주변의 형세나 지형이 호랑이가 살았을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의 이름.

개관

범골은 달리 호동虎洞이라고도 한다. 특히 황해도·평안도 등지의 산세가 험한 북한 지역에서 흔히 보이는 마을 이름이며, 우리나라의 충청남도 논산, 대구광역시 달성, 울산광역시 등지에서도 이러한 지명이 발견된다. 본래 우리나라에서도 범골이라는 마을 이름이 널리 쓰인 것으로 여겨지나 일제강점기와 근대화 시기에 마을 지명이 한자어로 바뀌는 과정에서 호동 혹은 다른 이름으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범골마을의 유래담에는 호랑이의 신성함과 인간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범골 지명이 남아 있는 지역 | 2021 | 포털의 지도 서비스

내용

범골마을의 지명 유래는 마을 주변의 지형과 관련된다. 대구시 달성군의 경우에서처럼 호랑이가 나올 정도로 숲이 울창하게 우거졌다고 하여 범골마을이라 칭하였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여기에 호랑이를 신성시하는 인식이 반영되기도 하고 호랑이를 통해 인륜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유래담이 구체화하기도 한다.

논산 지역에서는 처녀의 효심과 관련지어 범골마을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호랑이에게 제물로 바쳐진 처녀의 효심에 감동한 호랑이가 처녀를 살려주고 그 후로는 마을에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치제의 대상이 된 호랑이의 신성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의 효심을 알아차리는 호랑이를 통해 인륜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울산 지역에서는 봄날에 나뭇잎을 캐러 산에 오른 아낙들이 호랑이 새끼를 보고 귀여워하던 중 어미 호랑이의 출몰에 놀라 신발과 바구니를 던져두고 도망갔는데, 이튿날 호랑이가 그것들을 각자의 집에 몰아다 놓았다는 유래담이 전해지고 있다. 이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강조하는 동시에 인간적 가치에 보답하는 호랑이의 영물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논산시지(논산시지편찬위원회, 2005), 삼동면지(삼동면지편찬위원회, 2002), 한국지명총람1~18(한글학회, 1966~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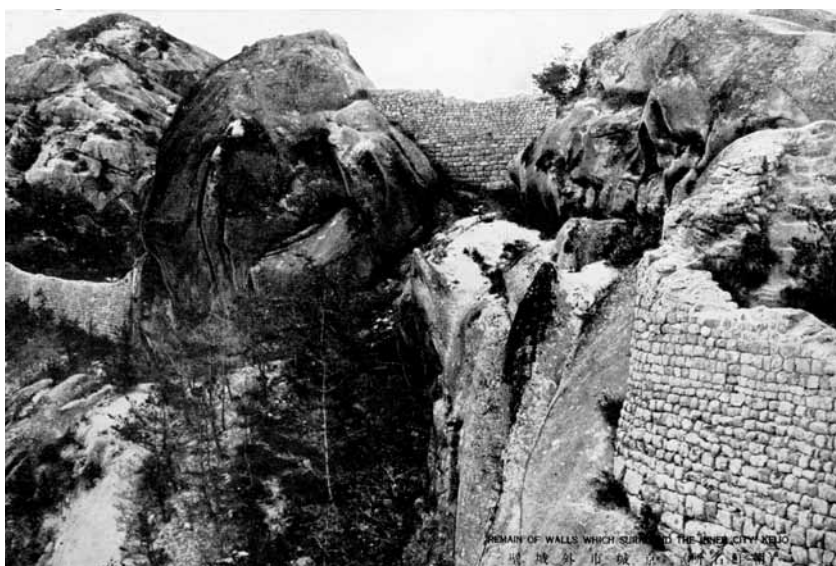
필자 오세길(吳世吉)

범바위

호랑이의 형상을 닮은 바위를 이르는 지명의 하나.

개관 범바위는 그 모습이 호랑이와 닮은 것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이것은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데 특히 대전광역시와 논산·아산·서천·천안 등 충청도 지역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호랑이에 대한 우리 민족의 양가적兩價的 감정이 녹아 있는 이 지명에는 호랑이의 의미가 상반되게 나타나기도 한다.

내용 범바위의 지명 유래나 구체적 내용은 주로 구비설화의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설화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호랑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투영된 것이다. 이는 인간을 해치는 등 악행을 일삼는 호랑이가 산신의 징벌로 범바위가 되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호랑이는 악행을 저지르는 인간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호랑이의 신성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는 마을의 지세 혹은 풍수지리와 관련된다. 이때 범바위는 괴질이나 병고로부터 마을을 지켜주며 산신의 또 다른 표상으로 여겨진다. 서울 지역의 범바위[虎岩(호암)] 전설에서 호랑이가 악인만 징치하는 것도 산신으로서의 호랑이가 가진 신성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신성한 속성을 지닌 금기의 대상으로서의 범바위가 있다. 부산광역시 장산의 범바위는 금기를 어기고 악행을 일삼는 인간을 징치하고 있는데, 그 결과 범바위 주변이 연못으로 변하였다는 결말은 장자



인양산 성벽과 범바위 | 일제강점기 | 한양도성박물관

정치담長者懲治譚의 대표적 유형인 장자못 전설과 유사하다. 이처럼 범바위의 지명이나 그와 관련된 설화에는 호랑이의 포악한 속성을 인간에 빗대기도 하며 산신의 신성성을 표상하기도 하는 등 호랑이에 대한 우리 민족의 양가적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참고문헌 바위 소재 지명어의 명명 근거와 전부지명소1~2(김정태, 지명학12~13, 한국지명학회, 2006~2007), 서울지명사전(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9), 온양아산 마을사1(온양문화원, 2000), 해운대구지(해운대구지편찬위원회, 1994).

필자 오세길(吳世吉)

복호

伏虎

호랑이가 앞드린 지형이라는 의미로 뿔자리·산봉우리·마을 이름 등의 앞에 쓰이는 지명의 하나.

개관 복호는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보다 복호혈·복호봉·복호마을 등처럼 뿔자리, 산봉우리, 마을 이름 등과 연계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풍수지리 상 명당자리 중 하나인 복호혈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으며 내용도 구체적이다.

내용 전라남도 순천, 전라북도 정읍, 경상북도 김천·예천 등지에서는 마을 주변 산의 형세가 호랑이가 앞드린 것과 같다고 하여 마을 이름을 복호마을이라 한다. 또 전라북도 진안에서처럼 산봉우리가 호랑이가 앞드린 것과 비슷하다 하여 복호봉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호랑이의 모습과 산세나 지형의 유사성만 설명하는 등 유래담의 내용이 단순한 편이다. 그러나 명당자리의 하나로 꼽히는 복호혈과 관련해서 그 내용이 풍부하고 구체적이다. 여기에서는 명당자리로서의 복호혈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상반된 인식이 동시에 나타나 있다.

복호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충청남도 논산 지역에서 전해진다. 복호혈인 줄 모르고 그곳에 조상의 묘를 썼는데, 해마다 참배한 자손 중 한 명이 죽게 되었다. 문중에서 지관을 불러 물어보니 그곳이 복호혈이라 호랑이가 자손들에게 해를 가해서 생긴 일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문중에서는 멀리서 묘를 바라보고 망배만 하였고 결국 폐묘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유래담은 복호혈이 비록 명당이기는 하지만 호랑이의 위해가 상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명당자리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개마위 전설과 함께 전하기도 한다. 충남 서산 지역에서 뿔자리를 찾던 지관이 복호혈

명당을 보고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인근에서 개바위를 찾아내고 흔쾌히 묘를 쓰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먹이가 없는 복호혈에 묘를 썼다가는 그 해가 자손에게 닿을 수 있어 개바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것으로 명당의 조건으로 주변 지세와의 조화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참고문헌 바위 소재 지명어의 명명 근거와 전부지명소1(김정태, 지명학12, 한국지명학회, 2006), 서산민속지 하(최운식 외, 서산문화원, 1991), 암천 박종과 모곡서원(강성복·박철희, 암천정신연구소, 2003), 진안군 향토 문화 백과사전(진안군·진안문화원, 2004).

필자 오세길(吳世吉)

정호기

征虎記

조선의 호랑이를 사냥한 일본 원정대의 수렵기.

개관 호환에 따른 피해는 근대 이후에도 이어졌다. 조선총독부는 호랑이를 해수害獸로 보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해수구제 정책을 19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일환으로 1917년 일본의 사업가 야마모토 다다사부로山本唯三郎는 호랑이 사냥을 위해 한국으로 건너왔다. 도쿄를 출발해 부산으로 입국한 그는 약 한 달간 호랑이 사냥에 나섰다. 일본인 포수 4명과 함께 강용근, 이윤희, 백운학, 최순원 등 당시 이름을 날리던 조선인 포수들을 비롯하여 물이꾼 150여 명을 동원한 행사였다. 이 행사에는 <매일신보>를 비롯하여 일본과 조선의 언론사 기자들도 30여 명이 수행하였다. 야마모토가 조직한 정호군征虎軍은 총 8개 반으로 나뉘어 함경도, 강원도, 금강산, 전라도 등지에 퍼져 호랑이 사냥에 나섰다. 야마모토는 경성에서 원산, 북청, 함흥, 신포 등을 거쳐 다시 경성으로 돌아왔다가 부산을 거쳐 일본으로 돌아갔다. 야마모토가 조직하고 실행한 이 사냥 원정은 당시 조선은 물론 일본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야마모토는 조선총독부의 비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냥이 끝나고 호랑이 고기 시식회를 조선히otel과 일본의 제국호텔에서 열었다. 이와 같은 사냥 원정기를 비롯해 대대적인 시식 행사 때 찍은 사진과 기록을 엮어 만든 책이 『정호기』이다.

내용 『정호기』를 편찬한 야마모토는 1917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 달간 호랑이 사냥에 나섰다. 사냥 행사를 주관한 야마모토는 탄광회사와 선박회사를 소유한 마쓰마사 양행松昌洋行이라는 회사의 사장으로, 식민지 조선의 자원개발과 해운으로 떼돈을 번 인물이었다. 당시 7~8만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호랑이 사냥은 겉으로는 조선총독부의 해수구제 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조선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로운 짐승을 퇴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속내는 소영웅주의에 입각한 제국과 자본의 힘을 전시하려는 정치적 기획이었다. 실제로 정호군은 호랑이 사냥 자체보다 식민지 조선에 대한 지배자로서 제국의 위상을 선전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었다.

야마모토는 우선 조선에서 호랑이 사냥의 기원을 임진왜란 때 참전한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에게서 찾고 있다. 20세기 초 일본 제국의 정호군을 임진왜란 때 조선에서 호랑이 사냥을 한 경험과 연결함으로써 호랑이 사냥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조선 호랑이를 모두 사냥하고 이어 러시아의 곰 사냥을 기약함으로써 대륙침탈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또한 직접 사냥에 나서지 않았음에도 사냥 무용담 자체를 자신의 것으로 포장하였다. 예컨대 조선인 포수가 잡은 호랑이 사체 앞에서 야마모토가 포수와 사진을 찍을 때 총을 들고 있거나 호랑이를 잡은 사냥꾼에게 은잔을 내리는 등 마치 위정자와 같은 모습을 연출하였다. 이는 당시 사냥의 목적이 해수구제를 넘어 사냥을 통한 제국의 전시, 무대화된 식민지의 구성을 기획하였던 것을 상기시켜 준다.

원정대는 조선총독부의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총독을 만나는 등 일제당국의 비호를 받았다. 가는 곳마다 지역 행정당국과 유지가 주최한 성대한 환영 행사가 벌어졌다. 사냥꾼은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이름을 날리던 조선 사냥꾼이 동원되었다. 호랑이 100마리를 쏘아 호랑이 사냥의 일인자로 꼽히던 강용근, 강용근과 함께 조선왕실이 공인한 엽사로 하루에 꿩 106마리를 잡은 기록이 있는 이윤희 등이 포함되었다. 다른 포수가 화승총을 쓰던 시절이었지만 이 들은 엽총을 사용하였다.

포수 백운학은 함경북도 성진에 상륙한 뒤 남운령에서 10일 만에 호랑이 발자국을 발견하고 다른 세 명의 사냥꾼과 함께 산 정상에 목을 지켰다. 물이꾼 10여 명이 산 밑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을 던지기 시작하자 산허리 숲에서 호랑이



정호기 | 야마모토 다다사부로 | 1917 | 한국범보전기금



아마모토 다다사부로와 포수 | 정호기 | 20세기 초 | 국립중앙도서관

한 마리가 뛰어나왔고, 백운학이 40보 거리에서 3발을 연달아 쏘아 잡았다. 포수 최순원은 함경남도 죽암동에서 2일 만에 상수리나무 숲에서 호랑이를 발견하고 멀리서 쏘았다. 총에 맞은 호랑이가 바위굴에 숨어들자 돌을 굴러 입구를 막고 굴 옆에 구멍을 뚫은 뒤 사격을 해 호랑이를 잡았다. 전라남도 능주 천태산에서는 일본인 포수 곤도가 2일 만에 산 정상 가까운 곳에서 호랑이 굴을 발견하였고, 이곳에 숨어 있던 몸길이 2.85m의 거대한 표범을 쏘았다.

함경도 일대에서 잡은 호랑이, 표범, 곰, 노루, 산양 등을 산더미처럼 쌓은 기차가 12월 3일 경성에 도착하였다. 신문이 매일같이 사냥 소식을 보도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구경하려는 인파가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12월 6일 사냥 원정대는 남대문역을 떠나 일본으로 향하였다. 기차 화물칸을 가득 채운 포획물은 호랑이 2마리, 표범 2마리, 반달가슴곰 1마리, 멧돼지 3마리, 산양 5마리, 송냥이 1마리, 노루 9마리, 기러기·청둥오리·꿩 다수였다.

아마모토의 정호군은 사냥감을 그저 가져가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12월 7일 경성에서는 조선호텔에서 아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郎 정무총감을 주빈으로 경성의 명사 120명을 초대하여 호랑이 등 포획물의 시식회를 열었다. 호랑이 시식회 참석자들은 방명록에 서명하였는데, 이 책에 언론인들의 서명이 실려 있

다. 사냥 행사를 취재한 기자들의 서명 가운데 심천풍이 눈에 띈다. 심천풍은 정호군을 따라다니며 <매일신보>에 그 여정을 13회에 걸쳐 수필 형식으로 실었다. '호랑이 시식회'는 일본에서도 열렸다. 12월 20일 도쿄 제국호텔 대연회장에서는 체신 대신, 농상무 대신, 추밀원 고문관, 육군대장 등 정·재계 요인 200여 명이 모여 일본에는 없던 신기한 고기 맛을 보면서 대일본제국의 힘을 과시하였다.

당시 조선에서 잡은 호랑이와 표범의 박제가 일본 교토의 도시샤 고등학교 표본관에 남아 있다. 한반도에서 멸절된 동물 중 포획한 사람, 장소와 시기, 과정 등 표본과 관련된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현재까지 이 도시샤 고등학교의 표본들이 유일하다. 결국 일본 제국주의의 시각에서 호랑이는 식민지 관리와 개발을 방해하는 해로운 동물에 불과하였다. 이 점은 호환을 두려워하면서도 다른 한편 호랑이를 경외의 대상으로 믿어 왔던 한국인들의 생태관념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것이었다. 『정호기』는 사냥이 끝난 뒤인 1918년에 후원자와 참가자에게 일종의 기념품으로 나눠주기 위해 만든 비매품 한정판으로 만들어졌다.

특징 및 의의

『정호기』는 지금은 사라진 한반도의 호랑이와 표범 등 야생동물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갖는다. 이 책에는 1911년 당시 조선의 생활상과 호랑이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 그리고 원산·함흥·금강산·석왕사·북청의 모습, 조선의 명포수로 알려진 강용근·이윤회·최순원 등이 찍힌 100여 장의 희귀 사진이 실려 있다. 『정호기』는 지금부터 100년 전 한국 호랑이와 표범을 비롯한 야생동물의 서식 상황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한국 호랑이 관련 자료는 조선총독부의 『조선회보』와 구로다 나가미치의 『원색 일본 포유류 도설』을 제외하면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정호기』는 이 두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은 호랑이 관련 정보가 들어 있고, 또 사진 자료뿐만 아니라 생태환경, 포획 방법, 날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흔치 않은 자료이다. 아울러 호랑이의 포획 장소, 포획 인물,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료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참고문헌 정호기(山本唯三郎, 이은옥 역, 에이도스, 2014), 한국의 마지막 표범(遠藤公男, 이은옥·정유진 역, 이담북스, 2014),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遠藤公男, 이은옥 역, 이담북스, 2009), 호랑이 사냥을 통해 본 식민지 경관의 생산방식 고찰(신진숙, 동아시아문화연구69,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7), 滅び行く朝鮮の虎(上田常一, 科学知識, 1936), アジアの動物記 韓國の最後の豹(遠藤公男, 垂井日之出印刷所, 2014), 征虎記(山本唯三郎, 1918), 朝鮮の害獸驅除(吉田雄次郎, 東京動物學會, 1924), 韓國の虎はなぜ消えたか(遠藤公男, 講談社, 1986), 정호기의 일정 15일 경성 출발(매일신보, 1917.11.13.), 정호기2 관민의 환영을 받고(매일신보, 1917.11.18.) 정호기6(매일신보, 1917.11.25.), 정호기8 기세가 익정(매일신보, 1917.11.28.), 정호기10 포수의 실험담(매일신보, 1917.12.4.), 정호기13 일등포수선봉되고 일류부호위를 재어(매일신보, 1917.12.7.), 정호대 일행 북청에(매일신보, 1917.11.28.), 정호여록 함흥에서1(매일신보, 1917.11.28.), 정호일행 퇴경(매일신보, 1917.12.7.), 朝鮮に於ける猛獸被害及其の豫防驅除(朝鮮彙報, 朝鮮總督府, 1917.8.), 虎と朝鮮(吉田雄次郎, 朝鮮, 1926.1.).

필자 심승구(沈勝求)

착호갑사

捉虎甲士

조선시대에 호랑이를 잡기 위해 중앙에 조직된 특수 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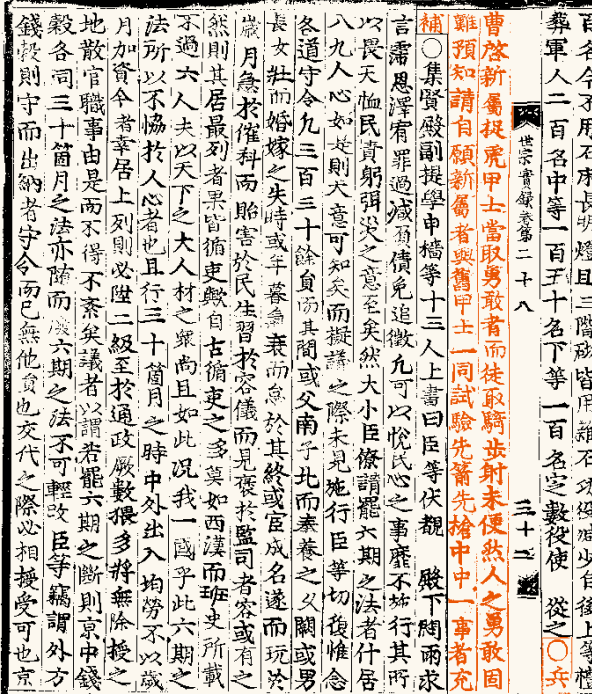
개관 착호갑사는 호랑이와 표범을 잡는 임무를 맡은 갑사를 말한다. 조선왕조는 호 환虎患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앙군의 핵심 병력이었던 갑사 가운데서 별도로 착호갑사를 선발하였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호환이 그만큼 체제 안정에 위협 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착호갑사는 임진왜란 이후 충포 도입으로 훈 련도감을 비롯한 어영청·금위영 등 중앙 군영의 포수가 임무를 대신하면서 사 라졌다.

내용 착호군은 조선시대에 호랑이를 잡기 위해 별도로 설치한 직종이다. 호랑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조선 건국 초 1년 동안 경상도에서만 수백 명에 이를 정도로 컸다. 따라서 호환에 대비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일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호환이 생길 때마다 착호군을 편성하여 호랑이를 잡는 일이 여러 가지

로 효과가 없자 이를 위한 별도의 상 시적인 군사 조직을 갖춘 것이다.

호환에 대비한 전문 군대인 착호 갑사는 1421년(세종 3)에 당번當番·하번下番 각 20명씩으로 처음 제도화 되었다. 그 후 갑사의 정원이 증가함 에 따라 착호갑사도 늘어나 『경국대 전經國大典』 「병전兵典」에 따르면 갑사 1,800명 중 착호갑사가 440명으로 늘 어났다. 착호갑사는 5교대로 88명이 6개월씩 복무하면서 체아록遞兒祿을 받았다.

착호갑사의 입속 요건은 『세종실 록世宗實錄』에 따르면 “화살촉을 나무 로 만든 무예 시험용 화살인 목전木箭 을 180보步에서 1개 이상 맞히기, 말 타고 활쏘기騎射 2번 이상, 말 타고 창 던지기擲槍 1번 이상, 주춧, 즉 일정 시 간 멀리 달리는 능력 시험에서 250보



활과 창 중에서 한 가지에 합격한 자를 착호갑사에 보충하게 하다 |

세종실록 | 1425 | 국사편찬위원회

이상 가기와 양손에 각각 50근씩 들고 100보 이상 가기, 즉 힘 가운데 하나에 합 격한 자를 취한다. 선전창先箭槍·차전창次箭槍, 즉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창과 화살 로 맞혀 호호 2구를 잡는 자는 취재 시험을 면제하고 배속을 허락한다.”라고 되 어 있다. 선전창과 차전창의 규정은 호랑이를 실제로 잡아 본 사람을 우대하기 위해 1425년(세종 7)에 새로 넣은 것이다.

중앙에 착호갑사가 있던 것과 달리 지방의 착호인捉虎人은 각 도의 절도사가 해당 지역의 군사軍士 및 향리와 역리, 공천公賤과 사천私賤 중에서 자원을 받아 뽑 고 자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용壯勇한 자를 택하여 정하였다. 지방 수령은 호랑 이가 출현하면 중앙의 명령을 받지 않고 지방의 착호인을 동원할 수 있었다. 호 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앙의 명령을 생략하였던 것이다. 이는 간혹 지방의 수령들이 반란을 계획할 때 호환을 핑계로 삼는 배경이 되었다.

호랑이를 잡으면 포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1년에 열 마리 이상 잡으면 수령이 품계를 올려 주었고, 다섯 마리를 잡는 데 화살과 창으로 먼저 명중시킨 자는 2품계 이상 올려 주었다. 만약 향리鄉吏·역리驛吏·천인賤人이면 면포 60필을 주었다. 다섯 마리 가운데 세 마리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명중시키고, 두 마리는 다른 사람보다 늦게 맞힌 자는 1품계를 올려 주었다. 다섯 마리 가운데 한두 마 리를 먼저 명중시키고, 서너 마리를 다음에 명중시켜도 1품계를 올려 주었다. 품계가 당하관인 통훈대부나 어모장군일 경우에는 준직准職에 임명하였다.

호랑이나 표범을 잡은 군사에게는 별도의 근무 일수를 올려 주었다. 다만 호 랑이의 크기를 대·중·소로 구분하고, 표범은 그 아래 등급으로 삼았다. 대호大虎 를 화살과 창으로 먼저 명중시킨 자는 별도의 근무 일수인 50사仕를 주었다. 향 리·역리·천인은 면포 60필을 주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등급마다 반 필씩 감하였 다. 그다음으로 대호를 명중시킨 자는 45사를 주고 또 그다음에 명중시킨 자는 40사를 주었다. 중호中虎를 화살과 창으로 먼저 명중시킨 자는 40사를 주고, 그 다음에 명중시킨 자는 35사, 그다음에 명중시킨 자는 30사를 주었다. 소호小虎를 화살과 창으로 먼저 명중시킨 자는 30사를 주고, 그다음에 명중시킨 자는 25사, 그다음에 명중시킨 자는 20사를 주었다. 표범을 화살과 창으로 먼저 명중시킨 자는 20사를 주고, 그다음에 명중시킨 자는 15사, 그다음에 명중시킨 자는 10사 를 주었다.

호랑이를 덫이나 화살 또는 창을 사용하여 자발적으로 잡은 자는 먼저 명중 시킨 자의 예에 따라 원하는 대로 근무 일수를 주거나 포를 지급하고, 잡은 호랑 이와 표범도 함께 주었다. 향리로서 자진하여 1년에 다섯 마리를 잡은 자는 신 역을 면제하였다. 그러나 『속대전續大典』에는 화살과 창으로 잡은 자에게 사일仕 日을 주는 법이 폐지되고, 그 대신 호랑이의 머리에 명중시켜 잡은 것이 다섯 마

리 이상인 자는 품계를 올려주되 일반 백성도 마찬가지로 품계를 주었다. 수령과 변장의 경우에는 품계를 논하지 않았다. 서너 마리 이하를 잡은 경우에는 그 기능을 참작하여 쌀과 포를 적당히 상으로 주었다.

임진왜란 이후 조총이 도입되면서 총으로 호랑이 사냥을 하는 포수가 생겨나자 화살과 창으로 잡는 착호갑사와 착호인 제도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 그리하여 17세기 이후 착호갑사의 역할은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의 포수가 대신하였다. 정조 때에는 장용영 내에 착호군捉虎軍이 조직되어 착호활동을 하였다. 이들 중앙 군영의 포수들은 주로 도성과 경기도 인근의 호환을 막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특징 및 의의

착호군은 조선시대에 호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직한 특수부대였다. 호랑이 피해는 조선 이전에도 있었다. 그럼에도 조선왕조가 착호군을 별도로 설치한 까닭은 호랑이의 증가에도 원인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유교적 민본주의에 입각한 민생 안정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특히 왕이 거주하는 도성 안은 물론 왕이 자주 행차하는 도성 주변의 왕릉과 같은 지역에서의 호환은 철저히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컸다. 또한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소나 말의 피해를 막는다는 목적도 매우 컸다. 당시 말은 군사력의 근간이었으므로 마장馬場의 피해는 곧 군사적 기반의 약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즉 마장의 피해를 줄이는 데도 착호군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참고문헌 大東野乘, 大典通編, 大典會通, 備邊司謄錄, 續大典, 受教輯錄, 承政院日記, 輿地圖書, 燃藜室記述, 日省錄, 사냥으로 본 삶과 문화(심승구 외, 국사편찬위원회, 2011), 조선시대 사냥의 추이와 특성(심승구, 역사민속학24,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조선시대 호환과 국가의 대책(조계영, 사학연구91, 한국사학회, 2008).

필자 심승구(沈勝求)

포호정책

捕虎政策

조선시대에 호환을 막기 위해 호랑이나 표범을 잡기 위한 활동.

개관

조선왕조는 호환虎患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포호정책을 펼쳤다. 호환이란 곧 호랑이나 표범에게 당하는 재앙 또는 거기서 생기는 공포와 두려움을 말한다. 특히 민본과 덕치의 유교이념을 내세운 조선왕조는 건국 초부터 인명이나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포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갔다. 호환을 제거하는 일은 곧 나라의 안위와 체제 유지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었다. 이 점은 불교이념에 입각하여 살생을 금한 고려왕조의 국가운영 방식과는 크게 구별되는 점이었다.

내용

만주와 한반도 일대는 시베리아호랑이와 표범의 서식지였다. 이에 호랑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호환은 삼국시대 이래로 근대 초기까지 지속된 사회적 문제였다. 하지만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호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별도의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살생을 금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려시대와 달리 조선왕조는 건국 직후부터 호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호환이 도성을 비롯해 전국에 걸쳐 발생하였으며,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조선왕조는 호랑이와 표범을 잡기 위한 별도의 군대인 착호갑사와 착호인 제도를 운영하였다. 태종 때 처음 중앙에 설치한 착호갑사는 호랑이 사냥을 위한 전문부대로, 점점 더 그 수가 늘어나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440명으로 확대되었다. 지방의 경우에 착호인을 설치하였는데 주와 부에 50명, 군에 30명, 현에 20명을 정원으로 삼았다. 착호인은 절도사가 군사·향리·역리·공천·사천 중에서 자원을 받아 뽑아 정하고, 자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장건하고 용감한 자를 택하여 정하였다. 착호갑사가 정규부대였다면 착호인은 호랑이가 출현하면 수령이 모집하는 비정규부대였다. 특히 지방의 경우 수령이 중심이 되어 착호활동을 벌여 나갔다. 착호갑사와 착호인의 설치로 호환이 사라지지는 않았으나 16세기 이후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다.

그러다가 17세기 말 이후 호랑이의 개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 무렵 호랑이와 표범이 한반도로 대거 이동하는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성호사설湖艦說』에 “지난해에 범 몇만 마리가 잇달아 북도의 강을 건너와서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한 기록이 이를 입증한다. 그 결과 호환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났다. 당시 호환이 날로 심해지자 성호 이익李瀾은 “외적의 침공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할 정도였다.

이에 조선왕조는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의 착호군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착호활동을 벌였다. 아예 1699년(숙종 25)에는 이들 삼군문(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을 총칭하여 부르는 말)으로 하여금 도성과 경기 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호랑이를 잡는 ‘착호분수捉虎分授’ 제도를 실시하였다. 훈련도감은 고양·파주·장단·개성·풍덕·교하·적성·마전·삭녕·가평·영평·연천 등 12곳, 금위영은 양천·인천·남양·김포·시흥·부평·교동·강화·진위·통진·안산·양성·수원 등 13곳, 어영청은 광주·양근·지평·음죽·죽산·용인·과천·안성·포천·양주·여주·전관·장내場內 등 13곳을 맡았다. 이들 삼군문의 포수들이 호랑이를 잡은 경우에는 주로 무명과 삼베를 포상으로 주었다.

지방의 경우 각 도에 포수로 구성된 착호군을 별도로 두어 운영하였는데, 평양에는 1만 1,000명까지 늘어날 정도로 그 규모가 컸다.

아울러 1699년(숙종 25)과 1703년(숙종 29)에는 별도로 착호절목捉虎節目을 만들어 호환을 막고자 하였다. 각 고을과 마을 중에서 성실하고 영리한 자를 가려 착호장捉虎將과 심종장尋蹤將의 임명장을 주었다. 호환虎患이 있으면 심종장은 급히 면임面任에게, 면임은 관가에 보고하며, 또 한편으로 총을 잘 쏘는 포수에게 알려 착호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영솔領率하여 호랑이나 표범을 잡도록 하였다. 만일 무과 출신出身이 호랑이를 잡으면 변장에 제수하고 기타 사람이 잡으면 포상을 주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범의 크기는 포백척布尺으로서 4척 이상을 큰 것으로 삼고, 3척을 중으로 삼으며, 2척을 작은 것으로 삼도록 하였다.

이처럼 조선 후기에 중앙에서는 삼군문의 포수가, 지방에서는 착호군이 호랑이를 잡는 역할을 맡아 조선말까지 활동을 지속하였다. 지방의 포수 가운데 서북지방의 산포수는 1907년 이후 의병활동에 참가한 뒤 간도로 넘어가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만주와 한반도 일대는 시베리아호랑이와 표범의 서식지로, 삼국시대부터 호랑이로 인한 호환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살생을 금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고려시대 때에는 호환을 줄이려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 건국 직후부터 호환을 막는 적극적인 정책이 세워졌다. 호랑이와 표범을 잡기 위한 군대인 착호갑사와 착호인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각 고을에서도 착호장·심종장을 임명하여 호랑이를 잡도록 하였다. 착호갑사와 착호인의 설치로 호환이 사라지지는 않았으나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으며, 이와 같은 활동은 조선말까지 지속되었다.

참고문헌 구한말 관북지방 산포수의병의 항전과 북상도강(박민영, 한국학연구6·7,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6), 사냥으로 본 삶과 문화(심승구 외, 국사편찬위원회, 2011), 신화 속 호랑이는 어디로 갔을까(심승구, 웹진 담 36, 한국국학진흥원, 2017), 조선시대 사냥의 추이와 특성(심승구, 역사민속학24,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조선시대 호환과 국가의 대책(조계영, 사학연구91, 한국사학회, 2008), 조선의 생태환경사(김동진, 푸른역사, 2017), 조선전기 포호정책 연구(김동진, 신인, 2009), 호랑이 사냥을 통해 본 식민지 경관의 생산방식 고찰(신진숙, 동아시아문화연구69,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7).

필자 심승구(沈勝求)

한국표범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 동북지역 및 러시아 연해주 남부지역에 역사적으로 서식하였거나 현재 서식하고 있는 표범 아종의 하나.

개관

한반도 전체, 한반도와 접하는 중국 동북삼성(지린성, 헤이룽장성, 랴오닝성)의 일부, 극동 러시아 연해주의 남부지역에 걸쳐 과거에 분포하던 표범 아종을 학

명으로는 *Panthera pardus orientalis*라 하고, 일반적으로는 ‘한국표범’이나 ‘아무르표범’ 또는 ‘극동표범 Far-eastern leopard’이라고 한다. 현재는 북한·중국·러시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성체 100마리 정도로 이루어진 개체군이 생존해 있다. 국가·지역·시대·사회에 따라 같은 아종의 표범을 다른 이름으로 지칭해 왔다. 역사적으로 이 지역 표범 아종의 주 서식지가 한반도였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한국표범 Korean leopard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내용

표범은 고양이과 동물 중 가장 널리 분포하는 종으로, 아시아 및 아프리카 대륙에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으며 모두 9개의 아종으로 구분된다(아프리카, 아라비아, 페르시아, 인도, 스리랑카, 인도차이나, 자바, 북중국, 한국표범, 북중국표범과 한국표범을 통합하여 8개 아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 중 한국표범(아무르표범)은 아프리카·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북동쪽 변방에 분포하던 아종이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표범의 왕국’이었다. 이것은 한국표범의 역사적 서식 지역 중 한반도가 가장 온화한 기후조건을 갖는 지역으로 다양한 식생과 먹잇감인 초식동물이 풍부하였기 때문이다. 동북아시아와 극동 러시아의 북쪽 지역에는 겨울 적설량이 많아 호랑이는 살 수 있었지만, 표범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1935년 지리산에서 포획된 표범의 가죽에서 DNA를 추출하여 전 세계 다른 표범 아종 유전자와 비교한 분석 결과 지리산 표범은 러시아의 아무르표범과 같은 아종에 속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표범과 러시아 아무르표범은 같은 계통이며 한 아종에 속한다.

표범은 호랑이와 가까운 식육목 고양이과 동물의 한 종이며 황갈색 바탕에 매화 모양의 점무늬가 전신에 퍼져 있다. 호랑이보다 몸집이 훨씬 작아 수컷의 몸무게는 32~48kg, 암컷은 25~43kg에 불과하다. 호랑이와 마찬가지로 번식기와 새끼 양육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단독 생활을 한다. 호랑이와 늑대는 서식지를 공유하지 않으나 호랑이와 표범은 공존이 가능하여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이것은 호랑이와 표범이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다른 시간대에 활동하고 다른 공간을 이



표작도 |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가지산 표범 | 광복 이후 | 울산박물관

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호랑이는 주로 저녁시간과 밤에 활동하지만 표범은 주로 아침과 낮에 활동하며, 호랑이는 주로 산골짜기를 이동 통로로 이용하지만 표범은 산등성이를 이용하므로 서로 마주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표범의 먹이동물은 사슴·노루 등 초식동물로 호랑이의 먹이동물과 겹치지만, 호랑이는 멧돼지·사슴 등 큰 동물을 선호하는 반면 표범은 오소리·너구리·산토끼 등 작은 동물도 사냥한다.

호랑이와 마찬가지로 표범도 조선시대 포호정책과 일제강점기 해수구제정책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절멸의 길로 들어섰으며, 광복 후 남아 있던 약간의 개체들도 1970년대에 모두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특징 및 의의

‘범’은 호랑이를 의미하는 순우리말이지만 우리 조상들은 호랑이와 표범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두 동물을 함께 범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범虎를 주제로 하는 예술 작품들이나 민화에 나타난 동물들이 실제로는 표범인 경우가 허다하다. 한반도는 범의 땅이었지만 실제로는 호랑이虎보다 오히려 표범豹 숫자가 월등히 많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공식 통계에 의해 확인된 호랑이 포획 숫자는 100마리를 넘지 않지만 포획된 표범은 600마리를 넘으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난 수천 년간 한민족과 함께 살아왔던 ‘범’이라는 동물은 호랑이와 표범으로 이루어진 동물 집단이었으며, 두 종의 동물 중 실제로 한민족과 접촉빈도가 더 높았던 동물은 표범이었을 것이다. 이는 한민족 ‘범’ 문화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호랑이 못지않게 표범이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한국의 마지막 표범(遠藤公男, 이은옥·정유진 역, 이담북스, 2014), 한국의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遠藤公男, 이은옥 역, 이담북스, 2009), Phylogenetic Study of Extirpated Korean Leopard Using Mitochondrial DNA from an Old Skin Specimen in South Korea(Hyun JY et al, PeerJ8, PeerJ Inc, 2020), Spatiotemporal Patterns of Amur Leopards in Northeast China(Haitao Yang et al, Mammalian Biology92, Elsevier GmbH, 2018).
필자 이항(李恒)

해수구제사업

害獸驅除事業

사람과 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해수害獸를 제거하는 정책.

개관 해수구제사업은 근대 이후 맹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일환이었다. 해수구제의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은 일제강점기였다. 특히 조선총독부는 호랑이와 표범은 물론이고 조류에 이르기까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각종 동물을 해로운 짐승으로 보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수구제를 시행하였다. 식민지 기간 내 내 시행된 해수구제사업은 한반도 내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정책 없이 야생동물들의 퇴치와 포획을 주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 사업은 시베리아호랑이와 아무르표범 등 한반도 내 대형 포식동물의 멸종에 결정적 원인이 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내용 조선총독부는 “사람과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해로운 짐승인 해수害獸를 구제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해수구제를 벌였다. 해수구제는 처음에 조선총독부 산하의 헌병경찰이 맡았다. 헌병경찰은 여러 역할 가운데 중두 보급, 전염병 예방, 도축 단속 같은 위생 활동의 하나로 해수구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다가 1919년 총독부 관제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보통 경찰제도로 바뀌었다. 그 뒤 해수구제는 보통경찰이 맡아 진행하였다.

해수구제는 사람과 우마牛馬 그리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호랑이, 표범, 늑대, 곰, 멧돼지, 사슴, 노루 등은 물론이고 조류까지 대상으로 삼았다. 1918년에 실시한 전선해수구제全鮮害獸驅除에서 포획한 동물은 범 19마리, 표범 73마리, 곰 332마리, 미상 197마리, 멧돼지 1,844마리, 사슴 79마리, 노루 4,232마리, 토끼 282마리, 기타 241마리였다. 사냥 방법으로는 총기 사용 5,950마리이고 그물을 비롯한 기타 방법 1,434마리, 총사원 수는 헌병경찰 2,428명과 도에 소속한 관리 122명이었다.

해수구제사업은 그 성과에 따라 포상이 주어졌다. 1923년에 평양의 용강군에서는 가축과 인명을 해하는 늑대 2마리를 총살한 해수구제자 2명에게 포상하는 수상식이 열렸다. 평안남도 경찰부에서는 상금으로 20원을 지급하였다. 1923년에는 전라남도 광양에서 해수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심해지자 해수구제로 멧돼지 40여 마리를 잡았다. 1925년에는 강원도 통천에서 멧돼지와 기타 맹수의 번식으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가 적지 않자 경찰서 관원과 수렵자들이 멧돼지 2마리를 잡았다. 1926년 평안남도 맹산경찰서에서는 맹수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관할 내에 있는 울중 수렵면허를 가진 포수를 모아 사냥하여 멧돼지 2

마리와 노루 11마리를 잡았다. 1939년 경상남도 고성군에서도 멧돼지·늑대·노루 등이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하여 구제사업을 벌였다. 이처럼 해수구제사업은 대체로 1920년대 초반까지는 호랑이나 표범·늑대·곰 등이 대상이었지만, 1930년대 이후에는 주로 멧돼지·늑대·노루가 대상임을 알 수 있다.

해수구제사업은 광복 이후에도 이어졌다. 1952년 2월에는 경남경찰국에서 경남 일부 지역에 대하여 ‘해수구제 기간을 오는 3월 말까지 연장한다’는 <마산일보>의 기사가 확인된다. 이때 대상 지역은 함안, 창녕, 김해, 밀양, 창원, 고성, 진양 등 7개 군이었다.

특징 및 의의

조선총독부의 해수구제 정책은 한반도 내에서 호랑이가 사라진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호랑이 사냥이 식민정책의 하나로 실행됨으로써 한반도 내 호랑이와 표범 같은 맹수들이 무차별적으로 제거되었다. 실제로 호랑이는 해수구제 정책으로 거의 멸종되어 갔다. 1930년대 초반에 호랑이가 두 마리 확인될 뿐 더 이상의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정호기(山本唯三郎, 이은옥 역, 에이도스, 2014), 한국동물원팜십년사(오창영, 서울특별시, 1993), 한국의 마지막 표범(遠藤公男, 이은옥·정유진 역, 이담북스, 2014), 한국의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遠藤公男, 이은옥 역, 이담북스, 2009), 현병정치하의 조선(강덕상, 역사학연구321, 역사학연구회·한국인문과학원, 1967), 호랑이 사냥을 통해 본 식민지 경관의 생산방식 고찰(신진숙, 동아시아문화연구69,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7), 滅び行く朝鮮の虎(上田常一, 科学知識, 1936), アジアの動物記 韓國の最後の豹(遠藤公男, 垂井日之出印刷所, 2014), 征虎記(山本唯三郎, 1918), 朝鮮の害獸驅除(吉田雄次郎, 東京動物學會, 1924), 韓國の虎はなぜ消えたか(遠藤公男, 講談社, 1986), 朝鮮に於ける猛獸被害及其の豫防驅除(朝鮮叢報, 朝鮮總督府, 1917.8.), 虎と朝鮮(吉田雄次郎, 朝鮮, 1926.1.).

필자 심승구(沈勝求)

호동
虎洞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거나 주변의 형세 또는 지형이 호랑이를 닮은 지역에 붙여진 자연마을의 이름.

개관

호동은 달리 범골이라고도 불린다. 범골은 산세가 험한 북한 지역에서 흔히 보이며, 황해도·평안도 등지의 자연마을 이름에 많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기도·경상북도 등지에서도 쓰이지만, 강진·고흥·보성·영암·해남 등 전라도 지역에서 더욱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호동의 지명유래담은 민간에서 호랑이와 삼함관계에 있다고 믿는 개와의 관련성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인간과 호랑이의 조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가치가 담겨 있다.

내용

호동마을의 유래담 중에서 가장 흔한 내용은 마을의 인근에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였거나 마을 주변의 산세가 호랑이가 누워 있는 모습과 닮았다는 것이다. 이 때 호랑이를 닮은 바위(범바위)를 내세워 호랑이의 실재를 증명하기도 하고 마을 뒷산의 우거진 숲을 들어 호랑이의 실존을 설명하기도 한다. 호동의 유래담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지만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와 호랑이와의 조화 및 공존을 강조하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호동마을의 유래담은 자신이 죽인 어미 호랑이를 대신하여 새끼 호랑이들을 거두어 살게 된 사냥꾼을 묘사하고 있다. 사냥꾼이 친구의 부탁으로 어미 호랑이를 사냥하게 되지만, 어미 없이 남겨진 새끼들이 불쌍해 그들을 거두어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 함께 살게 되면서 그곳을 호동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동물에게도 부모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전라남도 영암군의 호동마을 유래담은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호랑이와 사냥꾼 그리고 개와의 조화로운 공생을 통해 인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문헌 바위 소재 지명어의 명명 근거와 전부지명소2(김정태, 지명학13, 한국지명학회, 2007), 지명의 전래와 그 유형성(이돈주, 새국어생활4, 국립국어연구원, 1994), 한국지명총람18-경기편 하(한글학회, 2004).

필자 오세길(吳世吉)

호랑이굴

호랑이가 서식하는 굴을 지칭하는 지명이자 호랑이 설화의 한 유형.

개관

호랑이굴은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지명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며 공간에 대한 인식이나 증거 없이 설화 속 특정 장소로 나타나기도 한다. 두 경우에서 호랑이굴은 호랑이가 살고 있는 굴로, 주로 호랑이가 새끼를 키우는 공간으로 설정되며 다양한 유형의 이야기가 전하여진다.

내용

호랑이굴과 관련된 지명은 범골과 호동 등의 지명 유래담에서 언급되기도 하지만 독립된 지명 유래담으로 전승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것은 대개 호랑이 설화의 하위 유형으로 전승되는데, 여기에는 호랑이의 속성을 인간의 덕목과 관련지어 설명하거나 위인의 면모를 강조하고,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소화의 형태로 나타난다.

가장 보편적인 유형은 호랑이가 자기 새끼를 귀여워해 준 사람들에게 보은

을 한다는 이야기이다. 나물 캐러 간 아낙들이 굴속의 호랑이 새끼를 보고 귀여워하던 중에 어미 호랑이가 나타나자 혼비백산하여 신발과 바구니를 버리고 도망간다. 이튿날 집집마다 신발과 바구니가 놓여 있지만 호랑이 새끼를 보고 이쁘다고 하지 않은 집의 바구니는 가리거리 찢겨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의 중요성과 남에 대해 함부로 말을 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진라북도 고창에서는 위인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 호랑이굴이 등장한다. 왕자굴은 원래 호랑이가 살아서 호랑이굴로 불린 곳으로 신라 왕자가 호랑이를 쫓아내고 머물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범굴에서 살아나온 이성계> 설화에서도 같은 의미로 호랑이굴이 등장한다. <호랑이 굴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느 부부가 호랑이의 도움으로 아들을 낳고, 명당자리에 묘를 써서 아들이 정승까지 되었다는 이야기로 호랑이를 통한 위인의 탄생과 풍수 발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막대기로 호랑이굴 쫓신 사람>은 호기심에 호랑이굴을 쫓시게 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속임수를 써서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로 널리 전승되고 있다.

참고문헌 고창군구비문화대계 상·하(박순호, 고창군, 1993), 완주의 구전설화(황인덕, 신아출판사, 2001), 한국구비문화대계1~4(조희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필자 오세길(吳世吉)

호랑이벽화

호랑이를 주제로 그린 벽화.

개관 우리나라 호랑이벽화는 여러 용도로 제작되었다. 첫째는 호랑이가 사냥물로 등장하는 수렵도 벽화이다. 둘째는 주검을 지키는 사신도 중의 하나인 백호도 벽화이다. 셋째는 사찰벽화에서 불법을 수호하는 호랑이 벽화이다. 넷째는 액막이로 등장한 호랑이 벽화다.

내용 호랑이가 벽화로 처음 등장한 것은 선사시대 암각화이다.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고래, 거북, 사슴, 멧돼지 등 사냥물의 하나로 호랑이가 새겨졌다. 이는 수렵어로시대에 사냥물을 안전하고 다량으로 확보하기를 바라는 주술 신앙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윤곽선에 줄무늬를 그린 간단한 묘사이지만, 활기차게 표현했다. 고구려시대에는 고분벽화로 호랑이 그림이 등장한다. 가장



수렵도 | 무용총 | 고구려

이른 예는 5세기 무용총의 수렵도이다. 말을 타고 사냥하는 사냥꾼에 의해 쫓기는 호랑이가 앞뒤로 다리를 벌리고 질주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진 또 다른 유형의 호랑이는 사신도의 백호도이다. 사신도는 동쪽에 청룡, 서쪽에 백호, 남쪽에 주작, 북쪽에 현무, 그리고 중앙에 황룡이 배치되었다. 이들은 왕과 같은 높은 존재를 지키는 지킴이로 추정된다. 5세기 풍속도가 유행했던 약수리 고분벽화에서는 벽면에 그려진 들보 위에 백호가 조그맣게 그려졌는데, 몸체의 표현이 직선으로 경직되어 있다. 백호는 6~7세기 사신도가 본격적으로 유행하면서 서쪽 벽면을 지키는 주인공으로 등장하였다. 사신총, 오회분5호묘, 오회분4호묘, 강서대묘, 강서중묘 등 6~7세기의 백호도는 백호를 유려하면서도 역동감있게 표현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왕릉의 벽화로 사신도가 그려졌다. 고려시대 석관에 그려진 사신도와 다른 형식이다. 아직 그 내부가 공개된 왕릉이 한 기도 없지만, 의궤를 비롯한 문헌을 통해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456년에 축조한 원주지역의 귀족 무덤인 노회신묘에서 사신도 벽화가 확인되었다. 서쪽 벽면에 호랑이 그림이 그려졌는데, 조선말기 민화처럼 해학적으로 표현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방의 화가가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 사찰벽화로 호랑이그림이 그려진다. 이는 불법 수호의 역할을 하는 호랑이나 나한이 거느리는 호랑이 등 불교와 관련된 그림이 주를 이루지만,

민간의 세시풍속인 용호문배도의 호랑이그림도 적지 않다. 용호문배도란 정월 초하루에 한 해 동안 액운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이기를 소망하면서 대문 양쪽에 붙인 용과 호랑이그림을 말한다. 19세기 어려워진 사찰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일반대중들이 선호하는 민화 이미지를 불화와 벽화에 대거 반영하는데, 이러한 추세 속에서 사찰의 벽화로 호랑이 그림이 제작되었다. 이들 호랑이는 액운을 막는 액막이이기에 무섭고 위용있는 자태로 그려지기도 하지만 민화의 영향을 받아 까치호랑이처럼 해학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선암사, 용문사, 금탑사, 용연사, 범어사 등 여러 사찰에 호랑이 벽화가 전한다. 특히 통도사에는 응진전, 명부전, 해장보각, 미륵전 등 여러 곳에 호랑이 벽화가 그려져 있다.

특징 및 의의

호랑이는 선사시대부터 조선 말기 민화까지 오랜 세월동안 벽화로 그려진 소재로, 그 기능과 표현이 다양하다. 기능을 크게 보면, 사냥감과 지킴이로 나눌 수 있다. 우리 미술에 나타난 지킴이는 사신, 십이지, 처용, 사자, 귀면, 사천왕, 금강역사 등 다양한데, 우리는 그 가운데 호랑이를 가장 친근하고 믿음직한 지킴이로 여겼다.

참고문헌 고구려고분벽화연구(전호태, 사계절, 2000), 대곡리 암각화의 의미와 기법과 양식에 의한 신석기시대 편년 연구(문명대, 강좌미술사47, 한국미술사연구소, 2016), 민화 호랑이(윤열수, 기획박물관출판부, 2021), 조선말기 불화와 민화의 관계(정병모, 강좌미술사20, 한국미술사연구소, 2003).

필자 정병모(鄭炳模)

호랑이포수

총포를 이용하여 호랑이를 전문적으로 잡는 사냥꾼.

개관 호랑이포수는 임진왜란 이후 총포로 호랑이를 잡는 사냥꾼을 말한다. 총포가 등장하기 전까지 호랑이를 사냥하는 자는 '호랑이사냥꾼' 또는 '범사냥꾼'이라 불리었으며, 사냥하는 방법은 주로 창이나 활·함정·그물·함기(檻機)·돌맹이 등을 이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총포사냥 이후 호랑이사냥꾼은 호랑이포수라 불리었다. 일명 '범포수'라고도 하였다. 1930년대를 전후로 호랑이가 거의 멸종되면서 호랑이포수도 자취를 감추었다.

내용 호랑이포수는 조선 후기에 등장한 사냥꾼이다. 임진왜란으로 조총이 도입되자



호랑이포수 | 정호기 | 20세기 초 | 국립중앙도서관

조총을 다루는 군인을 포수라고 불렀다. 포수 가운데 호랑이 사냥을 시작한 것은 훈련도감의 포수들이었다. 훈련도감 포수들은 17세기 초반 창덕궁과 인경궁 안까지 들어오는 등 도성에 호랑이가 나타나자 호랑이 사냥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포수들이 본격적으로 호랑이 사냥에 나선 것은 17세기 말이었다. 당시 북방에서 호랑이가 대거 내려와 도성을 비롯해 전국에 호환이 크게 발생하였다.

숙종 때에는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의 삼군문 포수로 하여금 호랑이를 전담하여 잡게 하였다. 또한 착호분수(捉虎分授)를 만들어 서울과 경기 일대를 세 지역으로 분담하여 삼군문이 각각 전담 구역을 맡았다. 또한 착호절목(捉虎節目)을 만들어 마을 단위로 착호장과 심중장 등을 두어 호랑이가 나타날 경우 이를 보고하고 잡는 체계와 포상책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호랑이를 잡는 전담 포수가 많이 늘어났다. 지방에서는 병영이나 순영(巡營)에서 대장 직속의 군사인 아병(牙兵)이 착호포수로서의 역할을 전담하게 하였다.

한편 착호포수 가운데는 산간지역에서 활동하는 포수를 '산행포수(山行砲手)' 또는 '산포수(山砲手)'라고 불렀다. 그 가운데 서북 지역의 포수들이 이름을 날렸고, 이들 중에서도 강계포수(江界砲手)가 유명하였다.

17세기 말 호랑이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호환이 확산되었다. 그러자 호랑이를 잘 잡는다고 이름이 난 착호포수들이 등장하였다. 특히 관서의 강변 포수들



이 범을 가장 잘 잡았는데, 그 가운데 숙종 때 무사 이정방李廷芳이 유명하였다. 또한 함경도 부령의 장사 장제유張齊維도 포수로 유명하여 호랑이를 만나기만 하면 번번이 잡았다.

1904년 일본군이 발표한 <군사경찰훈령>에 “총포·탄약·병기·화구, 기타 위험한 물품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검사하여 이를 압수하고 그 소유자를 처벌한다.”라는 조항을 넣어 한국인의 총포류 소지를 금하였다. 이 조치는 포수들의 생계 활동을 크게 위협하는 조치였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산포수들은 항일투쟁을 벌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의병활동을 시작하였다. 강원도 북부 산간 지대에서 산포수 생활을 하던 홍범도도 마찬가지였다.

이를 근거로 미루어 볼 때 직업적인 포수들은 국권 상실을 전후하여 크게 쇠퇴한 것으로 짐작된다. 19세기 말부터 1930년대까지 이름을 날린 포수는 이윤희, 강용근, 최학풍 등 세 사람이다. 이들은 모두 궁내부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명포수들로 왕족이나 외국 귀빈을 위한 사냥 안내역을 맡았다.

특징 및 의의

임진왜란 이후 조총이 도입되면서 호랑이 사냥에도 변화가 뒤따랐다. 종래까지 활, 창, 궁노^{弓弩}, 함정, 그물 등으로 호랑이를 잡았지만 조총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총포가 등장하자 사냥의 판도가 바뀌었다. 포수는 호랑이나 표범 같은 맹수의 공격에 효과적인 대처를 하게 되었고, 사냥 자체도 편리해졌다. 그 결과 종래 활이나 창을 가지고 짐승을 잡던 ‘사냥꾼’이라는 이름이 ‘포수^{砲手}’로 바뀌었다. 그들 가운데 호랑이를 잡는 포수를 ‘착호포수^{捉虎砲手}’라고 불렀다. 호환이 확산되면서 이름을 날리는 직업적인 포수들이 생겨났으나 을사늑약으로 인해 총포류 소지가 금지되며 크게 쇠퇴하였다. 이 때문에 포수들은 의병활동을 하며 항일투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萬機要覽, 備邊司謄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朝鮮王朝實錄, 구한말 관북지방 산포수의 범의 항전과 북상도강(박민영, 한국학연구6·7,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6), 사냥으로 본 삶과 문화(심승구 외, 국사편찬위원회, 2011), 산척 조선의 사냥꾼(이희근, 따비, 2016), 정호기(山本唯三郎, 이은옥 역, 에이도스, 2014), 조선시대 사냥의 추이와 특성(심승구, 역사민속학24,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조선시대 호환과 국가의 대책(조계영, 사학연구91, 한국사학회, 2008), 조선의 생태환경사(김동진, 푸른역사, 2017), 조선전기 호포정책 연구(김동진, 선인, 2009),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遠藤公男, 이은옥 역, 이담북스, 2009).

필자 심승구(沈勝求)

호암사

虎巖寺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에 위치한 호랑이와 관련된 사찰의 이름.

개관 호암사는 충청남도 부여 규암면 천정대 아래에 있는 사찰이다. 백제시대에 창건된 사찰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창건 연대나 창건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폐사 연대 또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선 초기 이후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의 호암사는 최근에 중창한 것으로 법당, 요사채, 산신각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불교태고종에 속한다. 과거의 절터인 호암사지는 1982년 충청남도 기념물 제 32호로 지정되었다.

내용 호암사의 창건연대 및 창건자는 미상이다. 절 근처에 호랑이 발자국이 새겨진 바위(호암)가 있어 호암사라 칭하였다고 한다. 호암에 대해서는 호암사의 아랫마을에 정착한 임씨林氏 가문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임씨의 증시조가 이곳에 숨어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매일 호랑이가 식량을 가져다주어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으며 호암에 새겨진 호랑이의 발자국은 이때에 생겨났다고 한다. 이후 임씨 가문은 크게 번성하였고, 호랑이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매년 호암에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호암사 인근에 위치한 정사암과 관련된 내용이 남아 있다. 정사암은 백제시대에 귀족들이 모여 정치를 논하고 재상을 뽑던 자리로 삼국시대의 정치가 귀족연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따르면 “호암사에는 정사암政事巖이라는 바위가 있는데, 나라에서 재상을 선임할 때는 후보로 3, 4인의 이름을 써서 함봉하여 바위 위에 두었다가 얼마 뒤에 개봉하여 그 이름 위에 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으로 재상을 삼았다.”라고 한다.

참고문헌 三國遺事, 전통문화의 고장 부여(부여군, 1982).
필자 오세길(吳世吉)

호암산

虎巖山

산 정상에 호랑이 형상의 바위(범바위)가 있거나 산세가 호랑이와 닮았다 하여 붙여진 산의 이름.

개관 호암산은 좁게는 호랑이를 닮은 바위가 있는 산이란 의미이다. 이런 점에서 호암산은 범바위(호암)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명으로 볼 수 있다. 넓게는 산의 형세가 호랑이와 닮은 경우에도 호암산이라 하는데, 이는 범골(호동)이라는 지명과 주로 관련된다. 호암산이라는 지명은 경상남도·경상북도·전라남도·강원도·충청남도·서울특별시·경기도 등 전국적인 분포 양상을 보인다. 이 중 여수 지역의 유래담에는 <단군신화>가 보여주는 호랑이의 속성이 나타나 있으며, 서울에서는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행적을 담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내용 호암산의 지명 유래는 산 정상에 호랑이를 닮은 바위가 있거나 산세가 호랑이의 형상과 유사하여 형성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역사적 사건이나 호랑이에 대한 민중의 인식이 투영되어 그 내용이 확장되기도 한다. 서울 금천구의 호암산은 이성계의 한양 천도와 호암사虎巖寺의 사찰 창건과 관계가 있다. 호암산 정상에 호랑이 형상의 바위가 있어 이것이 한양에 재앙을 줄 수 있다고 여긴 이성계는 바위 북쪽에 활에 해당하는 궁교弓橋와 사자에 해당하는 사자암을 지어서 호랑이가 한양으로 날뛰지 못하게 하였고, 무학대사는 호암산의 기세를 막기 위해 사자 형상을 띤 호암사를 세웠다는 것이다. 한편 전남 여수시의 호암산의 유래담에는 단군신화에 나타난 호랑이의 속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마을의 처녀를 사랑한 호랑이가 인간이 되기 위해 100일 동안의 금기를 지키고자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여 호랑이 형상의 바위로 변하였고 그 산을 호암산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서울지명사전(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 2009), 한국불교전설99(최정희, 우리출판사, 2020), 한국지명유래집-경상(국토지리정보원, 진한엠앤비, 2015).
필자 오세길(吳世吉)

신성과 벽사의 호랑이

Divinity and Purification through the Tiger

- 상여장식
- 상인일
- 설화 속 호랑이
- 수호랑
- 시묘살이 도와준 호랑이
- 신림
- 신성과 벽사의 호랑이
- 애호
- 이
- 여름에 홍시 구한 호자
- 여자 음부 보고
- 도망간 호랑이
- 오뉴월 손님은
- 호랑이보다 무섭다
- 용호문배도
- 이빨 빠진 호랑이
- 입지한
- 정호기
- 제호이위신
- 조선표상화
- 종이호랑이
- 착호갑사
- 창귀
- 청양 범놀이
- 츄츄는 호랑이
- 침호두
- 태백황연동유령산령당
- 토끼의 재판
- 팔죽할때와 호랑이
- 포호정책
- 한국표범
- 해수구제사업
- 해와 달이 된 오누이
- 호건
- 호골
- 호들이
- 호동
- 호랑이 관련 용어와 표상
- 호랑이 눈썹
- 호랑이 배 속 구경
- 호랑이 별주부 상면 대목
- 호랑이 잡은 기름강아지
- 호랑이 잡은 비루먹은 강아지
- 호랑이 장가 가는 날
- 호랑이가 깃든 물건
- 호랑이가 잡아준 명당
- 호랑이굴
- 호랑이꿈
- 호랑이띠
- 호랑이로 변한 남편
- 호랑이발톱노리게
- 호랑이벽화
- 호랑이부적
- 호랑이선생님
- 호랑이연고
- 호랑이와 꽃갑
- 호랑이의 보은
- 호랑이의 생태와 역사
- 호랑이포수
- 호랑이풀
- 호랑이형님
- 호랑이홍배
- 호랭이술
- 호살랑곳
- 호서낭
- 호석
- 호수
- 호식당할 운명
- 호식장
- 호암사
- 호암산
- 호열자
- 호자
- 호탈곳
- 호피
- 호환
- 호부와 호랑이
- 호자 태워 나른 호랑이
- 강감찬
- 개가하지 않은 떠느리
- 도운 호랑이
- 견훤
- 공주동해리산신제
- 곽재우
- 구시월 도지는 호랑이도
- 무서워한다
- 금산진악산물골봉기우제당
- 금산친내리용호석
- 김현감호
- 김호랑이굴
- 가치호랑이
- 꼬리 잘린 호랑이
- 나도밤나무
- 남매탑
- 단군신화
- 라이저
- 매추라기의 꿈지
- 문자 쓰다 장인 잃은 사위
- 밀양 용호놀이
- 반쪽이
- 백두산호랑이
- 백호
- 백호기
- 범골
- 범바위
- 범이 불알을 동지에 열구고
- 입춘에 녹인다
- 변신한 호랑이를 물리친 사람
- 복호
- 사람을 사랑한 호랑이
- 사신
- 사신반흔곳
- 산맥이
- 산신
- 산중호걸
- 삼재부적
- 삼척갈남마을백호서낭제



신성과 벽사의 호랑이

강경표(국립민속박물관)

호랑이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물리적 강함'이다. 호랑이의 위협이 끊이지 않았던 과거에는 호랑이가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이는 무서움·용맹스러움·신비스러움으로 확장하였다. 호랑이는 이내 든든한 수호신으로 숭배의 대상이 되어 소원을 들어주고 나쁜 것을 물리쳐 주는 신으로 여겨졌다. 호랑이를 신격화한 사례는 마을 뒷산을 지키는 산신에서부터 시공간을 지키는 십이지신¹⁾과 그리고 우주의 질서를 지키는 사신²⁾까지로 확장한다.

호랑이 숭배의 시작

호랑이 숭배는 산악숭배 사상으로부터 시작한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산을 신성한 곳으로 생각하였고, 산에 사는 강인한 동물 또한 영물이라고 여기며 신성시하였다. 호랑이는 산속 영물의 대표적인 동물이다.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호랑이를 산신·산신령·산군 등으로 부르며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이경숙 2016). 이러한 흔적은 선사시대 청동기와 암각화에 나온 호랑이 형상 그리고 <단군신화>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단군신화> 속 호랑이를 믿는 부족은 환웅족과 결합하지 못하며 이야기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지만, 호랑이는 그 이후 마을 공동체 신앙으로 자리를 잡는다. 호환³⁾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위험한 맹수이지만, 그 특유의 위용과 용맹함으로 사람들을 보호해 주길 바랐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를 산신으로 모셨다.⁴⁾

호랑이는 우주 네 방위를 담당한다고 여기는 상징적인 동물인 사신 중 백호로, 또 시공간을 상징하는 12가지 동물신인 십이지신 중 인⁵⁾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호랑이는 수호와 함께 벽사⁶⁾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민간에서는 호랑이가 액을 물리고 복을 부른다고 믿었고, 이러한 믿음은 민속신앙·세시풍속·민속놀이 등에 반영되었다.

신이 된 호랑이, 산신 산군

호랑이와 관련한 민속신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신을 모신 산신각·삼성각·칠성각 등을 전국 어디

1) 한국문화의 대표 호랑이 얼마나 알고 있나요?(국립민속박물관, blog.naver.com/tmfk/220059690695)



산신도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산신을 모신 사당에는 산신도가 그려진 것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산신도에는 호랑이가 등장한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 복된 삶을 위해 산신을 찾아 산신제와 서낭제를 지낸다(이경숙 2016).

대표적인 호랑이 관련 산신제로는 산맥이, 공주동해리산신제, 침호두沈虎頭, 금산진악산물굴봉기우제당, 금산천내리용호석, 태백향연동유령산령당, 삼척백호서낭당(제) 등이 있다. 또한 호환으로 죽은 사람을 위로하는 제사인 호서낭, 창귀, 호식장虎食葬, 사신반혼굿, 호살량굿, 호탈굿 등도 있다.

액을 막는 호랑이 그림 · 부적

나쁜 기운을 쫓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호랑이 형상의 부적과 그림을 집안에 두기도 한다. 특히 호랑이 부적을 삼재三災(풍風·수水·화火)에 의한 재난)와 병을 쫓는 부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호랑이의 벽사 기능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다(이경숙 2016).

호랑이띠, 상인일, 애호

세시풍속에 등장하는 호랑이를 살펴보면 십이지신에서 파생된 호랑이띠와 상인일上寅日, 벽사의 기능에서 나온 애호艾虎 등이 있다.

십이지는 특정 장소를 수호하는 방위신 개념에서 더 나아가 한국문화 속에서 더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였다. 천문과 역법에서는 방위와 시간의 개념으로, 풍수·점복·해명解名·택일·사주·궁합 등에서는 길흉을 예지하는 비결로, 농묘의 호석과 사찰의 불화 그리고 민화 등에서는 제액초복除厄招福의 수호신 또는 길상을 상징하는 도상 형태로, 생활 용구나 각종 장식물에서는 장식용 문양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²⁾ 세시풍속과 관련한 것은 대표적으로 ‘정초십이지일正初二支日’과 ‘띠 문화’가 있다.

‘정초십이지일’은 정월 초하루부터 열이틀까지를 이르는 말로, 십이지十二支에 해당하는 열두 동물들의 날을 의미하는데, 각각의 첫 십이지일에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각종 행사와 특별한 금기가 있다. 이 중 첫 호랑이날을 상인일이라고 하는데, 이날 가게를 열면 번창하기 좋다고 보았다. 또한 호환을 당하지 않기 위해 아침 일찍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사람에게 경사스러운 행위를 많이 하도록 하였다고 한다.³⁾

‘띠 문화’는 해의 순환과 관련이 있는데, 한국은 연말연시에 새해를 새로 맞이하면서 그 해의 수호동물을 십이지의 순서별로 정하였다. 이후 십이지 동물

을 통해 한 해의 운수를 점쳤다. 또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운명과 성격을 띠 동물과 연관 지어 보려 하였으며, 그 아이가 자라나서 결혼을 앞두었을 때 결혼 상대의 띠와 궁합을 맞추면서 띠를 거론하기도 하였다. 이에 사람들은 새해가 호랑이해라면 호랑이와 같은 기세로 한 해가 잘 풀리길 바랐으며, 호랑이띠를 가진 아이는 호랑이의 좋은 특성을 물려받아 용감하고 배짱 있는 스타일이라고 보았다.

애호는 쭉으로 만든 호랑이를 가리킨다. 12절기 중 단오端午에 애호를 머리에 꽂거나 문에 매달아 놓는데, 이를 통해 잡귀를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⁴⁾

용호놀이, 범놀이

민속놀이로는 사신의 개념에서 파생된 밀양 무안 용호놀이와 벽사의 기능에서 나온 청양 범놀이 등이 있다. 밀양 무안 용호놀이는 정월 보름날 경상남도 밀양 무안에서 행해지는 줄싸움놀이로, 풍수사상과 관련이 있다. 무안마을을 둘러싼 동쪽과 서쪽 산을 풍수사상에 따라 좌청룡·우백호로 보는데, 이 두 산이 마주보고 대결하는 형상이다. 사람들은 용은 농사에 필요한 비를 주는 영험함이 있고, 호랑이는 벽사의 기능이 있다고 믿었기에 농사가 잘되고 벽사를 바라는 신앙에서 이러한 놀이를 하였다고 한다.⁵⁾ 청양 범놀이는 정월 대보름에 충청남도 청양의 도립리 마재마을에서 행해지는 세시놀이이다. 막대·맷방석·짚으로 범의 형상을 만들어 뒤집어쓰고 각 가정을 도는데, 이러한 놀이를 함으로써 잡귀를 쫓는다고 보았다.⁶⁾

우리 민족에게 호랑이는 산신에 이어 백호와 십이지로 신격화되며 수호와 벽사의 기능을 갖게 되었다. 호랑이의 위력으로 사악한 것을 쫓고 복받기를 갈망한 우리 조상들은 민속신앙·세시풍속·민속놀이 등에 호랑이와 관련한 믿음을 반영하였고, 그렇게 호랑이는 우리 문화 속에 녹아들어 전해오고 있다.



십이지 도판 | 가로16.7cm 세로21.9cm | 200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4) 한국세시풍속사전-여름(국립민속박물관, 2005), p163.

5)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국립민속박물관, 2004), pp243~244.

6) 한국민속예술사전-민속놀이(국립민속박물관, 2015), p315.

2)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국립민속박물관, 2004), p83.

3)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국립민속박물관, 2004), p83.

참고문헌 근대 이전 호랑이 상징성 고찰(박은정, 온지논총43, 온지학회, 2015), 분석심리학 관점에서 본 민화에 나타난 호랑이의 원형과 상징에 관한 연구(이경숙,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2016), 십이지신(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2017), 한국민속신앙사전-가정신앙1·2(국립민속박물관, 2011), 한국민속신앙사전-마을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10), 한국민속신앙사전-무속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09), 한국민속예술사전-민속극(국립민속박물관, 2015), 한국민속예술사전-민속놀이(국립민속박물관, 2015), 한국세시풍속사전-여름(국립민속박물관, 2005),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국립민속박물관, 2004), 국립중앙박물관(Google Arts & Culture, artsandculture.google.com/partner/national-museum-of-korea), 어린이·청소년 문화재청(kids.cha.go.kr), 우리역사넷(contents.history.go.kr), 한국민속대백과사전(folkency.nfm.go.kr).

공주동해리산신제

公州東海里山神祭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동해리에서 매년 음력 시월 초사흘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할 목적으로 행하는 의례.

역사 동해리산신제의 역사는 분명치 않지만 조선 후기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제임이 분명하다. 구전에 따르면 이 마을은 옛날에 호랑이를 비롯한 맹수들이 극성을 부려 많은 인명 피해를 보았다. 주민들은 함정을 파고 호표虎豹를 퇴치하려 하였으나 아무런 효험을 거두지 못했다. 이에 주민들은 호랑이가 산신령의 사자使者라고 여겨 제당을 마련하고 매년 산신제를 지내자 신기하게도 호표의 출몰은 자취를 감추었고, 그 뒤로 산신제에 더욱 치성을 드리게 되었다고 한다.

동해리에서 산신제의 역사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는 19세기 후반에 중수되는 산향계山響契 자료이다. 동해리 산향계는 산신제를 주관하기 위하여 결성된 마을의 자치 조직으로, 1885년 3개 향의 범례를 정하고 상계원과 하계원의 좌목座目 명단을 재정비한 기록이 남아 있다. 여기에 적시된 범례는 “① 산제일에 상향계원은 마땅히 재계齋戒하고 모여서 치성을 드리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 ② 이 계의 규칙은 다른 계보다 더욱 소중함이 있으니 특별히 계에 힘쓰이 마땅할 것 ③ 축문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축문을 사용하되 정성껏 읽을 것” 등으로 되어 있다.

이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동해리산신제는 늦어도 18세기부터 지속되어 온 의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동해리를 비롯한 주변 마을의 보편적인 관행으로 보인다. 태화산 기슭에 위치한 동해리는 첩첩산중의 두메로서 ‘하늘 아래 끝 동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공주에서 가장 궁벽한 산간마을로 손꼽힌다. 일찍이 정감록에서는 ‘유마양수지간維麻兩水之間 가활만인지지可活萬人之地’, 즉 유구와 마곡사 양수지간에 만인을 살릴 십승지+勝地의 하나로 지목되었다. 그 비결을 믿고 많은 사람이 병화病禍를 면할 수 있는 태화산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한말에 갑오농민혁명의 도화선을 제공한 고부군수 조병갑이 은신한 곳도 동해리 선학동이었다. 이렇듯 태화산 기슭에 터전을 마련한 주민들은 예부터 그 산신을 매우 영험하게 생각하여 해마다 호환虎患을 막고 역질疫疾이 소멸되기를 기원하는 산신제를 지내 왔다. 이러한 사실은 1930년에 새롭게 제정되는 산향계 규약에 “본계의 설립 목적은 동해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산신의 가호神賴之瀾를 입을 목적으로 설립한다.”라는 구절에도 잘 나타나 있다.

내용 동해리산제당은 본래 재궁동 7부 능선에 위치했다. 재궁동은 동해리에서 가장 먼저 형성된 마을이며 산신제 역시 이곳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당



동해리 산제당 | 충남 공주 | 2008 | 강성복

은 본래 특별한 당집이나 신체神體를 봉안하지 않은 자연제당으로서, 단지 바위 앞에 평편하게 다져 놓은 제단이였다. 그러나 마을이 점점 커지면서 두 차레나 산제당을 옮기는 과정을 거친 끝에 마을 앞 도개비바위 곁에 부지를 매입하여 1985년에 이진하였다. 산제당이 위치한 곳은 풍수설에서 ‘혈식천추血食千秋’, 즉 피제사 천년을 받들 터전으로 구전되고 있으며, 매년 그 옆에서 희생으로 바칠 황소의 도살이 이루어진다.

1. 제일 택일: 제일은 해마다 음력 시월 초에 길일로 택했다. 그러나 제를 앞두고 초상이나 출산이 발생하면 날짜를 연기해야 하는 탓에 어려움이 많았다. 심지어 개, 돼지, 소가 새끼를 낳아도 부정하다 하여 날짜를 연기했다. 그러다 보니 늦어져서 11월에 산신제를 지낸 해도 있다. 이로 말미암아 산향계의 결의를 거쳐 1954년부터 매년 시월 초삼일로 고정하게 되었다. 또한 제일을 고정한 이후에는 설령 부정한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산신제를 지낸다. 이 때문에 제를 앞두고 집안에 부정한 일이 생긴 사람은 함구하고 있다가 산신제가 끝난 뒤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린다고 한다. 제의기간 사흘 동안에 초상이 나면 해당 마을에서만 산신제에 참석하지 못할 뿐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2. 공양주·제관·축관: 제관은 부정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생기복덕生氣福德을

가려 공양주供養主, 제관, 축관을 선정한다. 제관은 시월 초하루부터 찬물로 목욕 체계 하는 등 엄격하게 금기를 지켜야 한다. 특히 제물을 준비하는 공양주의 금기는 매우 까다롭다. 이 때문에 공양주는 대문 밖 출입을 일절 금한 채 사흘 동안 정성을 들여야 한다. 마을에서도 산신제가 임박하면 부정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마을 전체가 매사에 조심하고, 산신제를 마칠 때까지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한다.

3. 산향계 통문: 산신제 사흘 전에 산향계에서는 통문通文을 발송하여 모든 계원이 성심계계誠心齋戒하고 상호간에 다투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한다. 통문에는 치성기간 및 금기사항, 공양주·제관·축관 명단, 산제당의 개초蓋草(이영으로 지붕을 임) 당번 등이 기재된다. 특히 통문에는 통문을 보는 즉시 동물의 살상 도구를 봉인하고, 치성기간인 음력 시월 초하룻날부터 초사흘날까지는 험담과 싸움을 금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산제당의 개초를 맡은 마을은 상주를 제외하고 짚단 한두 단씩을 가지고 나와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부정을 엄격하게 가리는 산신제의 전통은 지금도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 그리하여 추수가 이루어지는 기간임에도 산신제를 준비하는 사흘 동안에는 마을에서 기계소리를 내는 것조차 부정하게 여겨 방아 찧는 일도 금기시한다.

4. 제물의 준비: 동해리산신제는 산향계에서 주관한다. 산향계는 이장이 의무적으로 계장이 되고, 자연촌 단위의 반장이 간사가 된다. 계장은 매년 9월 상순에 간사들만 참여하는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계원들이 납부할 헌성금獻誠金 액수를 결정한다. 아울러 각 마을의 간사가 집집마다 헌성금을 수합하면 계원 중에 적당한 사람으로 순색모우純色牡牛를 구입할 때우인買牛人과 이 소를 임시로 먹일 사육인飼育人을 선정한다. 여기에서 순색모우는 잡털이 박히지 않은 황소를 말한다. 단 뿔이나 꼬리가 빠진 소는 안 되고, 비육이 좋은 것으로 하되 값을 흥정하지 않아야 한다. 예전에는 공주장이나 인근의 5일장에서 주로 소를 구입했지만, 희생물로 사용할 소를 고르는 일이 쉽지 않은 까닭에 간혹 연기장까지 왕복 100리가 넘는 발품을 팔기도 했다.

산신제의 제물은 희생으로 바칠 황소를 비롯하여 삼색실과 떡, 메, 술, 북어, 탕, 다시마, 메밀범벅 등이다. 모든 제물은 공양주가 손수 마련하지만 황소의 도살은 부정이 없는 사람 중에서 별도의 인원을 선정한다. 이때 도살된 희생물 가운데 땅에 닿은 절반 부분은 부정하다 하여 쓰지 않고 하늘로 향한 상향편을 열두 가지 부위로 해체하여 진설한다. 산신제에 올리는 부위는 쇠머리, 우족, 장골, 흉골, 갈비, 등심, 안심육, 외심육, 간, 지라, 심통 등이다.

5. 산신제: 희생의 도살과 제수 준비가 다 되면 공양주, 제관, 축관은 두루마기로 갈아입고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산제당으로 향한다. 제장에 도착하면 공

양주는 쌀을 씻어 화톳불에 메를 짓는다. 같은 시각 산제당 밑에 묻어 놓은 술독을 꺼내 용수로 제주를 걸러 동이에 담는다. 이윽고 산제당 곁에 있는 도깨비 바위에 메밀범벅을 올려놓고 간단하게 고사를 지낸다. 이는 혹시 깃들었을지도 모를 잡귀와 도깨비를 위무하고 제어함으로써 제장을 정화하기 위한 일종의 부정풀이 의식이다. 산신제는 유교식 제차에 의거하여 분향—헌작—독축—아헌—종헌—사신—음복의 순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절차인 소지는 맨 먼저 동해리산신령洞海洞山神靈을 올린 다음 동해대동洞海大洞, 사곡면장, 사곡면지서장, 이장, 공양주·제관·축관, 장로長老, 계원일동, 입대자 등 순으로 불사른다. 이때 소지를 올리는 제관과 축관은 사전에 작성된 명단에 의거하여 한 사람씩 차례로 “이 소지는 ○○생 아무개 소지입니다.”라고 아뢰 다음 당사자의 가내 평안을 고사덕담 형식으로 축원한다.

6. 희생의 분육 및 경매: 산신제를 마치면 당일 저녁에 희생으로 올린 황소를 공양주의 집으로 옮겨 헌성금을 낸 계원들에게 두세 근씩 분육分肉한다. 이를 ‘주비끼’라고 한다. 주비끼는 다섯 가구를 1조로 하여 고기를 나누어 주면 다시 다섯 집이 고기를 나누어 갖는 독특한 분육 방식이다. 산향계원의 수가 150여 명이다 보니 대략 30주비끼 안팎의 분육조로 구성된다. 이때 산신제에 헌신한 공양주, 제관, 축관 및 도살에 참여한 사람들은 ‘분육예차例肉例次’에 따라 그동안의 노고에 보답하는 뜻으로 고기를 조금 더 준다.

분육을 마치면 소의 뼈, 가죽, 장기 등은 즉석 경매를 통해 매각한다. 경매가 시작되면 어시장을 방불케 하는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마을 사람들은 가격이 조금 비싸도 산신제에 올린 희생물은 재수가 좋다고 여겨 다투어 경매에 임한다. 판매되는 부위는 우두牛頭, 장골長骨, 소골掃骨, 항골項骨, 흉골胸骨, 방골肋骨, 두태豆太, 간肝, 처넙肝葉, 허파肺, 심통心痛, 우미牛尾, 우각牛脚, 우피牛皮, 협脇, 전족前足, 후족後足, 전경골前脛骨, 후경골後脛骨, 쓸개胆, 지방脂肪, 세목細目, 대소장大小腸, 지라脾 등이다. 희생의 매각 대금은 공동기금으로 예치하며, 매년 그 금액이 상당하여 산향계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고 있다. 밤이 늦도록 경매가 끝나면 주민들은 함께 음복을 나누고, 이튿날 산향계 임원들만 다시 공양주의 집에서 모여 조촐하게 주연을 베풀며 비용을 결산한다.

의의 동해리산신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별도의 주관 조직으로 산향계가 결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실 충청 내륙산간 지역에서 동제의 근간을 이루는 산신제는 이제 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단순한 제사의식만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동해리에서는 지금도 황소를 희생으로 바치고, 공동체 금기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등 19세기 이래 완고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그 이면에는 마을



황소 경매 | 충남 공주 | 2008 | 강성복

의 구성원과 객지로 떠난 주민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산향계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곧 산향계는 단지 비용을 부담하고 제를 주관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매년 산신제를 매개로 마을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실질적인 구심체로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산신제 이후에 이루어지는 독특한 희생물의 분육 방식인 주비끼와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즉석 경매는 그 정점에 있다.

참고문헌 공주 동해리 산향계의 성립과 산신제(강성복, 2010년 제28차 한국무속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무속학회, 2010), 공주지방의 민속신앙(공주문화원, 1995), 조선후기 충청지역의 동제 연구(강성복,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강성복(姜成福)

금산진악산물굴봉기우제당

錦山進樂山水窟峰祈雨祭堂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의 진악산 물굴봉에서 날이 가물 때 기우제(무제)를 지내던 제당.

형태 진악산 물굴봉기우제당은 금산을 내에서 서쪽으로 3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인삼의 발상지로 알려진 진악산은 해발 737m로 금산에서 최고봉을 이루

며, 상봉이 속칭 물굴봉(水窟峰)이다. 제당 형태는 당집이나 신위를 모시지 않은 자연 제당으로, 이곳에는 커다란 바위굴(石穴) 속에 못이 있어 명주꾸리 한 타래가 다 들어갈 정도라고 구전된다. 물굴은 상탕과 하탕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탕은 기우제를 행하는 곳이고, 하탕은 제관들의 목욕 및 제수를 준비하는 공간이다. 또한 물굴 위에는 '호룡혈' 또는 '등잔혈'로 불리는 천하 명당이 있어 기우제를 지내고 나면 암장한 시신을 파내며 비를 기원하는 풍속이 전승되었다.

역사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33 금산군 산천조에 “진악산 동쪽 봉우리에 석혈(石穴)이 있는데 너덧 걸음 들어가면 물소리가 요란하여 그 깊이를 알 수 없다. 전하는 말로는 용이 사는 곳이라 한다. 하늘이 가물 때 호랑이 머리를 넣으면 응험이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한국지명총람』(충남 편)에는 물굴에 대하여 “진악산에 석굴이 있는데 10m 들어가면 넓게 파진 곳에 물이 괴어 있고, 그 밑에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 깊이를 알 수 없으며, 이곳이 영험하다 하여 한재(旱災)가 있으면 기우제를 지낸다. 굴 위의 지형이 호룡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에 묘를 쓰면 시체는 용이 되어 승천하고 그 집안이 잘된다고 하여 가끔 몰래 묘를 쓰는 사람이 있다. 이곳에 묘를 쓰면 비가 오지 않는다 해서 가물이 계속되는 때에는 이 부근의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모여 그 묘를 기어이 찾아서 파내고 만다.”라고 소개되었다. 이상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진악산 물굴봉은 이미 조선 전기 이래 500여 년의 역사를 계승한 기우 제당임을 알 수 있고, 이 기우제 전통은 199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다.

물굴봉기우제에서 주목되는 점은 호랑이의 머리를 석굴 속으로 침수시키는 이른바 ‘침호두(沈虎頭)’ 의례가 내려왔다는 점이다. 본래 침호두는 흠향을 위해 준비되는 단순한 제물이 아니라 용호상박의 긴박한 적대관계를 촉발시키기 위한 자극물이었다. 이러한 침호두 기우법은 조선시대 국행 기우제의 하나로 정착된 것이다. 1474년(성종 5) 6월 예조에서 기우제 방법에 대하여 아홉 개의 항목을 정하고 실행하도록 하였다. 그 셋째 항목에는 “한강의 양진에는 침호두를 행하고 또 도류(道流) 하여금 용왕경을 읽게 하며, 박연(朴淵)에도 침호두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성현의 『용재총화』에도 이와 동일한 기록이 보인다. 이와 비슷한 조선 전기에 침호두는 지방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이며, 진악산물굴봉기우제가 바로 이러한 사례로 추측된다.

그러나 기우제에 쓸 호랑이를 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전에 쓴 썩고 묵은 호두를 사용하다 비난을 받은 사례도 보인다. 또 1660년(현종 1)에는 제일이 임박했음에도 호랑이를 잡지 못하여 돼지머리를 대용하는 논의가 있을 정도로 호두를 구하는 것이 곤란하였다. 20세기에 전승된 물굴

붕기우제에는 줄곧 돼지머리를 넣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돼지머리로 바뀐 것은 호랑이의 머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아울러 호랑이 대신 돼지머리를 넣기 시작하면서 그 의미도 애초와는 달리 물을 주관하는 용의 흠향(歆饗)을 위한 공양물 성격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내용 물골붕기우제는 조선시대 군·현 단위에서 수령이 주관한 읍치 기우제의 전통이 일제강점기 이후 민간 기우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극심한 한발이 지속되면 금산읍에 속한 대부분의 마을과 진악산을 끼고 있는 성곡리 주민들이 대거 참여하여 성대한 기우제를 지냈다. 그리하여 읍내에서 기우제를 지낸다는 소문이 돌면 마을마다 삼과 팥이를 들고 풍장을 올리면서 진악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를 위해 하루 전날 집집마다 대문 앞에 금줄을 치고, 병에 물을 가득 담아 청솔가지를 끼워 거꾸로 매달아 놓았다. 제관은 부정하지 않은 정결한 사람을 선정하였으며, 비용은 집집마다 쌀과 돈을 각출하여 충당하였다. 제물은 돼지머리, 떡, 삼색실과, 술 등이다. 제단에 제물이 진설되면 크게 징을 쳐서 알린다. 이를 신호로 제관이 “진악산 산신령님 강림하소서” 하고 아뢰면 참제자 일동은 재배한다. 이어서 유교식 절차에 따라 술을 올리고 축문 낭독 및 소지를 올린다. 간단한 음복이 끝나면 제관은 희생으로 바친 돼지머리에 돌을 매달아 물골 안으로 던진다. 그러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 돼지머리가 없어진다고 한다. 굴 안에 사는 용이 먹어치우기 때문이다.

무제를 마치면 물골 위에 있는 호룡혈을 파서 암장한 시신을 찾아낸다. 예부터 이곳에는 자손의 발복을 위해 몰래 묘를 쓰려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며, 누군가 호룡혈에 시신을 매장하면 그 집안은 번창하지만 인근 마을에는 극심한 한발이 닥친다는 속설이 전한다. 어느 해인가는 호룡혈을 파 보니 여러 개의 송장이 겹겹이 나왔다고 한다. 그것은 시신이 발각되지 않도록 평장(平葬)을 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속설을 믿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투장(偷葬)하려는 사람과 이를 파내는 작업이 반복되다 보니 호룡혈 주변에는 풀이 잘 자라지 않고 흙도 붉다고 한다.

참고문헌 新增東國輿地勝覽, 慵齋叢話, 국행기우제와 민간기우제의 비교연구(최종성, 종교학연구,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1997), 성곡리(안용산, 금산문화원, 1992), 장동이 민속지(강성복, 금산문화원, 1999), 충청민속문화론(강성복, 민속원, 2005), 한국지명총람 4-충남(한글학회, 1974).

필자 이해준(李海濬)

금산천내리용호석

錦山川內里龍虎石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에서 동제의 대상으로 치성을 받던 용석(龍石)과 호석(虎石). 1973년 12월 24일에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었다.

형태 천내리 서쪽으로 금강변 제원대교 인근에 고려시대 말기 때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용호석이 있다. 용석은 제원대교 북쪽 50m 지점에 있고, 그곳에서 230m 떨어진 들뜬에 호석이 있다. 용석은 70×80cm가량 되는 부정형의 대석 위에 조각되었다. 구름 문양이 소용돌이치는 돌기 사이에 꿈틀거리며 승천하는 용의 모습이 역동적으로 묘사되었다. 입에는 여의주를 물고 있으며, 사슴뿔 모양의 수염이 세밀하게 조각되었다. 호석은 110×80cm의 네모난 받침돌 위에 앞발을 세우고 앉아서 포효하는 호랑이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두툼하게 용기된 곡선과 원형을 교대로 조각하여 털무늬를 표현하였다. 호랑이의 몸은 서쪽, 머리는 북쪽을 각각 향하고 있다. 왼쪽 발에 꼬리가 감긴 채 잔뜩 힘이 들어간 것은 수호신으로서 긴장을 늦추지 않은 모습이다. 천내리를 기준으로 마을 앞 왼쪽에 용석, 오른쪽에 호석이 위치하여 좌청룡·우백호의 좌향(坐向)을 따르고 있다. 크기는 용석이 높이 138cm와 폭 81cm이며 호석은 높이 140cm이다.

역사 천내리용호석은 애당초 동제의 신앙 대상물이 아니라 공민왕의 능묘석으로 건립된 것으로 전해진다. 구전에 따르면 고려 말 흥건적이 침입했을 때 안동으로 피란온 공민왕이 지관에게 자신의 능묘를 정하도록 하였다. 지관이 금산 동쪽 20리 지점으로 태백산의 지맥이 떨어진 곳에 명당이 있다고 하자 공민왕은 필요한 석물을 갖추도록 했다. 그것이 지금의 용호석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민왕이 개경으로 환도한 뒤 피살되면서 방치되었다고 한다.

역사에 전하는 공민왕은 원나라의 오랜 간섭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국권 회복을 꾀한 군주였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흥건적의 침입과 잇따른 내부 반란으로 개경이 함락되는 등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공민왕은 개경을 버리고 경기도 이천을 거쳐 충북 음성, 충주, 죽령을 넘어 복주(지금의 안동)로 떠났다. 이듬해 공민왕의 환도 행렬은 “상주를 떠나 보은 원암을 지나서 옥주[옥천]에 한동안 머물다가 다시 회인을 거쳐서 청주로 갔다.”라고 『고려사(高麗史)』에는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공민왕이 옥천에 이르렀을 때 머무른 장소는 영국사(寧國寺)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용호석이 공민왕의 지시로 만들어진 석물이 사실이라면 이 기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서기 668년에 창건된 영국사는 공민왕이 국태민안을 기원한 사찰이라 하여



용호석 | 충남 금산 | 2010 | 강성복

그 이름을 개칭한 것이다. 이런 연유로 사찰 주변에는 공민왕과 관련된 수많은 전설과 지명이 전해지고 있다. 공민왕이 개경을 바라보며 나라의 안녕을 기원했다는 망탑봉과 속칭 공민왕망탑이라 불리는 3층석탑(보물 제535호)이 예이다. 또한 옥새와 노국공주를 숨겼다는 옥새봉, 공민왕을 호종한 6조의 대신들이 몸을 숨긴 옥조골, 노국공주와 공민왕이 가족으로 다리를 놓아 밤마다 상봉했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유다리 또는 누교리 등도 있다.

공민왕의 재위 기간은 대내외적인 시련기였다. 밖으로는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으로 잦은 국난을 당하였고, 안으로는 누차에 걸친 반란과 역모 사건이 발생하여 왕실의 안위는 풍전등화 그 자체였다. 이로 인해 오랜 행궁생활을 감수해야 한 공민왕으로서의 목숨마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공민왕이 금산 천내리에 능소를 정하고 장차 석물로 사용될 용호석을 제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용호석 제작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식 속에서 추진되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풍수지리상 요인도 빼놓을 수 없다. 천내리는 강원도 태백산에서 뿔어내린 한 지맥이 멈춘 곳이다. 풍수설에서는 ‘선인부사도강형(仙人浮槎渡

江形’, 즉 신선이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는 형국의 명당이 있다고 한다.

환도 후 공민왕이 그토록 총애한 왕비 노국공주가 1365년에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 충격으로 실의에 잠긴 공민왕은 방탕한 생활을 하며 정신병적 증세를 보인다. 그러다가 1374년에 공민왕이 마침내 신하에게 무참히 살해되는 비운을 맞이함으로써 천내리 능소는 끝내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방치된 용호석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좌정하여 천내리 주민들에게 동제로 치성을 받게 되었다.

내용

천내리에서는 매년 정월 초사흘날 자정에 산신제를 지낸 뒤 정월 열나흘날 저녁에 용호석제를 지냈으나 중단되었다. 엄격한 금기가 요구되는 산신제와 달리 용호석제는 단지 하루 전 또는 당일 아침에 용석과 호석에 원새끼를 두르고 황토를 뿌렸을 뿐 마을에서 크게 꺼리는 일은 없었다. 제관은 마을에서 부정하지 않은 사람으로 선정하였으며, 제를 앞두고 사흘 동안 정성을 들였다. 제물은 용석과 호석에 올릴 백설기, 돼지머리, 삼색실과, 포, 나물, 탕 등을 각각 준비하되 용왕신을 치제하는 용석제에는 미역을 따로 준비했다. 용호석제는 해질 무렵에 거행되었고,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그 제차는 용석에 먼저 헌작 재배하고 소지를 올린 뒤 호석 앞으로 가서 마을의 안녕과 가가호호의 무병제액을 축원했다. 용호석제를 마치면 더 두고 흠향하라는 뜻으로 떡과 제물을 조금씩 떼어놓고 온다. 이때 아이들은 이 음식을 먼저 먹으면 그해에 재수가 좋다고 하여 용호석제가 끝나기 무섭게 앞을 다투었다.

용호석은 천내리에서 개별적으로 치성을 드리는 사람이 많았다. 그리하여 매년 정초나 칠월 칠석, 시월상달에는 제수를 갖추어서 집안이 무탈하기를 기원했다. 특히 후사를 두지 못했거나 우환이 있는 가정은 신심으로 용호석을 위했다. 마을에서는 그 영험으로 아들을 얻었다 하여 태어난 아이에게 호석이란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다.

한편 천내리에서는 금강을 건너기 위해 예부터 전담 사공을 두고 나룻배를 운영했다. 이를 위해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배걸립굿을 통해 배의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다. 천내나무 배걸립굿이 대표적이다. 이 곳은 비단 금산 관내 뿐만 아니라 충북 옥천·영동 및 무주 일원을 망라하는 대규모의 걸립굿이었다. 상쇠·장구쟁이 등은 걸출한 솜씨를 자랑하는 전문 풍물꾼을 초빙하여 걸립단을 구성했다. 걸립이 시작되는 날 총대를 멘 화주(化主)는 걸립단을 대동하고 용석과 호석에 간단하게 제를 지낸 뒤 가까운 마을부터 걸립에 들어갔다. 즉 마을의 수호신으로 치성을 받는 용석과 호석을 돌며 출정을 알리는 제향을 베풀고, 이로써 걸립단의 안전과 원만한 걸립이 이루어지도록 기원한 것이다.

참고문헌 高麗思, 공민왕과 금산 용호석의 비밀(강성복, 국사편찬위원회 회보, 2002), 천내강 배결립곳(강성복, 금산문화원, 1999), 충청남도 문화재대관2(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2009).
필자 강성복(姜成福)

밀양 용호놀이

경상남도 밀양 무안에서 해마다 정월 보름날 놀았던 용과 호랑이의 상박 놀이.

개관 밀양 용호놀이는 경남 밀양 무안면 무안리에서 행해오던 민속놀이이다. 이 놀이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전래되어 오다가 일제강점기 때 중단이 되었다. 그 후 1960년대에 와서 차츰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갈 때, 현지 주민들의 노력으로 이 놀이를 재현하게 되었다. 무안은 원래 수안水安으로 부르다가 1922년부터 무안武安으로 바뀌 부르게 되었다. 이곳은 역원과 사창·시장이 있었으며, 창녕·청도·창원 등지로 통하는 교통과 교역의 중심지였다. 따라서 옛날부터 농산물의 집산지였고, 사람의 왕래가 빈번했다. 이러한 입지 환경에서 일찍부터 민중의 대동놀이였던 줄당기기, 용호놀이 등을 놀아왔던 곳이다.

용호놀이의 원형은 줄당기기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용호놀이는 조선 전기부터 놀아 왔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역사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고증할 방법은 없다. 용호놀이는 짚으로 용과 호랑이를 상징하는 큰 줄을 만들어 서로 상박하는 놀이인데, 이는 이곳의 진산이 서쪽은 백호 모양, 동쪽은 청룡 모양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이를 상징화하여 놀게 된 것이 그 유래라 한다. 이 놀이는 처음에 양쪽 대장이 줄머리에 타고 서로 부딪쳐서 승부를 내거나, 대장끼리 접전하여 떨어뜨리거나, 양쪽 줄 위에 호랑이와 청룡을 각각 만들어 태우고 이를 먼저 빼앗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겨루었는데, 모두 너무 격렬하



용호놀이 | 경남 밀양 | 용호놀이보존회

내용 용호놀이는 용龍과 호虎의 상징적인 싸움이다. 전해오는 풍수 사상에 의하면 명당은 사람이 양팔을 벌여 감싸듯 보한다고 여겼는데, 명당 둘레를 감싼 동쪽 산줄기를 좌청룡이라 하고, 서쪽 산줄기를 우백호라 한다. 산줄기를 신령한 동물인 청룡과 백호로 상징한 것이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무안의 용호놀이를 청룡과 백호의 싸움으로 설정해 놓고, 짚으로 큰 줄을 만들어 동쪽을 청룡 줄, 서쪽을 백호 줄로 명명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승부 짓기를 해오다가 지금은 동부의 청룡 줄에는 대장과 용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여의주를 태우고, 서부의 백호 줄에는 대장과 호랑이의 먹이가 되는 금양을 태워서 서로 공격한다. 대장은 큰 칼을 빼들고 군사들을 독려하고, 접전할 때는 상대방 대장과 칼싸움을 벌인다.

용호놀이를 할 때 옛날에는 줄당기기에 쓰는 큰 줄을 이용했으나, 요즘에는 아예 용호놀이에 쓰는 머리가 큼직한 대형 줄을 따로 만들어 이를 이용하고 있다. 이 줄은 머리 쪽의 원형의 고가 앞쪽으로 향하여 비스듬히 세워져 있어 접전할 때 양편 줄이 부딪쳐서 공중으로 치솟아 오르도록 만들어져 있다. 줄당기기 줄은 따로 만들어져 있는데, 길이가 약 100m 정도 되는 큰 줄로서 보통 한 줄에 약 100명의 인원이 붙어서 둘러메고 다닌다. 줄이 나갈 때는 농악대와 응원하는 마을 사람들이 양편으로 에워싸고 춤을 추며 따른다.

용호놀이는 음력 정월 보름날 무안마을 앞의 넓은 논밭에서 놀았다. 용호놀이를 연행할 때 독자적으로 용호놀이만 노는 것이 아니라 용호놀이의 전후에 앞놀이를 뒷놀이를 연결하여 놀았다. 옛날에는 앞놀이를 14일에, 뒷놀이를 16일에 놀았다 한다. 앞놀이로는 길놀이와 지신밟기를 놀았고, 뒷놀이로는 줄당기기와 판굿놀이 등을 놀았는데, 요즘은 모두 정월 보름날 모아서 함께 놀고 있다.

용호놀이는 모두 여섯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마당(전과장), 놀림 마당(농과장), 부름 마당(호과장), 비는 마당(고천과장), 싸움 마당(전과장), 뒷마당(화동과장)이 그것이다.

앞마당에서는 동편과 서편이 각각 자기 진영을 정하고 동편에서는 청룡기를 세우고, 서편에서는 백호기를 세운다. 이것이 자기 진영의 표시이다. 기의 앞에는 각각 청룡 줄과 백호 줄이 대기를 한다. 대장과 중장, 소장이 앞에 나와 결전의 자세로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우며 지휘를 한다. 풍물이 질탕하게 흐르고,

한쪽에는 막걸리 독이 준비되어 있다. 풍물패도 마시고, 군사들도 한 잔씩 마신다. 얼큰한 기분이 되어야 더욱 신나게 싸움을 펼친다.

놀림 마당에서는 한쪽 편이 다른 쪽 편 가까이 가서 놀리는 말을 퍼부어 악을 올린다. 말하자면 너희는 약자이니 싸움에 이길 수 없다고 무시하는 것이다. 풍물패를 앞세우고 상대편 진지에 가서 야유와 욕설을 퍼붓는다. 이때 풍물은 최고로 고조된다. 이렇게 하여 상대방의 기를 꺾어 놓고 돌아오면 이번에는 저쪽 편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 저쪽 편에서도 꼭 같은 행위로 도전을 한다. 이러한 놀림의 도전이 몇 차례 오가게 된다.

부름 마당은 싸울 자 있으면 나오라고 불러내는 것이다. 이야말로 정식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다. 한쪽 편이 상대방 편으로 가서 “힘 센 장수 있으면 나오시오. 한 번 붙자.” 그러다가 미처 나오지 않으면, “겁에 질려 못 나오지. 추위 땀구나!” 하고 막말을 한다.

비는 마당에서는 이제 양 진영에서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전열을 가다듬는다. 그리고 대장이 줄 앞에 서서 간단한 음식과 술을 부어 놓고 제사를 올린다. 이제 곧 결전에 들어가니 하늘이 돌보시어 꼭 이기게 해 달라고 고천제를 올리는 것이다.

싸움 마당에서는 본격적인 싸움을 벌이게 된다. 이제 바야흐로 전운이 감돈다. 양편 군사들은 줄을 메고 상대방을 향하여 돌진한다. 옛날에는 줄 위에 대장·중장·소장이 났으나, 요즘에는 대장과 여의주 혹은 금양만 탄다. 그야말로 용호상박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줄이 부닥치면 양쪽 대장은 장검을 빼어 들고 칼싸움을 벌인다. 그새 금양과 여의주가 상대방의 기를 먼저 빼앗아 오려고 날쌔게 설친다.

뒷마당은 놀이의 마무리를 짓는 단계이다. 승패가 결정 나면 진 편은 놀이 마당에 주저앉아 짚신을 벗어 들고 땅바닥을 치면서 눈물로 억울하다는 시늉을 한다. 그러다가 일어나서 다 함께 화동하여 풍물 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며 즐겁게 논다. 이때 마을 사람들이나 관중들이 함께 모여 춤추고 논다. 인생사 어려움을 잊은 채 즐거움을 만끽하며 순간을 즐긴다. 이러한 놀이를 통하여 농민들은 마을의 태평과 풍농을 기원하며 새로운 활력소를 충전하는 것이다.

용호놀이가 끝났다고 모든 놀이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옛날에는 16일에 줄당기기를 하고, 판굿놀이를 한판 벌인 다음 모든 보름 놀이를 끝냈다.

특징 및 의의

경남 밀양의 무안은 오래된 산간벽지 마을이어서 그런지 옛날부터 내려오는 조상 전래의 고유한 민속놀이를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고장이다. 정월 대보름에 다른 여러 곳에서도 행하는 줄당기기를 하면서도 또 다른 놀이인 용호놀이를

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영산에서는 쇠머리대기를 하고, 안동에서는 차전놀이를 하지만 무안에서는 용과 호의 싸움인 용호놀이를 벌였다. 쇠머리대기는 소와 소의 싸움을 형상화했고, 차전놀이는 수레와 수레가 서로 밀치는 싸움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용호놀이에서는 청룡과 백호의 싸움을 보여준다. 무안의 산세는 동편의 진등산과 서편의 질부산이 병풍처럼 마을을 둘러싸고 있어 풍수사상에서 말하는 좌청룡 우백호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용과 호의 싸움을 벌이는 민속놀이는 이곳 한 군데 밖에 없다.

용호놀이는 대단히 상무적이어서 마치 군대가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격렬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보는 이들도 전율을 느낀다. 줄 위의 대장은 장검을 빼들고 군사들을 지휘하는데 전진의 속도, 줄을 공중으로 떠받치게 하는 것, 힘차게 나아가 상대와 충돌하게 하는 것 등을 몸짓과 칼짓으로 알린다. 접전을 할 때 줄에 탄 대장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몸싸움을 하기 때문에 다치거나 낙하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놀이 때에는 맹렬히 싸우지만 싸움이 끝나면 적대감을 씻고 모두가 한마당이 되어 화동하여 논다. 무안 사람들은 이러한 민속놀이를 치르면서 마을 사람들끼리의 화합을 다져 왔으며, 새로 시작될 농사를 위한 새로운 힘을 비축하는 계기로 삼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용호놀이는 과거 즐길 거리가 없던 시절에 즐거운 마을 축제이기도 했지만, 농사의 준비를 기약하는 생산적인 행사가 되기도 했다.

참고문헌 무안 용호놀이 연구(배도식, 한국민속학16, 한국민속학회, 1983), 한국민속의 현장(배도식, 집문당, 1993),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배도식(裴桃植)

백호
白虎

백호白虎는 청룡靑龍·주작朱雀와 더불어 사신四神 중 하나로 묘를 비롯하여 궁궐과 하늘 등의 서쪽을 관장하고 지키는 신령이며, 풍수지리에서는 주산을 후편에 두고 바라보는 입장에서 서쪽으로 갈라져 나와 좋은 혈을 지켜주는 의미를 지님.

내용

사신도는 고대 중국의 음양오행에 입각한 우주관을 도상화한 것이라고 한다. 이 중 백호는 별자리가 금성, 방위는 서쪽, 음성은 상음, 색은 백白, 계절은 가을, 제신帝神은 소호小昊, 보좌 신령은 옥수籙收라고 하였다.

그리고 서쪽의 금금 기운을 맡는 태백신太白神을 상징한다. 『사기史記』의 주석서인 『색은索隱』에서 “서궁은 백제, 그 정은 백호西宮白帝其精白虎”라 설명하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함지가 속한 서궁은 백색(白)으로 나타내었고, 백호로 상징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호랑이는 문헌에서 여러 가지 별칭으로 쓰였는데, 이 중 백호는 백수(白獸·모수(毛獸·경호(庚虎·감(豮 등으로 쓰였다. 또한 하늘을 별자리에 따라 구분한 동서남북의 4관(四官 또는 4궁(四宮 중 서쪽에 속하는 규(奎(백호)·누(婁(백호의 새끼①)·위(胃(백호의 새끼②)·묘(卯(백호의 새끼③)·필(畢(호랑이)·자(子(기린 머리)·삼(參(기린 몸)을 다스리는 신령으로 여기며, 일곱개의 대표 별자리들은 전체가 백호 형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백호를 주로 서쪽을 관장하는 신령으로 여겨서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었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무용총, 장천1호분, 쌍영총, 강서대묘 등 고구려 고분 벽화에 그려진 백호는 일반적으로 용의 모습 또는 흰호랑이의 머리에 용의 몸통으로 그려졌다. 이 중 초기에 해당하는 4~5세기경에 축조된 매산리 사신총 등에는 지네처럼 긴 백호가 등장하며, 주로 천장에 그려졌다. 강서대묘를 비롯하여 6세기에 그려진 사신도는 무덤의 벽면을 장식하여 무덤의 피장자를 지키는 역할을 더욱 강화하였다. 백호를 용처럼 생각한 상상력은 용이 하늘과 바다를 거침없이 다니고, 비나 구름을 자유자재로 운용하는 영험한 힘이 있다고 믿는 데에서 나왔다. 백호를 용처럼 그린 전통은 고려시대에까지 이어진다. 조선시대에는 실제 흰호랑이가 그려지기도 하였다.

가루베 지은(輕部慈恩은 『백제미술百濟美術』에서 “송산리 6호분 벽화의 사신도 중 서벽 중앙에 그려진 백호는 대략 동벽과 같은 모양으로 구축된 벽면에 필요한 부분의 바탕에 붉은 흙을 바르고 그 위에 호분(胡粉)으로 남쪽을 향한 백호를



고려 석관의 백호 | 가로4 세로6 | 국립민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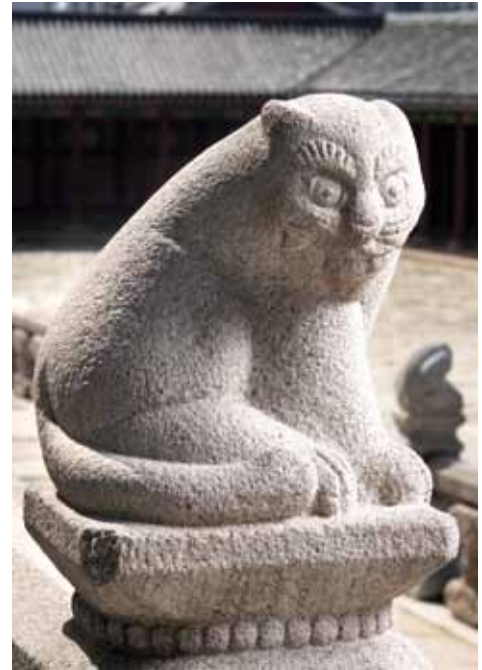
그린 것이다.”라고 서술하였다. 그 형상이 꽤 기운차고 생동하는 품모가 괴기하여 신묘한 맛이 엿보이며, 선을 사용하지 않고 전체를 하얗게 칠함으로써 이른바 백호의 이름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상한 것으로 여겼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석관과 동경에도 호랑이가 묘사되어 있다. 청자사신도관(靑磁四神圖 槓을 보면 관의 양옆 사방에는 음각 또는 양각으로 사신이 새겨져 있는데, 서쪽에 백호가 새겨져 있다. 이 사신도들은 한결같이 서운문이나 당초문으로 테를 둘렀거나 네 귀를 장식하였다. 백호상의 형태는 대부분 몸체를 길게 표현하고 우모형(羽形)의 날개를 달아 신수(神獸)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마을이나택지와 묘지의 위치를 정할 때 높은 산을 주산(主山)으로 보면, 주산을 중심으로 백호가 오른쪽에 좌정하여 왼쪽의 청룡을 감싸 안아서 좋은 혈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곽박의 『장경(葬經)』에 따르면 “뒷산의 오른쪽 산은 백호처럼 웅크려 앉은 모습이 좋다.”라고 하였다. 주택 주변의 지형지물도 사신과 대응하여 택지를 성화(聖化)하는 요소가 된다. 서유(徐有集(1764~1845)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상택지(相宅志)에는 “주택의 왼편으로 흐르는 물을 청룡, 오른편에 큰길이 나 있는 것을 백호”라고 하였다.

또한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 위 기단의 서쪽 계단 기둥에 백호가 자리하여 서쪽의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서쪽 문인 영추문에도 백호가 새겨져 있는 등 백호를 서쪽을 지키는 수호신장으로 여겼다. 그뿐 아니라 궁중에서 사용한 악기 중 어(敔는 서방(西方)의 음(陰)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등에 톱니 27개가 올려진 백호가 엮드려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밖에 백호가 그려진 백호기는 사직과 종묘의 제사, 조회, 절일 정지의 하례 등을 위시하여 왕과 왕태자·왕비 등이 행차할 때의 의장(儀仗)에 사용하였다. 조선의 대오방기(大五方旗)의 하나로서 우영(右營)을 지휘하는 의장기 역시 백호기로, 날개 달린 백호가 사슴뿔을 양손에 들고 서 있는 모습으로 장식된 깃발이다. 현대에 이르러 맹호부대와 백호부대 등 호랑이를 군부대 명칭에 사용한 사례도 있다.



경복궁 근정전 기단의 백호 | 서울 종로구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백호는 사신의 하나로 하늘의 별자리 중 서쪽을 관장하며, 고구려를 비롯하여 백제·고려·조선시대의 무덤이나 관에서 서쪽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궁궐의 기단이나 서쪽 문에 위치하여 이를 지키며, 궁중 음악에 사용하는 악기인 어 또한 서쪽을 관장한다고 여겼다.

왕의 행차에 사용하는 의장기 중 백호기는 우영右營을 지휘한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마을과 택지·묘지의 위치를 정할 때 백호는 주산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좌정하여 왼쪽의 청룡을 감싸 안아서 좋은 혈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참고문헌 근대 이전 호랑이 상징성 고찰(박은정, 온지논총43, 온지학회, 2015), 변신 신화에서 생활로(국립민속박물관, 2009), 사신(강영환, 한국민속신앙사전-가정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11), 百濟美術(輕部慈恩, 寶雲舎, 1946).
필자 김도현(金道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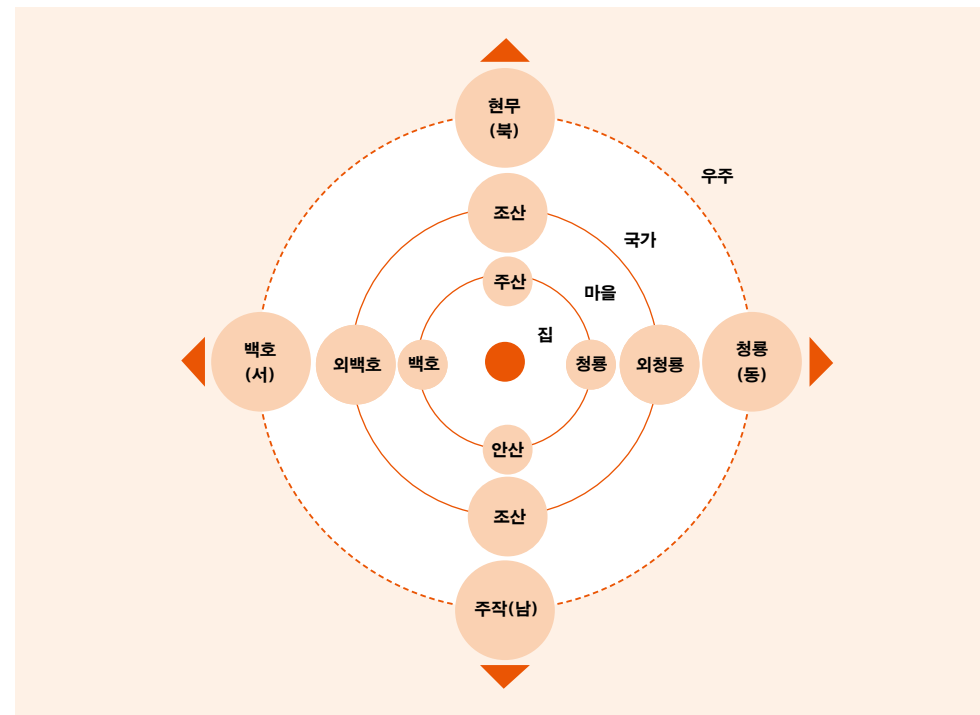
사신 四神

우주의 네 방위를 담당한다고 여기는 상징적인 동물. 동쪽의 청룡靑龍·남쪽의 주작朱雀·서쪽의 백호白虎·북쪽의 현무玄武를 말한다. 고대 중국의 우주관에서 비롯한다. 가정신앙에서는 담장, 즉 '울'에 머무른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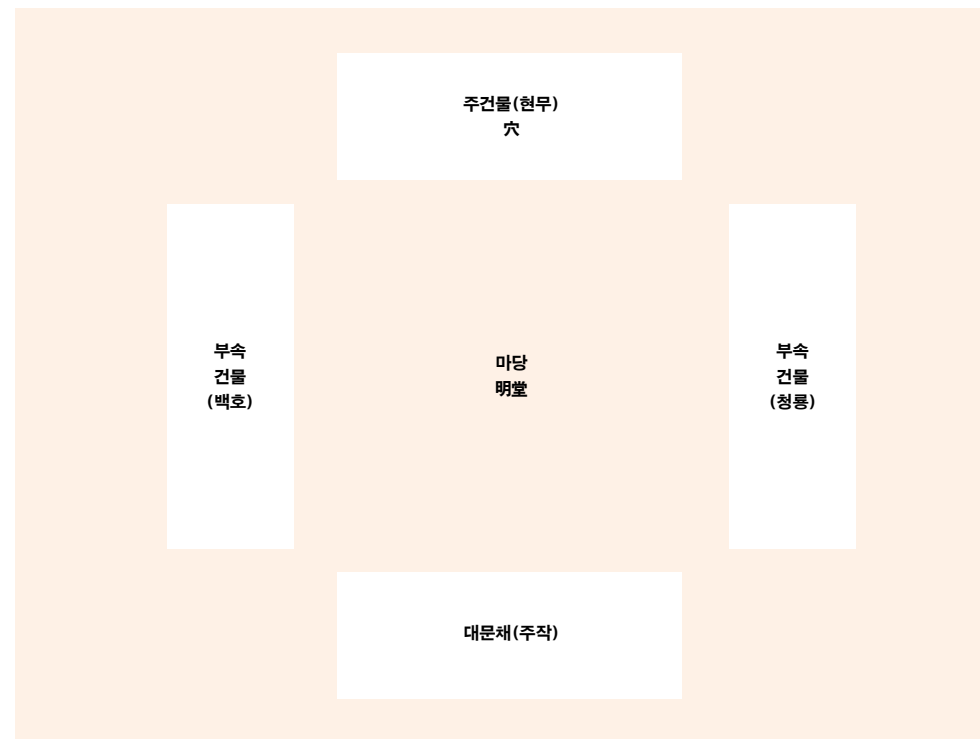
내용 사신은 본래 중국 고대사회에서 우주를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관념에서 출발한다. 현무는 황도상의 북방 일곱 별자리를 상징하며, 뱀과 거북의 합체로 표현된다. 백호는 황도상의 서방 일곱 별자리를 상징하며, 호랑이로 표현된다. 청룡은 동방의 일곱 별자리를 상징하며, 용의 모습을 하고 있다. 주작은 남방의 일곱 별자리를 상징하며, 봉황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각기 네 방위에서 우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상징적인 동물로서 사령四靈 또는 사수四獸로 불리기도 한다.

이후 사신은 무덤이나 건축과 같이 특정한 장소를 수호하는 사방수호신 개념으로 발전한다. 우주의 질서를 재현함으로써 일정한 장소가 성화될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이에 따라 무덤과 같이 죽은 자의 귀천을 기원하는 장소는 하늘 세계의 질서를 갖도록 구축되어야 했다. 이때 그 상징으로서 사신도가 그려진 것이다.

사신도는 중국의 전한시대 말부터 분묘를 장식하는 데 많이 나타난다. 묘실 사방 벽에 그려진 벽화나 화상석, 화상전, 와당의 문양 등에서 사신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러한 수법은 한반도에 전래되어 고구려 고분에서도 나타난다. 사신도가 그려져 있다 하여 사신총이라고 불리는 분묘도 있다. 사신도는 무덤 속에 잠든 이를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사방에서 지켜주는 모습을 취한 것이다.



영역인식의 동심원적 전개



주택건물의 풍수적 상징

풍수신앙이 발전하면서 사신은 신성한 장소를 에워싸는 지형적 요소로 대응된다. 풍수는 땅의 생기를 받아 피흉발복避凶發福할 수 있다고 믿는 관념으로, 땅속을 흘러 다니는 생기가 모여 있는 곳을 혈穴이라고 불렀다. 땅의 생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모인다고 생각하여 바람을 막고(藏風) 물을 얻을 수 있는(得水) 장소라는 의미에서 풍수라는 용어가 기원한다.

이때 사신사四神砂는 혈을 둘러싸는 네 방향의 산이나 언덕을 의미한다. 혈의 뒤쪽에 있는 것은 현무, 앞쪽에 있는 것은 주작, 왼쪽에 있는 것은 청룡,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백호라고 한다. 이러한 지형 요소들은 혈의 생기가 바람을 타고 흩어지지 않도록 바람을 막아주는 지형적 요소로 인식된 것이다.

사신에 해당하는 지형의 모습으로 혈의 좋고 나쁨을 판단한다. 이때 네 방향의 이상적인 지형의 모습은 사신의 모습과 닮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괘박郭璞의 『장경葬經』에 따르면 뒷산은 현무처럼 머리를 드리운 모습, 앞산은 주작처럼 날아갈 듯 춤추는 모습, 왼쪽산은 청룡처럼 길게 꿈틀거리는 모습, 오른쪽산은 백호처럼 웅크려 앉은 모습이 좋다고 했다. 이 역시 신적 존재가 사망을 호위함으로써 그 장소가 성화될 수 있다는 관념을 풍수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풍수의 ‘국局’은 우주적 조화와 질서를 갖춘 거룩한 땅을 의미한다. 사신은 성聖과 속俗을 구분하는 경계이며, 수구水口는 그 경계를 출입하는 입구이고, 주산主山은 천지를 연결하는 우주의 축cosmic axis으로 해석된다. 그 중심의 혈과 명당은 세계의 중심center of the world이 되어 소우주microcosm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는 하늘세계의 구조를 땅에 재현한 우주의 축소 모형으로서 동심원적 구조로 반복되면서 중심을 성화聖化시키는 모습을 갖는다. 무한한 대우주의 사신을 최외곽의 껍질로 하여 외청룡·외백호와 조산祖山·조산朝山은 마을의 바깥 껍질을 이루며, 다시 내청룡·내백호와 주산·안산은 안 껍질을 만들게 된다.

주택 주변의 지형지물도 사신과 대응하여 택지를 성화시키는 요소가 된다. 서유구徐有渠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상택지相宅志에는 “주택의 왼편으로 흐르는 물을 청룡, 오른편에 큰길이 나 있는 것을 백호, 집 앞에 연못이 있는 것을 주작, 집 뒤에 구렁이 있는 것을 현무라고 하여 이러한 지형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만약 땅에 이러한 상이 없으면 흉하다.”라고 하였다.

가정신앙에서는 주택의 영역을 두르는 담장, 즉 ‘울’도 사신의 의미를 지닌다. 주택의 중심에 혈과 명당이 있고, 울은 이것을 보호하는 인공적 구조물이기 때문이다. 울이 자연계의 바람을 막아주듯 집터의 생기가 흩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임원경제지』에서도 담장의 형태에 대한 길흉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토

담의 형상이 시위를 당긴 활과 같으면 주인이 부유해진다. 토담은 한 곳을 중후하게 쌓으면 한 곳을 봉우리처럼 올리며, 두 곳을 중후하게 쌓으면 두 곳을 봉우리처럼 올린다. 이렇게 하면 곡식이 많이 수확된다. 만약 담장이 나지막하게 빙 에두르고 있으면 길하지 않다.”

주택 안에 있는 건물도 각기 사신의 의미를 지닌다. 살림채는 현무, 좌우의 부속채는 각각 청룡과 백호, 대문채는 주작에 해당한다. 이로써 마당 안의 혈과 명당이 생기를 얻게 된다. 『임원경제지』에 “살림채의 좌향은 남향을 원칙으로 한다. 그 이유는 양기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 동쪽에 건물이 들어차고 서쪽에 건물이 비어 있는 집은 집안에 늙은 부인이 없어진다. 서쪽에는 건물이 있으나 동쪽에는 건물이 없는 집은 늙은 남자가 없어진다.”라고 하였다. 사신의 배치처럼 건물 네 동이 안마당을 둘러싸고 미음(口)자 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참고문헌 母空間의 原型-산과 천(임충신, 울산공대 연구논문집8, 울산대학교, 1977), 벽화어, 고구려를 말하라(전호태, 사계절, 2004), 새로 쓴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강영환, 기문당, 2002), 조선의 풍수(村山智順, 최길성 역, 민음사, 1990), 한국의 풍수사상(최창조, 민음사, 1984), 혈과 명당과의 관계를 통해 본 한국전통공간의 중심개념에 관한 연구(유재현, 울산공대 연구논문집10, 울산대학교, 1979).

필자 강영환(姜榮煥)

사신반혼굿

신호랑이에게 물려죽거나 사신으로 다녀온 사람이 있을 때 개를 잡아 놓고 그 혼을 달래는 굿.

내용 하나의 독자적인 굿이라기보다 큰굿을 할 때 중간에 삼입되어 관련 조상을 위로하는 굿이다. ‘호서냥’ ‘반혼굿’ ‘개반혼굿’ ‘호영산굿’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과거 호환虎患이 심할 때는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었지만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행해지지 않는 굿이다. 오늘날에는 무당들을 통해 이 굿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 있으나 무당에 따라서도 설명에 다소 차이가 있다.

김매물 만신은 이것을 ‘호서냥 반혼굿’, 또는 ‘개반혼굿’이라고도 하며, 범·개·뱀 등에 물려서 죽었을 때 하는 굿이라고 한다. 이선비 만신은 집에서 집굿을 하고 난 뒤 마당 밖 멀리 나가서 목신, 즉 나무 있는 곳에서 개를 잡아 한다. 이를 호서냥 반혼굿이라고 한다. 또한 돼지를 잡지 않는 굿이 반혼굿으로, 식상돋음도 같은 말로서 돼지를 잡지 않고 간단히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14 무의식』에는 “집안 조상에 사신으로 갔다는 이가 있다든가 호식虎食으로 죽은 이가 있으면 그 조상을 위하여 행하는 굿으로

‘개릉산’ 또는 ‘사신반흔곳’이라고 이른다. 조그맣게 시루를 찢 다음 개를 끌고 조용한 산에 가서 개를 잡아 가죽을 벗기고 조짚이나 수수짚으로 개 모양을 크기대로 만든다. 그 위에 개가죽을 씌워서 시루 앞에 놓고 개고기는 삶아서 큰 그릇에 놓고 간단히 굶을 한다. 만신은 개를 사신이라 하여 개를 타고 굶을 한다.”라고 한다. 이러한 설명을 종합할 때 사신반흔곳은 조상 중에 동물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있거나 사신으로 다녀온 사람이 있을 때 돼지 대신 개를 잡아 놓고 그 영혼을 달래는 굶임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호랑이 피해가 심했다. 오늘날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처럼 예전에는 호랑이나 각종 동물에게 물려 죽은 사례가 빈번하였다. 따라서 이렇게 죽은 원혼을 달래기 위해 이런 굶이 많이 행해진 것이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동물로부터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정확히 사신반흔곳의 유래는 알 수 없지만 아득한 옛날부터 이러한 무속의례가 행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례 호환이 없는 오늘날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굶을 보기가 힘들다. 따라서 상세한 조사도 어렵다. 그러나 황해도 이외의 지역에서 아직까지 전해지는 범굿이 있다. 경상도 동해안의 포항시 남구 대보면 강사리를 비롯하여 몇몇 마을이 그러하다. 옛날 호환이 심했던 강사리에서는 범굿이 중요한 굶거리였다. 그래서 호환이 없어진 근래에도 범굿이 마을의 전통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범에게 쇠머리를 대접하고 있으며, 범굿이 시작되면 무당은 종이로 만든 호피(虎皮)를 뒤집어쓰고 호탈놀이를 한다. 그리고 굶이 끝나면 쇠머리를 뒷산에 묻는다.

경기도 문산에서는 도당굿을 하고 호영산을 놀리는 놀이굿이 있다. 마을 사람들이 군웅할아버지, 선막동이, 후막동이, 호대감, 어릿광대 등 여러 배역을 맡아서 탈을 쓰고 노는 놀이로 호랑이를 잡아 액을 풀고, 호랑이를 놀리기 위해 호랑이가 개를 잡아서 산을 헤집고 다니는 놀이를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하여 호영산을 잘 놀면서 동네가 편안하게 해 달라고 기원한다. 그리고 이 놀이를 하고 나면 돼지머리를 바위 위에 올려 놓고 호랑이가 물어가도록 한다. 오늘날 경기도 성남 청계산 일대의 동제를 보면 제를 지낸 후 고깃덩어리를 제당과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두고 내려온다. 이것도 호랑이에게 주는 것이다. 한편 문산과 같이 호영산을 노는 놀이굿은 없지만 경기도 일대의 동제에서도 호환에 대한 두려움과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례적 행위를 엿볼 수 있다.

1998년 경기도 마석에서 황해도굿을 하는 한 무당의 신사맞이 때 대감거리에서 호군웅대감이라고 하여 호영산을 놀리는 굶을 하였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대감들을 놀리고 만신은 돼지 뒷다리를 들고 산으로 가서 나

무 밑에서 호영산대감, 수살대감, 목신대감, 벌대감, 들대감을 호명하며 빈다. 호랑이 낮이 실리면 돼지 뒷다리를 땅에 묻기도, 하고 땅을 기어다니며 낙엽을 던지기도 한다. 온 산을 기어다니면서 이 나무 저 나무 밑에서 돼지고기 덩어리를 던지고 입에 물고 다니며 호랑이 흉내를 낸다. 조금 내려와서 엽단지 위에 올려놓은 짚주저리를 뒤집어쓰고 머리를 흔들기도 하다가 땅을 기어다니며 장구 앞으로 와서 군웅이 놀 때처럼 바구니 안에 담긴 돼지 내장과 피를 먹기도 하고 산 쪽으로 뿌려주기도 한다. 이렇게 한 후 장구 앞으로 와서 공수를 하고 끝냈다.

범굿은 지역에 따라 마을굿에서 호영산을 놀리기도 하고,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조상을 위한 가정굿도 있다. 그만큼 과거 한국인의 일상에서 호환에 대한 두려움이 광범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에도 연로한 무당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곤 한다. 한 무당은 1980년대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방앗간을 하는 사람이 호랑이가 내려와서 개를 물어 가려는 것을 쫓았더니 그날로 주인이 병에 들어 죽었다는 말을 하였다. 이는 사실의 진위를 떠나서 여전히 민간에서 지금도 호랑이를 두려워하거나 신령스럽게 생각하는 사고가 잔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14-무의식(문화재관리국, 1983), 강사리범굿(하효길 외, 열화당, 1989), 문산도당굿과 호령산호대감놀이(김선풍, 청하성기조선생회갑논총, 신원문화사, 1993).
필자 김덕묵(金德默)

산맥이

강원도 영동 지역 주민들이 봄철에 좋은 날을 받아 조상신을 모시고 집안 대대로 정해 놓은 산에 올라가 산신, 삼신, 조상신, 군웅신, 용신에게 가족과 가족의 무사안녕 및 번창 그리고 농사 풍년을 기원하는 민간신앙.

역사 산맥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전승집단 구성원들은 마을의 입향시조(入鄕始祖) 때부터 대대로 이어온 민속인 만큼 수백 년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문헌기록은 빈약하다.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의 『추강선생문집(秋江先生文集)』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에 “영동 민속에는 매년 3·4·5월 중에 택일하여 무당을 맞이하고, 산해진미를 극진히 장만하여 산신에게 제를 지낸다. 부유한 자는 말에 신고 가난한 자는 짚어지고 가서 제단에 제물을 진설한다. 생황을 불고 북을 치며 거문고를 뜯는 등 연 사흘 동안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배부르도록 음식을 먹고 논 연후에 집으로 내려 온다.”라는 기록이 있다.

구체적인 제의 내용이 없어 단순한 산신제인지 집단적인 산맥이인지 불분명하지만 이 자료가 조선 전기의 산맥이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되고 있다. 조선 후기의 자료로는 홍석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소개된 충북 진천지역의 풍속으로 “3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여인들이 무당을 초빙하여 용왕당과 삼신당에서 제를 올린다.”라는 내용이다. 두 사례가 오늘날까지 영동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산맥이와 같은 유형의 산제山祭라고 보면 그 역사가 조선 전기로 소급되고 전승 범위도 넓어진다.

영동지역 산맥이에 대한 좀 더 정확한 기록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이 펴낸 『조선의 향토오락朝鮮の郷土娛樂』에서 볼 수 있다. 삼척지역의 봄철 놀이로 “문중별로 모여 집안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무당과 함께 산속으로 가서 산제를 올린다.”라는 내용이다. 삼척지역의 민속 조사 자료에서도 산맥이는 삼월삼짇날이나 사월초파일 또는 음력 삼월에 택일하는 봄철의 세시 풍속이고, 문중(씨족) 단위로 무당을 대동하는 집단적인 민속신앙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산맥이의 초기 형태는 한 마을에 사는 문중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행하는 민속이었다. 그러다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마을 내의 씨족구성원이 급격히 줄어들자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와 같이 마을 단위의 행사로 변한 곳도 있고 강릉지역의 사례처럼 각자 가정에서 날을 잡고 행하는 가정 단위의 산맥이로 변한 곳도 있다. 또한 초기에는 여성(시어머니와 며느리 등)이 의례의 주관자였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부부 또는 가족 모두로 변화되었다. 사제자 및 의례 방식도 여러 명의 무당을 대동하는 굿놀이에서 독경쟁이 또는 개인 치성으로 바뀌었다.

내용 산맥이는 산에 음식을 대접한다는 의미에서 산맥이기, 산메기, 산맥이 등으로 불린다. 마을을 지키는 신앙을 ‘골맥이’라고 하는 것처럼 산 또는 산군山君으로 불리는 호랑이로부터의 피해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산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산맥이의 의례 절차나 내용, 그리고 농사 풍년을 위해 논에서 지내는 고사를 ‘논맥이’, 제사 음식을 마을 주민들에게 대접하는 것을 ‘마실맥이’라고 하는 등의 언어용례를 세심하게 관찰하면 산 또는 신을 대접한다는 뜻임이 분명하다. 산을 대접한다는 의미의 용어로 산맥이를 소리 나는 대로 쓴 ‘산메기’는 산에 사는 메기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산맥이기’는 산맥이하는 행위 전체를 일컫는 말이기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맥이’가 합당한 용어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산맥이는 마을 단위의 집단적인 형태와 가정 단위의 개인적인 형태가 있다. 집단적인 산맥이는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며, 주로 음력 3월이나 4월 중 날을 잡는다. 날을 잡는 사람인 당주를 정하고, 당주가 날을 잡아



산맥이줄



새로 만든 산맥이줄



산맥이 제물진설



산맥이

산맥이 | 강원 삼척 | 2011 | 김도현

주민들에게 통보하면서 함께 갈 사람들을 확인한다. 이때 동행할 무당(또는 독경쟁이)도 결정한다. 당일 새벽 4시에 산맥이 갈 집에서는 제사상을 차려 조상님께 산맥이 행사를 고하고, 마을 어귀에 모여 함께 산을 오른다. 모든 의례는 무당이 주관한다. 산을 오르기 전에 부정풀이를 한다. 산 정상에 도착하면 태백산신께 올리는 먼산맛이와 산맥이를 하러 온 산신을 위한 산신제를 올린다. 그리고 각 가정의 조상당으로 가서 제단 위에 제물을 진설한 뒤 절을 하고 나면 무당은 각 가정의 제단으로 와 가족들의 생년월일을 확인하며 축원해 준다. 제물은 가정에서의 기제사 때와 같다고 하지만 집집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제물 가운데 모든 가정에서 빠뜨리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동돌개비떡’이다. 동돌개비떡은 쌀가루나 찹쌀가루를 찌서 둥근 모양으로 빚어 속을 넣지 않고 만드는 떡이다. 이것은 오직 산맥이의 제물로만 쓰인다.

조상당에서의 의례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몸만 돌려 군웅신께 기원하는 의식을 행한다. 군웅의 신체는 소나무에 오방천을 매단 곳도 있고, 별도의 신체 없이 빌기도 한다. 군웅신에게 집에서 기르는 가축, 특히 소의 무사안녕과 번창을 기원한 뒤 삼신당으로 간다. 삼신의 신체는 20~30cm 크기의 돌에다 한지를 감



1. 조상신 상차림



2. 조상신께 고하기



3. 부정놀이



4. 먼산맞이



5. 산맥이 조상당



6. 조상당 축원문쓰기



7. 조상당 상차림



8. 돌돌개비떡



9. 조상맞이의례



10. 조상당 신수놀이



11. 조상당 소지올리기



12. 삼신당 상차림



13. 삼신당 축원



14. 용신제



15. 조상길잡라주기



16. 객귀물리기

산맥이 | 강원 삼척 | 2007 | 김태수

싸 실로 묶어 세워 둔 형태이다. 삼신당에서 아이를 점지해 달라고 빌고,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기원 대상은 열 살까지의 아동이다. 마지막으로 용신당으로 간다. 용신당은 큰 바위에 물웅덩이가 만들어진 곳이다. 이곳에서 간단히 제물을 차려 놓고 제를 올린 뒤 마치 씨를 뿌리듯 쌀을 던지며 농사 풍년을 기원한다. 그리고 조상님께 새 옷을 입혀 드린다는 의미의 '조상길 갈라주기'로 의례를 모두 마친다. 조상길갈라주기는 삼베조각을 길게 늘어뜨려 놓고 좌우로 찢은 다음 나뭇가지에 걸어 두는 의식이다. 제를 마치면 무당은 칼을 던져 신의 감응을 확인한다. 주민들은 상에 놓은 제물을 거둬들여서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여흥의 시간을 갖다가 오후 2~3시쯤 산에서 내려온다.

개인적인 산맥이는 주로 삼월삼진날, 사월초파일, 단오 가운데 하루를 택해 지낸다. 새벽 4시쯤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부엌에서 집안의 남자가 만들어준 원새끼줄에 꿩이나 닭, 한지, 바다에서 처음 잡은 생선 등을 끼워 놓은 '산'과 다른 제물을 놓고 산맥이가 가는 것을 고한 후 제물을 그릇에 담아 머리에 이고 조상 대대로 사용하는 신목神木이 있는 산으로 향한다. 산에 올라 제단에 도착하면 먼저 자신의 나무(신목, 주로 소나무)에 금줄을 친 다음 가지고 온 제물을 놓고 제를 지낸다. 집안의 대주인 남편과 가족의 생년월일을 대면서 산신령께 빌고 가족도 탈이 없기를 기원한다. 제물은 메 두 그릇, 무탕, 생선, 두부, 시루떡, 과일, 술 등으로 간결하다. 제사가 모두 끝나면 절을 두 번 하고 가지고 온 칼을 동쪽으로 던진다. 이때 칼끝이 자신과 반대쪽 방향으로 향하면 신이 반갑게 흥했었다는 뜻으로 믿으며 액이 물러났다고 여긴다.

집단적인 산맥이와 개인적인 산맥이의 공통점은 ①'산맥이'라는 제의 명칭 ②동 트기 전 새벽에 시작하는 제의 시간 ③산으로 출발하기 전에 집안에서 간단하게 상을 차려 놓고 제를 올리고, 가족들의 생년월일을 적어 축원하며, 끝났을 때 칼을 던져 신의 반응을 확인하는 제의 진행 형식 ④제의 장소가 산이라는 점 ⑤집안 단위로 한 제단을 사용하는 점 ⑥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이어지는 대물림의 법칙이 작용하는 점 ⑦제의의 목적이 가족 및 가족의 무사안녕과 번창 그리고 농사 풍년을 기원하는 점 등이다.

두 사례에서 모습을 달리하는 것은 제의 주관자, 모시는 신격, 의례 형식 등이다. 개인적인 산맥이에서는 제의 주관자가 여성(시어머니와 며느리), 모시는 신격은 산신과 조상신, 의례 형식은 비손이다. 집단적인 산맥이에서는 제의 주관자가 부부 또는 가족이고, 모시는 신격은 산신과 조상신 외에 삼신·군웅신·용신이 추가되며, 의례 형식은 무당에 의한 곳이나 독경쟁이에 의한 독경으로 진행된다.

지역사례

강원도 삼척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마을에서 집단적인 산맥이를 이어 왔다. 그러나 1970년 후반부터 급격히 사라졌다.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곳은 도계읍 점리와 미로면 내미로리 정도이다. 내미로리에서는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산맥이를 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 봄에 한 번씩 하다가 최근에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다. 음력 3월 중 좋은 날을 택하여 산맥이를 해 오다가 최근에는 산불 예방을 위한 입산통제로 인해 음력 사월로 시기가 늦추어지고 있다. 점리에서는 3년에 한 번 4월에 날을 잡아 산맥이를 하고 있다. 이 두 마을의 경우도 한 마을에 사는 같은 씨족끼리 산맥이를 하다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마을 단위의 산맥이로 변했다. 마을의 당주가 날을 잡으면 주민 모두가 함께 가는 형태이다. 마을에서 집단적인 산맥이의 전통이 사라지면서 하지 않는 집이 많지만 삼척지역에서는 아직도 개별적으로 마을마다 몇 집 정도는 산맥이를 행하고 있다.

개인적인 산맥이는 강릉이 주요 전승지이다. 옥계면 심곡리와 도적리 등 바다에 접한 마을에서 산맥이의 사례가 보고되었다. 음력 5월 4일 밤 12시에 성황제를 지내고 5일 새벽 4시쯤에 산맥이를 지낸다. 남자들이 보면 부정 탄다고 하여 남편들은 부인이 산맥이 가는 것을 알아도 모른 척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함께 제물을 이고 산으로 가서 각 가정의 신목에 금줄을 치고 제물을 진설한 다음 제를 지내고 내려와 강릉 단오장으로 놀러간다고 한다.

강원도 영동지역 이외에 산맥이와 유사성을 보이는 사례로는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모산마을의 산제를 들 수 있다. 종가에서는 3년마다 산제를 지낸다. 가문마다 산제를 지내는 장소가 따로 있다. 제사는 맏며느리가 주체가 되어 진행한다. 산제를 가기 전에 먼저 성주와 조상에게 고한 뒤 음식을 준비해서 산제를 지내는 곳의 나무를 찾아가 간다. 제사를 지내고 산에서 내려와 대문에 맞닥대기를 사흘 동안 걸며, 이 기간에는 집 안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삼척지역의 산맥이도 『조선의 향토오락』에 '산제'로 기록되었고, 제사 참여범위가 집안 단위이며, 제의 주관자가 여성(맏며느리)이고, 제의 절차와 신체까지 산맥이와 유사한 형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학가산 자락의 신전2리와 석탑리의 동제洞祭도 산맥이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사례이다. 이 두 마을은 김용金湧이라는 경주 김씨 입향시조를 기점으로 하여 개척된 동성마을이며, 두 마을 사이에 선산이 있어 이를 공유하고 있다. 산줄기 정점인 샷갯봉에는 이 마을에 살고 있는 경주 김씨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모시는 '신구할매'가 좌정한 까닭에 매년 봄가을로 공동 제사를 올린다. 이 마을에서 전승되는 신화는 대부분 신구할매에 집중되어 있다. 입향시조는 10월 시시時祀에 국한되지만 신구할매는 4월과 10월에 가족 단위로 전국에 흩어진 가족들이 모여 제를 올리고 있다. 매년 봄과 가을에 집안 단

위의 공동제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문헌 자료로는 홍성모의 『동국세시기』에 소개된 충북 진천지역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진천 땅 풍속에 3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여인들이 무당을 초빙하여 우담牛潭의 동서 용왕당龍王堂과 삼신당三神堂에 가서 아들을 낳게 해 달라고 정성을 올린다. 이 지역에서는 그러한 행렬이 끊어지지 않으며, 사방에서 여인들이 모여들어 기원을 하고 있어 연중 시장을 이룬 것같이 들끓었다는 내용이다.

의의 산맥이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에 한 마을에 사는 문중 사람들이 생기 좋은 날을 택해 집 안에서 모시는 조상신과 함께 정해진 문중 산에 올라 생식의 능력이 있는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가족 모두의 무사안녕과 자손 번창, 가족의 번창, 곡식의 번창을 기원하는 생명의 확대재생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가정신앙이다.

참고문헌 강원도 민속의 지역적 정체성-산간민속을 중심으로(김진순, 비교민속학29, 비교민속학회, 2005), 강원지역 산맥이 신앙 고찰(장정룡, 한국민속학25, 한국민속학회, 1993), 산메기의 특징과 가정신앙적 성격(장정식, 한국의 가정신앙-하, 민속원, 2005), 산메기 현지연구-강원도 삼척지역을 중심으로(김진순, 역사민속학10, 한국역사민속학회, 2000), 산맥이에 관한 논쟁적 해석(김태수, 한국민속학43, 한국민속학회, 2006), 산에다 복을 비는 민간신앙, 산메기(황루시, 실적문화5, 삼척문화원, 1994), 삼척지방의 마을신앙(장정룡, 삼척군·삼척문화원, 1993), 삼척지역의 민속문화(이창식, 삼척문화원, 2000), 영동지역 산맥이연구(김경남, 임영문화16, 강릉문화원, 1992), 조선의 향토오락(村山智順, 박전열 역, 집문당, 1992), 한국세시풍속기(강무학, 집문당, 1995), 한국의 향토신앙(장주근, 을유문화사, 1998).

필자 김태수(金泰水)

산신 山神

산을 지키며 산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장하는 것으로 믿어지는 신.

역사 한국은 산이 많은 자연환경으로 인해 일찍부터 산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다. 산악숭배 신앙에서는 우주의 중심이 곧 산이다. 그래서 환웅은 이 세상의 중심인 태백산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온 것으로 해석된다. <단군신화>에서 단군이 아사달 산신으로 좌정했다는 점은 이미 고조선시대에 산신신앙이 널리 유행했음을 말해 준다. 『후한서』 동이전에 “그 풍속은 산천을 존중하고 호랑이에게 제사드리며 그것을 신으로 섬긴다.”라는 내용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단군, 주몽, 박혁거세, 견훤, 왕건, 이성계 등의 건국신화와 산신신앙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산악숭배는 우리 민족의 다양한 토착신앙 가운데에

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산신신앙은 특히 신라에서 성행하였다. 신라에서는 산신이 나라를 지켜준다고 인식하고 대부분의 국가 제의를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고려, 조선으로 이어져 산악에 국가 제의를 정기적으로 지내게 된다. 고려 왕조는 천재지변 등이 있을 때마다 오악명산에 제사를 지냈다. 특히 고려후기에는 봄과 가을이면 경도의 송악산, 적성의 감악산, 진천의 태령산, 남원의 지리산, 광주의 무등산, 정주의 비백산 등지에서 산천제를 지냈다. 조선시대에는 산신신앙의 형태가 다양화된다. 국가적인 공동체 신앙 중심에서 개인신앙 또는 마을신앙 단위로 확산되었다.

특히 조선 중기에 이르면 명산은 물론 주, 군, 현 단위로 산악제를 주관하게 된다. 고대의 산악숭배 신앙은 집단, 즉 국가·부족·마을 단위 형태의 신앙이었으나 조선 중기 이후로는 개인과 마을 단위의 신앙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마을마다 산신당, 산왕당, 서낭당, 성황당 등을 만들어 산신을 숭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산의 정상 또는 중턱에 위치하던 제당도 마을과 가까운 산 아래로 이동하게 된다. 이는 산악의 신이 농경진적 성격을 더하는 현상으로서 마을의 풍농과 개인의 기복·기자·치병 등을 비는 개인신앙적 성격이 강화된 것이다. 김태곤은 호남지방에서는 신수인 당나무 밑에 제단을 차려 놓고 당산이라 부르거나 입석을 당산이라고 부르면서 여기에 동신제를 지내는 것은 산에 산신을 모신 당산의 관념이 산이 없는 호남지방의 일부 평야지대에까지 연장된 산신신앙의 후기적 형태로 보았다.

내용 산신의 신체神體는 주로 호랑이 또는 신선(仙)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최남선은 중국의 용, 인도의 코끼리, 이집트의 사자, 로마의 이리처럼 조선에서 신성한 동물의 으뜸은 호랑이라고 하였다. 그는 “호랑이는 조선 최대의 동물이며 조선인의 생활에 끼친 영향이 크니 그 중 신화, 전설, 동화를 통하여 나타난 호랑이 이야기들은 설화세계 최고이며 호랑이 및 호랑이 설화에 대한 민



산신도 | 국립민속박물관

족적 숭앙 또는 기호는 어느새인지 다른 모든 이야기를 밀어내 버렸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조선을 호담국虎談國이라 할 만큼 범 이야기와 특수한 인연을 가진 곳이 되었고 이 때문에 세계로 향하여 설화의 조선색을 강렬히 나타내 보인 것이 다행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한민족의 시조 이야기인 <단군신화>의 주인공은 곰이었다. 그러나 단군신화 이후로 곰에 대한 이야기는 자취를 감추다시피 되지만 호랑이는 한반도 산악의 생태적 혹은 상징적 동물로서 한민족의 삶에 가장 깊은 영향을 준 동물이 되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예조에서는 “항상 10월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추었다. 이를 무천舞天이라 한다. 또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호랑이를 “산군山君이라 하여 무당이 진산에서 도당제를 올렸다.”라고 한다. 오늘날의 산신도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호랑이를 산신과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호랑이를 지칭하는 명칭도 산신山神, 산령山靈, 산군山君, 산신할매, 산중호걸 등 산과 관련시켜 부르고 있어 산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랑이의 영험성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나타나고 있다. 산악지대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지닌 호랑이라면 능히 벽사를 할 수 있다고 믿어졌다. 이 때문에 시집갈 때 신부의 가마 위에 호피를 씌워 재액을 방지했고, 신랑은 호랑이 발톱을 허리에 찼다. 호랑이의 위력이 잡귀나 액을 물리쳐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관리들은 호피를 가지고 있으면 ‘잡귀가 범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벼슬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벽사의 염원은 호랑이 삼재부적에서도 잘 나타난다. 호랑이가 삼재부에 나타나는 것은 맹수로서의 용맹성이 부적 속에 들어가서 삼재를 막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의 반영이다. 즉 한반도 산악을 지배하는 호랑이의 위력으로 재액을 죽히 물리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렇듯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과 그 강력한 힘에 대한 외경심은 호랑이를 마침내 신성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산악 지대에서는 산신 또는 산신을 보좌하는 영물로 인식되어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신앙의 대상이 된 것이다.

호랑이 14마리가 그려져 있는 울산 대곡리 바위그림은 고대부터 한반도 전역에 호랑이의 개체 수가 많았음을 말해준다. 『증현문헌비고』 『오주연문장전산고』 『조선왕조실록』 등에서 호환虎患이나 호랑이 사냥 등의 기록이 많이 나타난다.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범에게 물려 죽은 영혼을 위로하고 호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굿이나 호탈굿을 하였다. 이는 그만큼 호랑이가 많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아직도 산악을 숭배하고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습은 전국 곳

곳에 남아 있다.

산신의 성별에 관한 문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손진태 등은 한반도의 북부지역은 남신이, 남쪽지역은 여신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일군의 학자들은 지역보다는 시대에 따라 산신의 성별이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단군신화>에서 단군이 산신으로 좌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최초의 산신은 남성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신라시대에 들어와서는 선도산의 산신, 영취산의 산신, 김유신을 보호했다는 신라 3산의 산신 등 여성 산신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다시 남성형 산신이 우월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후로는 줄곧 남성 산신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현재는 산신이라 하면 흰 수염을 길게 휘날리는 할아버지 형상을 떠올리듯 남성형 산신이 일반화 되었다. 그러나 산신마누라, 산신아기씨, 부군아기씨, 산신할머니로 여성 산신을 모시는 곳이 있는 등 그 잔영은 남아 있다.

산신의 형상을 그린 산신도를 살펴봐도 대부분 남신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양한 형상을 하고 있다. 근엄한 관관의 형상을 하고 있기도 하고, 호랑이를 탄 신선 또는 소나무 밑에서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면 책을 든 학자의 풍모를 보이고 있는 산신도 있다.

이렇듯 산신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령으로서 마을의 안녕과 개인의 기복을 책임지며, 사찰의 산신각 또는 무신도 등에서 다양한 형태를 하고 있다.

요즘은 도심 속에서도 산신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주민들의 욕구를 제의가 적극 수용하려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사업의 번창,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 자녀의 학업성취 및 출세 등 공동체의 소망을 제의에 담아 생명력을 지속시키고 있다.

참고문헌 동신당(김태근, 대원사, 1999), 산신(서영대, 한국민속신앙사전-무속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09), 산신도(윤열수, 대원사, 2000), 산신신앙연구(손정희, 한국민족문화연구1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0), 서낭당(이종철·박호원, 대원사, 1999), 한국무신도(김태근, 열화당, 1993), 한국의 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3), 한국의 무신(강릉시오죽현·시립박물관, 2004), 한민족의 마음展(목아박물관, 2008).

필자 김창일(金昌一)

삼재부적

三災符籍

사람이 살아가면서 9년마다 주기적으로 겪게 된다는 세 가지 재난인 삼재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부적.

역사 삼재부적이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려시대 용주사 탑에서 삼재부적이 나왔다. 1268년에 시주 진성군晉城君이 용주사 탑 안에 금강경과 다라니주문 및 다양한 부적을 넣었다. 그 가운데 소삼재부消三災符가 있었다.

삼재부에 관한 조선시대 기록은 홍석모洪錫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나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등에 나타난다. 『동국세시기』에는 “나이가 삼재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설주에 매 세 마리를 그려서 붙인다.”라고 적혀 있다. 매를 액막이 그림에 사용하게 된 것은 『오주연문장전산고』의 “옛날 중국 무창武昌 장씨집 며느리가 휘종황제의 친필 매 그림을 보고 마당에 나동그러지면서 여우의 본색을 드러냈다.”라는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면암집勉菴集』에는 민간에서 닭과 호랑이 그림을 붙여 삼재를 막았다고 적고 있다.

삼재부적 가운데 대표적인 삼두일족부三頭一足符는 조선시대 전기 회화에서 발견된다. 삼재부적은 이처럼 시대의 변천에 따라 부적그림으로 변형되었고, 수요 충족을 위해 후대에 목판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형태 삼재부적의 형태는 크게 목판부와 문자부로 나눈다.

목판부는 주로 매의 머리가 셋이고 몸통과 다리는 각각 하나로 형성된 삼두일족 형상을 하고 있다. 삼두일족 부적은 머리의 방향을 각기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삼재가 오는 방향을 즉시 알아채고 막게 하기 위함이다.

용맹스러운 성격, 하늘을 빠르게 나는 민첩함, 멀리서도 작은 물체를 볼 수 있는 눈,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 등 매의 특징은 충분히 삼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매의 매서운 눈은 삼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더욱이 세 개의 머리를 지닌 매라면 어느 방향이든 삼재가 있는 곳을 훤히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민첩하게 하늘을 나는 매의 날갯짓은 영공領空의 수호자로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접근하는 삼재를 막을 수 있으며, 용맹스러운 성격에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지닌 매는 삼재를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간혹 매 대신 독수리로 표현되기도 하고, 매와 함께 호랑이가 등장하기도 한다. 독수리는 매와 함께 하늘을 지배하는 맹금류이고, 호랑이는 땅을 지배하는

맹수의 강인한 힘이 있는 데다 매와 달리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삼재부적에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즉 삼재가 언제, 어디에서 접근할지 모르기 때문에 삼재부에 매와 호랑이를 함께 등장시켜 하늘과 땅,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삼재로부터 보호받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문자부는 삼재소멸부三災消滅符, 옥추삼재부玉樞三災符, 자연원리삼재부自然遠離三災符, 입삼재부入三災符, 중삼재부中三災符, 출삼재부出三災符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문자부는 한자만으로 된 것도 있고, 한자에 파자破字가 합쳐진 것도 있다.

내용 사람은 살아가면서 9년마다 한 번 삼재가 든다. 삼재가 들면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여긴다. 삼재는 수재水災, 화재火災, 풍재風災 혹은 도병제刀兵災, 역려재疫癘災, 기근재饑饉災 등 세 가지 재난을 일컫는다.

삼재운이 든 첫해를 ‘들삼재’, 이듬해를 ‘누울삼재’, 셋째 해를 ‘날삼재’라고 한다. 이 가운데에서도 삼재가 드는 순서대로 나쁜 운수라고 여긴다. 즉 첫해인 ‘들삼재’가 가장 나쁘고, 이듬해에 드는 ‘누울삼재’가 두 번째로 나쁘며, 마지막 해에 드는 ‘날삼재’는 상대적으로 액운이 가볍다고 한다. 한편에서는 들삼재, 누울삼재, 날삼재로 갈수록 고난이 가중되는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사람의 운수는 해마다 달라진다. 이 때문에 정초가 되면 그해의 운세를 본다. 특히 삼재가 드는 해는 그 어떤 재액보다 두려움을 준다. 물론 삼재 드는 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개인의 사주와 운세의 흐름에 따라 복잡재가 될 수도 있다. 복잡재가 들면 아무 탈이 없으며 오히려 복이 온다고 한다. 그럼에도 여타의 재액은 잠시 머물다 가거나 일 년 단위인 데 반해 삼재는 삼 년



삼재부적 | 충남 금산 | 1999 | 강성복

동안 불운이 지속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삼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다양한 삼재부적이 나타나게 되었고, 문설주에 붙이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삼재의 접근을 막고자 하였다.

부적은 크게 길상吉祥과 벽사辟邪, 즉 복을 불러오는 부적과 사귀나 액 또는 나쁜 운수 등을 물리치는 부적으로 나뉜다. 복을 불러들이는 부적으로는 소망성취부所望成就符, 관직부官職符, 재수대길부財數大吉符 등이 대표적이다. 좋지 않은 것을 물리치는 부적으로는 삼재부三災符, 벽사부辟邪符 등이 있다. 삼재부는 재앙을 물리치는 부적이기 때문에 침범하는 대상이 두려워하고 겁을 집어먹을 만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삼두일족부三頭一足符가 삼재부의 상징이 될 수 있었다.

삼재는 개인에게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액운이다. 이러한 개인의 액운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 부적 목판이다. 마을에서 부적 목판을 공동으로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 찍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전염병이 돌 때 많은 양의 부적을 찍어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졌다고 한다. 이는 개인의 액운을 공동으로 대처한 것으로, 삼재를 예방하기 위한 사람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대문 위에 걸린 호랑이(김종대, 다른세상, 1999), 문과 상징(정연학, 시월, 2009), 부적미술의 역사와 사상(김민기, 한국민속문화의 탐구, 국립민속박물관, 1996), 부적 속에 반영된 민화에 관한 연구(엄난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부적의 기능론 序說(김종대, 한국민속학20, 한국민속학회, 1987), 삼재와 액년에 의한 재앙인식과 대응방식(노성환, 비교민속학20, 비교민속학회, 2001), 우리 민속 들여다보기(김정일 외, 동아대학교출판부, 2007), 초자연적 존재와 부적(김준권, 익살과 재치, 경기도박물관, 2004), 한국의 벽사부적(김영자, 대원사, 2008).

필자 김창일(金昌一)

삼척갈남마을백호서낭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1리(갈남마을) 서낭당에서 호서낭(白虎)을 주신(主神)으로 모셔서 마을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지낸 마을 서낭제.

개관 갈남마을 주민 중에는 갈남향을 통해 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많다. 마을제당은 마을 전체를 관장하는 서낭당과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해당이 있다.

서낭당은 호당虎堂, 백호서낭(白虎城隍), 큰당, 할아버지당이라고 한다. 동네산 또는 동네가산이라 불리는 산 중턱에 있다. 서낭당은 신수神樹에 돌담이 둘러쳐 있었다.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에 서낭당 자리에 철도를 내기 위해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이후 건물 형태로 서낭당을 만들었는데, 1955년(을미년) 3월 14일 상

량하였고, 1982년(임술년)에 고쳐 지었으며, 1993년 6월 8일 다시 지어 유지하다가 현재 운영하는 제당을 2012년 6월 11일 상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서낭당 정면에 '성황당城隍堂'이라 쓴 편액을 걸었다. 성황당은 서낭당의 원말이다.

건물은 정면 1칸, 측면 1칸에 맞배지붕 형태이다. 내부 정면에 제단을 설치하고, 오른쪽 벽면에 작은 제단, 왼쪽에는 용품을 두는 선반을 설치하였다. 해당은 뒷개라 불리는 마을 어귀 해변의 산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마을에서 해당 또는 할머니당이라고 하며, 제의는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어민들을 중심으로 지낸다.

매년 정월 첫 자일子日과 10월 첫 오일午日에 서낭제를 지냈으나, 지금은 정월에만 지낸다. 마을에서는 서낭제사를 '마을 치성'이라고도 부르며, 치성을 올리기 위해 날을 받아 놓으면 눈 위에 호랑이 발자국이 있었다는 말이 전한다.

서낭당에 모신 신령을 '백호서낭' 또는 산을 관장하는 하얀 호랑이로 여겨 '백호 서낭신'이라 한다. 『해신이 지켜온 어촌』에 의하면 1960년대에는 신목(향나무)에 '토지원신土地元神'이라 묵서墨書한 위목을 걸었으나 이후 '토지지신 신위土地之神神位'라고 쓴 위패 형태로 신령을 모셨다. 지금은 한지에 묵서하여 신령을 모신다. 서낭제 축문을 보면 제단에 모신 신령의 명칭이 '가람토지 성황대신 대성자'인 것으로 보아 서낭신과 토지신을 모시며 서낭제사를 지내고 있음을 알



위목지 걸기 | 강원 삼척 | 2017 | 김도현



짚불넘기 | 강원 삼척 | 2017 | 김도현

수 있다.

마을에 전하는 이야기를 소개하면 범이 이 마을을 개창하였기에 범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예전에는 서낭님 치성을 드리기 사나흘 전쯤 호랑이가 나타나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고, 날을 받으면 계수의 눈에만 호랑이가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바닷가에는 호랑이굴이 있으며, 이전에 날을 받아서 3년에 한 번 2박 3일간 굿을 할 때 ‘호랑이 종이탈 놀이’라 하여 굿의 말미에 소나무로 우리를 만든 후 호랑이 종이탈을 쓰고, 풀어 놓은 닭을 놀리는 놀이를 하였다고 한다.

내용 1967년 자료를 보면 서낭제를 지내는 순서는 ‘상신—중신—하신—음복—결산 계의計議’이며, 준비한 제수는 우유·백병·어물·과실 등이었다. 이와 함께 집(집) 시밥 세 그릇을 수부신에게 올렸다고 한다.

2017년에 지낸 서낭제는 ‘부정을 가져내기 위해 짚불 놓고 넘어가기—진설—부정풀이—위목지 걸기—초헌—축문 읽기—축문 소지—제관 삼배—제관 재배—아헌—제관 재배—시식—제관 재배—침잔—소지 올림—수부 물림—금줄 벗기기’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준비한 제물은 메(1), 채국(1), 탕(1), 떡(백설기), 채소(고사리, 미역, 숙주나물), 돼지머리, 소고기 적, 명태전, 생선(열기, 가자미, 명태), 과줄, 포, 두부전, 달걀, 과일(배·사과·단감), 삼실과(대추·밤·곶감)이다.

특징 및 의의

마을 서낭당에서 모신 신령이 ‘호서낭’이기에 개고기를 좋아한다고 여겨 1960년대까지 개고기를 제물로 올렸다. 이후 소의 머리와 다리 그리고 간을 올리다가 현재는 돼지머리를 올린다.

강원도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호랑이를 산신으로 여기는데, 갈남 마을 서낭당을 ‘호당虎堂’, 모신 신령을 ‘호서낭’이라 여긴 것으로 보아 산신의 성격을 지닌 신령을 주신主神으로 모셨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신’은 역할에 따라 산신山神, 산령山靈, 천왕天王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산신은 지리적 공간을 주재하고, 산령은 ‘신령—인간’의 직접적 관계에 주목하여 길흉화복을 관장하는데 인간이 산신령(또는 산령)에게 귀의하고자 할 때 모신다. 천왕은 신화상의 시조이다. 갈남마을에서 모신 호랑이는 다른 마을과는 달리 ‘백호白虎’라고 여기며, 서낭제사를 ‘마을 치성’이라 한 것으로 보아 마을을 수호하면서 풍요를 가져다주는 대상 신령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갈남마을에서 모신 호서낭은 산신이 지닌 의미 중 산신과 산령의 역할을 복합적으로 기대하여 모셔졌다고 볼 수 있다.

호랑이를 신령으로 모시거나 유인하기 위해 홍천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거리제사를 지낼 때 개[犬]를 주요 제물로 올리며, 기우제를 지낼 때도 개를 제물로 준비한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마을제사에서 개를 주요 제수로 올린 사례들이 많지 않다. 갈남마을에서 백호를 주신으로 모셨기에 1960년대까지 개를 준비하여 올렸다는 점과 현재 서낭신과 토지신을 모셔서 마을제사를 지낸다는 점은 마을에서 산신을 모셨던 전통이 서낭신으로 그 명칭이 변화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기에 마을제사가 지닌 전승 양상이나 의미를 분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신앙(김도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인제지역 마을에서 모시는 산신의 성격(김도현, 종교학연구37, 한국종교학회, 2019), 큰석이 지켜주는 갈남마을(김창일·이승형, 국립민속박물관, 2014), 해신이 지켜온 어촌(문화관광부·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문화체육부·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6), 홍천강 지류별 마을제의 존재양상(이영식, 사회과학연구54-1, 강원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2015).
필자 김도현(金道賢)

상인일

上寅日

새해 들어서 첫 번째로 맞는 벌날.

유래

‘상인일’ 또는 ‘첫호랑이날’이라고 한다. 간지干支의 인寅은 동방東方으로 떠르는

범(호랑이)에 해당한다. 흔히 호랑이보다 범이라고 사용하였는데, 범 자체가 곰과 대칭되는 민속적 사고에서 연유한다. 호랑이는 기층 사회에서 흔히 산군자山君子·산령山靈·산신령山神靈·산중영웅山中英雄 등으로 불리었다. 호랑이의 형상은 선사시대 청동기와 암각화 등에서부터 나타난다. 신라시대 토기에도 말·사슴 등의 짐승과 더불어 호랑이의 형상을 선각線刻으로 새겨 넣었다. 풍요를 기원하던 수렵시대의 의식에서 비롯된 상징적 발상으로 볼 수 있다.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호랑이를 산군山君이라 하여 무당이 진산鎭山에서도 당제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 호랑이를 경외의 대상으로 여겨 호환虎患을 예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와 간지의 상징적 의미를 엿볼 수 있다. 호랑이의 민간전승은 열두 띠 중 호랑이(범)띠 관념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호랑이는 민간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하듯이 정월에 예측속신이 전승된다. 특히 정월 상인일에는 호랑이와 연상하여 금기와 축복의 양면성을 띠고 나타난다. 금기 음양가陰陽家の 속신 관념에는 “사람은 호랑이, 곧 인寅의 정기를 받았다.”고 한다. 정월 첫번째의 상인일은 아침 일찍 여자의 외부 출입을 금하고, 사람에게 경사스러운 행위들을 많이 하도록 한다. 이는 호랑이의 화禍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근신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에 이 날 남의 집에 가서 대소변을 보게 되면, 그 집안의 식구 중에서 한 사람이 호환을 당하고, 창귀가 달라붙는다고 믿었다. 따라서 이 날은 집에서 근신하며, 짐승에 대한 악담도 절대 삼간다. 충청북도 영동군 수동리에서는 송편을 만들어 먹는다. 이렇게 빚어 먹으면 한 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여긴다. 이 날이 정월 정초에 일찍 들면 그 해 목화가 잘 된다고 한다. 호랑이의 포효하는 느낌이 목화의 다산을 연상시킨 것이다. 또 이 날에는 일을 하지 않고 잘 놀아야 일년 내내 건강하다고 믿었다. 옛날에는 “이 날에 간단한 과거를 보이어 벼슬길에 나가는 길을 터 주었다.”는 기록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인일불제사寅日不祭祀’라고 하여 이 날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물론 귀신을 섬기거나 비손 행위도 삼간다.

의의 상인일의 속신에는 인지寅支의 상생相生과 상극相剋에 대한 민중의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 호랑이는 음양으로 양陽, 오행으로 목木이어서 음양오행의 원리에 역행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나쁘다는 것을 정초에 근신삼아 암시하는 데 있다. 호랑이로부터 연상되는 속신 관념이 세시의 금기 또는 주술로 승화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五洲衍文長箋散稿, 불교와세시풍속(안길모, 명상, 1993), 韓國의 歲時風俗 I - 서울·경기·강원·충청도 편-(국립민속박물관, 1997), 韓國의 歲時風俗 II - 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편-(국립민속박물관, 1998), 호랑이띠(이창식, 국학자료원, 1998), 충북의 민속문화(이창식, 충청북도·忠北學研究所, 2001).
필자 이창식(李昌植)

애호 艾虎

쑥으로 만든 범을 가리키는 것, 단오에 애호艾虎를 머리에 꽂거나 문에 매달아 잡귀를 막는다.

유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와 『경도잡지京都雜志』에 “쑥호랑이[艾虎]를 규장각 각신에게 나누어 주었다頒艾虎于閣臣”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동국세시기』에서는 중국의 『세시광기歲時廣記』 권21 「세시잡기歲時雜記」에 “쑥으로 호랑이를 만들거나 비단을 오려 작은 호랑이를 만들어 쑥잎을 붙여 머리에 꽂는다文人以艾爲虎形 或剪綵爲小虎 粘艾葉以載之.”라는 기록을 인용하면서 우리나라의 애호艾虎 풍속이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형초세시기荆楚歲時記』에서도 세시잡기의 내용이 그대로 보이며, 호랑이뿐만 아니라 “쑥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 문에 걸어 사귀를 물리쳤다採艾以爲人 懸門戶上 以禳毒氣.”라고 하였다. 이 인형을 애인艾人이라고 한다.

내용 단오에 쑥호랑이를 만들어 잡귀를 막는 것은 단오, 쑥, 호랑이 세 가지가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쑥호랑이는 쑥의 정화력과 범의 용감함을 결합시켜 두 배의 강력한 힘을 지닌 벽사물이 된다.

단오는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로 더위를 피해 독을 지닌 뱀, 거미, 전갈, 지네, 개구리 같은 이명 오독五毒이 집안으로 들어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독이 싫어하는 쑥, 마늘, 창포 같은 강한 향기를 내는 식물들을 대문에 걸거나 한쪽에 다발을 세워 접근을 막았다. 이처럼 쑥은 강한 살균력과 독한 향기를 가지고 있어 정화하는 데 많이 쓰인다.

한편 범은 잡귀를 쫓는 벽사물로 자주 등장한다. 새해를 맞아 각 가정에서는 범과 용의 그림을 문이나 벽에 붙인다. 이와 같은 풍속은 『동국세시기』에도 기록되어 있다. 호랑이 그림을 문에 그리는 풍속은 중국 춘추시대 때 이미 나타난 것으로 보아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설문說文』에는 호랑이가 산군으로 나타나 있으며, 『풍속통의風俗通義』 권8 화호조畫虎條에서는 “호랑이는 양생의 동물이요 백수의 왕으로서 능히 벽사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민간에서는 말라리아나 콜레라가 발생할 때 호랑이 그림을 문에 붙이면 병이 낫는다고 믿었다. 민가民家는 호랑이뼈를 문에 걸어두기도 하는데, 이는 짐승의 왕인 범을 보고 잡귀가 달아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 새로 문을 달거나 새 가구를 사면 그곳에 왕王자를 쓰기도 한다. 여기서 ‘왕’자는 단순히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호랑이를 상징한다. 중국 절강성 지역에서는 설匠이 되면 대문에 호랑이 그림을 붙인다. 호랑이 그림이 마련되지 않은 집에서는 대문에 ‘왕’자를 쓴다. 호랑이 이마에 생긴 주름살이 ‘왕’자이므로, ‘왕’자만

씨도 곧 호랑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겼다. 중국의 호랑이 인형이나 그림을 보면 이마에 모두 ‘왕’자가 새겨져 있다. ‘왕’자가 호랑이를 가리킨다는 사실은 수릿날 풍속에서도 볼 수 있다. 이 날 어린아이의 이마에 옹황주(雍黃耄)로 ‘왕’자를 그리는데, 그러면 오독이 호랑이(王)를 보고 어린아이에게 덤벼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호랑이를 돌로 새겨 대문이나 무덤 입구에 세워놓기도 하는데, 이것이 죽은 사람의 순장품이 되어 죽은 자의 혼령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무덤 무인석의 갑옷, 대배에도 호랑이를 새겨 웅맹스러운 존재를 더욱 부각시키기도 한다.

의의 현재에는 쑥호랑이를 매다는 풍속을 볼 수 없으나, 예전에는 쑥호랑이를 대문에 매달아 집안으로 들어오는 잡귀나 액뽈을 막고자 하였다. 단오가 되면 쑥을 베어 문에 매다는데, 진한 쑥 냄새 때문에 귀신이나 집안으로 들어오는 재액, 잡신을 막을 수 있다고 여겼다. 또 몸에 쑥호랑이를 꽃음으로써 몸 안에 들어오는 질병도 막을 수 있다고 여겼다. 충북 괴산에서는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대문 앞에 걸어두었던 쑥에 소금을 뿌리고 불을 피우면 귀신과 잡귀를 잡는다고 여겼다. 이처럼 애호는 쑥의 정화력과 범의 용감함을 상징화하여 재액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주었다.

참고문헌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說文, 歲時廣記, 周禮, 風俗通義, 荊楚歲時記, 충청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필자 정연학(鄭然鶴)

제호이위신

祭虎以爲神

호랑이를 산신령으로 모신 최초의 기록.

내용 제호이위신은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 실려 있는 예(濊)의 풍습 중 하나이다. ‘호랑이를 신(神)으로 여겨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를 지녔으며, 호랑이에 제사 지냈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기록이다. 예 또는 동예족은 한반도의 동해안 일대, 즉 함경남도 남부에서부터 강원도 지역에 걸쳐 생활하였던 주민들이다. 동예(東濊)에서는 산신(山神)으로 호랑이(虎神)를 모셨다고 전한다. 동예에서 호랑이는 사회규범과 질서를 수호하고 풍요와 다산 그리고 재액소멸을 관장하는 신이었다. 읍락 단위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응집력을 키우는 데 기여하며, 대외적으로 생활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호랑이를 산신으로 여긴 관념은 아무르강과 우수리강 유역에서 생활하였던 여러 민족에게서 나타난다. 이들은 곰과 호랑이를 ‘산주(山主)’로 여겼는데, 특히 만주족은 산의 평화와 수렵을 관장하는 산신 중에서도 주신(主神)을 호랑이라고 여겼다.

호랑이가 산신이라는 관념은 여러 문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예로 『제왕운기(帝王韻紀)』 하(下)에는 호랑이가 산신으로 변하여 왕건의 조상인 호경과 혼인하였다는 이야기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문화현(文化縣) 인물조(人物條)에는 유효금(柳孝金)이 유람길을 가로막은 호랑이의 목에 걸린 가시를 제거해 주니 호랑이가 스스로를 ‘산정(山精)’이라 하며 후손에게 공덕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다.

호랑이를 산신령(山神靈)의 화신(化身)으로 여긴 전통은 고려와 조선시대를 지나 현재까지도 호랑이가 민간신앙의 주요한 대상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일례로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동제에서 모시는 신령은 칠갑산의 산신인데, 마을 사람들은 산신의 구체적인 신체를 호랑이로 여긴다. 또한 강원도 태백시에는 동점 방터골의 한 영감이 호랑이가 잡아놓은 멧돼지를 가로채 오자, 사람들이 산신의 음식을 가로챘으니 반드시 화를 당하리라고 걱정하였다는 이야기 등이 전한다.

참고문헌 三國志 魏書 東夷傳, 帝王韻紀, 新增東國輿地勝覽, 동예사회의 호신숭배에 대하여(서영대, 역사민속학2, 역사민속학회, 1992), 인제지리 마을에서 모시는 산신의 성격(김도현, 종교학연구37, 한국종교학회, 2019).
필자 김도현(金道賢)

창귀

俵鬼

호식을 당해 죽은 사람의 귀신. 창귀는 범의 노예가 되어 항상 곁에 붙어 다니면서 시중을 들고 식사를 책임지며 길 안내를 맡는다.

내용 창귀는 또 다른 사람을 범에게 잡아먹히게 해야만 범의 위권과 부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다리 놓기로 다른 사람을 범에게 잡아먹히게 하고서야 비로소 창귀 역할의 임무 교대가 된다. 그래서 창귀는 항상 호식당할 사람을 찾는다. 창귀는 사돈의 팔촌뿐만 아니라 이웃사촌, 친구 등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찾아다니며 불러내 범에게 잡아먹히게 만든다. 예부터 범에게 물려간 집안하고는 사돈을 맺지 않는다고 했는데 바로 이 창귀 때문이다. 창귀가 있는 집안과 사돈을 맺었다간 창귀의 발호에 언젠가는 사돈의 팔촌까지 범에게 물려갈 가능성이 많

다는 것이다.

창귀는 신맛이 나는 매화열매나 소라, 골뱅이 등을 좋아하여 그것이 있으면 먹는 데 정신이 팔려 범을 호위하는 일도 잇는다. 그러면 범은 함정에 빠지게 되어 그냥 잡으면 된다.

창귀는 항상 서럽게 울며 슬픈 노래를 부르며 다닌다. 사람이 이유 없이 슬픈 노래와 서럽게 우는 것은 창귀가 덮어 쓰여 그렇다. 창귀는 슬픔의 화신으로, 모든 사람에게 슬픔을 준다. 이미 범에게 잡혀갈 팔자라면 창귀가 부르는 소리를 외면하지 못한다.

범에게 당하는 모든 환란을 호환이라고 한다. 다치기만 해도 호환이라고 한다. 범에게 잡아먹히면 호식 또는 호사虎飢, 호람이라고 한다. 1900년대만 하여도 범에게 잡아먹히는 호식은 그 당시 큰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범은 사람을 잡아먹으면 머리와 그 밖의 신체 일부를 남겨 둔다. 유족들은 그 유구를 발견하면 창귀의 모든 사악함을 태워 완전 소멸시키고자 그 자리에서 화장을 한다. 그리고 그 위에 돌무덤을 만들고, 시루를 얹어 놓고, 시루 가운데 구멍에 가락(실을 감는 꼬챙이)이나 칼을 꽂아 호식총이라는 무덤을 만든다.

돌무덤은 망자와의 인연을 끊고 벌초하지 않아도 되며, 다시는 오지 않아도 되고 돌무덤 자체가 금역이다. 시루는 하늘을 뜻하고 산 것을 죽이는 형구(刑具)로서 철옹성같이 창귀를 가두는 것을 상징한다. 가락은 벼락을 뜻하고 가락이 물레에서 맴돌기만 하듯이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말라는 뜻이다.

사람들은 무서운 창귀를 제압하고자 창귀의 다리 놓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범에게 잡아먹힌 사람을 화장하고, 돌무덤을 쌓고, 시루를 덮고, 가락을 꽂는 특이한 형태의 호식총을 만들었다. 범이 사람을 물고 가서 먹는 곳을 호식터 또는 호람(虎嘍)이라고 한다. 다른 곳에 비해 태백산 지역에는 호식총의 분포도가 높은 지역으로, 아직까지 그 유지(遺址)가 남아 있다.

호환을 당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의 처리는 일반 사고에 의한 죽음과는 달리 비일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무당굿에서는 이렇게 호환을 당한 사람의 넋을 위로하고 저승으로 천도하기 위하여 ‘범굿’이나 ‘호탈굿’을 벌이기도 한다.

범굿은 범에게 물려 죽은 영혼을 위로하고 호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범굿은 호탈굿이라고도 한다. 호탈은 한지에다 물감으로 범의 안면과 몸뚱이를 그려서 사람이 이 범의 껍질을 입고, 짚으로 방망이를 만들어 범의 꼬리가 되게 만든 것이다. 호랑이에게 잡아 먹힌 시체를 찾기 위해, 호랑이에게 물려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호환을 예방하기 위해 범굿을 하였다. 그래서 호환을 입은 일이 있는 마을의 별신굿에서는 반드시 범굿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에서도 범굿을 한다. 범굿은 동해안 일대에서 행해지는 별신굿의 일종이지만 별신굿과 다른 점은 호탈굿, 범굿으로 불리는 한 거리가 포함되어 있어 호랑이로부터 호환을 예방한다는 것이다. 이곳의 범굿은 삼 년마다 한다. 제상에는 쇠머리와 간단한 제물을 올리고 쇠머리 양쪽에 식칼 두 개를 꽂는다. 그 밑에는 소나무 가지를 쌓아 호랑이가 드나드는 산중(山中)을 만든다. 옛날에는 호랑이가 마을 사람이나 가축을 해쳤기 때문에 소를 잡아 굶을 한 뒤에 호랑이가 내려와서 먹고 가라고 쇠머리를 뒷산 중턱에 묻었다. 이 때문에 범굿 또는 호탈굿으로 불려 왔으며, 구 영일군 일대 몇 마을에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강사리범굿(하효길·황효창, 열화당, 1989), 민간신앙 속의 호랑이(김태근, 한국민속문화의 탐구, 국립민속박물관, 1996), 십이지신 호랑이(김강산, 생각의 나무, 2009), 운명을 읽는 코드 열두 동물(천진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조선땅 마을지킴이(주강현·장정룡, 열화당, 1993), 한국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3), 호식장(김강산, 태백문화원, 1988).

필자 천진기(千鎭基)

청양 범놀이

충청남도 청양의 도립리 마제마을에서 정월 대보름에 막대, 맷방석, 짚으로 범의 형상을 만들어 뒤집어쓰고 각 가정을 돌며, 잡귀를 쫓는 세시놀이.

내용 이 놀이의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연행자들은 매우 오래 전부터 전해왔다고 말한다. 이 놀이는 도립리 마제 마을에서 전해 왔기 때문에 ‘마제범놀이’라고도 한다.

도립리 마제마을에서는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 되기 3~4일 전쯤 이 놀이를 시작하여 정월 14일 밤까지 지속된다. 각 가정에서는 범이 자기 집을 방문해 주기를 기다린다. 다만 정월 대보름은 조용히 보내는 날로 여겼기 때문에 이날은 범놀이를 하지 않았다.

한편 『내고장 청양』 조사 자료에는 산신령의 사자인 호랑이를 마을에 보내어 집집마다 방문케 해서 마을에 재난이 없어지고 풍년이 들도록 하는 놀이로 기록되어 있다.

호랑이(범)를 만드는 방법은, 우선 한 발 정도 되는 긴 지게 작대기 두 개를 묶어서 두 개의 발을 만든다. 그리고 두 명의 남자가 작대기를 다리 사이에 끼고 허리를 구부린다. 이때 호랑이 속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힘이 좋은 장정을 고르는데, 그 이유는 2~3일간 허리를 구부리고 온 동네를 돌며 많은 힘을 쏟기 때문이다. 구부린 장정의 등 위로 명석이나 맷방석을 뒤집어씌우고, 그 위에 흰색과

검은색의 형겅을 찢어 흑백 무늬를 붙여서 호랑이 등 모양을 낸다. 그 다음에 묵은 짚과 형겅을 뭉쳐서 호랑이의 얼굴 형태를 만들고 창호지를 뒤집어씌워 눈을 그려 넣는다. 여기서 호랑이 눈이나 무늬 등의 문양은 짚을 태운 재를 먹과 같이 갈아서 만든 물감을 사용한다. 짚과 형겅으로 엉덩이 쪽에 꼬리도 만들어 끼우는데,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 완성된 호랑이는 실제 호랑이와 유사하여 무서운 모습이다.

행렬의 순서를 보면 호장이 가장 앞에 서고, 그 다음으로 범이 선다. 그 뒤로는 풍물을 치는 사람들이 뒤따르고,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뒤따른다. 풍물을 치는 악기재비들은 깡맥이(쇠) 두 명, 북·장구·징 각각 한 명으로 구성한다.

범놀이를 관장하는 사람을 ‘호장’이라고 하는데 놀이를 이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호장이 “입을 벌려라.”라고 호령하면 범은 그대로 지시에 따른다. 호장은 일행을 이끌고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말주변이 뛰어난 사람으로 선정한다. 완성된 호랑이를 앞세우고 호장의 지시에 따라 풍물을 울리며 집집마다 방문한다. 범놀이패가 오면 집주인은 문을 활짝 열어 놓고 환대한다. 대문 앞에서 호장이 “산신령 문안이오.” 하면 주인이 나와 영접한다. 호랑이가 머리를 흔들며 인사를 하면 주인은 머리를 숙여 답례한다. 도착한 범놀이패는 마당을 한 바퀴 돌고 제당 앞에서 고사를 지낸다. 마당에는 명석을 깔고 상을 편 다음 쌀 한 말을 사발에 놓고 가운데 초 하나를 꽂는다. 그리고 정화수를 한 그릇 받아 놓는다. 상 위의 제물은 모두 범놀이를 주도하는 사람이 갖게 되며, 돈은 주고받는 일이 거의 없었다.

마당에서 고사를 지낸 다음에 풍물을 치며, 그 집의 뒤꼍으로 이동해서 장광제를 지낸다. 장광(장독대)에서 호랑이가 앞발을 들고 머리를 끄덕이면, 뒤따라온 풍물패가 장광을 빙빙 돌면서 악기를 친다. 호장은 “이 집의 운수대통을 빕니다.”라고 하면서 장광제를 지낸다. 다음에 풍물을 치며 부엌에 들어가서 소도방(솔뚜껑)을 열어 놓고 조왕신을 위한 고사를 지낸다. 이렇게 놀다가 점심때쯤이 되면 밥을 얻어먹기 위하여 마을에서 부유한 집을 방문한다. 자연스럽게 마을 잔치 분위기가 조성되며, 이때 마을 사람들은 풍물에 따라 다 같이 어울려 흥겹게 춤을 추며 논다. 그리고 간단한 음식과 술을 그 자리에서 먹은 다음에 좋은 음식은 따로 담아서 다음 집으로 옮긴다. 중간에 샘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샘제(우물제)를 지니며, 이때 샘물 속에 흑백의 줄을 잘라서 넣어 준다. 범제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며 한바탕 흥겹게 논다. 범은 앞발과 뒷발을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흥겹게 춤을 추고, 마을 사람들도 같이 춤을 추며 밤늦게까지 논다.

각 가구를 도는 순서는 마을의 서쪽에서부터 시작하여 동쪽으로 도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 마을의 위쪽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기도 한다. 한편 범을 만든 집에서 가장 먼저 범놀이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놀이가 끝나면 범을 모두 해체한다. 지게 작대기는 주인이 도로 가져가고, 짚은 흔치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챙겼다. 범놀이를 할 때에는 집집마다 빠짐없이 방문하는데, 만약 빠지는 집이 있으면 그 집안에 액운이 따른다고 여겼다. 따라서 마을의 모든 집을 방문하기 때문에 이 놀이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범놀이는 한 해라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고 하여 해마다 지속되었다. 그러나 6·25전쟁을 전후로 하여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점차 약화되다가 대략 1970년 초에 소멸되었다.

특징 및 의의

범놀이는 순수한 벽사진경의 놀이로서 호랑이는 산신령으로 등장하며, 마을을 보호하는 수호신의 성격을 지닌다. 놀이 방법은 함경도 북청을 중심으로 정월 대보름에 행하는 사자놀이와 유사하며, 형태는 경기도 남부에서 팔월대보름에 행하는 거북놀이와도 유사점이 있다. 다만 놀이 방법은 전국적 분포를 보이는 정초의 지신밟기와 유사하게 진행된다.

참고문헌 내고장 청양(청양군, 1981), 범놀이(정형호, 청양의 민속연희, 청양문화원, 2002), 호랑이 설화와 연희(윤광봉, 비교민속학14, 비교민속학회, 1997).
필자 정형호(鄭亨鎬)

침호두

沈虎頭

호랑이 머리를 침수시키는 기우법.

내용

침호두는 용의 형상물을 만들거나 용을 대신하는 생물체를 동원하지 않은 채 용이 거하는 처소에 호랑이 머리를 집어넣어 용호상박의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잠연해 있는 용을 승천하도록 자극하는 의례이다. 이에 따라 호두虎頭는 용신을 위무하는 희생제물이라기보다 용신을 자극하는 대항적 주물嘔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용의 움직임에 따라 구름도 일어난다는 믿음을 전제로 부동의 잠룡을 일으키기 위해 용이 선호하는 것으로 유인, 용이 꺼리는 것으로 위협, 용의 처소를 더럽히는 부정화의 방식 등이 기우제로 활용되었다. 침호두는 용이 꺼리는 적대적인 맹수를 이용해 위협하는 두 번째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오

잡조五雜組』 권9 물부物部1에는 “사나운 동물들은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수중에 잠겨 있는 용에게 호랑이 머리를 투척하면 반드시 용이 경악과 분노로 용솨음친다. 그래서 이미 서역인들은 우물 옆 나무에 사자를 매달아 바치기도 한다. 사자는 곧 이리저리 움직이며 괴로워한다. 잠시 뒤에 비바람이 불고 어두워지면서 용이 우물로부터 날아오른다. 이는 사자와 용이 서로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호랑이虎頭, 虎骨 또는 사자가 용을 위협하는 맹수로 이용될 수 있었겠지만 동아시아의 기우제 전통에서는 호두虎頭가 활용되었다.

침호두의 기우법은 1416년(태종 16)의 사례에서 등장한다. 당시 침호두를 거행한 장소는 한강이었으며, 이후에는 한강 이외에 박연朴淵과 양진楊津에서도 거행되었다. 조선 전기에 이미 한강·양진·박연 등지에서 국행기우제의 일환으로 침호두를 실행하는 것이 공식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용지龍池, 용연龍淵, 용소龍沼, 용추龍湫, 용택龍澤 등지에서도 침호두가 거행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된 밀양의 구연白淵, 함안의 도장연道場淵, 은산진악산進樂山의 석혈石穴, 고산의 용연, 흥천 가리산加里山의 용연, 맹산의 원지圓池 등지에서도 가물 때 침호두를 거행하였다.

조선 후기에 확립된 국행기우제의 12제차 가운데 제6차에 한강의 침호두가 편제된 이래 조선 말까지 한강의 침호두가 지속적으로 거행되었으며, 20세기 초엽까지도 지방의 용추에서 침호두를 실행한 사례가 『기어紀語』 1928년 7월 10일 기록에서 확인된다.

침호두에 쓸 호랑이를 단시간에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간혹 호랑이를 구할 수 없을 경우 이미 사용한 썩은 호두를 다시 쓰기도 했으나 제물을 경건하게 준비하는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침호두에 사용하는 호랑이 머리는 용신을 위협하는 매개물이지만 유교 입장에서는 그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한 경건한 희생제물로 간주하려 한 것이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토룡기우, 화룡기우, 석척기우 등이 의례 경건주의 입장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축소되거나 개정된 것에 비해 침호두는 국가와 지방의 기우제에서 한발을 타개하는 기우법으로 지속되었다.

참고문헌 祈雨祭禮錄, 국행기우제와 민간기우제의 비교연구(최종성, 종교학연구16,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1997), 『기우제등록』과 기후의례(최종성,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석전 기우 안택(조선총독부, 1938), 용부림과 용부림꾼-용과 기우제(최종성, 민속학연구6, 국립민속박물관, 1999).

필자 최종성(崔鍾成)

태백황연동유령산령당

강원도 태백시 황연동 유령^{龍靈}에서 나그네의 행로 안전과 마을의 안녕 및 풍년을 기원하는 제의 장소.

형태 유령은 신라 때 임금이 신라의 5악五嶽 가운데 하나인 태백산太白山에서 천제를 지내기 위해 소를 물고 넘던 고개이고, 조선시대에는 남쪽에 있는 태백산을 향해 망제望祭를 올리던 곳으로 우보산牛浦山이라고도 한다. 인근에 있는 태백시 주민들과 삼척시 도계읍 주민들이 이곳 정상에 산령당을 지어 놓고 고개를 넘을 때 무사히 넘을 수 있도록 기원하고 또 마을에 질병이 돌지 않고 평안함과 농사에 풍년이 들기를 기원한다.

당집이 있는 곳은 황연동 14통 술안마을로, 예전의 통리1구에 해당한다. 당은 2005년 4월 유령제 봉사회의 기금과 회원들의 특별찬조금으로 개축하였다. 앞면은 세 칸(3문), 옆면은 두 칸으로 된 팔작기와지붕이다. 건축면적은 59.4㎡이다. 당 안에는 위패는 없고 호랑이를 탄 신령과 동자 두 사람이 서 있는 그림이 전면 벽에 걸려 있다.

유래 유령은 백두대간 줄기인 삼수령三水嶺(피재, 강원도 태백시 삼수동 소재)에서 백두대간과 갈라진 줄기가 낙동정맥을 이루면서 남쪽으로 가다가 첫 번째에 나타나는 고개이다. 이 고개는 현재 기차와 자동차가 다니는 통리재桶里峙가 생기기 전에 영동 지역인 삼척三陟과 영서 지역인 태백을 오가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주민들은 고개가 높고 험하여 오르기 힘든 데다 짐승, 특히 호랑이가 득실거려 호랑이의 피해를 많이 보았다. 이 때문에 고개를 넘을 때에는 무서워서 혼자 넘지 못하여 여러 명이 모여 넘었고, 어떤 때에는 짐승을 쫓기 위해 징과 팽과리를 치며 넘었다고 한다.

이 고개를 자주 넘는 주민들은 목숨을 잃어가며 힘들게 고개를 넘을 게 아니라 산령을 섬기고, 산령의 도움을 받아 아무 탈 없이 고개를 넘고 싶어 하였다. 주민들이 피재를 안심하고 넘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개 정상에 산령당을 짓고, 산령을 위로하기 위해 매년 제사를 지냈다. 산령제를 지내고 나서부터는 별 탈 없이 고개를 잘 넘어 다닐 수 있었다. 그 후 나라에서 산령제를 지내 주었다. 그러다가 나라에 난리가 나고 어수선하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자 나라에서는 여러 해 동안 제사를 도와주지 못했고, 주민들도 제사를 지내지 못하였다. 그러다 보니 산령당이 심하게 훼손되고, 마을에 질병이 창궐하며, 농사도 잘 되지 않았다.

그 즈음 영서 지역인 황지(태백시 황지동)에 사는 효자가 아버지 제삿날에



유령산령당 | 강원 태백 | 2002 | 김기설

제물을 사 가지고 이 고개(유령)를 넘게 되었다. 효자는 낮에 집에서 일을 하다가 조금 늦어서 고개를 넘어 영동 지역에 있는 소달 장소(삼척시 도계읍 소달리 소재)에 장을 보러 갔다. 제물을 장만한 효자는 혼자 늦게 이 고개를 넘게 되었다. 그날 따라 집에서 늦게 떠나는 바람에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넘게 된 것이다.

효자는 제수를 장만하여 부지런히 걸어 고개에 이르렀다. 고개에 이르니 호랑이가 나타났다. 호랑이를 본 효자는 그만 놀라 기절하였다.

한참 지나 깨어 보니 호랑이가 옆에 있었다. 겁에 질린 효자는 호랑이에게 빌었다. “오늘이 아버지 제사인데 제사를 지내야 하니 제발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애원하니 호랑이가 말하였다. “효성이 지극하니 살려 준다. 대신 청을 들어 줄 수 있느냐?” “청이 무엇입니까?” “황소를 한 마리 잡아 이곳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느냐?” “네, 지낼 수 있습니다.”

효자가 약속을 하자 호랑이가 “나는 이곳에 있는 산신이다. 그동안 너희가 제사를 지내지 않고 고갯길을 함부로 다니기에 너희를 혼내고 잡아먹었다. 오늘 너를 잡아먹으려고 했으나 하늘이 낸 효자라 살려 보내니 돌아가서 산제를 정성껏 지내면 다시는 재앙이 없으리라.” 하고 사라졌다.

그때 효자가 사는 동네에서는 밤이 늦도록 효자가 돌아오지 않으니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마중을 나왔다. 고개에 이르니 효자가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와 같이 집으로 왔다. 집에 온 효자는 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호랑이와 한 약



제주 단지



제단



유령제



소지울리기

유령산령제 | 강원 태백 | 2002 | 김기설

속대로 황소 한 마리를 잡아 고개에 와서 제사를 지냈다. 이날이 바로 음력 사월 열엿새날이다.

그 뒤 주민들은 산령을 성심껏 모시기 위해 산령당을 복원하고, 효자는 매년 황소를 잡아 제물로 바쳤다. 제사를 다시 지내고서부터 짐승으로부터 피해가 없이 고개를 잘 넘어 다녔고, 마을에 농사도 잘 되며, 전염병도 돌지 않았다.

그런데 효자 한 사람이 매년 황소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치는 것은 좀 무리였고 힘이 들었다. 그래서 황소를 준비하지 못하여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되자 또 다시 마을에 재앙이 생겼다. 짐승들이 고개를 넘는 사람들을 해치고, 마을에는 흉년이 들며,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등 피해가 막심하였다.

불안해진 마을 사람들은 돈을 각출하여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였다. 제사를 다시 지내니 마을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산령을 섬기지 않으니 산령이 호랑이로 변신해 나 그네에게 제사를 지내 달라고 한 것이었다.

내용 유령산령제는 매년 음력 사월 열엿새날에 지낸다. 제사는 태백시와 삼척시 도계읍 주민들로 구성된 유령제 봉사회 회원들이 주관하여 지낸다. 회원들은 헌관을 맡지 않고 대신 제사를 진행하는 집례(執禮), 대축(大祝), 찬인(贊引) 등의 역할을 맡는다.

제사를 준비하는 유사는 제사 지내기 한 달 전에 정한다. 유사는 회원 가운데

데 정하는데 생기生氣는 보지 않는다. 예전에는 산령당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유사직을 맡았으나 지금은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맡는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예전에는 걸어다녔기 때문에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유사가 되면 제물을 준비하여 산령당까지 옮기기 힘이 들었다. 이런 이유로 제물을 옮기기 쉬운 곳에 사는 회원들이 유사를 한 것이다.

음력 사월 초하룻날에는 제물로 쓸 황소 한 마리를 잡고, 초이튿날에는 제사에 쓸 술을 담근다. 술은 산령당 앞에 구덩이를 파서 단지를 묻고 담근다. 땅을 파고 짚에 불을 지펴 구덩이 주위를 여러 번 돌려 부정을 제거한 다음 단지를 묻는다. 단지를 묻고 술을 담그고 금줄을 친다.

유사는 제사 일주일 전에 목욕재계하고 나서 산령당과 자기 집 앞에 금줄을 친다. 유사는 제사를 준비할 때에만 나들이하고 가능한 한 집에 머문다. 헌관들은 공직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금기하는 것은 없으나 가능한 한 행동을 조심하고, 제사 전날에 목욕재계를 한다. 제례에 제관으로 참여하는 유사·집례·대축·찬인들도 전날에 목욕재계를 한다. 헌관과 제관들은 절대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제사는 유교식으로 지낸다. 헌관은 삼헌관이다. 초헌관은 태백시장이, 아헌관은 태백시 의회의장이 그 직분을 수행한다. 종헌관은 태백시 유도회장이나 태백시 문화원장 또는 태백시 노인회장 등이 한 해 한 차례씩 돌아가면서 맡아 한다.

헌관은 관복을 입고 당 앞에서 당을 향해 서 있다가 집례의 홀기에 따라 당안으로 들어가 절을 한다. 절은 사배 한다. 제사는 참신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망료례, 사신례, 소지 상천례의 순으로 진행된다. 소지燒紙 상천례上天禮는 사신례를 한 다음 주민들의 소원이 담긴 소지를 태우는 예이다. 소지에는 각자의 생기와 소원을 적어 놓았으며 소지는 초헌관이 한꺼번에 태운다. 소지를 한 사람씩 올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소지를 올릴 때에는 소지축燒紙祝을 읽는다.

존령님께서서는 흠향하시우고, 소지를 올리는 모든 분들의 소원을 성취하도록 살펴주시고, 국민안과 태백시와 삼척의 번영과 발전을 하도록 살펴주시고, 만민인의 건강과 행운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물은 메 네 그릇, 백설기, 쇠머리, 쇠다리, 쇠 내장, 쇠갈비, 쇠 전육, 포(어물), 삼실과(대추·밤·감), 수박, 사과, 배, 포도 등이다.

비용은 봉사회의 기금과 유령(느릅고개)에 인접한 태백시 황연동·삼척시 도

계읍 주민들이 각출한 돈, 회원들의 회비, 참여자들의 찬조금, 소지를 올린 새전賽錢 등으로 충당한다.

참고문헌 민속신앙부문(김의숙, 강원문화연구5,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1985). 태백시지(태백시, 1998).
필자 김기설(金起高)

호랑이띠

열두 띠 중 세 번째의 띠.

개관 호랑이띠는 12띠 중에서 세 번째의 띠로 인년생寅年生을 말하며 달리 범띠라고도 한다. 시時로는 오전 3시부터 오전 5시까지, 방위는 동북동東北東, 달은 정월, 계절은 입춘에서 경칩 전날까지, 오행은 목木, 음양은 양陽에 해당한다. 민간에서는 호랑이띠에 태어난 사람은 호랑이의 속성을 타고나며, 다른 띠와는 상호 원진과 삼합의 관계를 보인다고 한다.

내용 우리 민족은 개인의 운명이나 성품은 타고난 자신의 띠에 따라 어느 정도 결정된다고 믿어 왔다. 그래서 호랑이띠에 태어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호랑이의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한다. 민간에서 호랑이는 백수의 왕이자 용맹함과 슬기로움, 고독과 은둔의 상징으로 평가된다. 산신령의 수호자이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산신령으로 통하는 영물이기도 하다. 동시에 성격이 사나우며 급하고, 참을성이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다. 이러한 호랑이에 대한 민간의 인식은 호랑이띠에 태어난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호랑이띠에 태어난 사람은 주체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남의 밑에서 일하기를 싫어하며 남에게 지는 것을 못 참는 성격을 가졌다고 한다. 이러한 자신만만함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 호랑이띠에 태어난 사람은 대체로 만인을 통솔할 수 있는 재능을 타고났다고도 한다. 지도자로서의 당당한 위엄을 갖추었으며 존경의 대상이자 책임감이 강한 인물로 평가되어 남들에 비해 출세도 빠르다고 한다.

개체별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호랑이의 생태 때문에 민간에서는 호랑이를 고독하고 은둔생활을 즐기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 그래서 예로부터 큰스님들은 대개 범띠(寅年), 범월(寅月), 범날(寅日)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다고 하며, 사주에 범이 들어간 사람들은 종교가와 예술가가 되기 쉽다고도 한다.



12지신 목판 중 호랑이 | 가로37 세로24 두께4 | 20세기 말 | 국립민속박물관

설화에서 호랑이는 의협심이 강하며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동물로 등장한다. 그래서 호랑이띠인 사람은 정의롭고 관대하며 타인의 도움에 반드시 보답한다고 한다. 나아가 남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고자 하며 어려운 상황에서 도 솔선수범하여 일을 마무리 하는 책임감을 지녔다고 한다.

한편 호랑이는 자신이 쫓던 먹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비추어, 호랑이띠인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일에서 실패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타고난 충동성과 원기 왕성함 때문에 참을성 없이 행동하는 경향이 있고 매사에 서두르고 속전속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호랑이띠인 사람은 의심이 많으며 주저하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호랑이띠인 사람은 다른 띠와의 궁합에서 삼합과 원진의 관계를 가진다. 삼합은 서로 잘 어울리는 띠를 말하며 원진은 서로 충돌하는 관계이다. 호랑이와 닭은 원진관계이다. 이는 야행성 동물이 호랑이가 밤사이에 사냥을 하는 까닭에 새벽을 의미하는 닭 울음소리를 싫어하기 때문이라 한다. 반면 호랑이는 개와 삼합관계에 있다. 풍수설화에서 아무리 호랑이의 기운이 강한 복호혈 명당이라도 호랑이의 먹이가 되는 개바위가 근처에 있어야 최고의 뒷자리로 평가받는다. 또 호동이나 범골마을의 지명 유래담에서 마을 인근의 산세를 평할 때 호

랑이가 개를 어르는 형상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호랑이띠는 소·원숭이 띠와 심각한 충돌과 경쟁을 일으키는 관계로 보며, 용·말·돼지띠와는 상호존중과 상호 협력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

호랑이띠와 관련된 다양한 속설이 있다. 호랑이띠가 있는 집안에서는 짐승이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는 가축들이 호랑이의 기운에 눌려있거나 호랑이의 먹이가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호랑이띠끼리 만난 부부는 금실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는 주체적인 성격을 가진 부부간에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호랑이띠 남자는 밤중에 낳은 것이 좋으며 여자는 그 반대의 경우가 좋다고 한다. 이는 호랑이의 야행성으로 인해 밤중에 그 기운이 가장 왕성하기에 남자에게는 어울리고 여자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징 및 의의

호랑이띠에는 평소 우리 민족이 호랑이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용맹하고 독립적인 호랑이의 생태는 주체적·종교적·예술적 성격으로 치환되었으며, 호랑이의 과격함과 잦은 사냥 실패는 원기왕성함과 경솔함으로 인식되었다. 다른 띠와의 궁합도 실제 생태계에서의 호랑이와 다른 동물과의 관계가 유사하게 적용되었으며 호랑이띠와 관련된 속설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형성되었다.

참고문헌 열두띠 이야기(김선풍 외, 집문당, 1995), 한국 띠동물의 상징체계 연구(천진기,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호랑이의 생태와 관련 민속(오창영 외, 국립민속박물관, 1997).
필자 오세길(吳世吉)

호랑이부적

호랑이를 통하여 나쁜 잡귀를 몰아내고 각종 재난을 막으면서 삼재(三災)를 소멸하여 대길(大吉)과 가내 안녕 그리고 복 받기를 기원하기 위해 만든 부적.

내용

호랑이부적은 호랑이의 맹수적인 모습을 세화나 회화 등의 형태로 제작한 것이다. 호랑이의 용맹함과 흉포함이 각종 재난과 나쁜 기운이나 귀신을 막아주어 삼재의 고통을 없애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어졌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와 『열양세시기(洙陽歲時記)』 등에 따르면 매년 정월 초하루에는 궁궐뿐만 아니라 민가에서도 호랑이 그림을 대문에 붙이는 풍습이 있었다. 부적 또는 환화 형태로 집의 대문이나 벽에 붙였는데, 이는 호랑이의 강인함

에 기대어 집에 침투할 수 있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자 함이었다.

대개 부적이 문자나 알 수 없는 그림으로 그려진 것에 반해 호랑이부적에는 호랑이의 모습이 확연히 나타난다. 또한 호랑이가 단독으로 있는 것부터 대나무 숲에 있는 호랑이, 엮드려 있는 호랑이, 호랑이와 용, 호랑이와 현무, 호랑이 등에 머리가 셋 달린 매가 올라탄 그림 등 다양하게 표현된다.

호랑이부적은 도상圖像뿐만 아니라 화제書題 또한 매우 다양하다. 사람들은 염원을 담아 부적에 화제를 적었다. 그 예로 안전사귀치소멸安全邪鬼齒消滅, 축삼재逐三災(호랑이와 매가 그려져 있음), 삼재소멸길상 호신진언三災消滅吉祥 護身眞言(호랑이와 삼두매가 그려져 있으며 삼두일족용이 그려진 삼재소멸부와 마찬가지로 삼재를 소멸하는 부적으로 사용), 호랑이와 현무, 호랑이와 매 또는 독수리, 금란장禁亂將(호랑이만 그려져 있는데, '어지러운 것을 금지하는 장군'이란 뜻으로 호랑이가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뜻함. 눈앞의 사악한 귀신을 소멸



가로35 세로62



가로45 세로59

호랑이부적 | 국립민속박물관

할 것을 기대하며 삼재나 관재를 막는 데도 이용), 부귀수호 삼재관재 소멸부富貴修好 三災官災 消滅符 등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호랑이부적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호축삼재부적虎逐三災符籍이다. 호랑이 두 마리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부적으로 수목담채화이다. 사람에게 해를 가져오는 화재·수재·풍재를 막아주고 병난·질병·기근의 세 가지 고통에서 지켜주는 신비로운 힘이 영험한 동물 호랑이에게 있다고 믿었기에 이에 기대어 만들었다. 삼재부적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입을 크게 벌린 모습이 많다. 호랑이를 삼재부의 중심 동물로 그린 것은 매와 달리 야행성 동물이라는 점과 잡귀를 능히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동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는 호랑이와 매가 함께 그려진 부적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독자적인 형태로, 매가 가지고 있던 삼재축귀의 의미에 호랑이가 가진 벽사의 의미를 더해 부적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러한 삼재부는 목판으로 만들어 대량 생산하였기에 널리 전파될 수 있었다.

셋째는 1940~1960년대 사이에 만들어진 '이십사장부 인방도진수二十四將符 寅方都眞帥'라는 글귀가 쓰여 있는 호랑이부적이다. 동북동쪽인 인방寅方으로 악한 기운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넷째는 '인일몽차부대두대길寅日夢此符戴頭大吉'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는 호랑이부적으로, 호랑이날인 인일寅日이 길할 것을 바라며 만들었다.

다섯째는 상단에 사자머리를 한 호랑이와 하단에 현무도를 배치한 산신부적판화이다. 두 영물은 현세에 존재하지 않는데, 사자머리를 한 호랑이는 산신을 의미하고 현무는 수신으로 여겨진다. 복을 구름처럼 만연케 하고, 천 가지 살을 퇴치하며, 만복을 비는 민간신앙의 전통이 잘 드러나 있다.

마지막은 판화로 된 호랑이부적으로, 그중 금란부 판화를 예로 들 수 있다. 모든 액살을 평정한다는 뜻의 글귀와 상형문자가 복잡하게 적혀 있고, 호랑이의 모습이 단순하게 그려져 있으며, 줄무늬는 화성火星의 영물로서 이글거리는 불덩어리의 형상을 하고 있다. 재난금지부적으로 나쁜 기운과 재앙을 막아 대길大吉을 불러온다고 한다.

부적은 주로 적색으로 그려진다. 귀신이 싫어하는 색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에 호랑이부적에도 붉은 채색을 많이 하였다. 또한 기복을 구하는 주술적 기능보다 액막이를 다루는 벽사적 기능과 호신부로서의 성격이 강한 호랑이부적은 호랑이를 직접 그리거나 판화로 찍었는데, 이것을 문 위에 붙이거나 몸에 지니며 때로는 태워서 먹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호랑이는 ‘양양의 동물로 백수의 우두머리’라고 『풍속통의(風俗通義)』에서 소개하였다. 이에 음陰의 존재인 귀신과 도깨비를 능히 잡아 부러뜨리며 잡아먹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호랑이는 용맹함과 절대적 힘을 상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귀신을 물리쳐 주리라는 신앙에 가까운 믿음이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호랑이를 벽사용으로 그리기도 하고, 호랑이의 신체 일부분인 수염·발톱·이빨 등에 장식을 달아 부적처럼 사용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민화의 주술적 기원과 상징성(한유진, 인문과학연구41,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변신 신화에
서 생활로(국립민속박물관, 2009), 강원도 호랑이와 멧돼지(국립민속박물관, 2018), 한국 문화에 나타난 호랑이의 상
징성 연구(천진기, 호랑이의 생태와 관련민속, 국립민속박물관, 1997), 한국 민화에 나타난 호랑이 그림 연구(최지영,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한국 부적의 역사와 기능(김영자,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필자 김도현(金道賢)

호살랑굿

황해도굿의 굿거리 중 하나로, 호환(虎換)을 겪은 호영산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호영산이 등장해서
굿놀이 형태로 진행되는 굿거리.

역사

호랑이는 이미 단군신화를 비롯한 오래전의 여러 문헌이나 신화 등에 등장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호랑이는 위엄 있는 존재로서의 일면이 있는 반면에 호환이라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한반도에서 호랑이를 섬기던 풍속은 『후한서(後漢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이전(東夷傳)에 “그 풍속은 산천을 존중한다. 산천에는 각기 부계(部界)가 있어 서로 간섭할 수 없다. …(중략)…범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것을 신으로 섬긴다.”라는 기록을 통해 이미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의 기록에서도 호랑이를 산군(山君)이라고 하여 무당이 진산(鎭山)에서 도당제를 올렸다는 기록까지 찾아볼 수 있다. 호환에 관한 기록은 『삼국유사(三國遺事)』 「감통편(感通篇)」의 ‘김현감(金顯感虎)’에서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호환을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의 일환으로 호살랑굿과 같은 굿의 형태가 발생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호환과 관련한 놀이의 기록은 1865년 경복궁 중건 당시에 축하공연 모습을 기록한 『기원별록(奇苑別錄)』에서 포수가 호랑이를 총으로 쏘는 사냥놀이가 확인되며, 이후 실제 호랑이와 관련한 굿놀이의 형태가 동해안 지역 일대의 별신굿에서 확인된다.



호살랑굿의 자진만세 청배



호영산 마누라 놀기



호살랑 놀기



호살랑굿에 비치는 제물

인천 계양산 독실굿당 | 2004 | 김은희

내용

호살랑굿은 호랑이가 많던 시대에 호랑이에게 희생된 영혼들을 달래고, 미래에 있을 사고를 막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황해도굿의 여러 절차 중에서 호살랑굿은 매우 특별한 굿거리 중 하나이다. 호환이 많던 시대에 호환으로 인해 숨진 영혼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 호살랑의 연행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호살랑굿은 호환을 겪은 조상이 있는 집안의 집굿이나 마을의 마을굿에서 굿을 마치는 마지막 절차인 마당굿(뒷전)만을 남기고 집 밖으로 나와서 굿의 맨 마지막에 진행되는 굿거리이다.

그러나 호살랑굿에서 중요한 것은 호랑이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람이 아니다. 호살랑굿에서 호군옹씨, 호영산마누라, 사신반옹, 사신군옹 등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실제 이 굿거리에서 모셔서 노는 신에 대해 매우 특별한 모습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황해도 무당인 박선옥 만신은 호살랑굿에 대해 “범 죽은 구신을 논다.”라고 말한 바 있다. 즉 호환을 당한 사람을 위해 굿을 하는 것이지만 굿의 실제 내용은 범의 영혼을 잘 달래줌으로써 범들이 사람들을 해치지 않도록 기원하기 위해 하는 굿이라고 할 수 있다.

호살랑굿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몇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1. 사방청배: 무당이 굿청에 들어서서 춤 장단에 방울·부채·서낭기 등을 들고

사방에 인사를 하고 땀을 간단하게 돈다.

2. 자진만세청배: 자진만세장단에 맞추어 만신과 장구잡이·조무의 반복창 형식으로 호영산대감을 비롯한 호영산군웅대감 등 제신을 청하는 무가를 구송한다.

3. 호영산마누라: 구체적인 굿놀이가 놀기 시작하는 절차로, 무당이 호영산마누라가 되어 재담을 하며 노는 굿거리이다. 호영산마누라는 암호랑이이며 어미 호랑이로 설정되어 있어서 호랑이굴 안에서 새끼들을 거느리며, 수호랑이인 호살량이 먹잇감을 찾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새끼들을 돌보며서 여러 재담을 한다.

4. 호살량: 호살량은 수호랑이로, 이 호랑이가 사냥감을 구해 돌아다니면서 미리 준비된 개를 발견하면 먹잇감을 사냥하는 시늉을 한다.

5. 날만세: 굿을 마치면서 신들을 돌려보내는 무가를 자진만세받이 장단에 얹어서 역시 반복창으로 부른다.

호살량굿의 절차 중에서 사장청배, 자진만세청배, 날만세는 모두 황해도굿의 여러 굿거리에서 유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굿거리의 시작하고 끝맺는 방식이다. 따라서 호살량굿의 독자적인 내용은 암호랑이인 호영산마누라가 노는 호영산마누라 놀기와 수호랑이인 호살량을 노는 호랑산 놀기의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호살량굿의 주인공은 범이다. 호랑이 암컷과 수컷이 한 짝을 이뤄서 호영산마누라와 호살량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 호랑이 입장이 되어 호랑이의 행색을 표현하고, 호랑이 입장에서 대접을 받음으로써 앞으로의 호환을 예방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 굿거리에서 개고기는 호살량굿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특별한 제물이다. 이는 호랑이의 습성을 고려해 호랑이에게 바치는 제물로 날개고기와 날닭고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개고기 제물은 암호랑이인 호영산을 연행할 때 옆병 맞은 코를 잘라먹으며 새끼들에게 제공하는 먹잇감으로, 호살량을 놀 때는 수호랑이인 호살량이 사냥해 오는 사냥감으로도 쓴다.

호살량굿의 또 다른 특이점은 연행에 있어서 말보다 소리와 행동이 매우 중요한 연행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호영산마누라를 노는 동안만 어느 정도의 대사에 해당하는 말이 쓰이고 있을 뿐 대체의 시간은 모두 소리와 행동으로 대신한다. 소리와 행동은 모두 호랑이의 행동을 모방하여 재연하는 방식이다. 호영산마누라나 호살량의 경우 모두 옆드려서 호랑이의 걸음걸이와 같이 기어 간다거나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다른 생명체에게 겁을 주는 행위, 모래와 자갈이 담긴 함지에 배설을 하며 영역표시 하기,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통해 사냥을 하거나 고기를 먹는 행위 등으로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여느 굿거리에서는 사람과 신의 소통을 위해 말을 사용하며 대상의 특징에 대해 말로 설명하고, 굿놀이에서는 재담 형식을 통해 신의 직무를

행한다. 그런데 이처럼 호살량굿이 행동 중심의 연행을 하는 점은 동물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데서 오는 독자적 연행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호살량굿에 대한 실체가 처음 공개적으로 확인된 것은 2004년 5월 15~17일에 있었던 국립국악원의 황해도 꽃맞이굿이었다. 당시 박선옥 만신이 바로 호살량굿을 연행한 주인공이다. 박선옥은 호살량굿을 호살량·개반웅·사신반웅 등의 이명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굿거리 명칭은 기왕에 조사된 몇몇 자료에서 확인되기도 한다. 조사자료인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황해·평안남북 편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黃海·平安南北 編』에서는 영산굿이라고 하여 잡귀에 씌어 병이 난 경우 개를 잡아서 개 몸 안에 짚을 넣어서 박제한 것을 마부로 하여 금 제물을 신고 나가게 하는 사신使臣굿에 대한 기록이 있다. 또한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무의식 편 巫儀式 編』에서는 개릉산(사신반혼굿)이라고 하여 집안 조상에 사신으로 갔다온 이가 있다거나, 호식虎食으로 죽은 이가 있는 경우 그 조상을 위해 행하는 굿으로 정리하고 있다. 개릉산 역시 영산굿과 마찬가지로 개를 잡아서 그 가죽을 조질에 씌우고 개를 사신이라고 하여 타고 굿을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서로 다르면서도 일정 부분 유사한 성격으로 각각의 굿거리를 설명하고 있어서 병굿과 호살량굿, 사신굿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한다.

지역사례

황해도 지역의 호살량굿과 같이 호환과 관련한 무속의례의 사례는 동해안 지역의 별신굿과 경기도 파주 지역의 마을굿에서 발견할 수 있다. 동해안의 중부 지역인 경상북도 영덕군이나 포항 일대의 별신굿에서 범굿이라는 굿거리가 발견된다. 범굿은 달리 호탈굿, 호식虎席, 범안굿 등의 명칭으로 불린다. 동해안의 별신굿은 남자무당인 화랭이들에 의해 연행된다. 대거리굿만을 남겨두고 굿의 맨 마지막에 연행되는 범굿은 범과 포수로 분장한 두 화랭이가 등장해 포수가 범을 잡는 행위를 재연하는 방식으로 놀이가 진행된다. 범은 제장을 돌면서 먹잇감을 찾아 어슬렁거리다가 제물로 준비한 산닭(날닭)을 잡아먹는다. 이때 범을 뒤쫓아 들어온 포수가 범을 발견하고 곧 조총으로 쏘아서 쓰러트리고, 범을 잡은 포수가 기쁜 표정으로 범의 가죽을 벗겨내면서 구경꾼들에게 축원의 말을 전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경기도 파주 문산에서 확인된 호랑이 굿놀이는 문산도당굿에서 군웅거리 뒤에 연행하는 호영산호대감굿거리이다. 호영산호대감굿거리는 호랑이에게 난을 당해 죽은 호영산과 호대감신을 위안하는 것으로, 먼저 군웅신이 상산막둥이와 함께 사냥을 떠나서 미리 준비해 둔 희생 개고기를 호대감이 찾는 것으로 진행된다. 호영산호대감굿거리는 호대감만 등장해 숨겨둔 개고기를 찾아 나

서서 온 산을 헤매며 사냥을 하고, 사냥에 성공하면 임진강 쪽을 향해 도무를 하고, 날고기를 물어뜯어서 사방으로 버리고 공수를 준 후에 마친다.

이러한 몇몇 호환과 관련한 굿거리들은 모두 재담이나 무언극 형태를 사용하는 굿놀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즉 신의 말을 직접 전달하는 공수나 신에게 기원하는 교술무가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대화를 통한 상황의 직접적 재현이 매우 중요한 연행 방식으로 사용된다. 또 이러한 호환 관련 굿거리들은 공통적으로 굿의 후미에서 연행되는 공통점이 있다. 호환을 당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이므로 하위 신으로서 굿의 전반부인 상위신격들과 달리 굿의 후반부에서 하위 신격들의 연장선상에서 연행되고 있다.

이와 달리 범굿이나 호영산호대감굿과 호살랑굿의 분명한 변별점은 호랑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자연물에 대한 시각의 문제에서 나타난다. 호살랑굿에서 호랑이는 굿거리의 연행 주체로 등장한다. 무당이 암호랑이와 수호랑이가 되어서 그들 스스로의 입장을 말하고 신으로서 등장해 노는 방식이다. 그러나 범굿과 호영산호대감굿에서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 굿을 진행하며, 호랑이는 부수적 존재로 등장한다. 특히 범굿의 경우 살아 있는 뱀은 그 자체가 액운의 집합체로 인식되어 매우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고 물리쳐야 할 대상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호살랑굿은 뱀을 물리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람과 같은 자연의 일부로 인식하고, 상호 존중해야 할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애니미즘 세계관이 반영된 굿거리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영동지역무악 및 구포호랑이굿(최길성, 문화재관리국, 1971),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경상남도편(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2),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황해·평안남북 편(문화재관리국, 1980),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무의식 편(문화재관리국, 1983), 한국의 굿11-강사리 범굿(하호길·황효창, 열화당, 1989).

필자 김은희(金銀姬)

호서낭

인천시 강화도 일대에서 사람이나 소가 호환을 당한 이후에 해당 집에 모셔지는 신격·호환을 당한 사람이 전회轉化된 경우와 호환을 당한 소가 전회轉된 경우가 있다.

형태 신체神體는 병거지와 쾌자를 쓰며, 집 바깥이나 담 밖에 주저리에 넣어 봉안한다. 강화도 일대의 가정신앙에서 병거지와 쾌자는 주로 대감의 신체, 주저리는 터주의 신체로 각각 쓰인다. 호서낭의 신체가 병거지와 쾌자를 넣은 주저리라는 점에서 터춧대감의 성격과 상통하고, 안채와 떨어진 곳 특히 담 밖에 모셔진

다는 점에서 여타의 신격과 거리를 둔다. 호서낭의 주저리는 갈아주지 않고 해마다 이엉을 엮어 덧씌우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주저리의 크기가 커진다.

내용 호서낭은 ‘호랑이’라는 외경의 대상이 개입된 신격이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은 물론 무당까지도 무서워하고 다른 신과 달리 특별한 대우를 한다. 예컨대 외부에서 이마지가 들어왔거나 집안에서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에는 반드시 호서낭에게 고하고 먹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고수례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인 역시 호서낭을 두려워했고, ‘호서낭 있는 집’ 자체를 무서워할 만큼 이 신격은 외경의 대상이다.

무당을 불러 가정신을 위한 굿을 할 때 호서낭을 모시는 가정에서는 개를 희생물로 하고, 호서낭의 신체인 병거지와 쾌자를 꺼내입고 놀린다. 이는 황해도 굿에서 보이는 호서낭굿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단언할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호랑이와 개(또는 들개)는 상극이며, 호환을 막기 위해 호랑이상을 세우는 전남 남원 광한루의 사례나 호랑이를 마을제의 대상으로 하는 마을(경기도 용문 구천제)에서 개를 희생물로 한다는 사실을 볼 때 호랑이와 개의 관계는 매우 일반적이다.

특징 강화도에 전승되는 호서낭은 네 가지 면에서 특징을 보인다. 첫째 호서낭을 모시는 집은 ‘부자’라는 인식이다. 이는 강화도지역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현상으로, 부자는 곧 호서낭을 모시는 집이라는 등가적 인식까지 존재할 정도이다. 둘째 강화도 일대에서 숭신되는 호서낭은 시집가는 여성을 따라가기도 한다. 시댁으로 따라간 친정의 호서낭은 시댁의 신격과 충돌하고 집안의 우환을 일으킨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시집간 딸이 앓아 굿을 했는데 친정에서 호서낭이 따라갔다.”라는 무당의 공수를 받고 시집간 딸이 자발적으로 친정의 호서낭을 모셨다는 하점면 부근리의 사례가 대표적인 증거이다. 셋째 호서낭은 혼인과 관련하여 두려워하는 신격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호서낭을 모시는 집의 딸이 시집을 가는 데 호서낭은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신랑집에서 호서낭이 있는 집의 여성을 신부로 맞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부집에서 딸을 시집보낼 때 호서낭이 신부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다리미에 불을 담아서 가는 예방의례를 행한다. 넷째 외경의 대상인 호서낭을 특정 시점에서 섬기는 것을 단절시키기도 한다. 호환을 당한 집에서 손자를 얻었을 때에는 호서낭을 폐기한다. 이는 신격 자체가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득손자’라는 계기를 삼아 단절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례 강화도지역에서 호서낭의 사례는 많지 않지만 강화도 가정신앙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특별한 사례이다. 이를 통해 무당굿과의 관계, 특히 황해도 무속과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실마리로 삼을 수 있다. 황해도의 호살량굿은 굿거리 중의 하나이다. 호환을 당한 사람의 영혼을 '호영산'이라고 하는데 호살량굿은 바로 이 호영산을 위한 굿거리이다. 실제로 호살량굿은 호환을 당한 영혼을 위무하는 동시에 미래에 있을 사고를 막기 위해 연행된다. 호살량은 암호랑이인 호영산마누라와 짝을 이루는 수컷을 이른다. 좀 더 분화된 호랑이 관념을 투영하여 굿거리에 구현했다는 뜻이다. 강화도의 호서낭에서는 이와 같은 자웅雌雄의 차별적 관념은 없다.

강화도의 호서낭을 황해도와의 관계에서만 논의할 수는 없다. 호환을 당한 창귀(尙鬼)에 대한 관념과 이에 대한 특정 의례가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고, 호랑이를 대상으로 하는 굿 역시 다른 지역에서도 산전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의 문산도당굿에서 연행되는 호영산호대감굿거리가 그렇고, 동해안의 경상북도 영덕군과 포항시 일대의 별신굿에서 연행되는 범굿이 그렇다. 이렇듯 호서낭은 무속의 한 신격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에 대한 의례는 생각보다 폭넓은 편이다.

의의 호환은 전통사회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한 횡액(橫厄) 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호랑이는 맹수 중 맹수이고, 관념상으로는 산신(山神) 또는 산신의 사자로서 인식된 양가적 동물이다. 호환이 발생했을 때 특별한 관념과 의례를 갖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호서낭의 발생과 숭신은 가정신앙적 측면에서 우연적인 일이 아니다. 호랑이가 멸종되다시피 한 현대에서 호서낭에 대한 신앙은 점차 소멸되고 있지만 전통사회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민속 관념이다.

참고문헌 강화가정신앙의 대상과 유형(운동환, 강화가정신앙연구, 민속원, 2011), 강화의 가정신앙 1(강화가정신앙조사단, 민속원, 2010), 인천지역무속 2(이선주, 미문출판사, 1988),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남(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2),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황해·평남·평북(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0), 한국의 굿-서울·경기·인천(이선주, 민속원, 1996), 한국의 굿 1-강사리 범굿(하효길·황효창, 열화당, 1989).
필자 장장식(張長植)

호식장

虎食葬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고 난 뒤에 남긴 유구(遺骸)를 거두어 장사(葬)하는 의례.

내용 호랑이에 의한 호환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신에 의한 운명적 사건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팔자에 없으면 범에게 잡혀 가도 먹히지 않는다는 눈썹이 길면 호환을 당할 운명이라든가 하는 속신도 있다. 산길을 걷는 사람들 중에 앞뒤의 행렬 순서와 관계없이 호환의 피해를 당하며, 방 안에서 자는 사람들을 습격해도 한가운데 있는 사람을 호랑이가 데려갔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이야기는 모두 호환을 운명이라고 생각하였다. 특히 호환을 당한 사람의 영혼은 '창귀'라는 귀신이 되어 죽어서도 호랑이의 부림을 받는 딱한 처지가 된다. 이 창귀는 다른 사람을 유인하여 호랑이에게 바쳐야만 창귀의 신세를 면하고 보통의 귀신이 될 수 있다. 창귀는 서둘러 다른 사람을 호환의 대상으로 몰색한다. 호랑이는 창귀가 선택한 사람을 몰고 가지 않고 견게 하여 앞세워서 죽일 장소로 인도해 간다. 호랑이는 사람의 팔다리와 몸통을 먼저 먹어 치우고 반드시 머리만 남긴다. 그리고 죽은 이의 머리카락을 혀로 짹짹 빨아서 왼 가르마로 곱게 빗어 놓는다. 호환을 당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의 처리는 일반 사고에 의한 죽음과 달리 비밀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강원도 산악지역에서는 호식장(虎食葬)이란 독특한 장례 풍속이 있다.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 남긴 조각 시신을 유족들이 찾아서 집으로 데려 오지 않고 그 자리에 호식총(虎食塚)을 만든다. 화장을 하고 그 위에 돌무덤을 쌓은 다음 시루를 얹어 놓는다. 그 시루 구멍에는 물레의 가락을 꽂아 놓는 특이한 형태의 무덤인 호식총을 만든다. 호랑이가 사람을 몰고 가서 먹는 곳을 호식터 또는 호납(虎贖)이라고 한다. 다른 곳에 비해 태백산지역에는 호식총의 분포도가 높은 지역으로 그 유지(遺址)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

참고문헌 운명을 읽는 코드 열두 동물(천진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한국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3), 호식장(김강산, 태백문화원, 1988).
필자 천진기(千鎭基)

호탈굿

동해안 중부 지역의 별신굿에서 포수가 종이로 만든 탈을 쓴 호랑이를 잡는 과정을 보여 주는 굿놀이.

내용 호탈굿은 호랑이로부터의 호환(虎患)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행한다. 호탈굿은 하나의 거리로 구성된 무극이다. 아래 '최길성본'의 연행 무당은 김석출과 제갈태오이다. '김태곤본'의 연행 무당은 포수역을 맡은 김석출 외에는 알 수가 없다. '이두현·강용권본'은 김석출이 구술하였다. 호탈굿의 장면 구성과 순서는 세 가지 대본 모두 유사하다.

1. 최길성본: ①호랑이 등장, ②포수 등장(①자신소개, ②등장 이유, ③노정기), ③호랑이 사냥, ④호랑이 가죽 매매.

2. 김태곤본: ①포수 등장(①자신 소개, ②연행 이유, ③등장 이유, ④노정기), ②호랑이 사냥, ③호랑이 가죽 매매.

3. 이두현·강용권본: ①호랑이 등장 ②포수 등장(①자신 소개, ②등장 이유, ③노정기), ③호랑이 사냥, ④호랑이 가죽 매매.

①호랑이 등장: 굿판 가운데 심어 놓은 소나무 근처로 호랑이가 등장한다. 호랑이는 춤을 추거나 관중을 놀라게 하기도 하고 닭을 물고 던지는 등의 재주를 부린다.

②포수 등장: 막대기 총을 둘러멘 포수가 등장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호탈굿을 연행하는 이유나 자신이 등장한 이유를 밝힌다. 포수는 호랑이의 흔적을 따라 이 동네까지 온 과정을 보여 주는 '노정기'를 부른다.

③호랑이 사냥: 포수가 숨어 있는 호랑이를 발견하고 총을 쏘아 잡는다. 호랑이를 잡은 기쁨을 가요로 표현한다.

④호랑이 가죽 매매: 포수는 호랑이가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 호피를 벗겨 어촌계장이나 이장 또는 제관에게 돈을 받고 판다. 이들은 포수에게 한지로 만든 호피를 받아서 불에 태운다.



호랑이 탈 제작



호랑이 탈 제작



호랑이 등장



포수 등장



닭잡는 호랑이



호랑이 가죽 벗기는 포수



호랑이 가죽 태우기

호탈굿 | 경북 영덕 | 2013 | 이균옥

과거에는 호탈굿을 포함한 별신굿이 끝나면 호랑이가 먹고 가라고 소를 잡아 소머리를 산에 묻었다. 호탈굿의 각 장면과 연행 후 소머리를 묻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호랑이의 등장 장면은 '위협 발생'이며, 포수의 등장 장면은 '위협 해소 가능성'이고, 포수가 호랑이를 사냥하는 행위는 '위협 해소'이며, 사립이나 가축 대신 소머리를 산에 묻는 행위는 이후에는 호환이 없기를 바라는 마을 사람의 간절한 '기원'이라고 하겠다.

호탈굿은 호환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진 유감 주술적 무극이다. 호랑이를 잡는 모의적인 행위를 통하여 호랑이의 폐해를 막아 보자는 것이다. 호탈굿은 포수가 호랑이를 잡는 행위 위주로 된 무극이므로 포수와 호랑이의 대결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다른 무극과 비교하면 호탈굿은 인간이 아닌 호랑이라는 동물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호탈굿의 등장인물은 최길성본이 '포수·호랑이·어촌계장'이며, 김태곤본이 '포수·범·이장', 이두현·강용권본이 '포수·범·대주'이다.

포수는 모두 나무로 만든 총을 둘러메고 등장하여 자신이 이 동네까지 호랑이를 잡으러 온 연유를 설명하고 노정기를 부른다. 포수는 무대로 등장하면서 악사와 대사를 주고받는다. 이것은 꼭두각시놀음의 인물 등장 방식과 유사하다.

호랑이는 호랑이 무늬를 그린 한지를 몸 전체에 쓰고 등장한다. 굿당 안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호랑이의 행동을 흉내 내거나 준비한 닭을 물었다 던지기도 하는데, 호랑이는 무언의 인물이다. 어촌계장, 이장, 대주는 포수가 잡은 호랑이의 가죽을 마을 돈으로 사서 불에 태우는 인물이다.

포수 등장 장면에서는 포수가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탈굿이 연행되는 동네까지 오는 과정을 밝히는 가요인 노정기를 부른다. 노정기는 무극 외에 판소리 <흥보가> <심청가> 그리고 탈춤에서도 연행되며, 주인공의 공간적 이동이 필요한 단락에서는 어디에서나 연행될 수 있는 가요이다. 노정기는 동해안 지역의 굿에서도 중요하고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김용업의 '신향보전'에 무당들의 학습 자료로 정리되어 있으며, 손님굿에서도 손님이 강남 대한민국에서 조선국으로 이동할 때 연행되는 가요이다.

최길성 채록본의 노정기는 '기존 노정기+무가(천왕말문)+창작가요'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노정기'는 "서촉을 다지내 강릉 오백 리 소상강 팔백 리 건동 육백 리 아양루 고소대 구일경 만태백을 얼핀지내"로 시작하는 사설이다. '천왕말문의 무가'는 "경상도 태백산은 낙동강을 구경하고 전라도 지리산은 금용강을 구경하고"라는 사설로 시작되는 가요이다. '창작가요'는 호탈굿이 연행되는 지역을 나열하는 사설의 가요이다. 포수가 실제로 노정기를 따라 이동했을 리는

없으나, 가요가 가진 유희적 분위기의 고조와 포수가 이동하는 경로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노정기가 연행되었다.

호탈굿의 노정기는 <심청가>에서 연행되는 노정기인 '범피중류'와는 차이를 보인다. '범피중류'는 "망망한 창해며 탕탕한 물결이라. 백빈주 갈매기는 흥료안으로 날아들고"라는 사설로 시작하여, '소상팔경'에 관한 사설로 구성된 것이다. 호탈굿의 노정기도 중국의 명승지를 나열하고 있으나, 사설의 구성이 <심청가>에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

호탈굿의 노정기 사설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조직되어 있다. 그 규칙은 '방향성'이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간적 방향성'이다. 즉, 호탈굿 노정기는 '면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사설이 조직되어 있다. 이런 일정한 방향성을 지닌 사설 조직 방식은 무당들에게 암기와 연행을 용이하게 하는 요소임이 틀림없다.

특징 및 의의

자연 상태로 생활하는 호랑이가 사라진 현재, 호탈굿이 하나의 굿거리로 계속해서 연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굿은 굿을 의뢰하는 현지 주민들의 현실적인 주술적 필요에 의해 연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에도 호탈굿은 동해안 중부 지역인 경상북도 포항, 영덕 인근에서 연행되고 있다. 호탈굿의 전승은 전승 환경의 변화에도 전승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참고문헌 강사리 범굿(김수남 외, 열화당, 1989), 동해안지역 무극 연구(이균옥·박이정, 1998), 영동지역 무악 및 구포호랑이굿(최길성,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1), 한국무가집4(김태곤, 집문당, 1980),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남(이두현·강용권,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2).

필자 이균옥(李均玉)

호랑이가 깃든 물건

Objects with Tiger Motifs

- 강감찬
- 개가하지 않은 떠느리
- 도운 호랑이
- 견훤
- 공주동해리산신제
- 곽재우
- 구시월 도지는 호랑이도
- 무서워한다
- 금산진악산물골봉기우제당
- 금산진내리용호석
- 김현감호
- 김호랑이굴
- 가치호랑이
- 꼬리 잘린 호랑이
- 나도밤나무
- 남매탑
- 단군신화
- 라이저
- 매추라기의 꿈지
- 문자 쓰다 장인 잃은 사위
- 밀양 용호놀이
- 반쪽이
- 백두산호랑이
- 백호
- 백호기
- 범골
- 범바위
- 범이 불알을 동지에 열구고
- 입춘에 녹인다
- 변신한 호랑이를 물리친 사람
- 복호
- 사람을 사랑한 호랑이
- 사신
- 사신반흔긋
- 산맥이
- 산신
- 산중호걸
- 삼재부적
- 삼척갈남마을백호서낭제
- 상여장식
- 상인일
- 설화 속 호랑이
- 수호랑
- 시묘살이 도와준 호랑이
- 신림
- 신성과 벽사의 호랑이
- 애호
- 어
- 여름에 홍시 구한 호자
- 여자 음부 보고
- 도망간 호랑이
- 오뉴월 손님은
- 호랑이보다 무섭다
- 용호문배도
- 이빨 빠진 호랑이
- 입지한
- 정호기
- 제호이위신
- 조선표상화
- 종이호랑이
- 착호갑사
- 창귀
- 청양 범놀이
- 츄츄는 호랑이
- 침호두
- 태백황연동유령산령당
- 토끼의 재판
- 팔죽할때와 호랑이
- 포호정책
- 한국표범
- 해수구제사업
- 해와 달이 된 오누이
- 호건
- 호골
- 호들이
- 호동
- 호랑이 관련 용어와 표상
- 호랑이 눈썹
- 호랑이 배 속 구경
- 호랑이 별주부 상면 대목
- 호랑이 잡은 기름강아지
- 호랑이 잡은 비루먹은 강아지
- 호랑이 장가 가는 날
- 호랑이가 깃든 물건
- 호랑이가 잡아준 명당
- 호랑이굴
- 호랑이꿈
- 호랑이띠
- 호랑이로 변한 남편
- 호랑이발톱노리게
- 호랑이벽화
- 호랑이부적
- 호랑이선생님
- 호랑이연고
- 호랑이와 꽃갑
- 호랑이의 보은
- 호랑이의 생태와 역사
- 호랑이포수
- 호랑이풀
- 호랑이형님
- 호랑이홍배
- 호랭이술
- 호실랑긋
- 호서낭
- 호석
- 호수
- 호식당할 운명
- 호식장
- 호암사
- 호암산
- 호열자
- 호자
- 호탈긋
- 호피
- 호환
- 호부와 호랑이
- 호자 태워 나른 호랑이



호랑이가 깃든 물건

강경표(국립민속박물관)

우리가 만들고 사용해 온 물건을 보면 그 형태는 용도와 재료 한계를 반영하고 따르지만 꾸밈에는 멋스러움과 마음을 담고 있다. 특별한 용도가 없는 그림이나 조각 등 장식품에도 의미와 상징을 담았고, 기능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에도 문양·장식·색상 등을 꾸미며 당대의 지식과 문화를 담았다. 이렇게 남겨진 물건들을 살펴보면 아주 흔하고 빈번하게 마주치는 동물이 호랑이다.

호랑이가 깃든 물건은 의례, 의식주, 민간의료의 생활용품부터 그림 등의 예술품까지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호랑이가 깃든 일생의례 물건

첫째로 일생의례에 관한 물건이 있다. 인생에 중요한 분기점마다 치르는 의식이기에 우리 민족은 벽사辟邪와 길상吉祥의 힘을 지닌 신령스러운 호랑이에게 기대어 이 시기를 별 탈 없이 무사히 보내길 바랐고, 이는 일생의례에 사용되는 물건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일생의례 중 혼례에 쓰였던 호랑이가 깃든 물건으로는 우선 호피虎皮를 꼽을 수 있다. 호피는 혼구婚具 중 하나로 신행新行 갈 때 신부가 타는 가마에 엮는 호랑이의 모피를 말한다. 신부가 타고 가는 가마의 지붕을 덮어 잡귀를 쫓아내고 액운을 물리치기 위해 만들어졌다.

상례에 쓰였던 물건을 살펴보면 상여喪輿 장식에 있다. 상여는 전통 상례에서 망자를 묘지까지 운반하는 데 쓰인 도구이다. 상여 둘레에는 청사초롱·용·봉황·호랑이 등의 장식과 사람 모양 인형이 배치되었는데, 이는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길을 비취죽과 동시에 죽은 이가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호랑이는 벽사의 기능이 있어 나쁜 것들로부터 죽은 이를 호위하는 역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례와 관련한 물건으로 호석虎石이 있다. 호석은 왕릉이나 큰 무덤 주위에 돌로 만들어 세운 호랑이를 말하며, 석호石虎라고도 불린다. 주로 죽은 자의 안식처를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을 한다.

의식주에 반영되어 있는 호랑이

둘째는 의식주衣食住에 관한 물건이다. 우리 민족은 호랑이가 사악한 기운을 막아 주고 물리쳐 준다는 믿음과 호랑이의 용맹함을 본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생활 곳곳에서도 호랑이와 관련된 물건들을 많이 사용하였다.

‘의’에 쓰였던 호랑이와 관련된 물건으로는 호건虎巾, 호랑이흉배, 호랑이수염, 호랑이발톱노리개 등이 있다. 호건은 머리에 쓰는 부분을 호랑이 모양으로 장식한 남자 아이용 쓰개의 한 종류이다. 조선 후기와 개화기 때부터 반가의 남자아이들이 사용하였는데, 여기에는 이 아이들이 호랑이처럼 지혜롭고 용감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 호랑이흉배는 무관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냈던 표장標章 중 하나이다. 예부터 호랑이를 무사다운 용맹을 지녀 사악한 것을 징계하고 의를 지키는 영특한 동물로 여긴 까닭에 대표 표장 중 하나로 사용되었다. 호랑이수염虎鬚은 무관들이 용복戎服 차림을 할 때 쓰는 갓인 주림朱笠에 장식으로 꽂던 장식품이다. 원래 보리이삭을 꽂았으나 호랑이수염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흰털이나 세죽細竹으로 만들었는데, 너물로 사용될 정도로 귀중한 물품이었다. 호랑이발톱노리개는 호랑이 발톱 형태가 주체로 달린 노리개이다. 호랑이 발톱에 악귀나 잡신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믿어 노리개 주요 모양으로 많이 선택되었다.

‘식’에 쓰인 것에는 호랭이술이 있다. 호랭이술은 강원도 정선 일대에서 밀주密酒를 지칭하던 은어이다. 1909년 일제에 의해 가양주家釀酒 형태로 전승되어 온 술 빚기가 금지되자 정선의 강릉 최씨 집안은 몰래 술을 빚었는데, 호랭이는 당시 밀주단속반을 가리키는 은어였다. 술을 찾기 위해 집에 들어와 옷장까지 다 뒤지던 순사들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웠기 때문이다. 밀주단속반이 찾는 것이 술이었으므로 호랭이술은 이후 ‘호랑이가 찾는 술’이라는 밀주를 지칭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주’에 사용된 호랑이 관련 물건으로는 호자虎子를 예로 들 수 있다. 호자는 호랑이 모양으로 만들어진 남성용 이동식 변기이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때 중국과의 활발한 문물 교류를 통해 유입되어 사용되었다.

민간의료품 속 호랑이

셋째는 의약품과 관련한 물건이다. 호랑이는 예로부터 털에서 배설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귀한 약재로 쓰였다. 특히 호경골虎脛骨(앞다리 정강이뼈)은 약재로서 매우 다양하게 쓰였는데, 호골虎骨은 호랑이 가죽과 값이 비슷할 정도로 귀하게 여겨졌다. 이에 사람들은 호랑이 약재를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였고, 이러한 경향이 이어져 요즘에도 제품에 호랑이 이름이 들어가면 특효약인 듯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현재 ‘호랑이’ 명칭이 들어가 사용되는 약재나 의약품을 예로 들면 호랑이연고와 호랑이풀이 있다. 호랑이연고는 가정마다 상비약으로 하나쯤 갖고 있던 것으로 소염·진통 기능을 하는 연고이다. 두통, 타박상, 요통, 신경통 등 다양한 증상에도 쓰인다. 호랑이의 모든 것이 귀하였던 까닭에 호랑이연고에 호랑이 털조차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그 옛날 약장수는 ‘백두산 호랑이 뼈를 통째로 갈아 넣은’ 이 약을 아픈 데에 바르기만 하면 낫는다는 만병통치약으로 소개하곤 하였다. 현재는 호랑이연고 자체보다 ‘화장품계의 호랑이연고’하는 식으로 특효 제품이란 의미의 보통명사로 사용하고 있다.

호랑이풀은 적설초나 병풀이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중국·인도·동남아 등지가 원산지인데, 인도에서는 상처를 입은 호랑이가 병풀이 많이 난 곳에서 텅 굴어 치료하는 것을 보고 호랑이풀이라고 부르며 오래전부터 약으로 써 왔다. 병풀의 잎과 줄기에 있는 마데카식산이란 성분이 염증을 낮게 하고, 종양과 궤양 등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연고나 치약·화장품 등의 원료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 호랑이연고로 유명한 호표만금유虎標萬金油의 주원료이기도 하다.

예술품 속 호랑이

호랑이가 깃든 물건의 마지막은 예술품에서 찾을 수 있는데, 크게 민화民畵와 악기를 예로 들 수 있다.

민화는 조선시대 정통회화의 조류를 모방하여 생활공간의 장식을 위해 또는 민속적인 관습에 따라 제작된 실용화實用畵를 말한다. 민화는 조선 후기 서민층에서 유행하였기에 이 시대 서민들의 일상생활 양식과 관습 등이 잘 나타나 있다. 호랑이 그림은 민화의 주된 주제 중 하나였다. 호랑이가 벽사진경辟邪進慶과 기복호사祈福豪奢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러한 상징을 생활 속에서 누리고 싶었던 사람들은 기복호사를 상징하는 까치호랑이 그림虎鵲圖과 벽사진경을 상징하는 용호문배도龍虎門排圖(새해 첫날 대문 양쪽에 붙이는 용과 호랑이 그림)를 자신들의 생활공간 속에 걸어두었다.

악기는 음악을 연주하는 데 쓰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호랑이 관련 악기로는 어금기가 대표적이다. 어는 1116년(예종 11) 중국 송나라에서 전래된 후 아악雅樂 연주에 사용되었다. 현재는 조선 역대 왕의 제사 음악으로 사용되는 종묘제례악과 공자孔子의 제사를 지낼 때 연주하는 문묘제례악에 쓰이고 있다. 제례악은 음악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음양오행 사상의 상징성으로 표현되는 총체적인 예술이다. 옆드린 백호白虎의 형태를 띤 어는 양을 상징하는 축楓의 반대편인 서쪽에서 음악의 종지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백호가 서방西方의 음을 수호하는 신이기 때문이다. 어를 치는 동작은 축이 열었던 하늘과 땅을 다시 맞게 하여 음악을 그치게 함으로써 음양이 화합해 완성을 의미하는 상징성을 담고 있다.

과거부터 우리 민족은 혼례나 장례와 같은 중요 의례에서부터 생활과 밀접한 의식주, 의료, 예술 분야에까지 호랑이가 깃든 물건을 두루 사용해 왔다. 물건에 호랑이를 담아 사용하면 그 물건이 나쁜 것들과 재앙을 물리쳐 줄 거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호랑이의 용맹함과 지혜로움을 본받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호랑이가 깃든 물건을 통해 우리는 조상들이 염원하던 바를 살펴볼 수 있다.

참고문헌 분석심리학 관점에서 본 민화에 나타난 호랑이의 원형과 상징(이경숙,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한국민속예술사전—민화(국립민속박물관, 2017), 한국일생의례사전(국립민속박물관, 2014), 한국의식주생활사전—식생활2(국립민속박물관, 2018), 한국의식주생활사전—의생활2(국립민속박물관, 2017), 상어를 장식한 꼭두(이경희, 중앙일보, 2010.5.6.), 제례악에 내포된 음양오행 사상(김지윤, 국제신문, 2019.1.1.), 호랑이연고엔 호랑이 기름이 들어 있을까(박소혜, 아시아엔, 2013.8.27.), 국립중앙박물관(Google Arts & Culture, artsandculture.google.com/partner/national-museum-of-korea), 조선왕조실록사전(sillok.history.go.kr), 한국콘텐츠진흥원(culturecontent.com).



호랑이해 달력 | 20세기 (1937, 1949, 1961, 1973) | 국립민속박물관

까치호랑이

호랑이와 까치를 함께 그린 그림.

역사 까치호랑이를 한자로 호작도虎鵲圖 혹은 작호도鵲虎圖로 번안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 명칭은 기록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조선시대에는 호도虎圖 혹은 맹호도猛虎圖라고 했다.

가장 한국적인 그림으로 알려진 까치호랑이는 그 도상이 원나라 및 명나라 호랑이 그림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명나라의 호랑이 그림인 유호도乳虎圖 또는 자모호도子母虎圖가 임진왜란 전후에 조선에 전해지면서 후대에 까치호랑이라는 한국적인 그림으로 정립된 것이다.

17세기 명나라풍으로 그려진 호랑이 그림을 보면, 배경에 까치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당시 호랑이 그림에서 까치는 여러 배경 중 하나로서 선택 사항일 뿐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일본에서 들여와 울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호도虎圖〉는 까치가 등장한 17세기 호랑이 그림의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호랑이 그림은 까치 없는 소나무를 배경으로 삼았다. 당시 호랑이 그림을 보면 이원찬李元燾처럼 명나라 호랑이 그림의 화풍을 충실하게 재현한 화가가 있었던 반면, 이정李楨(1578~1607)처럼 한국적인 그림으로 탈바꿈을 시도한 화가도 있었다. 명나라 화풍을 따른 그림은 입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그림은 배경이 약화되고 평면화되고 추상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내용 한국화된 호랑이 그림은 김홍도에 와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신하게 된다. 당시 화단을 지배한 사실주의적인 화풍에 영향을 받아 명나라식의 사실적인 화풍을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화풍이 유행하게 된 것이다. 김홍도와 그의 스승인 강세황이 그린 〈송하맹호도松下猛虎圖〉(리움미술관 소장)에서는 까치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18세기 호랑이 그림의 특색을 볼 수 있는 예다. 호랑이의 표현이 매우 극적이고 사실적이다. 꼬리를 곧추세우고 등을 올리고 가만히 얼굴을 돌려 눈에 노란 불을 켜고 앞을 응시하며 여차하면 공격하기 일보 직전의 긴박한 순간을 표현했다. 터럭 하나하나를 세면서 그린 듯 세밀한 묘사라는 점에서는 명나라 호랑이 그림과 별 차이가 없지만, 명나라 그림의 호랑이 터럭 표현은 밍크담요와 같이 부드러운 반면, 김홍도 그림의 호랑이 터럭 표현은 모골毛骨이 송연悚然한 긴장감이 감돈다. 그렇지만 배경은 명나라 회화와 달리 매우 간략화되어 운치 있는 장면을 연출했다.



까치호랑이 | 경기대학교박물관

19세기에는 민화 호랑이 그림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은 배경에 까치가 등장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까치가 단순한 배경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호랑이와 까치의 관계가 적극적으로 설정된다. 일본민예관 소장 <까치호랑이>를 보면, 까치와 호랑이가 아예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맞서고 있다. 호랑이는 전체 화면의 4/5에 해당하는 공간을 차지하고, 까치는 오른쪽 구석에 있는 소나무에 간신히 깃들여 있다. 호랑이는 눈에 노란 불을 켜고 붉은 입을 벌리며 위협을 하고 있다. 하지만 까치는 이에 질세라 부리를 한껏 벌리고 꼬리를 높이 세우고 호랑이와 당당히 맞서고 있다. 둘 사이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만일 호랑이가 덤비면, 까치는 날아가 버리면 그 뿐이다.

또한 호랑이 그림에서 까치의 존재가 점점 부각될 뿐만 아니라 까치와 호랑이의 대립도 점점 격렬해졌다. 경기대학교 박물관 소장 <까치호랑이>에서는 호랑이가 가다가 돌아서서 붉은 입과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까치를 위협하고 있다. 호랑이는 포기하고 돌아섰다가 밀려오는 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뒤를 돌아본 것이다. 그렇다고 겁사리 물러설 까치가 아니다. 여전히 몸을 앞으로 내밀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그림에서 까치는 명나라 호랑이 그림처럼 단순히 배경 역할에 머문 것이 아니라 호랑이와 맞대응하고 있다.

그러다가 결국 호랑이와 까치의 관계는 역전된다. 호랑이는 바보처럼 우스꽝스럽게 표현된 반면, 까치는 오히려 당당하게 묘사된다. 바보호랑이의 등장이다. 갑자기 까치가 그림을 주도하는 양상으로 바뀐 것이다. 그 덕분에 호랑이는 우리와 더욱더 친근한 캐릭터로 바뀌게 되었다. 호랑이의 맹수성을 거세시켜 우리가 접근하기 편한 존재로 만든 것이다.

일본 개인 소장 <까치호랑이>에서는 호랑이가 사팔뜨기로 표현되고, 까치는 더욱 당당해진 모습으로 호랑이에게 덤벼들고 있다. 교토 고려풀관 소장된 <까치호랑이>에서는 까치가 마누라처럼 바가지를 굽자 호랑이는 아예 등을 돌려 버렸다. 호랑이 얼굴의 표현은 피카소의 큐비즘처럼 정면과 측면의 시점이 교묘하게 조합되어 있다. 리움미술관에 소장된 <까치호랑이>에서는 호랑이가 고양이 모습으로 격하되었다. 붉은 입 사이에 날카로운 송곳니를 번득이지만 머리는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 모습이고, 발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백수의 왕으로서 위엄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호랑이와 까치는 늘 긴장관계만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리움미술관 소장 <까치호랑이>에서는 호랑이와 까치의 관계가 유난히 좋아 보인다.

그림 위쪽 중앙에 적혀 있는 “호랑이가 남산에서 부르짖으니 까치들이 모두 모여들었다[虎嘯南山, 群鶴都會].”라는 구절처럼, 화기에 애한 분위기가 화면에 가



까치호랑이 | 리움미술관

득하다. 어미 호랑이는 속눈썹을 예쁘게 치장하고 밝게 웃으며 발톱은 솜방망이처럼 거세되어 있다. 까치들은 긴장을 풀고 호랑이의 부름에 응하고 있다. 밝고 명랑하고 유쾌한 호랑이 그림인 것이다. 이 그림은 도식적인 표현과 장식적인 패턴이 두드러진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과 거세된 발톱에서는 호랑이의 맹수성보다는 인간미가 넘치는 친근감이 풍겨나고, 패턴화된 호랑이의 무늬에서는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일본 세리자와케이스케 미술관에 소장된 〈호랑이 가족〉을 보면, 명나라 유희도에서 연원한 형식이지만 그 표현은 도리어 민화적이다. 어미와 새끼들이 함께 노니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은 언제나 보는 이에게 따뜻한 정감을 안겨준다. 어미 호랑이를 중심으로 한 마리는 등에 타고 다른 두 마리는 땅에서 놀고 있는 호랑이 가족의 평화로운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 그림은 단순히 정감을 나타내는데 그치지 않고 해학적으로 표현되었다. 호랑이의 눈은 술에 취한 듯 뱅글뱅글 돌고 있고, 치아도 매우 부실하여 백수의 왕으로서 면모는 찾아볼 길이 없다. 줄무늬는 일정한 패턴으로 단순화되고 어린이가 그림과 같이 천진난만하게 표현되어서 더욱 친근하게 느껴진다.

20세기 전반 일제강점기 때에는 대형 호랑이 그림이 유행했다. 대표적인 예가 〈수기맹호도睡起猛虎圖〉(개인 소장)이다. 이는 잠에서 깨어난 맹호도란 뜻이다. 이는 일제에 의해 짓밟힌 민족의 자존심을 호랑이를 통해 일으켜 세우려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일제에는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렸다는 경고의 메시지와 더불어 일제 침략에 무력함을 보인 민족의 정기를 일깨우려는 간절함이 이 호랑이 이미지에 서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황해도 무속화에도 까치호랑이가 있다. 소나무 위에는 까치 두 마리가 깃들여 있고, 그 아래에는 호랑이가 배치되어 있다. 영락없이 민화 까치호랑이의 구성이다. 우스꽝스러운 표현도 민화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 그림은 까치호랑이를 그린 것이 아니라 서낭신을 그린 종교화이다. 서낭신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서낭신이 산신신앙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호랑이가 등장하는 것이다. 호랑이는 서낭신을 대표하고, 까치는 신의 메신저이다. 흥미로운 점은 소나무가 해와 달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소나무는 여느 소나무가 아니라 신과 인간을 이어 주는 신목神木이요, 우주목宇宙木이요, 하늘사다리인 것이다. 이 무속화에는 우리 민족이 숭상하는 태양숭배사상이 담겨 있다. 서민의 간절한 소망은 평범한 이미지를 통해 우주의 중심에 맞닿아 있다.

까치호랑이를 구성하는 호랑이와 까치와 소나무는 한국인이 매우 좋아하는 소재이다. 호랑이는 한국인과 애뜻한 관계가 있다. 소나무는 한국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이며, 까치는 복을 가져온다고 하여 한국인이 좋아하는 새이다. 그러한 이유로 까치호랑이는 그동안 한국 민화의 대명사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처럼 호랑이에 까치가 등장하는 그림은 중국 원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에서 표범과 까치가 함께 그려지는 그림은 豹와 豹가 발음이 비슷하고 까치가 새 소식을 상징하기 때문에 豹 豹, 즉 새 소식을 전하는 길상의 그림으로 사랑을 받았다.

그런데 민화 까치호랑이에서는 이러한 상징과 더불어 당시 사회를 풍자하는 이야기가 중첩되어 있다. 그렇기에 호랑이와 까치가 싸우거나 화해하는 인간적인 이야기로 그려지는 것이다. 악귀를 쫓는 벽사의 상징 호랑이가 ‘바보 호랑이’로 전락하고, 새 소식을 전해 주는 까치는 더욱 당당해진다. 그것은 당시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풍자이다. 호랑이는 양반이나 권력을 가진 관리를 상징하고, 까치는 서민을 대표한다. 까치가 호랑이에게 대드는 구성을 통해 서민들은 신분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당시 서민들 사이에는 〈까치호랑이 설화〉가 유행했는데, 그 내용은 까치가 지혜로 힘센 호랑이를 골탕 먹임으로써 신분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억울함과 푸대접을 항변하는 것이다. 급격하게 나빠진 까치와 호랑이의 관계 속에서 서민화가의 사회의식이 날카롭게 번득인다.

왜 호랑이와 까치가 이처럼 대립의 각을 세운 것일까? 그 의문은 19세기의 역사 속에서 풀어볼 수 있다. 19세기에 들어와서 흥경래의 난과 동학혁명과 같은 민란이 빈번해지고 서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결국에는 1894년 갑오개혁 때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오던 신분제도가 무너지기에 이른다. 서민들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는 사회적 변화가 까치호랑이 속에 반영된 것이다.

특징 및 의의

17세기 단순한 배경이었던 까치가 등장하는 호랑이 그림이 19세기 민화에 와서는 ‘까치호랑이’라고 따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대거 유행하게 되었다. 이는 그림 속 호랑이와 까치의 이야기를 동물이 아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로 환원시킨 민화 특유의 스토리텔링 속성에 기인한 바가 크다. 대립관계 혹은 우호관계로 설정하면서 당시 사회를 풍자하는 도구로 삼았던 것이다. 동물의 왕인 호랑이를 거세시켜 바보호랑이로 만든 것은 바로 그러한 사회적 풍자를 보여 주는 상징적인 예이다. 해학을 통해 강자의 권위를 단숨에 끌어내림으로써 평등을 지향하는 서민의 세계관을 표출하고 있다.

미술사학자 존 코벨(John Covell, 1910~1996)은 민화 호랑이의 양면성에 대해 “무시무시한 맹수에 대한 존경심을 뒤집어 우스운 호랑이로 표현한 능력이야말로 한국미술사의 한 정점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극찬했다. 한국인에게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고 잡아가는 두려운 존재이자 산신같은 신적인 존재이면서 반대로 쾌활하고 명칭하기도 한 인간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호랑이에 대한 존재가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그것에 대한 반향도 클 수밖에 없다. 민화작가는 무서운 존재에 대한 반감을 직접 표출하기보다는 해학과 풍자를 통해서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지혜를 발휘했다.

참고문헌 개인소장의 출산호작도-까치호랑이 그림의 원류(홍선표, 미술사논단9, 한국미술연구소, 1999), 민화 용호도의 도상적 원인과 변모양상(정병모, 강좌미술사37, 한국미술사연구소, 2011), 조선 중·후기 호도의 유형과 도상-기법적 중심으로(윤진영, 장서각28,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한국 호랑이(김호근 외, 열화당, 1991), Chinese Tiger Painting and its Symbolic Meanings, Part I: Tiger Painting and the Sung Dynasty(Houmei Sung, National Palace Museum Bulletin, v.33 no4, 1998), Tiger with Cubs: A Rediscovered Ming Court Painting(Houmei Sung, Artibus Asiae, v.64 no2, 2004).

필자 정병모(鄭炳模)

상여장식

喪輿裝飾

상여를 치장하기 위한 각종 조형물 혹은 상여에 그려진 그림.

내용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상여는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없으며, 『고려사高麗史』에 ‘이거輜車’ 라는, 바퀴가 달린 형태로 추정되는 상여가 등장한다. 따라서 상여장식에 대해서는 현재 남아 있는, 조선시대의 상여 관련 기록을 통해서만 추정해볼 수 있다.

상여구조는 대체로 세 부분으로 나뉜다. 상부는 여개輿蓋, 중간부는 운각雲閣이라고도 불리는 여동輿胴(몸체), 하부는 뿔채와 방틀이다. 상여의 가장 윗부분에는 부운浮雲과 같은 양장仰帳이 있고, 양택陽宅인 집을 상징하는 중간부에는 뿔마루, 난간 등이 있다.

이 세 부분에 맞추어 각 부분의 상여장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여의 가장 윗부분에서 상여를 덮는 천막인 양장은 떠다니는 구름浮雲과 차양 등을 상징한다. 양장은 백색이나 청색 또는 홍색의 천으로 주름을 잡고, 사면四面에 유소流蘇를 달거나 청사초롱을 달기도 한다. 이는 저승으로 가는 길에 빛을 비추함과 동시에 화려함을 나타내기 위한 장식이다.

중간부인 상여의 몸체는 그림이나 문양을 그려 넣거나, 뿔마루의 난간과 용마루에 동물상, 인물상과 같은 나무 장식과 꽃, 유소流蘇(기旗나 승교乘轎 따위에 달던 술)와 초롱 등으로 직접 꾸며 놓았다.

먼저 동물상을 살펴보면, 많이 등장하는 것은 용이다. 상여의 앞·뒷머리를 장식하는 용수권관龍首板, 유소를 문 정丁자 모양의 용, 마주보는 청룡·황룡 등 다양한 형태로 상여를 꾸며준다. 용은 서수瑞獸로서, 죽은 이가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용이 인도와 보호를 하는 안내자 역할을 해주기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 특



방상시 모양의 장식



꼭두

산청 전주 최씨 고택댁 상여 | 국립민속박물관



용수판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히 용수판의 경우, 황룡이 앞에 있으면 죽은 이가 남자이고 청룡이 앞에 있으면 죽은 이가 여자임을 나타낸다고 한다.

붕황도 유소를 물고 있는 형상이거나, 상여 부속의 하나인 개구리(일종의 못과 같은 역할)의 머리 장식으로, 혹은 측면과 전면에 그림으로 그려져 장식되고 있다. 붕황 또한 용과 같은 서수로, 죽은 이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해주기 바라는 염원을 담아 장식하였다. 이외에 저승새라 하여 여러 마리의 새들을 배치한 예도 보이는데, 이 또한 망자가 저승길을 잘 인도받기를 바라며 장식하였다.

인물상은 상여장식 중 대다수를 차지하며, 특별히 ‘꼭두’라고 불린다. 꼭두는 인형人形을 칭하는 우리 옛말이다. 상여의 꼭두는 남자와 여자, 동자와 선인 仙人, 광대 등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다. 대개 여인상은 꽃이나 꽃을 담은 통을 받고 있으며, 동자와 동녀의 경우도 불교조각의 동자·동녀처럼 시립侍立하고 있는 형상이다. 이들은 죽은 이를 저승으로 모시는 공양供養의 형태가 많다. 남자상의 경우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서 있거나 청노새, 청마 등을 타고 있는데, 이는 죽은 이를 의미한다. 특별히 호랑이를 타고 있는 남자상은 대개 신선이나 염라대왕 저승사자, 동방삭東方朔 등 선인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는 나쁜 것들과 재앙을 물리친다는 호랑이의 벽사적인 의미 때문이다. 그리고 피리나 소고를 연주하거나 재주를 부리는 광대형의 인물상도 있다. 이외에도 ‘희광이’ 혹은 ‘망나니’라 하여 잡귀를 쫓는 역할을 하는 상을 상여 앞뒤에 만들어 세우기도 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인물상들은 저승 가는 길을 화려한 행차로 장식하며 죽은 이를 호위하고 천도薦度하여 극락세계로 이끌기 위한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사방四方에 유소를 매달아 장식하고 간혹 그 끝에 풍경을 달기도

하는데, 이는 상여꾼이 소리가 나지 않게 평행으로 잘 운구하라는 뜻과 산중의 맹수를 쫓기 위한 용도가 담긴 장식이다. 그리고 상여에 연꽃을 장식하여 불교의 연화화생蓮花化生을 소망하기도 하였다. 상여의 하단부분은 상여를 직접 뿔 수 있는 ‘뿔채’가 있어서 특별한 장식을 하지 않는다.

현재 남아 있는 조선시대의 상여들은 대개 가마 형태를 띠고 있고 장식도 간략한 반면에,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 중인 ‘산청 전주최씨 고령댁 상여’는 4층 누각형태로 그 모습과 장식이 여타의 상여와 매우 다르다. 이러한 높은 누각형태와 다양한 꼭두 장식은 불교, 도교, 민간신앙이 복합되어 있는 저승관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예라 하겠다.

특징 및 의의

상여는 죽은 이가 좋은 곳으로 인도받기를 바라는 후손들의 바람을 담아 제작하지만, 지방과 사회계층, 또 제작자의 취향에 따라 그 외관의 모양과 장식물이 다 다르다. 따라서 망자의 생전 신분과 형편을 알 수 있는 좋은 예가 된다. 현대에는 종교별 특징을 반영하여 기독교의 십자 표시나 성경 글귀, 불교의卍자 표시 등을 포함하여 꾸민 예도 찾아볼 수 있다. 시대가 바뀌어 상여의 모습과 장식도 간소화·현대화하였지만, 망자에 대한 후손들의 애도하는 마음과 좋은 곳으로 인도받기를 바라는 소망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상여고(정중수, 생활문화연구1, 국립민속박물관, 2000), 중요민속자료 제31호 남은들 상여 실측조사보고서(예산군, 2003), 중요민속자료 제120호 청풍부원군 김우명 상여 실측조사보고서(춘천시, 2001), 중요민속자료 제230호 산청 전주최씨 고령댁 상여 실측조사보고서(국립민속박물관, 1998), 한국상여의 변천사에 관한 연구(김무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한국의 나무꼭두(김옥랑·이두현, 열화당, 1998).

필자 변혜민(邊慧敏)

어

敵

고려시대 이후 아악 연주에 사용된 호랑이 모양의 타악기.

개관

1116년(예종 11)에 중국 송나라로부터 대성아악과 함께 들어온 중국 고대 아악기로 ‘갈桴’이라고도 한다. 아악 및 아악기의 유입 연대를 949~975년(정종 4~광종 26) 이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고려시대 이후 아악을 궁중의 제례와 연례에 사용하였으므로 여기에 어와 같은 아악기가 사용되었다. 현재는 종묘제례악과 문묘제례악에 아악기 어가 사용된다.



어 | 전체길이110 너비33 높이42 | 국립국악원

내용 아악기는 제작 재료에 따라 팔음(八音, 金石絲竹匏土革木)이라 하여 여덟 가지로 분류되며, 이 중 어는 목부에 해당한다. 호랑이가 옆드린 모양의 몸체와 그 받침 그리고 연주에 사용하는 채(鼗),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호랑이 등에는 스물일곱 개의 톱니(鬚)가 있는데, 채로 이 톱니를 긁거나 호랑이 머리를 내리쳐 소리를 낸다. 어가 당상(堂上)에 있을 때 '갈'이라 부르는데, 채로 톱니를 긁을 때 나는 소리가 '갈'의 중국어 발음과 유사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어를 연주하는 채를 '진(簫)이라 한 것은 어가 그침과 절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악기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립국악원 등에 전하는 어의 몸체는 백색 계열이다. 방위상 서쪽과 관계가 있어 백색을 채택한 것으로 생각되며, 본래는 황색 계열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징 및 의의 어는 서방(西方)의 음(陰)을 상징한다. 아악기 축(楸)이 음악의 시작이나 방위상 동쪽 등을 상징하는 것에 반해 어는 음악의 그침이나 서쪽(가을) 등을 상징한다. 축이 채를 세로로 움직여 하늘과 땅을 열고 어가 채를 가로로 움직여 하늘과 땅을 맞닿게 한다. 일견 어가 축의 대가 되는 악기로 보이지만, 이 둘은 사실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짝이다.

참고문헌 樂學軌範, 增補文獻備考, 아악고(한홍섭, 민족문화연구4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한국악기(송혜진, 열화당, 2001).
필자 위철(魏哲)

용호문배도

龍虎門排圖

정월 초하루에 한 해 동안 액운을 막고 복을 불러들이기를 소망하면서 대문의 문짝 양쪽에 붙인 용과 호랑이 그림.

개관 통일신라 이후 세시풍속으로 정월 초하루에 대문에 그림을 붙이는 문배도(門排圖)의 풍속이 전했다. 조선시대에는 문배도로 처용, 종규, 신다, 울루 등과 함께 용호가 활용되었다. 이 가운데 처용문배도와 용호문배도는 한국적인 문배도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용은 복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고, 호랑이는 나쁜 재앙을 물리치는 기능을 한다. 이들 문배도를 통해서 가정을 평안하게 지키고 행복하게 가꾸기를 소망한 것이다.

내용 집안에 들어오는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이기 위해 대문에 붙이는 그림이나 글씨를 문배라고 부른다. 문배는 세시풍속인 세화의 일종이다. 세화는 매년 정월 초하루에 새해를 축복하기 위해 사용된 그림을 가리킨다. 문배를 비롯하여 창에 붙이는 창첩(窓帖), 연하장처럼 서로 주고받는 그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문배는 통일신라시대 처용상을 붙이는 풍속에서 시작했다. 조선시대에는 신도(神荼)와 울루(鬱壘), 종규(鍾馗) 등 중국의 문신(門神)과 함께 용호도가 사용되었다. 이 가운데 처용문배도와 용호문배도가 한국적인 문배도라 할 수 있다. 대문 문짝의 양쪽에 호랑이그림을 붙이고, 향우에 용그림을 붙였다. 그림 대신에 마름모꼴 종이에 虎(호자)와 龍(룡자)를 붙이기도 했다. 호랑이 그림을 붙인 이유는 호축삼재(逐三災), 즉 호랑이가 삼재를 쫓는다는 의미로 액막이 역할을 한 것이다. 용그림을 붙인 이유는 용수오복(龍輸五福), 즉 용은 만복을 가져다준다는 의미로 길상적인 상징으로 사용했다. 대문 한쪽에서는 사람들에게 나쁜 잡귀를 쫓아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들에게 이로운 복을 불러들임으로써, 가정이란 공간을 행복하고 화목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이다.

호랑이는 전통적으로 벽사의 상징으로 활용되었다. 중국 후한(後漢) 말의 학자 응소가 편찬한 저서인 『풍속통의(風俗通義)』에 다음같은 설화가 전한다. 집의 대문 앞에 복숭아나무 두 그루를 세워놓고 신도와 울루라는 신이 집안을 들어오는 귀신들을 모든 검문했다. 사람들에게 이로운 귀신은 통과시키지만, 해로운 귀신은 갈대 끈으로 묶어서 옆에 있는 호랑이 울에 던져서 잡아먹히게 했다. 이러한 철통방어를 통해서 가정이란 공간을 보호했다. 이 설화에 등장하는 복숭아나무, 신다와 울루, 갈대 끈, 호랑이는 귀신을 잡는 액막이의 상징으로 여겼다.



용도 | 조선 | 국립진주박물관

호도 | 조선 | 국립진주박물관

용은 여러 가지 상징을 지니는 상상의 동물이다. 가뭄에 비가 내리기를 비는 기우제 때 용그림 혹은 흙으로 용의 형상을 빚어서 제사를 지냈다. 수신(水神)인 용의 기능을 활용한 풍속이다. 용은 통치자인 왕이나 왕족을 상징했다. 『광야(廣雅)』에 “용은 임금이다(龍君也).”라고 했다. 용상, 용안 등 왕과 관련된 모든 물건이나 신체에 용이란 글자가 들어가고 궁궐에서도 건축, 가구, 도자기, 복식 등에 용 문양을 널리 활용했다.

용과 호랑이를 함께 그리는 용호도의 형식은 조선 전기의 그림에 등장한다. 신잠(申潛)(1491~1554)의 작품으로 전하는 〈용호도〉, 이정(李楨)(1578~1607)이 그린 〈용호도〉 등 16세기의 그림에서 확인된다. 이 시기에 용호도가 문배로 사용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비교적 사실적 화풍에 충실하거나 문인화풍으로 그 형세를 살려 나타내기도 했다. 19세기에는 용호도가 문배라는 세시풍속과 결합되면서 용호문배도로 성행했다. 이 시기의 용호문배도는 용과 호랑이를 사실적이거나 회화적으로 그리는 경향에서 벗어나 해학적으로 우스꽝스럽게 표현되고

스토리텔링이 가미되면서 중의적인 특색을 갖게 되었다. 용이나 호랑이가 가진 길상과 벽사의 기능에 당시 사회를 풍자하는 이야기로 각색했다. 용과 호랑이를 어떻게 그려야 하는 규범의 틀에서 벗어나고 해학적으로 표현되면서 기상천외한 모습까지 그려질 정도로 다양화되었다. 민간의 세시풍속인 용호문배도는 사찰에도 영향을 주어 사찰 벽의 측면에 한쪽에는 용그림, 다른 한쪽에는 호랑이그림을 그렸다.

특징 및 의의

용호문배도는 전통적인 용호도가 문배의 풍속으로 채택되면서 정립된 한국적 문배도이다. 이는 조선 말기에 유행한 민화가 세시풍속인 문배에 반영된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풍속은 다시 사찰 벽화에도 영향을 미쳐 사찰벽화의 제재(題材)로 즐겨 활용될 정도로 널리 활용되었다.

참고문헌 민화와 민간연화(정병모, 강좌미술사7, 한국미술사연구소, 1995), 민화의 원류 조선시대 세화(김용권, 학연사, 2008), 조선 중기의 세화 풍습(김윤정, 생활문화연구5, 국립민속박물관, 2002).

필자 정병모(鄭炳模)

호건

虎巾

머리에 쓰는 남자 아이용 건巾으로 호랑이 모습으로 장식한 복건.

내용

호건(虎巾)은 조선 말기와 개화기 때부터 반가(班家)의 남자 아이들이 썼던 쓰개의 한 종류로 복건과 비슷한 형태이나 호랑이 얼굴의 모양이 나도록 장식한 특징이 있다. 설날, 추석과 같은 명절이나 돌 등에 남자 아이에게 두루마기와 전복 또는 사구삼을 입히고 호건을 씌웠는데, 보통 5~6세 정도까지 쓴다.

남자 아이에게 호건을 씌우는 것에는 호랑이의 용맹함과 지혜로움을 본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조선시대는 호랑이가 많아 호랑이와 관련된 이야기나 풍습들이 많았는데, 이를 살펴보면 호랑이는 많은 상징적 의미를 담는다. 경외와 공포의 이미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호랑이는 십이지(十二支) 중에서 세 번째인 인(寅)에 해당하고 정월을 상징하는데, 설날에 벽이나 문에 호랑이 그림을 붙여 벽사(辟邪)를 기원하기도 하였다. 구한말 외국인의 기록을 보면, 당시 조선 사람들은 호랑이 꿈을 길몽으로 여겼다. 호랑이 꿈을 꾸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성장하여 무관으로 출세한다거나, ‘虎’라는 글자가 ‘好’자로 변해 만사에 좋은 일이 많을 거라고 믿었다.

호랑이가 사악한 기운을 막아 준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활 곳곳에 호



호건 | 지름19 길이50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호건 쓴 아이들 | 일제강점기

랑이와 관련된 물건들을 만들어 사용하기도했다. 부적에 호랑이 그림을 그려 넣거나, 여성들은 호랑이 발톱으로 만든 노리개를 만들어 패용했다. 호박은 호랑이의 혼백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여 단추나 장신구 등 각종 복식의 소품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 그 밖에 선비의 소품인 필통·연적·벼루뿐 아니라 밥그릇과 빨랫방망이에도 호랑이 문양을 그려 넣었다. 특히 아이들은 각종 질병과 위협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아이들의 수호부적으로 호랑이 발톱노리개를 채우거나 조끼 같은 어린이의 의복이나 굴레, 호건 등의 소품에도 호랑이 문양을 수놓아 무병장수를 기원하기도 하였다.

호건의 겹감은 주로 검정색 사緞나 주緞로 하고 안쪽에 남색이나 홍색의 안감을 댈다. 조선 말기 유물 중에는 감청색의 겹감 안에 소재의 안감을 넣어 만든 것도 있다. 호건의 이마 부분에는 흰색과 붉은 계열의 실로 호랑이의 눈썹·눈·수염·이빨을 수놓고 코 부분에는 흰색 자수실로 술장식을 달아 준다. 정수리 부분에는 두 귀를 만들어 다는데 귀의 안감 색상은 좌우 양쪽을 홍색으로 하기도 하고, 홍색과 황색으로 한쪽씩 만들어 달기도 한다. 만드는 사람의 솜씨에 따라 호랑이의 표정이 개성 있게 표현되며, 볼 부분을 따로 만들고 끈을 달아 복건과 같이 머리 뒤편에서 묶어준다. 호건의 가장자리와 끈에는 인·仁·의·義·예·禮·지·智·효·孝·

제·弟·충·忠·신·信 등의 덕담이나 수명장수壽命長壽를 기원하는 길상어문吉祥語文을 금박하기도 했다.

특징 및 의의

호건은 복건과 유사한 형태의 쓰개 중 하나로 머리에 씌워지는 부분을 호랑이 모양으로 장식하였는데, 돌쟁이부터 5~6세까지 남아들에게 많이 씌웠다. 호랑이처럼 지혜롭고 용감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수놓거나 길상어문을 금박으로 장식하였는데, 집안에 따라 호랑이의 표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랐다. 조선 후기 이후에도 일부 반가의 남아들이 착용하였고, 오늘날에는 남자 아이의 돌복에 함께 착용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1920~1950년대의 아동복식에 관한 연구(김정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근대 이전 호랑이 상징성 고찰(박은정, 온지논총53, 온지학회, 2016), 조선상식(최남선,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조선상식문답(최남선, 동명사, 1946), 한국복식문화사전(김용숙, 미술문화, 1998),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한국전통어린이복식(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단국대학교출판부, 2000).

필자 김정아(金廷兒)

호골
虎骨

한약과 화장품 원료로 활용되어 온 호랑이의 뼈.

개요

고양잇과에 속하는 호랑이는 남중국호랑이, 수마트라호랑이, 벵골호랑이, 말레이호랑이, 인도차이나호랑이, 카스피호랑이, 시베리아호랑이 등으로 나뉜다. 호랑이는 세계 여러 지역에 분포하였으나 지금은 거의 멸종되어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일부에서만 서식한다. 한반도에도 다수 서식하였지만, 17세기 이후 차츰 줄어들기 시작하여 이제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였다. 호랑이의 크기는 아종에 따라 다양한데, 시베리아호랑이는 수컷의 경우 최대 360kg에 이른다. 대개 황갈색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가 있으며, 드물게 흰색을 띤 백호가 있다. 앞다리는 아주 단단한 근육질이며, 먹이를 잡아 끌어당길 정도로 힘이 세다.

내용

조선시대에는 호피공납제虎皮貢納制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할 정도로 호랑이 가죽의 쓰임새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뼈를 비롯한 신체의 대부분 부위가 한약이나 화장품 재료로도 인기가 있었다. 옛날 약장수는 호랑이 뼈를 갈아서 만든 호랑이연고를 아픈 데다 바르기만 하면 낫는다고, 만병통치약으로 소개하기도 하였다. 호랑이 뼈는 한때 우황청심원과 신경통약이나 화장품의 원료로 유통되었



호골삼용주 | 지름9 높이25 | 196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지만,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전면 금지되었다.

한의학에서 동물 약재는 날짐승과 길짐승이 두루 쓰인다. 날짐승은 오리와 거위·닭·참새를 비롯하여 13종이며, 길짐승은 집에서 기르는 축류 9종과 야생의 동물 11종 등 20여 종이다. 야생의 동물 약재로는 호골을 비롯하여 서각犀角, 웅담熊膽, 영양각羚羊角, 녹용鹿茸, 사슴뿔을 곤 녹각교鹿角膠, 녹각을 고아 말려 가루로 만든 녹각상鹿角霜, 사향麝香, 토끼 고기, 해구신臘納臍, 오소리 고기 등이 있다.

호골의 한의학적 성질과 효능으로 맛은 쓰고 진통·소염 효과가 있으며 뼈를 튼튼히 하므로 골절통이나 간질, 하체무력증 등의 치료에 사용해 왔다. 『손익본초損益本草』에 의하면 맛은 시고 다리와 무릎의 불수不隨를 다스리며,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통

증을 멈추고, 풍병을 없앤다. 최적의 약효를 내기 위해 약재를 찌고 볶는 등의 다양한 법제法濟를 행하는데, 호골은 소와 양의 젖이나 식초 혹은 술에 담갔다가 불로 구워 약으로 사용한다. 호골은 호골교환虎骨膠丸과 호잠환虎潛丸 처방으로 수족의 관절염이나 저림, 경련 질환의 치료약으로 사용된다.

호골교환으로는 무릎 관절의 염증이 만성화되어 비대해진 학슬풍鶴膝風을 치료한다. 기름을 뺀 호골 1,200g에 뽕나무 가지와 금색의 보슬보슬한 털을 가진 갈비고사리뿌리[金毛狗脊] 그리고 꼭지를 제거한 백국화白菊花 각각 375g, 진교秦艽 75g을 넣고 달여서 찌꺼기를 버리고 다시 조청이 될 때까지 계속 끓인 후 약재 가루에 묻혀 환으로 만들어 복용한다. 조청 형태의 호골고虎骨膏는 향부자香附子 56.15g, 감초甘草 16.75g, 대추 49개를 섞어서 뽕은 가루 약재에 입혀서 환으로 만들어진다. 호골환은 따뜻한 물로 3알씩 하루 2회 복용한다.

호잠환은 수족이 저리거나 떨리는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한다. 구관龜板(거북 등딱지) 150g, 숙지황熟地黃 2.25g, 우슬牛膝·백작약白芍藥·당귀當歸·호경골虎脛骨 각각 75g, 황백黃柏·지모知母 각각 18.75g, 진피陳皮·건강乾薑 각각 7.5g 등을 한 데 넣고 뽕아 가루 낸 후 호환丸으로 만들어 7.5g씩 담임수를 끓인 물로 복용한다. 호경골은 호랑이의 무릎과 발목을 잇는 정강이뼈tibia, shinbone로, 척추동물의 무릎 아래의 다리를 구성하는 두 뼈 중 더 크고 강한 쪽이다. 정강이뼈를 일컫는 프랑스 단어 '티비아tibia'는 고대 그리스 때의 악기 아울로스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며, 정강이뼈는 몸에서 가장 무거운 체중을 받치고 있는 뼈이다.

특징 및 의의

호랑이는 한국문화에서 위험한 맹수로 무서움의 상징이지만 인간의 말을 알아듣는 영물이나 의리를 아는 친숙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단군신화>나 <호랑이와 꽃감> 등 한국의 옛이야기에도 자주 등장하며, 조선시대 민화와 같은 회화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호랑이 뼈다귀>라는 조선의 호랑이 이야기는 숲속의 절대자 이미지를 생명을 살리는 호골의 초자연적 능력으로까지 승화시킨다. 이야기 속의 어느 젊은이는 신비의 호랑이 뼈를 가지고 자기 나라와 이웃 나라의 공주를 살려냄으로써 이들과 혼인까지 하는 큰 영예를 누렸다.

참고문헌 東醫寶鑑, 辨證論治方藥合編, 損益本草, 조선의 호랑이 이야기(이가원, 학민사, 1993), 호랑이 뼈와 코뿔소 뿔(박공식, 환경관리인93,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1994).
필자 박경용(朴敬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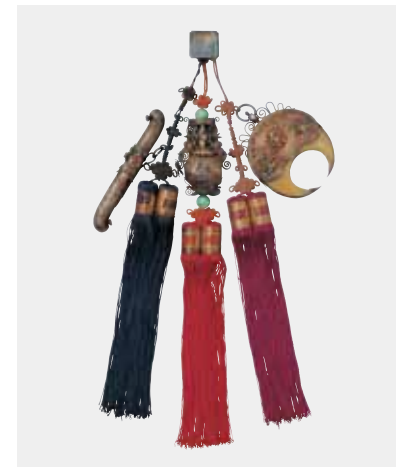
호랑이발톱노리개

호랑이발톱 또는 호랑이발톱 모양을 주체로 하여 만든 노리개.

내용

호랑이발톱노리개는 호랑이발톱노리개, 호톱노리개라고도 한다. 호랑이발톱노리개를 누가 언제부터 어떻게 패용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호랑이에게 벽사辟邪와 제승制勝의 힘이 있다고 믿어서 호신용으로 만들어 차고 다녔다고 한다. 노리개의 주체로는 실제 호랑이의 발톱이나 상아象牙 또는 각角(쇠뿔)으로 호랑이발톱 모양을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상부는 백동이나 은으로 만든 귀면문鬼面紋·호점문胡蝶紋(나비 무늬)·화문花紋 등을 투조하여 그 위에 과란을 올리고 산호 구슬 등을 물려서 꾸민 후 매듭 장식을 달았다. 현전하는 유물을 보면 성인뿐만 아니라 호랑이발톱과 방울을 함께 달아 어린이를 위하여 만든 노리개도 있다.

호랑이발톱은 호랑이 사냥이 가능하였던 시기에는 직접 호랑이발톱으로 노리개를 만들었다고 추측되나, 호랑이 사냥 금지 이후에는 발톱과 유사한 상아 또는 각을 이용하여 호랑이발톱 모양으로 제작하였을 것이다. 현전하는 호랑이발톱노리개는 단작노리개가 대부분이나 드물게 삼작



호랑이발톱노리개 | 조선 후기 |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호랑이발톱노리개 | 길이6 | 조선 말기 | 국립민속박물관 호랑이발톱노리개 | 길이15 | 20세기 초 | 국립민속박물관

노리개에 포함된 경우 또는 호랑이발톱 모양 주체만 남아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원래 주체만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노리개 형태로 만들었는데 매듭 장식들이 사라지고 주체만 남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노리개 형태는 날카로운 호랑이발톱이 서로 마주보아 원형을 이루도록 한 후 상부에는 귀면문·호접문·화문 등으로 장식하고, 호랑이발톱 전체에는 은이나 백동으로 테두리를 둘러서 감쌌다. 상부 장식에는 은과란을 입히고 붉은색 산호 등으로 장식하는 경우도 있다. 패용 방법은 주머니에 달거나, 노리개로 만들어서 차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호랑이는 용맹하고 사나운 맹수로 강한 힘과 위용을 지닌다. 그리하여 악귀와 잡신을 쫓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져 관복에 호랑이 형상을 수놓은 흉배를 달고, 혼례처럼 중요한 의례에 호피로 가마를 덮어 벽사의 상징물로 사용하였다. 조선시대 초상화에서는 의자 깔개로 등장하기도 한다. 호랑이발톱노리개는 질병과 액운을 막아주고 악귀를 물리쳐서 관직 등용이나 출세처럼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었으며, 먼 길을 떠날 때 짐승의 공격을 막는 효험을 바라며 부적처럼 지녔다고 한다. 노리개에 장식한 호접문은 즐거움과 남녀 화합을 상징하고 나비가 덩굴 식물과 함께 그려지는 경우는 자손창성과 장생을 기원한다. 귀면문은 벽사의 의미가 강하여 단순 장식품을 떠나 부적으로도 사용하였다고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참고문헌 우리 옷과 장신구(이경자·홍나영·장숙환, 열화당, 2003), 조선 여인들의 장신구(최옥자, 민속원, 2016), 치례의 멋 쓰임의 아름다움(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2005).
필자 최은수(崔銀水)

호랑이연고

싱가포르 기업 후바오(胡豹)에서 식물성 천연물질로 만든 피부 소염제.

역사 1870년대 중국의 청조 제국 시기 궁중의 의사였던 후즈친(胡子欽)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덥고 습기가 많은 열대 기후 탓에 모기와 해충 등 벌레에 물리는 일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호랑이연고(호표만금유虎標萬金油)를 만들었다. 그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미얀마 양곤으로 가서 약국 '영안당(永安堂)'을 열어 '만금유'라는 이름으로 약을 팔았다. 만금유는 '모든 것을 치료하는 기름'이라는 뜻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선전되었다. 1909년 후즈친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두 아들인 후원우(胡文虎)와 후원바오(胡文豹)가 영안당을 물려받아 이를 상업화하였다. 두 형제는 자신의 이름자 한 자씩을 따서 '호표행(虎豹行)'이라는 제약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미얀마에 이어 싱가포르와 중국 등 동남아시아 여러 곳에도 공장을 세우고 이를 대량 생산하였다. 호랑이연고의 호랑이 명칭은 계승자 후원우의 이름자에서 유래한다. '호랑이표 만금유'라고 해서 '호랑이연고'라고 부른다.

내용 주요 성분은 멘톨·박하유·정향유·카유평유(Cajuput oil) 등의 식물성 천연물질로, 박하 성분이 주를 이룬다. 특유의 청량감은 박하 성분 때문인데, 모기나 벌레 물린 데 발라주면 가려움증을 완화해 주면서 벌레를 쫓는 효과도 있다. 정향유도 해충 기피제 역할을 한다. 카유평유는 심신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관절통과 근육통, 어깨 결림 등 통증을 일시적으로 개선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청량유(淸涼油)'라고도 불렸으며, 머리가 아프거나 한여름 더위로 기진맥진해질 때 관자놀이나 맥이 뛰는 곳에 발라주면 기운을 차리는 데 도움이 된다.



호랑이연고 | 국립민속박물관

호랑이연고 명칭과 관련해서는 호랑이뼈의 가루나 기름이 약 성분으로 활용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과거 약장수들이 상업적 선전 목적으로 지어낸 것이라고 한다. 또한 상처를 입은 호랑이가 연고의 원료 성분이 되는 풀에 몸

을 비빈다는 이야기도 명칭 유래 근거로 회자되고 있지만 속설에 가깝다. 다만 카유평유는 고대 인도에서 전통 민간 치료제로 널리 사용해 왔다고 전해진다.

특징 및 의의

진통·소염 효과를 비롯한 다방면에 효능이 탁월한 데다 가격이 저렴하여 가정마다 상비약으로 구비할 정도였다. 한때 중화권으로 해외여행을 가면 선물로 꼭 챙기는 물건이 되기도 하였다. 상품은 붉은색과 하얀색 두 종류가 있으며, 육각형 포장 디자인이 고전적인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포장 용기에는 호랑이가 양발을 길게 뻗치고 달려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세간의 인기를 반영하듯 2013년에는 <호랑이연고>라는 제목의 시도 발표되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라는 속담을 모티브로 호랑이연고의 서민 친화성과 호랑이의 위력에 의지하여 나이 든 할머니의 고질병인 허리 통증이 쾌유되기를 기원한다.

참고문헌 호랑이 연고(박성준, 서정시학23-1, 계간 서정시학, 2013), 청말 궁중 의사가 개발한 가정상비약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 상처 치료(서유진, 친디아플러스97, 포스코경영연구원, 2014), 호랑이연고엔 호랑이 기름이 들어 있을까(박소혜, 아시아엔, 2013.8.27.), 나라별 국민 연고 효능·사용법 알고 있나요(이시연, 조선일보, 2017.9.18.).
필자 박경웅(朴敬庸)

호랑이풀

잎과 잎자루를 약용과 미용, 식품의 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미나릿과의 다년생 덩굴성 초본식물.

내용

병을 고치는 풀이라고 해서 ‘병풀(病草)’이라고도 하며, 중국 고대 의서인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는 ‘적설초積雪草’라고 나온다. 전 세계에 20여 종이 있으며, 학명은 *Centella asiatica*로 남아프리카를 비롯하여 인도·중국·일본·호주 등지에 분포한다. 우리나라에는 제주도과 남해안 일대의 따뜻한 섬 지역에서 일부 자생한다. 미나릿과의 식물로 근경이 땅 위로 뻗어 나가는 포복성장을 한다. 다 자라면 잎자루는 25~35cm, 잎의 지름은 2~5cm 크기이며 7~8월이면 분홍빛의 꽃이 핀다. 물기가 있는 습한 곳이면서 배수가 잘되고 통풍이 양호한 곳에서 잘 자란다.

한의학에서는 몸의 열과 습濕을 다스리고, 독을 해소하며 종기를 낮게 한다. 기타 약 효능으로는 소염, 진정작용, 항균, 진통, 항산화, 위 점막 보호 등이 있다. 오래전부터 상처 치료와 만성 궤양 치료에 사용해 왔으며, 제약업계에서는 유효성분인 마데카소사이드 명칭을 딴 마데카솔 등의 상처 치료제를 개발하여 시판해 왔다. 최근에는 질병 치료 외에 민감한 피부나 아토피와 여드름 피부에



병풀 | 농촌진흥청

사용하는 화장품·비누·샴푸 등의 미용 상품과 기능성 기저귀나 물티슈 등의 유아용품을 비롯하여 ‘병풀차’로 명명되는 티백·분말·진액 등의 식품 원료로 확대되고 있다. 나아가 먹고 피부에 발라서 치료하는 단계를 넘어 천연염색 방식으로 입어서 치료 효과까지 느낄 수 있는 힐링 상품으로까지 개발되고 있다. 손톱 손상 보호, 망막색소상피 손상 보호, 항염 및 보습, 항산화, 미백, 피부 흡수 증진, 간 조직 보호, 두피 흉만 개선, 피부 진정, 면역 활성화 촉진, 자외선 차단 증진 등에 대한 최근의 여러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응용적 실천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지역사례

호랑이풀은 경상남도 합천과 충청북도 충주 지역의 두 개 농장에서 10여 년 전부터 비닐하우스 수경 농법으로 다량 재배되고 있다. 경남 합천에서의 재배는 농장주가 제주도에서 직접 채취해 온 근경을 노지재배 방식으로 시작하였다. 열대성 작물의 특성상 기후 조건이 맞지 않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하우스 방식으로 재배에 성공하였다. 연간 3t가량을 생산하여 건초와 생초 형태로 화장품이나 식품 회사에 판매한다. 충북 충주의 농장은 위 사례와 비슷한 시기에 재배를 시작하여 썸, 샐러드용 생초, 나물용 건초, 장아찌, 건초 파우더, 진액, 차, 비누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충주시농업기술센터의 지원으로 혼밥족을 겨냥한 건나물 제조와 음료 개발을 위해 연구 중이다. 최

근에는 산림청 품종 출원과 기능성 식품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재배 초기 단계여서 연간 생산량도 7~10t에 그친다.

특징 및 의의

민속 어휘들이 그 생김새나 속성 등에서 유래하는 사례가 많듯이 식물명도 맛이나 냄새, 모양, 속성 등과 관련하여 생겨나는 경우가 흔하다. 노루오줌은 뿌리에서 노루의 오줌 같은 비릿한 풀향이 나는 데서 유래한다. 매발톱은 꽃의 뒷모양이 움켜쥔 매의 발톱처럼 생겨서 이름이 지어졌다. 호랑이풀은 인도에서는 호랑이가 사냥이나 싸움에서 상처를 입으면 풀밭에서 몸을 굴러 치유한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스리랑카에서는 코끼리가 호랑이풀을 즐겨 뜯어 먹었다고 해서 민간에서 장수와 기력 증진 식물로 활용해 왔다. 오래전부터 인도와 중국 등지에서는 전통치료사들이 질병 치료를 위해 이를 활용해 왔다는 점에서 의료민속학적 의의가 상당하다.

참고문헌 神農本草經, 병풍의 초음파 추출 시 응매에 따른 면역 활성 증진 효과(권민철 외, 한국약용작물학회지 16-5, 한국약용작물학회지, 2008), 제주 자생 병풍의 홀치기염색 기법을 응용한 신생아 패션상품 개발(장현주·고순희, 한복문화 18-3, 한복문화학회, 2015), 병을 고치는 풀 병풍(생방송 아침N, MBC총독, 2021.5.19.), 뿌리에서 풍기는 비릿한 냄새...산토끼·멧돼지 못 파먹게 하려는 생존전략(조선일보, 2021.7.19.), 현지조사자료(전창욱, 경상남도 합천군, 2021.7.21.), 내외뉴스통신(nbnnews.co.kr), 환경일보(hkbs.co.kr).

필자 박경용(朴敬庸)

호랭이술

강원도 정선 일대에서 '밀주密酒'를 지칭하던 은어隱語.

내용

호랭이술은 정선에서 누대에 걸쳐 터를 닦고 살아온 강릉최씨江陵崔氏 집안의 가양주로 전해오던 것이다. 그러다가 강릉최씨 집안 여인이 경기도 양평으로 출가하면서 양평 지역의 토속주로 뿌리내리게 되었다. 정선 일대에서 '호랭이'는 밀주를 단속하는 세무서원과 경찰을 가리키는 은어였으며, 밀주단속반원이 찾는 것이 술이었으므로 이후 호랭이술은 '호랑이가 찾는 술'이라는 밀주를 지칭하게 되었다. 호랭이술을 빚고 있는 최옥화에 따르면, "내가 어렸을 때 친정어머니께서 술 빚는 일을 보면서 자랐는데, 가끔 순사들이 들이닥치는 날이면 집안이 발각 뒤집히곤 했다. 그 때마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술독을 감추느라, 발으로 눈으로 뺨다 달리기 일쑤였다. 순사들은 집에 들어와 옷장까지 다 뒤지고도 못 찾으면 쇠괴갱이로 마당 구석구석을 들쭉시키고 다녔다. 그래서 순사들을 호랑이보다 더 무섭게 여겼다. 한 번 들통이 나는 날이면 집안이 망하는 거나 다

름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이 술을 '호랭이술'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한다.

호랭이술은 집안 형편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 달리 만들었다. 하지만 재료로 대개 생술잎 10kg, 멍쌀 20kg, 찹쌀 20kg, 누룩 20kg, 엿기름가루 10kg, 양조 용수 100l가 쓰인다. 평상시 농사일을 하면서 가용으로 쓰려면 멍쌀 20kg을 깨끗이 씻어 불렀다가 고두밥을 지을 때 생술잎 10kg과 함께 시루떡을 안치듯 쪄켜이 안쳐서 찐 다음 고두밥이 잘 익었으면 돛자리나 명석 위에 덩어리진 것 없이 고루 퍼서 얼음같이 차게 식힌다. 이어 누룩을 콩알 크기로 잘게 부셔서 고두밥과 양조 용수 100l를 함께 섞어 고루 치댄 뒤 소독을 마친 술독에 안친다. 술독은 배보자기로 주둥이를 덮어 실내온도 25℃ 정도 되는 곳에서 여름철이면 4~5일, 겨울철이면 7~15일 정도 지나야 발효가 끝나 술이 익는다. 술이 익으면 바로 용수를 박고 떠서 마시거나 체를 이용해 걸러서 탁주로 쓰고, 집안 대사나 봉제사에 또는 귀한 손님 접대에 특별하게 쓰려면 덧술을 하여 약주를 만든다. 약주용 덧술은 엿기름가루 10kg을 18l의 물에 풀어서 식혀 만들 듯 끓여 엿물을 만들어 차게 식힌 후 찹쌀 20kg으로 고두밥을 짓고 식으면 엿물과 함께 밀술에 쏟아 붓는다. 덧술은 밀술과 잘 섞이도록 고루 저어 준 뒤 밀술 발효에서와 같은 장소, 같은 온도에서 5~6일 지내면 술이 익는다. 발효가 끝난 술은 밥알이 동동 뜨고, 맑은 술향기와 함께 밝은 담황색의 빛깔을 자랑한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에 '주세법酒稅法'이 제정된 것은 1909년이다. 이때부터 일제에 의해 그간 가양주家釀酒 형태로 전승되어 빚어 온 모든 술 빚기가 금지되고, 양조장釀造場 제조 제도로 바뀌게 되었다. 이 주세법은 주세 징수에 주안을 둔 만큼,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제조한 자는 이천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빚기, 혹은 술 재료를 제조하거나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일본 누룩이나 조선 누룩을 제조한 자는 오백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밀주 제조 단속이 표면화되었다. 이때부터 각 지역, 집안마다 전하는 독특한 술 빚기와 주류 제조 비법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집집마다 술 빚는 일이 집안 대사大事의 하나였고, 조상 대대로 대물림해 온 전통의 습속인 만큼 어떻게든 가양주의 맥을 이어야겠다는 전통 계승 의식으로서 밀주 제조가 성행하게 되었다. 이에 밀주 단속반원들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한 음어陰語가 하나 둘 생겨나게 되었다. '술 있느냐'라는 말은 '호랭이 있느냐' '벽 있느냐'라는 음어로 대신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밀주를 하다가 단속반원들에게 적발되면 많은 벌금을 물어야 했다. 1914년 1월에 제정된 '주세령'에 의하면 벌금이 '이천 원 이하'로 되어 있다. 이때의 이천 원

은 어미 돼지 두 마리를 팔아도 부족했다는 증언이 있고 보면, 사실 서민 입장에 서는 밀주단속반원들이 호랑이보다 무서웠을 법 하다.

참고문헌 명가명주(박록담, 효일문화사, 1996), 한국민속대관(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고려대학교출판부, 1982), 한국의 전통민속주(박록담, 효일문화사, 1995).

필자 박록담(朴碌潭)

호랑이흉배

조선시대에 관리들의 흑단령 또는 왕비 이하 내외명부의 예복에 부착하여 신분과 품계를 표시하는 사각형의 장식물.

개관 조선시대 호랑이흉배는 호표흉배(虎豹胸背)로부터 시작되었다. 흉배에 관한 논의는 세종 대부터 있었으나 1454년(단종2)에 비로소 제도화되었고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무관 1품과 2품은 호표(虎豹)를 사용하도록 명시하였다. 이후 수차례 변화를 거듭하여 착용자에 대한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1745년(영조 21)에는 9품까지 확대하면서 이듬해인 1746년 『속대전(續大典)』에 명시하였다. 신분에 따라 당상관은 쌍호흉배, 당하관은 단호흉배로 구분한 것은 정조 대 이후부터 말기까지 지속되었다.

내용 무관 흉배는 제정 당시 1품·2품의 경우 호표흉배, 3품 당상관은 웅비흉배(熊羆胸背)를 사용하였다. 흉배에 사용된 길짐승 무늬의 종류는 호랑이, 표범, 해치, 사자 등 4종이었다. 임진왜란 전 무관의 흉배는 『경국대전』에 기록되어 있는 호표와 웅비 두 종류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까지 호표흉배만 확인되었다. 1476년경 그려진 <전(傳) 오자치(吳自治) 초상화>에서는 호랑이와 표범이 함께 그려진 호표흉배를 볼 수 있다.

또 16세기 말 추정 진주 유씨 부인 의인 박씨 묘 출토유물 단령에 부착된 호표흉배는 반가 부인들도 남자들과 같은 도안의 흉배를 예복에 사용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호표흉배는 남색의 비단 바탕에 문양 부분만을 금색 실로 직조하였는데, 크기는 35cm 내외이다. 대나무 숲 아래에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으며, 오른쪽에는 소나무 아래에 표범 한 마리가 서 있다. 나머지 여백에는 구름이 채워져 있으며, 호랑이와 표범 그리고 바위 사이의 공간은 영지·서각·서책·금경 같은 보문이 있다. 문양의 표현방식은 현전하는 흉배유물에 보이는 문양배치와 거의 유사하다.



쌍호흉배 | 국립민속박물관



의인박씨 묘 출토 단령 호표흉배 | 16세기 말 | 경기도박물관

1604년에 녹훈된 <권응수(權應銖) 선무공신 화상> 흉배와 <조경(趙敬) 선무공신 화상>의 흉배에서는 표범이 사라지고 호랑이 형상만 남았다. 그런데 호랑이 표현이 몸체는 호랑이지만, 정수리 부분에 표범의 흑점 무늬가 있어서 호랑이에 표범의 특징을 그려 넣어 두 맹수를 한 이미지로 형상화한 형식이 보인다. 표범의 흑점 무늬가 호랑이의 머리에 그려진 형상은 삼성미술관 소장 <까치호랑이>에서도 보인다. 호표의 습합(習合) 현상은 조선시대 호랑이 그림만의 특징으로, 표범이 호랑이 다음가는 맹수로서 한반도에 표범이 호랑이보다 많았고, 조선시대 사람들의 의식 속에 표범이 호랑이만큼이나 강한 존재감으로 각인되어 표범이 많이 그려진 것으로 추측된다.

16세기 후기에는 호표흉배가 호흉배(虎胸背)와 표흉배(豹胸背)로 나뉘었고, 임진왜란 후부터 18세기 후기 영조 말년까지 호흉배가 확인된다. 17세기 초 호흉배에는 황색 호랑이가 묘사되었으나 18세기 영조 대는 백호(白虎)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민광승(閔光升) (1739~1806) 초상화>에서 드물게 백호가 아닌 황색 호랑이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18세기 후기부터는 쌍호흉배와 단호흉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의 호랑이는 줄무늬 호랑이가 아니라 청나라 무관 3품 흉배에 해당하는 표범무늬 흉배이다. 이렇듯 무관의 흉배 제도는 문관의 흉배 제도보다 단순한 제도가 적용되었으나 법전에 나타나는 제도와 실제 사용된 흉배에는 큰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전하는 19~20세기 호랑이흉배 유물은 대부분 백호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사신도에 연원을 두고 있는 사수도가 고려시대 묘지명의 석관 등에 새겨져 전승되었고, 그것이 조선시대로 이어졌으며 흉배에서도 이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일반적으로 흉배의 크기는 후대로 갈수록 점차 작아진다. 17세기까지는 가로세



의인박씨 묘 출토 단령 | 16세기 말 | 경기도박물관



오자처 초상 | 15세기 말 | 국립고궁박물관



민광승 초상 | 국립민속박물관

로 30~40cm 정도로 가슴을 가득 채우는 크기였으나, 점차 크기가 줄어들어 20세기 초에는 16~18cm 내외로 변하였다. 흉배 제작방식은 초기에는 흉배 무늬를 직접 직조한 옷감으로 옷을 제작하였고, 16~17세기 전기까지는 직조된 흉배를 잘라서 사용하는 방식이었다가, 17세기 이후에는 단령과 같은 옷감에 수를 놓은 자수흉배가 주로 사용되었다. 자수를 위한 흉배본은 유지에 만들었는데, 국립고궁박물관에 흉배 자수본이 소장되어 있다.

현전하는 단호흉배 유물에서 호랑이의 표현방식을 살펴보면 호랑이는 중앙에 자리하고 뒷다리는 웅크리듯이 앉고 앞발을 뻗어 몸을 단단하게 세워 지탱한 뒤 뒤쪽으로 고개를 돌려 응시하는 모습이다. 포효하듯이 크게 벌린 입의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 그리고 잔뜩 곤두세우고 있는 흰 눈썹과 수염을 통해 용맹함을 강조하였고, 호랑이를 둘러싼 주변의 구름무늬는 산신의 영험함을 표현하고 있다. 주 문양인 호랑이로 계급을 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상단과 주변에는 구름을, 하단에는 여의주·파도·바위·물결·불로초·물방울·꽃·모란·완자·당초·칠보·보전·해·달·물고기·불수佛手·서각犀角·산·지초芝草·장생 등을 수놓았다. 이러한 배치 방식은 조선 전기부터 말기까지 거의 유사한 형식으로 이어져 왔다. 호랑이 흉배 도상의 특징은 조선시대 호표 도상과 호랑이 그림의 계통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續大典, 朝鮮王朝實錄, 날짐승흉배의 감정을 위한 기준 설명(이은주·허명은, 한복문화10-3, 한복문화학회, 2007), 조선시대 무관초상화와 흉배에 관한 연구(권혁산, 미술사연구26, 2012), 조선시대 무관의 길짐승흉배제도와 실제(이은주, 복식58-5, 한국복식학회, 2008), 조선중·후기 호표도상과 호랑이 그림의 계통(윤진영, 월간민화, 2016), 흉배 (이은주, 한국의식주생활사전-의생활, 국립민속박물관, 2018).

필자 최은수(崔銀水)

호석

虎石

능·원·묘를 수호하거나, 호환 등 나쁜 기운이 미치지 못하도록 호랑이를 조각하여 세운 돌.

내용 석물이란 주로 능묘에 설치한 각종 석조물石造物을 의미한다. 그 종류는 문인석文人石·무인석武人石·동자석童子石·장명등長明燈·호석虎石·양석羊石 등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피장자의 신원과 행적을 새긴 신도비神道碑·묘갈墓碣·묘표墓表도 석물의 범주에 포함된다. 석물은 능묘를 시위侍衛하면서 피장자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고, 아울러 사악한 기운의 침입을 막는 벽사辟邪의 기능도 겸한다.

왕실과 사대부는 유교 윤리관에 입각하여 열성과 조상에 대한 숭모崇慕의 마음으로 일정한 격식에 맞춰 능묘에 석물을 설치하고 능묘비를 건립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조상의 덕을 밝히고 나타내는 것이며, 올바른 예禮의 실천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왕릉을 비롯하여 무덤을 보호하는 호석護石 중 호석虎石은 무덤에 나쁜 기운이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주로 무덤의 밖을 향하거나 순찰하는 형태로 배치하였다.

능묘 앞에 석수를 배치하는 것은 진한秦漢 이후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제왕帝王의 능 앞에 돌로 만든 기린·코끼리·말 등을 배치하였고, 인신人臣의 묘 앞에는 석양石羊·석호石虎·석인石人·석주石柱 등을 배치하였다.

능이나 묘의 둘레에 호석護石의 형태로 배치된 12지신상을 조각한 수법은 주로 탕석에 환조 또는 돌을새김을 한 부조 형태이다. 신라 능묘에 배치된 12지신상 중 호석虎石은 동동북 방향에 배치하였고, 두향兩向을 보면 전성덕왕릉은 정면을 향하고, 경덕왕릉은 좌향이며, 흥덕왕릉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신라 능묘에 배치된 호석은 우향이다.

조선시대 제릉諸陵의 석물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1474)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1758) 등에 설치 규정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묘 석물에 대한 관련 법률을 따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가례집람家禮輯覽』 분도墳圖에 따르면 능 주위를 순찰하는 형태로 석양·석호 각각 4개를 번갈아 세워 묘를 수호하도록 하였다.

17세기 예학禮學에 대한 연구와 묘제墓祭의 정비에 따라 묘 석물은 크게 묘제석물墓祭石物과 의장석물儀仗石物로 구분하였다. 석물 중 호석은 의장석물에 해당한다.

한편 고려 말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산천내리용호석錦山川內里龍虎石(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4호)은 110×80cm의 장방형 받침돌 위에 높이 140cm



원릉 석호(獻陵石虎) | 서울 서초구 | 15세기

크기로 만들었다. 앞발을 세우고 앉아서 포효하는 호랑이의 모습으로 호랑이의 몸은 서쪽, 머리는 북쪽을 각각 향하고 있다. 왼쪽 발에 꼬리가 감긴 채 잔뜩 힘이 들어간 것은 수호신으로서 긴장을 늦추지 않은 모습이다. 천내리를 기준으로 마을 앞 왼쪽에 용석, 오른쪽에 호석을 배치하여 좌청룡·우백호의 좌향坐向을 따르고 있다.

금산천내리용호석은 원래 공민왕의 능묘석으로 건립되었다고 전해진다. 구전에 따르면 고려 말 홍건적이 침입하였을 때 안동으로 피난 온 공민왕이 지관에게 자신의 능묘를 정하도록 하였다. 지관이 금산 동쪽 20리 지점에 태백산의 지맥이 이어진 명당이 있다고 하자 공민왕은 필요한 석물을 갖추도록 지시를 내렸고, 이에 의해 만든 것이라고 한다. 공민왕이 승하한 후 방치되었던 용호석을 천내리 마을 수호신으로 모셔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라북도 남원 지역에서 1699년(숙종 25)에 간행된 『용성지龍城誌』에 “석호石虎는 남원부 남쪽의 오작교 머리에 있다.”라고 하였다. 석호를 세운 배경은 호환으로부터 남원 지역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호랑이 기운을 이용하려고 돌로 호랑이상을 만들어 호두산(이후 견두산) 방향으로 세웠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호석은 주로 능·원·묘에 나쁜 기운이 미치지 못하도록 수호하기 위해 12지신 또는 일부 석물과 함께 세워진 호랑이 형태의 돌 조각이다. 이 외에도 충남 금산군 천내리의 용호석과 전북 남원 지역에서 석호를 세운 사례 등을 통해 마을을 지켜주는 신령의 신체 또는 수호 신장으로도 모셔졌다.

참고문헌 家禮輯覽, 國朝五禮儀, 금산천내리용호석(강성복, 한국민속신앙사전-마을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10), 변신 신화에서 생활로(국립민속박물관, 2009), 신라 십이지신상 호석 능묘의 변천(김용성, 한국고대사탐구11,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2), 석물(이민식, 한국일생의례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14).
필자 김도현(金道賢)

호수 虎鬚

주립^朱의 장식으로 꽂는 호랑이 수염 또는 그런 모양인 장식품.

개관 호수는 조선시대 시위대장侍衛隊長의 용복戎服에 갖추어 쓰는 관모에 꽂아 장식하는 것인데 원래 맥수麥穗, 즉 보리 이삭에서 시작되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호랑이수염처럼 뺏뺏한 수염을 말하기도 한다. 현전하는 호수는 흰 빛깔의 깃털이나 세죽細竹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네 개가 한 조이다.

내용 호수는 용복의 입자筓子(갓)에 보리 이삭을 꽂아 장식한 데서 시작되었으나 호수의 재료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호수에 관한 기사가 수차례 나오고, 전립에 호수 장식하는 것을 오래된 풍습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고구려 조우관鳥羽冠(새 깃털 장식 모자)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조선시대 호수에 관한 기사는 1534년(중종 29)에 처음으로 보인다. “내고內庫의 책임자 관리가 내고에 보관되어 있던 호수를 잡인雜人과 결탁하여 사사로



호수갓 | 너비8 길이46 | 195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호수갓 | 바닥지름42 높이15 | 195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이 거래하는 폐단”에 관한 내용으로, 당시 호수가 뇌물로 사용될 정도로 귀중한 물품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호수의 사용은 조선 현종이 온천에 거동舉動(임금의 나들이)할 때 시작되었는데, 이때 백관이 입자에 보리 이삭을 꽂다가 그 후 호수를 가식하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의 『일득록日得錄』에는 신하들에게 보리 이삭을 꽂아 풍년을 기념하게 하였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한다.

호수는 무관 중에서도 높은 품계에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효장세자孝章世子的 묘에 임곡臨哭할 때

시위의 용복에 꽂은 호수를 제거하도록 한 기사가 있고, 같은 해 3월에는 사묘私廟에 동기動駕할 때 대장은 호수와 입식을 갖추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용복제도의 개혁에 대한 논의 중 전립에 호수를 삼식하는 것은 오래된 풍습이므로 존속해야 한다는 기록이 있어 순조 때까지도 호수의 풍습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조선의 용복에 착용하던 호수·주립·패영^{佩纓}을 없애고, 그 대신 칠사립漆紗笠으로 한다고 하여 자립이 주립으로 바뀌어 기록되어 있음도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 말기에는 무녀巫女가 군복이나 용복 차림에 호수로 장식한 주립을 착용한 사례가 보인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호수갓은 황해도 만신 우옥주禹玉珠(1920~1993)의 유품으로, 그는 만구대택곳 산천거리 여행 시 흥관복을 입고 호수갓을 썼다. 이 호수는 호랑이수염이 아니라 새의 깃털로 만들었으나 호수갓으로 명명하여 사용한 것이다.

특징 및 의의

호수의 역사는 조선시대 실록 등의 기록으로 알 수 있고, 현전하는 유물에서 호수의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호랑이수염으로 만든 호수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가 없고 남아 있는 유물에서도 호수의 재료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보리 이삭이나 백로 털 또는 세죽細竹이라고 하는 설도 있다. 호수를 관모에 꽂는 것은 호랑이수염의 힘을 빌리려는 벽사의 의미를 담고 있거나, 보리를 꽂아 풍년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호수는 끝이 뾰족한 나무에 여러 층으로 수염의 줄기를 두르고 가죽으로 감



주립 | 임인진연의계 | 1902 | 국립고궁박물관

아서 모양을 잡고, 형태는 호랑이 수영 모양을 가느다란 나무 끝에 부착하여 마치 보리 이삭같이 만든다. 현전하는 유물을 살펴보면 전체 길이 36~38cm 내외, 호수 길이 25~28cm 내외이다. 호수는 네 개가 한 조이므로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를 보관하는 통이 있다. 호수통의 전체적인 형태는 팔각기둥형이며, 윗면이 막혀 있다. 뚜껑은 경첩으로 연결하고 경첩의 반대편에 잠금장치가 있다. 내부에는 호수를 고정하고 보호하는 판이 있으며, 대나무로 판을 연결하였다. 통의 길이는 51cm 내외이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군복 관모에 관한 연구(강순제, 학예지4,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1995), 조선시대의 관모(온양민속박물관, 1988).
필자 최은수(崔銀水)

호자

虎子

호랑이 모습으로 꾸며 액체를 받거나 따를 수 있도록 만든 그릇.

개관 머리를 들고 입을 벌린 채 웅크리고 앉은 호랑이 모습을 한 그릇을 호자라고 부른다. 중국 한나라 때의 기록이라고 알려진 『서경잡기西京雜記』에서는 이광李廣(?~기원전 119)이 화살 한 대로 호랑이를 잡아 그 머리를 베어 요강으로 사용한 것이 호자의 시초라고 한다. 또 원말명초 도종의陶宗儀(1329~1410)가 지은 『설부說郛』에 따르면 옛글 가운데 『예창사지藝窓私志』에서 린주麟主라는 짐승(상상 속 동물인 기린으로 추정)이 소변을 볼 때 호랑이가 엎드려 입을 벌려 요강 노릇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이전 시기에 나온 『주례周禮』에 이미 ‘虎子호자’라는 기물 이름이 나타나고, 요강이 아닌 물병이나 술병으로 사용되었다는 견해도 있어 사실 여부는 분분하다.

내용 중국에서 발견되는 호자는 나무·청동·도자기 등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진 반면 한반도에서는 토기와 도자기로 된 호자가 발견되고 있다. 가장 이른 시기의 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청자 호자이다. 개성(현재 개성특별시)에서 발굴되었지만, 중국 육조시대六朝時代에 해당하는 서진西晉 말기에서 동진東晉 초기에 제작되어 백제에 전해진 것으로 추측된다. 유물 분포상 상당수가 부여 군수리 사지(사적 제44호), 부여 관북리 유적(사적 제428호), 여수 고락산성(전라남도 기념물 제244호) 등 백제 유적에서 발굴되어 당시 백제의 국제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청자호자 | 입지름5 길이26 높이20 | 개성 | 백제 | 국립중앙박물관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 후에도 귀족과 승려 계층 사이에서 호자가 사용되었지만, 점차 형상이 간략해져 호랑이의 모습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게 되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소장 중인 통일신라 시기의 호자(소장품 번호 경주 41331)는 둥근 몸체 정상부에 뚜껑이 있고, 구연부는 별도로 그릇 상부 측면에 형성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說郛, 虎子也得稱文物(天津日報, 2009.3.23.), 국립중앙박물관(museum.go.kr), 故宮博物院(dpm.org.cn), 盛世收藏(sssc.cn).
필자 류건욱(柳建旭)

호피

虎皮

흔구해피의 하나로, 신행갈 때 신부가 타는 가마에 엮는 호랑이의 모피.

내용 신행 시의 신부가마는 무명 살바로 앞문을 제외한 3면을 X자형으로 엮어 두르거나 호피를 뚜껑에 덮어 표시한다. 이때의 호피는 호랑이의 등가물等價物로서 위용威容·벽사진경辟邪進慶·식재초복息災招福의 의미가 있다.

호랑이는 예로부터 백수지왕百獸之王, 산중군자山中君子, 산신령 등으로 불리면서 반속班俗과 민속民俗에 관계없이 복식, 장신구, 가구, 석물, 병기, 부적, 자수, 회화 등에 다양하게 표현되었는데, 모두 위와 같은 상징성을 띤다. 이러한 상징



호랑이 무늬 가마덮개 | 1920 | 국립민속박물관

성은 호랑이의 생태학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호랑이의 맹수성이 오히려 보호, 호신護身이라는 관념을 불러일으켜 흉맹凶猛·위용과 보호·호신이라는 양극단兩極端의 개념이 한데 어우러진 양가적兩價的 상징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러한 양가적 상징은 뱀도 마찬가지이다. 뱀은 죽음과 재생이라는 상반된 개념이 투영된 상징적 존재이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겁나고 가죽은 탐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호피는 예로부터 귀한 물건이었다. 중국으로 보내는 조공품의 한 가지였고 일본과 교의

를 맺을 때 보내는 예물의 한 가지였다. 그뿐만 아니라 조정에서 신하에게 내리는 값진 하사품의 하나였다.

왕실이나 귀인의 자리에는 호피를 깔개로 사용하였다. 문인이나 학자 같은 귀인의 좌석은 ‘고비臺比’라고 하는데, 원래 고비는 호피를 뜻한다. 편지 겉봉의 상대편 이름 아래에 호피하虎皮下라고도 썼는데 이런 말이 나온 까닭은 문인과 학자 같은 귀인의 자리 혹은 수레에 호피자리虎皮茵를 깔았던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혼례식 같은 의식에 호랑이 가죽 무늬를 넣어 만든 호담자虎毯子를 깔았다. 한편, 중국의 경우이기도 하지만 소명태자의 남징納徵 물목으로 옥벽玉璧과 호피를 갖추도록 주청한 기록이 있다. 이처럼 호피는 문무 고관이나 귀인의 표징으로서, 실용성과 함께 그 고유의 상징성, 나아가 주술성으로 인해 귀품貴品으로 높이 평가되면서 우리 풍속에 깊숙이 자리 잡아왔다.

이러한 호피의 전통은 현재도 알게 모르게 이어지고 있다. 조선시대의 포호捕虎정책이나 일제강점기의 해수구제害獸驅除정책, 그리고 6·25 전쟁 이후의 급속한 개발로 호랑이가 거의 멸종되어 국내의 호피를 구할 수는 없지만 대신 호피 무늬를 넣은 무릎담요, 재킷, 치마, 신발, 모자, 가방 등의 다양한 상품이 이러한 상징성을 띠면서 거래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옛날에는 관원들이 가마를 타고 행차할 때 등 뒤에 호피를 드리워 그 위용을 드러냄과 동시에 안녕을 빌고자 하였다. 신행의 행렬 자체도 여러 가지 면에서 관원의 행차 모습과 비슷하지만 신부가가마 뚜껑에 호피를 덮는 것은 그 성격이 귀인의 행차 시 가마에 호피를 깔거나 드리워 위용을 드러내고 무사 안녕을 비는 것과 흡사하다. 옛날에는 복식은 물론 품석品席이라 하여 관원이 깔고 앉는 방식도 품계에 따라 표피豹皮·호피·구피狗皮·양피羊皮 등으로 종별이 달랐는데 신부가마에는 당상관이나 되어야 깔고 앉거나 드리우는 호피를 뚜껑에 덮었던 것이다. 조선시대는 반상의 구별이 엄격하던 시대였지만 혼례일만큼은 평민일지라도 누구나 지체 높은 귀인의 대접을 받았다. 심지어 신랑이 웬만한 사람에게 인사를 하면 못 하게 할 정도였다. 이러한 평민들의 혼속婚俗은 치자가 갖추어야 할 민본民本·애민사상에서 기인한 듯하다. 풍속은 위와 아래가 함께 만들어 낸 산물이다. 군권이 위에서 교화하는 것을 ‘풍風’이라 하고(君上所化曰風), 민민이 아래에서 익히는 것을 ‘속俗’이라 하였기(民下所習曰俗) 때문이다.

참고문헌 국학도감(이훈중, 일조각, 1970), 기러기 아범의 두루마기-한국의 통과례와 상징(강재철,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4), 일상생활과 근대결혼제도-신문(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민속원, 2010), 일상생활과 근대결혼제도-잡지(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민속원, 2010), 한국민속학개론(박계홍, 형설출판사, 1987), 한국의 혼인문화(김인옥, 구상, 2011), 호랑이(이여령, 생각의 나무, 2009).

필자 강재철(姜在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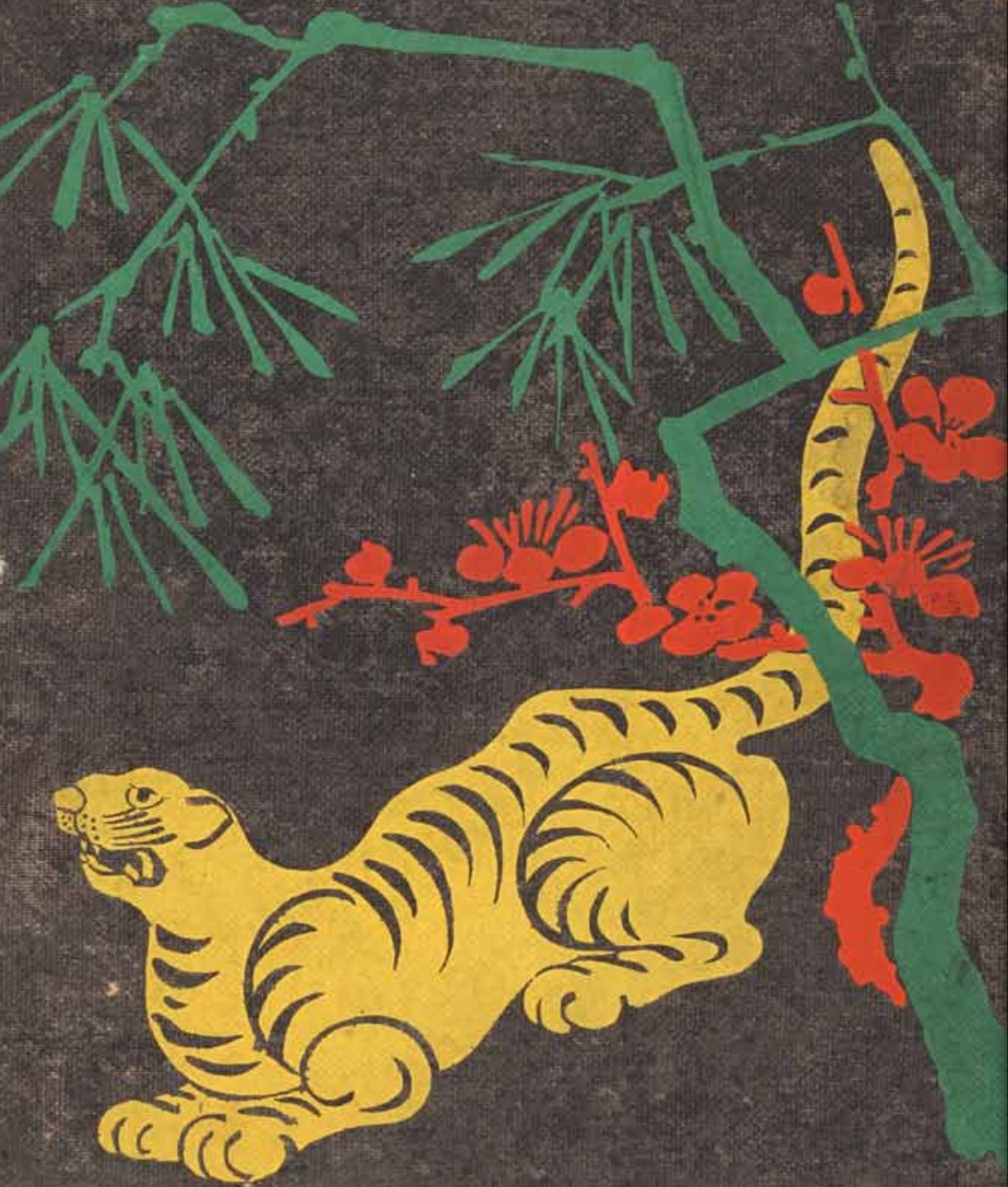
설화 속 호랑이

The Tiger in Folk Tales

- 상여장식
- 상인일
- 설화 속 호랑이
- 수호랑
- 시묘살이 도와준 호랑이
- 신림
- 신성과 벽사의 호랑이
- 애호
- 어
- 여름에 홍시 구한 호자
- 여자 음부 보고
- 도망간 호랑이
- 오뉴월 손님은
- 호랑이보다 무섭다
- 용호문배도
- 이빨 빠진 호랑이
- 임지한
- 정호기
- 제호이위신
- 조선표상화
- 종이호랑이
- 착호갑사
- 창귀
- 청양 범놀이
- 츄츄는 호랑이
- 침호두
- 태백황연동유령산령당
- 토기의 재판
- 팔죽할멈과 호랑이
- 포호정책
- 한국표범
- 해수구제사업
- 해와 달이 된 오누이
- 호건
- 호골
- 호들이
- 호동
- 호랑이 관련 용어와 표상
- 호랑이 눈썹
- 호랑이 배 속 구경
- 호랑이 별주부 상면 대목
- 호랑이 잡은 기름장아지
- 호랑이 잡은 비루먹은 장아지
- 호랑이 장가 가는 날
- 호랑이가 깃든 물건
- 호랑이가 잡아준 명당
- 호랑이굴
- 호랑이꿈
- 호랑이띠
- 호랑이로 변한 남편
- 호랑이발톱노리게
- 호랑이벽화
- 호랑이부적
- 호랑이선생님
- 호랑이연고
- 호랑이와 꽃감
- 호랑이의 보은
- 호랑이의 생태와 역사
- 호랑이포수
- 호랑이풀
- 호랑이형님
- 호랑이홍배
- 호랭이술
- 호실랑곳
- 호서낭
- 호석
- 호수
- 호식당할 운명
- 호식장
- 호암사
- 호암산
- 호열자
- 호자
- 호탈곳
- 호피
- 호환
- 호부와 호랑이
- 호자 태워 나른 호랑이

- 강감찬
- 개가하지 않은 떠느리
- 도운 호랑이
- 견훤
- 공주동해리산신제
- 곽재우
- 구시월 도지는 호랑이도
- 무서워한다
- 금산진악산물골봉기우제당
- 금산친내리용호석
- 김현감호
- 김호랑이굴
- 가치호랑이
- 꼬리 잘린 호랑이
- 나도밤나무
- 남매탑
- 단군신화
- 라이저
- 매추라기의 꿈지
- 문자 쓰다 장인 잃은 사위
- 밀양 용호놀이
- 반쪽이
- 백두산호랑이
- 백호
- 백호기
- 범골
- 범바위
- 범이 불알을 동지에 열구고
- 입춘에 녹인다
- 변신한 호랑이를 물리친 사람
- 복호
- 사람을 사랑한 호랑이
- 사신
- 사신반흔곳
- 산맥이
- 산신
- 산중호걸
- 삼재부적
- 삼척갈남마을백호서낭제

集話童鮮朝



설화 속 호랑이

강경표(국립민속박물관)

우리 민족에게 전래한 신화·전설·민담 등의 설화를 살펴보면 호랑이와 관련된 것이 가장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야기 속 호랑이는 민중을 지켜주는 신으로, 악을 쫓는 징벌자로, 때로는 조롱받는 대상으로 이야기 곳곳에 등장한다.

호랑이 설화는 일단 그 양이 많다. 구비문학 자료를 모아 놓은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십이지와 관련한 설화 1,283건 중 호랑이 관련 설화가 약 40%(501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한예민 2013). 또한 굳이 수치화하지 않더라도 호랑이 설화가 많음은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남선崔南善(1890~1957)은 “우리나라는 호담국虎談國이다. 범 이야기만을 모아서 『천일야화』 『데카메론』 등 이런 류類의 책을 꾸미려는 나라는 세계가 넓다 해도 오직 조선이 있을 뿐이다. 범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 ‘안테르센’ ‘그림형제’ 누구 노릇이든지 다할 것이다.”라고 평하였고, 조선 후기 기인 정수동鄭壽銅(1808~1858)은 옛날이야기를 해 주는 조건으로 노자를 얻어 금강산을 다녀왔는데, 수십 일간 줄곧 호랑이 이야기만을 해냈다¹⁾고 하였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에 호랑이가 등장하지만, 우리 설화 속 호랑이의 모습과 성격을 단순히 특정 짓기는 힘들다. 이야기의 주제나 메시지, 구성에 따라 그 역할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호랑이의 역할 변화는 유사하면서도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 냈고, 이 다양성은 우리 호랑이 설화의 또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이 구분한 호랑이 설화의 유형 중 주로 나타나는 것은 아래 다섯 가지 정도이다(최원호 2010).

- ① 영웅을 수호하는 신격화된 호랑이
- ② 효와 열렬을 알아보는 원조자(조력자)로서의 호랑이
- ③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신의의 호랑이
- ④ 포악하며 배은망덕한 정치懲治 대상으로서의 호랑이
- ⑤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호랑이²⁾

위 유형에서처럼 설화 속 호랑이의 이미지는 모순적이면서도 복합적이다. 신격화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과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며, 선한 존재를 알아보고 은혜를 갚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포악하고 어리석

1) 호랑이 이야기(김태관, 경향신문, 2009.6.2.)

2) 한국 구비문학의 성격과 민족문화의 정체성(최원호, 국학연구 16, 한국국학진흥원, 2010), p593.

으며 배은망덕하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하나의 문화권 안에서 호랑이는 어떻게 이렇듯 다양한 상징을 갖게 되었을까. 그 이유로는 첫 번째, 호랑이의 피해를 회피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허춘 1997).

3) 설화에 나타난 호랑이의 특성(허춘, 열상고전연구10, 열상고전연구회, 1997), pp90-91.

호랑이는 사람을 많이 해쳤으므로 호환(虎患)에 우는 일이 많았다. …… 자연히 호랑이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이때의 호랑이는 대개 희화화하여 묘사되며 어리석음이 부각되고, 인간이 호랑이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하기도 한다. …… 호랑이를 잡는 방법 외에 호환을 미리 막기 위해 신앙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다. …… 그러나 호랑이는 어디까지나 동물이므로 인간의 위에 설 수는 없다. 따라서 이들 호랑이는 명인(名人)에 의해 제어되는데, 이는 명인의 뛰어남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고 누군가 나서서 자신을 호환에서 구해 달라는 염원의 표출이기도 하다.³

호랑이는 오래전부터 한반도에 서식해 왔으며, 생태계 먹이사슬에서 최상위 포식자였다. 호식(虎食)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호랑이는 사람을 많이 해쳤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는 큰 공포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호환을 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다. 이에 사람들은 호랑이에게 도움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해 호랑이를 신령한 존재로 바라보기도 하였고, 때로는 호랑이에게 양심을 품고 포악하고 어리석은 존재로 취급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는 구전 방식으로 전해진 호랑이 설화 특성에서 이유를 찾아 서양 신화이론에 빗대어 설명한 주장도 있다. 지극히 신화적인 뫼토스 언어가 인간의 이성과 개입으로 로고스 언어화, 즉 신화적 권위가 추락하며 인간의 모순적이면서 복합적인 이미지가 투사되었다고 보는 주장이다. 한국 호랑이 설화에서 호랑이는 뫼토스의 언어로 얘기되는 대상에서 점차 로고스의 언어로 얘기되는 대상으로 변모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모순적이면서 복합적인 이미지가 투사되어 왔다고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구비문학의 통시성은 명쾌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브루스 링컨(Bruce Lincoln) 식의 신화이론을 한국 호랑이에서 전혀 읽어낼 수 없는 것도 아니다(최원호 2010).



해와달 이야기 우표 | 1970 | 국립민속박물관

수많은 호랑이 이야기만큼이나 많은 주장과 이론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호랑이 설화에 나타난 호랑이의 형상은 천의 얼굴을 가졌다고 하여도 좋을 만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국인이 호랑이라는 대상에 대하여 매우 다양하고 독특한 감정을 지니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의 투사는 오랜 기간 한국인들의 삶 속에 호랑이의 존재가 가깝고 컸음을 의미한다.⁴

4) 한국 호랑이 이야기의 현황과 유형(허원기, 동화와번역5, 건국대학교 중원인문연구소, 2003), p100.

현재 이 땅에서 호랑이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예전만 하더라도 산에 가면 나타날까 두려워하던 호랑이는 이제 동물원에 가야만 볼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한국의 호랑이는 우리 주위에서 사라졌지만, 우리의 문화 속에서 자리 잡은 호랑이는 그 존재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웹툰·드라마·게임 등 대중이 여전히 즐기는 문화 콘텐츠 속에서 두려운 존재로, 신령스러운 존재로 또는 희화화된 존재로 등장하며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인에게 호랑이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문화를 간직한 동물이며, 우리의 설화 속에서 오랜 시간 애환을 함께해 온 감정의 기록이자 지속할 문화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민속지의 호랑이(최남선, 온이퍼브, 2020), 설화에 나타난 호랑이의 특성(허춘, 열상고전연구10, 열상고전연구회, 1997), 십이지 동물의 설화화 양상과 의미(한예민, 숭실대학교 석사논문, 2013), 한국 구비문학의 성격과 민족문화의 정체성(최원호, 국학연구16, 한국국학진흥원, 2010), 한국 호랑이 이야기의 현황과 유형(허원기, 동화와번역5, 건국대학교 중원인문연구소, 2003), 한국민속문학사전-설화(국립민속박물관, 2012), 한국민속문학사전-판소리(국립민속박물관, 2013), 호랑이 이야기(경향신문, 2009.6.2.), 디지털만화규정각(dml.komacn.kr).

강감찬

姜邯贊

고려의 명장 강감찬姜邯贊(948~1031) 장군과 관련한 설화.

역사 강감찬은 우리나라 3대 명장 중의 한 명으로, 그가 주도한 귀주대첩은 우리나라 6대 전첩으로 꼽힌다. 그의 공적은 문헌기록이나 인물전설로 전승되고 있다.

줄거리 <강감찬설화>는 문곡성과 관련된 탄생담, 호환虎患이나 미물 퇴치 등으로 나뉜다. 한 사신이 밤에 시흥군으로 들어서는데 큰 별이 어떤 집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그 집을 살펴보니 마침 부인이 사내아이를 낳았다. 사신이 이 아이를 데려다 길렀으니 곧 강감찬이었다. 강감찬이 한성판관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아전과 백성들이 범에게 피해를 입자 범이 중으로 변한 것을 알고 강감찬이 이를 강력하게 징벌하여 한성부의 호환을 없앴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낙성대落星臺는 강감찬 장군의 출생지로, 그가 출생할 때 별이 떨어졌다고 하여 지명이 유래하였다. <강감찬전설>은 고려시대 최자崔滋(1186~1260)의 『보한집補閑集』에서 문곡성文曲臺 출현의 출생담이 전하고, 조선시대 초기 성현成俔(1439~1504)의 『용재총화龍齋叢話』에는 호환을 없앤 이야기가 실려 있다. 만종의 『해동이적海東異蹟』에도 호환 퇴치와 문곡성 이야기가 전하고, 손진태는 <강감찬 금와환禁蛙喧전설>을 소개하였다.

변이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강감찬 관련 설화는 65편이다. 이들 설화 각편으로 본 변이양상은 별자리와 관련된 시흥군 문곡성의 탄생, 염정성 별자리의 탄생, 한양에서 중으로 변한 호랑이 퇴치, 경주 개구리울음 퇴치 등 신비한 행적을 보인다. 그는 강릉부사, 공주목사, 논산현감, 경주부사 등의 벼슬을 하였다고 하며, 강릉 지역에 구전되는 설화에서는 강릉원님, 장군, 대감, 여우를 퇴치한 지혜로운 사람, 개미를 없게 한 기가 센 인물, 개구리를 못 울게 한 신통력 있는 장군, 풍수를 아는 인물 등으로 나온다. 경기도 지역은 강감찬의 부친이 고을 원님·훈장·선비·정승으로, 충청 지역은 오입쟁이·소금장수·무관으로, 경상도 지역은 정승 등으로 신분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강감찬의 어머니는 여우가 변신한 아흔아홉 번째 처녀라고도 한다. 이는 짐승과 결혼한 이물교혼異物交婚 또는 이류교구異類交媾의 경우로서, 그런 연유로 강감찬은 짐승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고 여우가 변신한 신랑을 퇴치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강감찬이 천리안을 지녔으며 축지법과 부적을 사용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보기도 한다. 그는 오래 살기 위해서 스스로 별상인 손님마마신을 불러 열



낙성대 | 서울시 관악구 | 문화재청

굴에 곰보자국을 일부러 세 차례 또는 다섯 차례나 만들었다고 한다. 귀가 작은 박새, 작은 키, 여우상, 거지꼴 등 외모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짐승이나 미물 등을 퇴치한 경우 대상은 호랑이가 가장 많고, 개구리, 모기, 개미, 구렁이, 도깨비, 독수리, 용이나 자연현상인 벼락, 식물인 칩뿌리를 제거하는 등의 변이가 나타난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여우혈을 없애 집안을 구하고 혼령을 잃은 친구를 구하며, 벼락살 또는 벼락방망이를 쥐는 등 심각한 문제 상황에서 이적異蹟을 보이지만, 물 인심이 야박한 동네에서는 부적으로 그 동네의 물을 마르게 하는 등 훈계적 행위도 보인다. 강릉단오제에서 진행되는 <관노가면극>의 험상궂은 인물인 '시시딱딱이'는 강감찬 장군이 마마에 걸린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질병이 돌지 않게 하는 예방주술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의 향토오락朝鮮-鄉土娛樂』에도 강릉국사당제 오광대놀이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목제인형으로 놀이한다고 하였다.

분석 조선 효종 때 홍만중洪萬宗이 쓴 『해동이적海東異蹟』에는 호환 퇴치와 문곡성 외 두 가지 화소話素가 들어 있다. 그 줄거리를 기술하면, 강감찬은 평장사로서 고려 현종 때 사람이라 하였다. 성품이 청렴하고 검소하며 지략이 풍부했다. 일찍이 한양부 판관이 되었는데, 그 당시 한양에 호랑이가 출몰하여 사람을 해치는



낙성대 유허비 | 서울시 관악구 | 문화재청

일이 잦았다고 한다. 강감찬은 문서를 써서 북문 밖의 두 중에게 전달했다. 강감찬은 이들에게 속히 무리를 이끌고 멀리 가라고 명하였다. 한양유수는 중더러 호랑이라 한다고 믿지 않았으나, 강감찬이 본신을 드러내라고 하자 두 중은 가사를 벗고 커다란 호랑이로 변하여 울부짖었다. 강감찬이 빨리 가라고 명하니 간 곳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그 뒤부터 호랑이로 인한 근심이 사라졌다. 처음에 강감찬이 태어날 때 송나라 사신이 밤중에 시흥군으로 들어갔다가 큰 별이 인가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아전을 보내 살펴보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 집 부인이 마침 사내아기를 낳았다. 송나라 사신이 와서 그를 보고는 문곡성이 보이지 않은 지 오래되었는데 여기에 있다며 절을 하였다.

강감찬은 나이 84세에 죽었는데, 세상에서는 그가 신선이 되어 올라갔다고들 했다. 현공렴이 쓴 <강감찬전>에는 강감찬이 삼각산에서 중으로 변신한 호랑이를 쫓은 일과, 경주의 개

구리울음을 그치게 한 공로를 기록하였다. 이 내용은 지역에 따라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지역을 바꾸어 전승하기도 한다.

특징 <강감찬전설>은 위대한 업적을 성취한 실존인물의 위대성이 민간에서 숭앙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문곡성의 화신이라는 탄생담, 여우 모친의 신비한 출생, 작은 키, 곰보, 박색의 특이한 외모, 벼슬한 관리, 짐승이나 미물 퇴치의 능력 소유, 마을신격으로 강원도 횡성 현천성황신이 되기도 하였다. 강감찬의 모체가 여우라는 동물교혼설화 유형을 밟는 등 실존인물 강감찬에서 민담적 인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의의 역사상 위대한 인물인 강감찬에 대한 전기적 구성으로 출생부터 성장, 관원의 길을 통해서 민중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대상들을 척결하는 친근한 인물로 형상화하였다. 외적에 맞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역사성을 기초로 민중과 연관된 구체적 사건을 통해서 존재를 부각시키고, 역사진경을 추구하는 신앙인물로 형상화하였다. 강감찬이 민중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도술사의 모습으로 구체화되거나 생활상 장애를 제거하는 현실적 해결사로 구전된다는 점에서 교훈적 의미를 담고 있다.

출처 姜邯贊傳, 高麗史, 補閑集, 海東異蹟,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1, 574: 2-3, 194.

참고문헌 강감찬전(현공렴, 경성 광동서국, 1908), 강감찬전설연구(장장식, 석천정우상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0), 강릉지역 강감찬설화의 내용과 상징(장정룡, 임영문화29, 강릉문화원, 2005), 강원지역 강감찬설화 고찰(장정룡, 강원민속학17, 강원도민속학회, 2003), 조선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7).

필자 장정룡(張正龍)

개가지지 않은 며느리 도운 호랑이

며느리가 친정의 강권에도 개가지지 않고 시부를 모시니 호랑이가 감동하여 도와주었다는 설화.

줄거리 옛날 어느 곳에 남편이 일찍 죽어 과부가 된 며느리가 살았는데, 친정에서는 자꾸만 개가하라고 했다. 하지만 홀로된 시부가 병까지 나서 어렵게 살기에 개가 할 생각은 않고 정성껏 봉양을 하였다. 친정에서는 딸을 불러도 오지 않으니 어느 날 어머니가 죽었다고 거짓 부고를 보냈다. 며느리는 병든 시부를 위해 죽을 끓여 상에 차려 놓고 친정에 갔다. 가서 보니 개가시키기 위한 계약이었다. 딸은 화를 내면서 그 밤으로 되돌아오는데 산과 강이 있어 밤길이 어려웠다. 그때 어디선가 호랑이가 나타나서 며느리를 태워 단번에 시가까지 데려다 주었다. 며느리는 더욱 정성으로 시부를 봉양했는데, 어느 날 꿈에 호랑이가 함정에 빠져 죽게 되었음을 알렸다. 며느리가 그곳으로 찾아가 호랑이를 살려주었다.

변이 가난한 시가의 시아버지 처지는 홀아비가 대부분인데, 병중이거나 맹인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간혹 시부 대신 맹인 시모가 등장하기도 한다. 며느리의 남편은 없는 것이 주종을 이루나, 있어도 앓은뱅이 같은 장애인이다. 호랑이의 도움으로 맹인이 눈을 뜨거나 앓은뱅이가 일어서게 되기도 한다. 며느리가 호랑이 목구멍에 낀 비너를 제거해 주어 그 보답으로 호랑이의 도움을 받는 확장형도 보인다.



열녀를 도운 호랑이 무덤 | 울산 울주 | 2012 | 배도식



언양 열녀정려각 정려비 | 울산 울주 | 2012 | 배도식

분석 착한 며느리를 도와주는 이런 유형의 호랑이설화는 상당히 많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17편이 실려 있고, 『한국의 민담』에 1편, 『조선훈이 이야기』에 1편이 실려 있다. 문헌설화로는 『동야회집東野彙輯』과 『청구야담靑邱野談』에도 각 1편씩 있다.

이 설화에서 호랑이는 사람을 해하는 맹수나 단순한 짐승으로 등장하지 않고 효성이 지극한 사람을 알아보고 그를 도와주는 신령성을 지니고 있다. 효부를 등에 태워 주는 것은 물론 시가의 맹인이나 앓은뱅이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능력을 보이는 점이 그러하다.

의의 부족한 환경에서 홀로된 며느리가 불구의 시부모를 잘 모심으로써 효를 실천함을 보여 주는 교훈적인 설화이다.

출처 東野彙集, 靑邱野談, 조선호랑이 이야기(이가원, 학민사, 1993), 한국의 민담(임동권, 서문당, 1972).
참고문헌 한국구비전설의 연구(최래옥, 일조각, 1981) 한국설화문학연구(정덕순, 서울대학교출판부, 1978), 한국호설화 연구(배도식,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호설화 연구의 예비적 접근(배도식, 국어국문학16,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6).
필자 배도식(裴桃植)

견훤

甄萱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甄萱의 출생에 관한 설화.

역사 <견훤설화>는 뱀으로 변해 찾아온 남자와 관계를 맺은 처녀가 비범한 아이를 낳았다는 내용의 야래자형설화夜來者型說話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 「기이」 후백제 견훤 조에 그 기록이 전하고 있으며, 유사한 이야기가 『청구야담靑邱野談』에 <괴물매야색명주鬼物每夜索明珠>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외에도 일본의 『고사기古史記』 수신천황崇神天皇 조에도 실려 있어서,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에서도 널리 분포되어 전승되어 온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줄거리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광주光州 북촌에 사는 부잣집 딸이 부친에게 말하기를, ‘밤마다 자줏빛 옷을 입은 남자가 침실에 와서 교혼交媾하고 간다.’라고 하였다. 이에 부친이 긴 실을 바늘에 꿰어 그 남자의 옷에 꿸라고 하자 딸이 그 말대로 하였다. 날이 밝은 뒤 실을 따라 갔더니 큰 지렁이의 허리에 바늘이 꽂혀 있었다. 그 후로 태기가 있어 사내를 낳으니 이가 곧 후백제 시조 견훤이다.”라고 되어 있다. 또, 『삼국사기三國史記』 「열전」 견훤 조에 보면, “견훤은 본래 상주가은현 사람이다. 본래 성은 이씨였으나 후에 견으로 성을 삼았다. 아버지는 아

자개로, 농사로 생활하다가 나중에 스스로 장군이라 칭하였다. 처음에 견훤이 어려서 아직 강보에 있을 때 아버지가 들에 나가 밭을 가는데, 어머니가 밭을 나르면서 어린아이를 숲속에 두었더니 범이 와서 젓을 먹였으므로 사람들이 듣고 이상하게 여겼다. 장성하매 몸집이 크고 외모가 기이하며 기품이 활발하여 범상치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변이 <견훤설화>는 아래자설화라고도 하는데, 각편에 따라 ‘아래자’의 양상이 지렁이, 수달, 절굿공이, 동삼童參, 용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절굿공이인 경우에는 태어난 아들이 없으며, 수달인 경우에는 머리가 노랗게 태어나서 ‘노랑지’라고 불린 아들이 청나라 태조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하고, 용인 경우에는 아들이 중국의 천자가 되었다고 한다. 지렁이인 경우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후백제를 세운 견훤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아래자를 죽이는 방법은 대체로 물에 소금을 타서 죽이는 방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전라북도 정읍시 영월면 지역에서는 아래자에 의해 잉태를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키우는 동안에 가난해서 어머니가 일을 나간 사이에 호랑이가 풀밭에 누워 있는 견훤에게 젓을 먹이는 형태로 전승되고 있어서,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기록된 이야기가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서는 후백제 견훤이 안동을 공격하자 당시 안동을 지키던 권행權幸, 김선평金宣平, 장정필張貞脚 등의 삼태사三太師가 지렁이로 변한 견훤을 차전으로 몰아서 승리했다는 이야기와 결부되어 안동차전놀이의 유래담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분석 일본인 학자 도리이 류조鳥居龍藏가 1912년에 「한·일 양국에 분포된 미와야마三輪山 전설」이란 논문을 발표하면서 아래자설화가 한국과 일본에 분포함을 알게 되었고, 이후 여러 학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손진태와 소재영, 오바야시 타로大林太良, 장덕순, 최래옥, 김화경, 서대석 등에 의해 설화의 내용과 전파 경로, 그리고 생성 배경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손진태는 본 설화가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전해된 것이라고 하여 남방전래설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소재영은 <견훤설화>를 이류교구설화異類交媾說話의 유형이라고 보고 중국과 일본, 몽골 등의 설화와 비교한 뒤 ‘중국 - 몽고 - 우리나라 - 일본’의 경로로 전파된 것이라는 추정을 제기하면서 손진태의 남방전래설을 부정하였다. 노성환은 본 설화가 5세기경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뒤 일본에 건너가 『고사기』의 <미와야마전설>로 정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전파 경로와 더불어 설화의 신화적 속성에 주목하고 그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서대석은 <견훤설화>를 수부지모형水父

地母型 신화로서 마한의 신화라 보았다. 백제 후기에 마한의 부족들이 지배세력으로 부상하면서 이 설화를 차용한 서동설화가 생겨났고, 또한 백제 멸망 이후에도 백제 유민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전승되어 견훤의 후백제시대까지 신화적 기능을 유지했다고 보고 있다. <견훤설화>를 포함한 아래자형 설화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지속적이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징 우리나라의 고대 건국신화나 왕권신화 속 주인공들은 대개 비정상적인 탄생 과정을 부각시킴으로써 비범성을 나타내고, 이를 통해 왕권의 정통성과 절대성을 확립시켜 왔다. 이는 <견훤설화>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견훤이 후백제의 건국주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건국신화의 특성을 공유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래자설화는 『삼국유사』 무왕 조의 기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과거 무왕의 탄생담에 차용되었던 바, 견훤은 옛 백제 땅에 후백제를 건국하면서 자신의 탄생담에도 역시 아래자설화를 삽입함으로써 자신의 비범성과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의의 아래자설화는 여성과 아래자와의 관계를 통해 2세의 탄생을 본다는 점에서 이물교혼담異物交媾談의 한 유형으로 보며, 태어난 2세가 후에 왕이나 건국주 또는 마을신이 된다는 점에서 신화적 성격을 갖고 있다. 즉, 후백제의 건국주 견훤, 송나라 태조, 청나라 태조 누르하치의 부친 등과 같은 건국시조의 탄생담에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는 평강채씨 시조탄생담에도 들어 있어서 성씨시조신화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견훤, 즉 아래자설화가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전래된다는 점은, 이 설화가 오랜 기간 동안 전승되어 왔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또한 아래자설화는 신화적 성격과 함께 전설과 민담적 성격까지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三國史記, 三國遺事,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5-4, 693; 7-8, 926; 984: 7-9, 843, 한국민간전설집(최상수, 통문관, 1958).
참고문헌 백제신화 연구(서대석, 백제논총1,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5), 아래자설화의 신화적 성격과 전승에 관한 연구(이지영, 고전문학연구20, 한국고전문학회, 2001), 아래자전설과 일본의 삼륜산전설과의 비교연구(장덕순, 한국문학의 연원과 현장, 집문당, 1986), 한국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7), 한국설화문학연구(소재영, 송실대학교출판부, 1984), 한일아래자설화의 일연구(노성환 외, 연구논문집15-2, 울산대학교, 1984).
필자 한서희(韓抒希)

곽재우

郭再祐

임진왜란 때 의병장 곽재우(1552~1617)에 관한 인물전설.

역사 곽재우는 경상남도 의령군 세간리에서 현풍 곽씨 월越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부인은 상산 김씨로, 부제학을 지낸 언필의 손녀, 만호 행의 딸, 남명 조식의 외손녀이다. 곽재우는 34세 때 별시에 합격했으나 글의 내용이 선조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로 파방罷榜당하자, 출사를 포기하고 의령군 지정면 성산리 기강나무에 은거하였다. 임진왜란 때 관군이 패하자, 울분을 참지 못해 기병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곽재우에 관한 설화는 문헌설화와 구비설화로 다양한 내용이 전승되고 있는데, 기기묘묘한 작전과 승리담, 부인과 홍의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줄거리 곽재우가 부친을 따라 중국에 갔을 때, 관상 보는 사람이 장차 큰 인물이 될 거라 했다. 곽재우의 후처는 시집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놀기만 했다. 참다 못한 시어머니가 꾸짖자 후처는 가진 것이 없어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고 했다. 이에 시어머니가 조, 노비, 소를 주며 무엇이든 해 보라고 하였다. 후처는 노비들을 전라북도 무주로 보내 농사짓게 한 다음 곽재우에게 묘수를 가르쳐 동네 부자와 바둑을 두어 천석을 벌게 하였다. 곽재우는 부인이 시키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교류를 맺었다. 부인 말대로 박을 많이 심어 수확하고, 쇠를 모아 박 모양의 바지를 만들어 두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부인은 남편에게 농사지는 곡식을 주며 의병을 일으키게 하였다. 군사들에게 옷칠한 박을 차고 다니게 하고 같은 모양의 쇠박은 왜병 앞에게 던져 놓아 조선 군사들의 용력에 놀라 스스로 물러가게 하였다. 곽재우는 전시에 붉은 비단으로 휘장을 만들어 들렀기 때문에 천강홍의장군天降紅衣將軍이라 하였다. 말년에 먹지 않고 사는 법을 배워 취산鷲山 창암滄岩에 살다가 번개치고 비 오는 날 향기를 남기고 사라졌다. 사람들은 곽재우가 신선이 되었다고 하였다.

변이 문헌설화와 달리 구비설화에는 곽재우의 비범한 능력과 활약상이 부인과 대등하게 전개되어있다. 곽재우는 유복자로 태어났고, 그의 모친은 효성이 지극한 여자로 설정되어있다. 곽재우 모친은 호환虎患을 당할 위기에 처한 시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호랑이에게 어린 곽재우를 던져 주었으나 호랑이는 해치지 않고 보호해 주었다. 곽재우의 부인은 호환으로 부친을 잃고, 원수를 갚기 위해 조선까지 호랑이를 쫓아온 중국 젊은이의 동생이었다. 젊은이가 곽재우의 도움으로

호랑이를 잡아 원수를 갚고 돌아갈 때, 동생과 함께 붉은 갑옷을 주었다. 임진왜란 때 곽재우는 바로 그 갑옷을 입고 싸워 많은 공을 세웠다. 곽재우는 꿈에 나타난 도사의 지시로 남들이 접근하지도 못하는 사나운 용마를 길들여 타고 왜군과 싸웠다. 또한 벌과 화약을 넣은 관을 보물상자인 것처럼 속여 왜병들이 가져다 열어 보게 하여 많이 다치게 했다. 한편, 곽재우 부인은 젊은 아낙네들을 모아 놓고 어차피 죽을 것이니 남편들을 따라 싸우자며 설득하여 전장으로 나가게 하였다. 구비설화의 <곽재우> 이야기에는 특히 홍의와 관련된 내용에서 다양한 변이를 보인다. 곽재우 부인이 시집 안 간 여자들의 월경대를 모으고 면화를 많이 심어 붉은 군복을 만들었는데, 솜과 월경대 때문에 총알이 들어가지 않았다. 또, 천 사람의 바늘땀으로 만든 옷은 총알을 피한다고 하며, 곽재우의 부인은 천 사람의 땀으로 붉은 옷을 만들어 주었다. 곽재우가 부친을 따라 중국에 갔을 때, 황제가 붉은 갑옷을 주었다는 이야기도 전승된다. 문헌설화에서 곽재우 부인은 이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구비설화에서는 곽재우와 함께 민담적 영웅으로 변이되어 있다.

분석 이 설화는 선조에게 버림받은 곽재우의 영웅적 활약상과 승리담을 통해 선조를 비롯한 당시 위정자들의 모순과 무능을 비판한다. 문헌설화나 구비설화 모두 곽재우의 성공 뒤에 부인의 선견지명과 대응 능력을 설정하고 있으나, 문헌설화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성공한 남성 뒤에 여성의 도움을 설정하여 남성의 성공을 약화시키거나 비하시키는 것은 문헌설화가 지닌 중요한 성격 가운데 하나이다. 역사 인물을 이인화해 역사성과 현실성을 약화시키는 것도 문헌설화의 특성이다. 구비설화에는 문헌설화보다 다양한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는데, 곽재우와 부인을 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영웅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비설화 담당 계층이 정치적으로 소외당한 곽재우를 자신의 신분과 동일시 한 결과로 보인다. 문헌설화는 곽재우를 능가하는 부인의 능력을 통해 여성만 못한 남성을 비판하고 있으나, 구비설화는 곽재우와 부인의 탁월한 능력과 승리를 통해 유능한 인재, 특히 여성을 소외시킨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다.

특징 성공한 남성 뒤에 여성의 비범한 능력과 내조를 설정한 이야기는 <정충신설화>와 <이순신설화>에서도 발견된다. <정충신설화>에서 정충신이 억지로 떠안게 된 서첩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무시하며 거들떠보지 않다가, 첩의 도움으로 공을 세운 다음부터는 첩의 말은 무조건 따른다는 내용이다. <이순신설화>에서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많은 공을 세우게 된 배경에 상사뻘이 된 처녀의 도움을 설정한 이야기도 이와 유사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대로, 신립이 위기에 처

한 처녀를 구해주었으면서도 거두지 않아, 처녀 원혼의 방해로 탄금대에서 패사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신립설화>도 있다.

의의 성공한 남성 뒤에 여성의 도움을 설정하고 있는 문헌설화에는 성공한 남성에게 대한 담당 계층의 시기와 열등감이 투영되어 있다. 이순신과 신립의 성공과 실패 뒤에 여성의 존재를 설정한 구비설화에는 무능한 남성에게 대한 비판과 함께 현실 참여에 대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남성의 삶에 있어서 여성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의 삶이 나라와 백성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여성의 존재 가치와 사회적 의미를 강조한다.

출처 東野彙輯, 於于野談, 黑龍日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5, 494; 1-7, 615; 3-1, 61, 한국의 전설(박영준, 한국문화도서출판사, 1972).
참고문헌 객재우연구(이장희, 양영각, 1984), 설화와 민중의 역사(임철호, 집문당, 1989).
필자 임철호(林哲鎬)

김현감호

金現感虎

김현이 호랑이 처녀를 만나 결연하게 되고, 이에 호랑이 처녀가 자신의 몸을 희생해 보은하는 내용의 설화.

역사 11세기경 『수이전(殊異傳)』에 실렸다고 하며 전해지는 최초의 기록은 13세기 『삼국유사(三國遺事)』이다.

줄거리 김현이 탐돌이를 하다가 처녀를 만나 정을 통하였는데, 처녀는 인간이 아닌 호랑이였다. 김현이 처녀의 오빠들(호랑이)에게 목숨을 위협받자 처녀가 김현을 구했다. 처녀는 고의로 사람들을 해칠 테니, 오빠들 대신 자신을 죽이고 절을 세워 주기를 청했다. 성 안에 호랑이가 나타나 김현이 호랑이를 잡으려 하니 호랑이가 어제의 그 처녀로 변했다. 처녀는 다친 사람에게 흥륜사의 장을 바르고 나발소리를 들려줄 것을 부탁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현은 벼슬길에 올라 절을 지어 호원사(願寺)라 하고 죽을 때에 이 이야기를 전하였다.

변이 『삼국유사』에 김현감호와 함께 수록된 <신도정설화(申屠澄說話)는 신도정이 호랑이 처녀와 결연을 맺지만 아내가 견디지 못하고 도망갔다는 이야기이다. 『보한집(補閑集)』에도 스님에게 못된 형 대신 자신이 죽기를 간청한 호랑이 소년이 인간

으로 환생하여 스님이 되는 호승설화가 전한다. 변이형 모두 인간과 이물의 만남이나 결연이 나타나는 점은 같다.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변이형에서는 불법(佛法)보다 연애 모티프가 강조된다.

분석 동물이 인간으로 변신하거나 동물과 인간이 결연하는 환상적 주제를 담은 이야기로 해석된다. 또한 불교적 영험을 드러내기 위한 신성한 이야기로도 해석된다. 왕권과 왕권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상징하는 일종의 은유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특징 교류할 수 없는 이물과의 소통, 동물의 자기희생, 이를 기리기 위한 절의 창건을 통해 환상적 설화가 불교적으로 마무리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

의의 동물이 인간으로 '변신'하는 것과, 이물과의 결연을 '욕망'하는 것이 환상성을 구성하는 주요한 두 가지 요소가 된다. 구분되어야 할 인간과 동물이 미분화된 상태로 결연하고자 하나 결국 갈등의 단초가 된다. 초기의 전기소설들이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제론적인 연구가 가능하다.

출처 大東韻府群玉, 三國遺事, 補閑集,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2, 701; 7-3, 588; 8-1, 51.

참고문헌 김현감호를 통해 본 전기소설의 형성과정과 그 특징(류준경, 고소설연구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김현감호설화의 소설적 변용 연구(방민화, 문학과종교14,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09), 김현감호설화의 연구(임재해, 한국민속학17, 한국민속학회, 1984), 김현감호의 환상적 주제(송효섭, 국어국문학95, 국어국문학회, 1986), 민족설화의 논리와 의식(임재해, 지식산업사, 1992), 설화와 민중 의식(조동일, 정음사, 1985), 조선조 애정 전기소설의 소설시학 연구(이정원,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한국 고설화론(김현룡, 새문사, 1984), 한국 설화문학 연구(소재영, 숭실대학교출판부, 1984).

필자 송효섭(宋孝燮)

김호랑이굴

김씨 성을 가진 남자가 모친의 병을 고치기 위해 호랑이로 변하여 개를 잡아 오지만 결국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는 전설.

역사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채록되었지만, 중국의 고전 『선실지(宣室志)』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실려 있음을 보아 중국에서 전파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줄거리 옛날 남해에 김 모라는 효자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하루는 어머니가 병이 났는데, 가난하여 약을 지어 드리지 못했다. 고민하던 중 꿈에 신선이 나타나

개를 100마리 잡아먹어야 낫는다고 하면서 책을 한 권 주었다. 깨어 보니 과연 책 한 권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아들은 책을 읽어 보고 호랑이로 변신해 밤마다 개를 한 마리씩 물고 왔다. 어느 날 아들이 호랑이로 변신하여 개를 잡으러 나갔는데, 어머니가 모르고 책을 불태워 버렸다. 아들은 이제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아들은 산으로 들어가 짐승을 잡아먹으며 굴속에서 살았는데, 그 굴이 '김호랑이굴'이다.

변이 이 전설은 변이형이 많다. 효자가 효도하는 대상이 주로 '어머니'이나 드물게 '아버지'도 있고, '부모'도 있다. <김호랑이굴>에서는 주인공이 '김 모'로 되어 있으나, '황팔도'라는 이름으로 된 설화도 많다. 주술책을 불태운 사람은 이야기에 따라 어머니도 있고, 아내도 있다. 호랑이로 변한 아들은 다시 산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포수 혹은 마을 사람의 손에 잡혀 죽는다. 드문 경우로 호랑이가 책을 태운 아내를 물어 죽이니 놀라서 어머니도 죽는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 예도 있다.

분석 이 설화는 여러 이름으로 많이 채집되어 있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18편, 『한국구전설화집』 - 남해군에 3편, 임석재의 『한국구전설화』에 4편이 실려 있고, 성기열, 김승찬, 최래옥 이수자도 1편씩 채집했다. 연구논문으로는 배도식의 「남해설화의 특성과 구조」, 「한국호설화 연구」가 있다.

의의 병든 어머니를 낫게 하려고 주인공이 호랑이로 변신까지 하여 효를 실천하나 성공하지 못한다. 효를 강조한 나머지 효의 실천 방법이 너무 엉뚱하고 무참하여 결국 파국으로 끝을 맺는다. 효의 실천도 인간의 도리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보여 준다.

출처 경남지방의 민담(김승찬, 제일문화사, 1986), 전북민담(최래옥, 형설출판사, 1979), 경남 해안 및 도서지방의 민속문화(김무조, 동아대학교, 1972), 설화화자 연구(이수자·박이정, 1998), 한국구전설화집-남해군(류경자, 민속원, 2011), 한국민담의 세계(성기열, 인하대학교출판부, 1982).

참고문헌 남해설화의 특성과 구조(배도식, 석당논총25,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1997), 한국구비전설의 연구(최래옥, 일조각, 1981), 한국구비전승의 연구(성기열, 일조각, 1976), 한국 호설화 연구(배도식,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필자 배도식(裴桃植)

꼬리 잘린 호랑이

토끼의 꼬임에 빠져 엄동설한에 꼬리를 냇가에 넣었다가 꼬리가 잘린 바보 호랑이에 관한 설화.

역사 생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유형의 설화가 인도로부터 유입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편, 일본의 원숭이와 곰 이야기가 이 설화와 거의 유사한 내용을 보인다는 점에서 한·일 설화가 서로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줄거리 호랑이가 동지선달에 토끼를 잡아먹겠다고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토끼를 만난다. 토끼는 호랑이에게 가재를 배불리 먹여 주겠다고 솔깃한 제안을 한다. 호랑이는 토끼와 냇가로 가서 토끼가 하라는 대로 꼬리를 물속에 넣는다. 토끼가 가재를 몰아오는 시늉을 하는 동안 호랑이는 포식할 것을 기대하면서 느긋이 앉아 기다린다. 아침이 되고 마을 사람들이 나타나자 호랑이는 동지선달에 꼬리가 푹푹 얼어붙은 것도 모르고 도망가기 위해 황급히 일어선다. 그 순간 물속에 푹푹 언 꼬리가 잘려나간다.

변이 이 이야기는 단독보다는 다른 일화들과 결합하는 예가 더 많다. 호랑이가 토끼에게 속아 밧강계 단 돌덩어리를 먹는 일화와 호랑이가 토끼의 꼬임에 빠져 숲에 앉아 새고기를 공짜로 먹으려 하다가 불에 타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현명한 재판관 토끼 이야기나 교활하고 잔인한 토끼와 할머니 이야기가 차례로 결합하기도 한다.

분석 호랑이와 토끼는 늘 빛과 그림자처럼 함께 등장한다. 연구자들은 토끼를 트릭스터로 상대역인 호랑이를 바보 듀프(Dupe,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로 본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호랑이를 트릭스터로 보는 예도 있다. 한편, 호랑이를 치자(治者) 혹은 권력자, 토끼를 피치자(피치자) 혹은 민중에 대한 상징으로 보고, 호랑이에 대한 토끼의 승리를 부당한 권력자에 대한 민중의 승리로 해석하기도 한다.

특징 호랑이의 어리석음을 극대화하여 풍자적 웃음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다른 바보 호랑이 이야기들과 같다. 한편, 호랑이와 토끼 둘만을 등장시켜 호랑이의 어리석음과 토끼의 사술(詐術)을 극단적으로 대비한다는 점에서는 여타 호랑이설화와 구별된다. 이러한 대비는 호랑이의 원초적 본능과 어리석음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의의 호랑이의 바보스러움은 Jung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 문화가 고등화하면서 내면에 억압해 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된다. 또한, 피아제 J. Piaget의 아동발달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성장기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조작기의 인지적·정서적 수준과 일치한다. 한편, 사회학적으로는 호랑이를 힘없는 민중의 착취자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4-6, 616; 5-4, 492; 5-5, 248.
참고문헌 민담의 한국화 변이양상(성기열, 구비문학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설화학 강요(조희웅, 새문사, 1989), 한국문학통사(조동일, 지식산업사, 2005), 한국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82), 한국 트릭스터담 연구(김기호,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필자 김기호(金基鎬)

나도밤나무

호환虎환을 당할 액운을 타고난 사람이 밤나무 천 그루를 심는 방법으로 도액하여 호식虎食을 면했다는 내용의 민담.

줄거리 이원수 공이 늦은 나이에 울곡을 낳아 애지중지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지나가던 도사가 어린 울곡의 얼굴을 보고는 관상이 좋기는 하지만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사주를 타고났다면 밤나무 천 그루를 심어야 호환을 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원수 공은 도사의 말대로 뒷산에 밤나무 천 그루를 심어 정성껏 가꾸었다. 마침내 울곡이 스무 살쯤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 울곡을 내놓으라고 하자, 이원수 공은 밤나무 천 그루를 심어 정성을 다했다고 하면서 거절했다. 그 사람과 함께 밤나무 수를 세어 보니 한 그루가 모자랐다. 그때 옆에 있던 나도밤나무가 나서서 자기도 밤나무라고 하니 그 사람은 호랑이로 변해 죽었다. 그 후 울곡은 호식을 면하고 훌륭한 인재가 되었다.

변이 <나도밤나무>는 아이가 타고난 호환 운명을 예언하는 사람에 따라 시주승이나 도사가 예언하는 경우와 주모가 예언하는 경우로 나뉜다. 시주승이나 도사가 등장하여 예언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인 형태이며, 주모가 예언하는 경우는 전승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한편 울곡을 잉태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는 <판관대전 설判官傳說>과 연관이 깊다. 결말도 호환을 도액度厄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나도밤나무> 유래담이나 울곡이라는 호를 사용하게 된 연유를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자료도 있다.

분석 이 설화는 타고난 액운일지라도 모종의 방도를 통해 도액할 수 있다는 민간신

앙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이야기이다. 또한 이 설화는 나무와 인간 사이에 신비한 유대감이 존재한다는 수목숭배 신앙과 연관되어 있다. 즉, 밤나무를 심고 보호하는 행위는 자식을 낳아 기르는 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로써 사람의 생명과 나무의 생명을 동일시하는 인식을 보여준다.

특징 다양한 수종 중에서 하필 밤나무가 도액의 수단으로 설정된 것은 주로 밤나무를 이용하여 위폐를 만들었던 풍속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밤나무라는 모티프는 조선 중기를 살았던 이이李珣의 호와 연관되면서 인물전설 형태를 띠기도 한다.

의의 <나도밤나무설화>는 초월적으로 미리 정해진 호환 운명도 인위적인 도액행위를 통해 번역할 수 있다는 운명인식과 함께, 나무숭배에 기초한 도액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4, 136; 7-16, 608; 8-5, 1028.
참고문헌 종교형태론(엘리아데, 이은봉 역, 한길사, 1996), 한국운명설화연구(정재민, 제이앤씨, 2009).
필자 정재민(鄭在珉)

남매탑

男妹塔

스님과 처녀가 의남매 관계를 맺고 수행에 정진하다 같은 날 입적한 것을 기려 쌓은 탑과 관련된 전설.

역사 이 전설은 구전에 따르면 신라 말엽 상원스님의 일화로 알려졌다. 상원스님이 현 남매탑 근처에 막을 짓고 수행에 정진하는 가운데 우연히 한 처녀와 더불어 평생 수행한 뒤 득도하고 입적하였다는 내용이다. 불교의 포교적 성격일 뿐 수행담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줄거리 목에 가시가 걸린 호랑이가 수행 중인 스님에게 찾아와 아픔을 호소하였다. 스님이 호랑이의 목에 손을 넣어 가시를 빼 주자 호랑이가 이내 사라졌다. 며칠 후 호랑이가 멧돼지 한 마리를 잡아 왔다. 스님이 “여기는 수행도량인데 살생을 해서 되겠느냐?” 하고 달래서 돌려보냈다. 다시 며칠이 지나서 호랑이가 한 처자를 물어다 놓고 사라졌다. 스님이 실신한 처자를 잘 간호해서 살려 놓은 뒤 집에 돌아가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처자는 스님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며 시중을 들겠다고 하였다. 스님은 출가 사문으로 시중을 받을 일이 없다 하며 다시 돌아



남매탑 | 충남 공주 | 한국관광공사

가라고 하였으나 처자는 스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출가하였다. 두 사람은 의남매를 맺고 평생 수행 정진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함께 열반하였는데 사리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 그 뒤 신라 성덕왕 때 회의화상이 도량(현 청량사)을 정비하고 탑을 모신 뒤 남매탑이라고 하였다 한다.

변이 변이형으로는 호랑이의 목에서 짐승의 가시(뼈)가 아닌 비녀를 빼냈다고 하는 사례가 있다. 스님은 목에서 비녀를 빼 준 뒤 살생한 호랑이를 꾸짖는 대목이 나타난다. 그리고 호랑이에게 잡혀 온 처녀에 대해서도 여러 서로 다른 예가 보인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호랑이와 마주친 사례, 혼인 전날 호랑이에게 물려 온 사례가 있다.

분석 이 설화는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관음암의 부현스님이 구술한 것이다. 그래서 호랑이 목의 가시를 빼 준 인물과 탑을 쌓은 인물의 제시가 구체적이다. 민간에 구전되는 보편적인 <남매탑전설>에는 상원스님이나 회의화상과 같은 인물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수행 정진하는 스님에게 호랑이가 찾아와 가시를 빼 달라고 하고 그 보은을 위해 호랑이가 처자를 물어 온 것으로 되어 있다. 보편적으로

구전되는 <남매탑전설>에는 탑을 쌓은 인물에 대해서도 구체적이지 않다. 이야기가 구전되는 가운데 중심 줄거리만 남은 것이다.

한편 심한구는 이 전설을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다루면서, 인간 무의식의 여러 원형 요소를 소재로 삼아 분석하였다.

의의 이 전설은 청량사 사찰연기설화로, 수행 정진하던 스님이 젊은 처자를 맞이하고도 흐트러지지 않고 처자와 더불어 열반하였다는 성불담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설은 불교 포교를 암암리에 의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설은 사람들에게 구전되는 과정에서 스님과 처자의 인연과 평생 남매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데에 애뜻한 관심이 더해졌다. 실제 전승과정에도 남녀의 우연한 만남과 치료, 의남매로서 서로 아끼며 살았다는 대목에 비중을 두고 있다.

출처 한국구전설화집14(박종익, 민속원, 2000), 한국민간전설집(최상수, 통문관, 1958).
참고문헌 오누이탑전설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이해(심한구, 가톨릭신학6, 한국가톨릭신학학회, 2005).
필자 박종익(朴鍾翼)

단군신화

檀君神話

고조선을 건국한 국조 단군의 신화.

역사 <단군신화檀君神話>는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국가가 세워진 사연을 담은 개국의 시조신화로서 『삼국유사三國遺事』를 비롯하여 이승휴李承休의 『제왕운기帝王韻紀』, 권람權擘의 『응제시주應製詩註』,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등 여러 문헌에 수록되어 있다. <단군신화>를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삼국유사』는 고려 충렬왕 때 일연一然이 저술한 것으로 그 저술연대를 고려 충렬왕 7년(1281) 전후로 보고 있다. 내용에 『위서魏書』나 『고기古記』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단군신화>는 이미 그 이전의 문헌에 등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군신화>는 신화의 내용으로 보아 전승되면서 도교나 불교의 영향으로 변모된 흔적이 발견된다. 본래 신화의 모습은 확실히 알기 어려우나 꿈이 여인으로 변하여 단군을 출산하였다는 수조신화獸祖神話의 흔적을 보이고 있어 동물을 숭배하던 고대사회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줄거리 『삼국유사』 「기이紀異」 고조선古朝鮮 조의 기록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 환인桓因은 서자 환웅桓雄이 하늘 아래 인간 세상에 관심이 있음을 알고 태백산 주

변을 굶어보다 그곳이 나라를 세워 다스릴만한 곳으로 여겨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주어 내려가서 다스리라고 하였다. 환웅은 무리 삼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정상으로 내려와, 바람의 신, 강우의 신, 구름의 신을 데리고 곡물과 생명과 질병과 형벌과 선악 같은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다스렸다. 그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면서 항상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빌었다. 환웅은 신령한 쑥과 마늘 20개를 주고 “너희가 이것을 먹고 햇빛을 100일간 보지 않으면 사람의 형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곰은 금기를 지킨 지 21일 만에 여인이 되었으나 호랑이는 금기를 지키지 못하여 사람의 몸을 얻는 데 실패하였다. 웅녀는 매양 신단수 아래에서 잉태하기를 빌지만, 결혼할 사람이 없어 환웅이 사람으로 변화하여 웅녀와 혼인하고 아들을 낳아 이름을 단군왕검이라 하였다. 단군은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朝鮮이라고 하였다. 뒤에 백악산白岳山, 아사달阿斯達로 도읍을 옮겼다가 다시 평양성으로 옮겼다. 나라를 다스린 지 1,500년이 지났을 때 주周나라에서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하니 단군은 장강경藏唐京으로 옮겨 갔다가 아사달로 들어가 산신이 되었는데 수명이 1,908세였다.

『삼국유사』와는 달리 『제왕운기』에는 단군의 출생 과정에 대해서 환인의 서자 단웅천왕檀雄天王이 태백산정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서 손녀에게 약을 먹여 사람이 되게 한 뒤 단수신檀樹神과 혼인시켜 낳은 아들이 단군이라고 되어 있다.

분석 <단군신화>는 한반도에서 최초로 세워진 고조선의 개국 과정을 말해 주는 신화이다. 신화의 주역은 환웅으로 되어 있는데도 신화 명칭을 <단군신화>라고 하고 단군을 한민족韓民族의 시조로 인식하는 이유는 환웅이 창건한 신시神市 집단과 단군이 건국한 조선 집단의 민족 구성이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단군의 조선은 환웅의 신시집단과 웅녀로 대표되는 곰 토tem 부족이 연합하여 새롭게 형성된 확장집단이라고 본다. 환웅 집단은 하늘에서 지상으로 하강하고 곡물의 생산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농경생활을 하였던 도래渡來 집단의 성격을 띤다. 한편 웅녀로 표상된 집단은 환웅이 곰을 여인으로 변하게 하였다는 내용에서 환웅 집단에 복속된 곰을 숭앙하는 토착집단의 성격을 띤다. 단군이 아사달 산신이 되었다는 것은 후대에 산신으로서 제향을 받는 신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특징 환웅이 신시를 개창한 태백산太白山은 신성공간으로서 지상에서 가장 높은 성산을 말한 것이다. 백두산이라는 설과 묘향산이라는 설이 있는데, 태백산을 백

산 중에 가장 큰 산이라는 보통명사로 본다면 백두산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단군신화>에는 천부인 세 개라는 통치자로서의 징표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신경神鏡, 신검神劍, 신령神鈴 또는 신고神鼓의 세 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신경은 한 집단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동경銅鏡(구리거울)인데 고대 부족장들의 묘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신검은 신성한 칼로서 군사의 통솔권을 나타내는 군주의 칼이다. 고구려<주몽신화>에서 주몽이 우리가 친자임을 확인할 때 부러진 단검을 사용하였는데 고대의 군장들은 세형동검細形銅劍 등 신성기물로 칼을 지니고 있었다. 신령은 제전祭典을 행할 때 소리를 울리는 방울이다. 신에게 인간사를 고하려면 신의 주의를 끄는 장치가 필요한데 방울소리나 북소리로 신이 귀를 기울이도록 한 뒤에 사연을 고해야 한다.

<단군신화>에서는 환인과 환웅의 부자관계가 먼저 설정되어 있고 그다음으로 환웅과 웅녀의 부부 관계가 나타난다. 여기서 환웅을 중심으로 본다면 부자관계만 나타나고 부부 관계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환인의 부인이 누구인지도 나타나지 않고 환웅의 탄생 경위도 없다. 또한 단군을 중심으로 보아도 부계는 조부부터 기술하고 있으나 모계는 어머니만 기술하고 있으며 즉위 경위는 있으나 결혼 사연은 없다. 이런 점에서 <단군신화>에서는 아버지가 중시되는 가부장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의의 <단군신화>는 천신계의 아버지와 지신계의 어머니가 결합하여 시조를 출산한다는 천부지모天父地母형 신화이다. 천부지모신화는 가부장제사회가 확립된 이후에 이루어진 신화로서 한반도의 건국신화 대부분이 천부지모신화라고 할 수 있다. <단군신화>는 한반도 최초의 개국신화라는 점에서 왕권신화의 효시라는 의의가 있다. <단군신화>에는 곰이 금기를 지켜 여인으로 변한다는 통과례를 나타내는 삽화가 있다. 이 삽화에서 곰이 금기를 지킨 굴이라는 공간은 주체의 질적 변화를 위해 통과하는 시련의 공간이고 쑥과 마늘은 주술적 효능이 있는 약품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햇빛을 피하는 100일이나 21일은 금기의 기간으로서 재탄생에 필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고대사회에서의 통과례의 일면을 보여 준다고 생각된다.

출처 三國遺事, 帝王韻紀.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의 기원(김정배, 고려대학교출판부, 1973), 단군, 그 이해와 자료(윤이홍 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한국신화의 연구(서대석, 집문당, 2001).
필자 서대석(徐大錫)

메추라기의 콩지

메추라기의 콩지가 짧은 이유를 설명하는 설화.

줄거리 메추라기가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여우에게 살려 주면 배불리 먹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메추라기는 밥을 이고 오던 여인네를 유인하여 광주리를 놓고 쫓아오게 하였다. 그 사이, 여우는 광주리의 밥을 모두 먹어 버렸다. 또 메추라기는 여우에게 우스운 꼴을 보여 주겠다고 하면서 옹기장수 형제의 옹기에 앉았다. 동생이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형의 옹기를 깨뜨리는 것을 보고 여우가 웃었다. 이번에 메추라기는 서럽고 아픈 꼴을 보여 주겠다고 하면서 여우에게 땅을 파고 들어가 코만 내밀고 있으라고 했다. 메추라기가 여우의 콧잔등에 앉아 있으니 나무꾼이 잡으려고 막대기로 힘껏 내리쳤다. 여우는 너무 아프고 화가 나서 메추라기를 죽이겠다고 하며 물었다. 그러자 메추라기는 여우에게 죽기 전에 엄마를 한 번만 불러 달라고 사정하였고, 여우가 입을 벌리자 도망가다가 콩지를 물려 털이 빠지게 되었다.

변이 토끼나 호랑이가 메추라기를 물고서 잡아먹으려고 할 때, 메추라기는 마지막으로 엄마를 한 번만 불러 달라고 요청한다. 토끼나 호랑이가 메추라기의 부탁을 듣고 '엄마'를 부르는 순간, 입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면서 도망가 버린다. 그때 토끼나 호랑이에게 물려서 메추라기의 콩지가 빠지게 되었다. 다른 변이형은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이 떨어진 꿩과 메추라기가 쥐에게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꿩은 쥐에게 공손하게 대해 양식을 받아오지만, 메추라기는 쥐를 화나게 하여 물려 콩지 털이 다 빠졌다는 이야기이다.

분석 메추라기의 콩지가 아주 짧은 것에 대한 유래담을 다양하게 보여 준다. 메추라기는 작은 새이고 맛이 좋아서 다른 동물의 먹잇감이 되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다른 동물의 먹잇감이 되었다가 풀려나는 과정에서 콩지를 물려 잘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쥐 역



여우와 메추라기 | 20세기 전반 | 국립민속박물관

시 메추라기를 먹잇감으로 삼을 만하기에 쥐가 예의 없는 메추라기의 콩지를 잡아 뜯어 버리는 것으로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징 꼬리에 관한 대표적인 이야기는 호랑이와 토끼의 꼬리에 관한 것이다. 토끼의 꼬리가 짧아진 이유는 이렇하다. 호랑이가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 토끼와 함께 꼬리를 묶고 갔다. 그런데 호랑이가 무서워서 먼저 도망가는 바람에 묶어 놓았던 꼬리가 끊어지면서 토끼의 꼬리가 짧아졌다는 유래담이다.

의의 메추라기는 여우보다 아주 작은 새에 불과하다. 하지만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상황에 처한 토끼가 호랑이를 기지로 물리치는 것처럼 메추라기 역시 여우에게 더 많은 먹거리리를 주겠다고 유인하여 결국 위험에서 벗어난다. 이러한 이야기는 강자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동물이 힘이 아닌 지혜로 강한 동물을 물리치는 서사에 해당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5-4, 978; 8-9, 689,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1, 11; 3, 234; 5, 138; 7, 364; 10, 99; 12, 57.

참고문헌 김복진의 유성기 동화의 특징(김경희, 구비문학연구31, 한국구비문학회, 2010), 한국 동물담(조희용, 문화인류학5, 한국문화인류학회, 1972).

필자 김경희(金璟姬)

문자 쓰다 장인 잃은 사위

위급한 상황에서 응통성 없이 문자를 쓰다가 장인을 죽게 만든 어리석은 사위에 관한 설화.

역사 조선시대 문헌 『고금소총古今笑叢』에 보이는 이 설화는 구전설화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전개된다. 문자 쓰기를 좋아하는 사위가 잘못하여 호랑이에게 장인을 잃는데, 귀양가기 전 자신을 전별饑別하는 외숙부에게도 조롱하는 내용의 한시를 지어 주고 결국 자신도 웃음거리가 된다.

줄거리 문자 쓰기 좋아하는 사람이 장가가서 처가에 있는데, 밤중에 호랑이가 와서 장인을 물고 갔다. 사위는 빨리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함에도 문자를 써서 “원산맹호遼山猛虎(먼 산 호랑이)가 래오처가來吾妻家(처가에 와)하야 오지장인吾之丈人(우리 장인)을 착거捉去(잡아가니)하니, 유창자有創者(창 가진 자)는 지창래持創來(창을 가지고)하고 유창자有銃者(총 있는 자)는 지총래指銃來(총을 가지고)하고,

유궁시자有弓矢者(활 가진 자)는 지궁시래指弓矢來(활을 가지고 오되)하되 무창무총무궁시자無創無銃無弓矢者(창고 총도 활도 없는 자)는 지장래指杖來(몽둥이를 가지고 오라)하라. 속속래구速速來救(빨리 오라)요, 속속래구速速來救요.”라고 소리 친다.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어서 아무도 오지 않았고, 장인은 호랑이에게 속절없이 물려 갔다. 다음 날 동네 사람들이 사정을 알고 추궁하자 “에구 에구, 차후로는 불용문자不用文字(문자를 쓰지 않겠다.) 하오리다.”라고 하였다.

변이 구전설화는 아무도 못 알아듣는 문자를 써서 장인을 호랑이에게 물려 가게 한 사위의 이야기가 기본 골격을 이룬다. 장인을 물어 간 후 동네 사람들이 사위에게 물매를 안겨도 여전히 문자를 쓴다는 화소가 추가되기도 한다. 사위가 동네 사람을 고소하는 유형에서도 문헌에서처럼 외삼촌에게 시를 지어 전별하는 화소는 빠진 채 전승되거나, 그 대신 옥바라지하는 아내에게 문자를 써서 핀잔을 듣는 내용이 더해지는 것으로 변이된다. 구전설화는 한자의 음과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기 어려우므로 한시 대신 아내와 주고받는 간단한 대화가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분석 이 설화에 등장하는 사위는 문자를 모르거나 풍습을 몰라서 무식한 바보사위 유형과 차이가 있지만, 물색 모르고 정황에 관계없이 자신의 유식함을 드러내는 주인공 역시 희화화된다는 점에서는 같은 성격을 지닌다.

의의 한문을 해독하고 구사할 줄 아는 향유자 사이에서 전승되는 이야기로, 정황에 맞지 않게 유식함을 드러내는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보여 준다. 이 설화는 우스갯소리이기는 하지만 문자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것보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나 예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출처 古今笑叢,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18, 300.

참고문헌 바보사위설화 연구(강성숙,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3, 월인, 2006), 바보사위설화의 희극미와 그 의미(김교봉, 민속어문논총, 계명대학교출판부, 1983), 바보이야기의 유형과 그 의미(이강엽, 민속민학과 전통문화, 박이정, 1997).

필자 강성숙(姜盛淑)

반쪽이

신체의 반^만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힘과 지력을 이용하여 호랑이와 옥심쟁이를 물리치고 부자가 되어 잘살게 된다는 설화.

줄거리 어떤 사람이 아이를 갖고 싶어 정성을 들인다. 한겨울 어느 날 스님이 찾아와 시주를 요청하자 색시가 쌀을 준다. 스님이 오이 세 개를 주면서 모두 먹으면 아들 삼 형제를 낳을 것이라고 한다. 색시가 오이 두 개를 먹었을 때 신랑이 돌아와 마지막 오이를 신랑과 나눠 먹는다. 이후 색시가 아들 삼 형제를 낳았는데 막내가 반쪽이다. 사냥꾼이었던 신랑이 어느 날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다. 그러자 형제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며 사냥에 나선다. 어머니가 만류하며 아들들의 솜씨를 시험하고는, 아들들이 아버지만큼 신묘한 솜씨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고 떠나게 한다. 반쪽이가 자신도 함께 가겠다며 형들을 따라나선다. 형들은 커다란 정자나무에 반쪽이를 묶어 놓고 간다. 반쪽이는 정자나무를 뽑아 집에 가져다 놓고는 형들이 그늘집 하라며 보냈다고 한다. 이번에는 형들이 반쪽이를 너럭바위에 묶어 놓고 간다. 반쪽이는 너럭바위를 저다가 형들이 깔고 앉게 놓으라고 했다가 집에 가져다 놓는다. 결국 삼 형제가 함께 길을 나섰고, 호랑이가 사는 골짜기 입구에 있는 팔죽장수네에서 묵는다. 팔죽장수 노파는 호랑이가 여인으로 변신하여 사냥꾼을 잡아먹는다는 사실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노파 말대로 해서 호랑이를 잡고 아버지의 유골과 유품을 찾는다. 그런 뒤 어머니가 호식處食당할 위기라고 노파가 알려 주자 반쪽이가 짐을 챙겨 떠난다. 석 달 열흘 거리의 집에 하룻밤 새에 도착한 반쪽이는 어머니를 위협하는 호랑이를 잡고 어머니를 구한다.

지붕과 울타리에 널려 있는 호랑이 가죽을 보고 아랫집 부자가 욕심이 나서 반쪽이에게 내기를 제안한다. 반쪽이가 부잣집 딸을 훔쳐 가면 사위가 되고, 못 훔치면 호랑이 가죽을 주기로 약속한다. 부자는 동네 사람을 모두 모아 집을 지키게 한다. 가기로 약속하고는 연속 사흘을 가지 않고 이튿날, 벼룩, 빈대만 한 대롱씩 잡는다. 넷째 날에 반쪽이가 부잣집에 가니 모두 정신을 잃고 자고 있다.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머리를 담과 문에 묶거나 기물을 썩워 놓고, 안주인에게는 성냥을 쥐여 주고, 부자 수염에는 황黃을 칠해 놓는다. 그러고는 가져간 벌레를 풀어서 부잣집 딸이 마당으로 내려오게 한다. 그 딸을 엮고 나가며 반쪽이가 소리를 지른다. 사람들이 놀라서 우왕좌왕하고 부자 수염에는 불이 붙는 등 일대 소동이 벌어진다. 반쪽이는 색시를 데려와 결혼하고, 형들은 석 달 열흘 만에 집에 도착했다.

변이 반쪽이가 호랑이를 잡는 방법으로 호랑이와의 내기가 사용되기도 하고, 호랑이를 잡는 대신 형들을 구하는 것이 반쪽이의 업적이 되기도 한다. 형들을 구하는 자료에서 반쪽이는 100명 분의 음식을 모두 먹어 치우는 대식성(大食性)도 보여 준다. 이 설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변이가 나타난다. 첫째는 반쪽이가 호랑이 사냥으로 부자가 되는 것으로만 이뤄지고, 둘째는 반쪽이의 결혼만 나타나는 것이다. 첫째 변이에서는 반쪽이와 온쪽이가 대립하는 것으로 설정되기도 하고, 반쪽이가 힘이 아닌 지략으로 호랑이를 잡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둘째 변이에서는 반쪽이가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신이한 존재로 나타나기도 한다.

분석 〈반쪽이설화〉는 전국에서 12편이 조사된 흔치 않은 유형이다. 이 설화는 반쪽이라는 신체적 특징을 가진 주인공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흥미를 유발한다. 또한 그 인물이 자신의 초월적 근력과 대단한 지략으로 장애를 제거하고 마침내 완벽한 상태에 도달한다는 점에서 이야기의 재미가 있다. 이런 면에서 주인공 반쪽이는 신화적인 존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즉, 신이한 탄생과 초인적 능력처럼 반쪽이의 자질들이 모두 초월적 비범함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렇다. 아울러 호랑이와 부자라는 자연계와 인간계의 최강자를 굴복시킨다는 점에서 초월적 지배자로서의 모습도 보여 준다.

또한 각편마다 내용도 편차를 보이고 있어서 이야기의 변형이 활발히 일어나는 것이 서사적 특징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네 단계로 진행되는 다음과 같은 서사적 공통점이 있다. 첫째, 반쪽이는 어머니가 지정된 음식을 반만 먹은 결과로 태어난다. 둘째, 신체는 반쪽이지만 힘은 보통사람 이상인 장사(壯士)로 성장한다. 셋째, 호랑이를 사냥하여 부자가 된다. 넷째, 부잣집 딸을 지략으로 훔쳐 오는 내기에 이겨서 결혼한다. 이 중에서 셋째 혹은 넷째 서사만 나타나는 변이가 이뤄지며, 셋째 서사만 나타날 때는 〈꿀 싸는 강아지〉나 〈아기장수 설화〉와 서사적 공통점을 보여 준다. 공통서사로 이뤄지는 예에서 반쪽이의 업적이 사냥이 아닌 형제 구출일 때에는 〈이야기주머니〉와 서사적 연관성이 나타난다.

특징 각편마다 편차를 보인다는 점에서 이 설화에는 민담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여러 이야기의 출입 원리가 들어 있다고 하겠다.

의의 신묘한 총 솜씨를 보여 주는 부분은 주몽전승 또는 유리왕전승에서 보여 주는 활솜씨 삽화(挿話)와 유사하다. 자신을 죽이려 한 형의 목숨을 구해 주는 자료에서

는 〈이야기주머니〉와, 호랑이를 지략으로 잡는 부분은 〈꿀 싸는 강아지〉와 비슷하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3-2, 367: 4-4, 99.
참고문헌 민담 각편 형성 원리에 대한 실증적 연구(노영근, 겨레어문학38, 겨레어문학회, 2007), 비틀어진 인물형상을 통한 인식의 전환과 변신의 의미 확장 가능성(김나영, 한국고전연구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외쪽이 설화와 지하국대적퇴치설화에 보이는 자아의 자기실현 양상(신연우, 열상고전연구15, 열상고전연구학회, 2002).
필자 노영근(盧暎根)

변신한 호랑이를 물리친 사람

사람으로 변신한 호랑이를 물리친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호랑이가 인간으로 변신하는 대표적인 이야기로 『삼국유사(三國遺事)』 「감통(感通)」에 실린 〈김현감호(金現感虎)〉라는 설화를 들 수 있다.

줄거리 호랑이를 잡으러 산에 간 포수가 큰 백호(白虎)를 발견하여 쫓았는데 빗나갔다. 이에 화가 난 호랑이가 포수를 잡아 갈기갈기 찢어 나무에 걸어 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포수의 아들은 원수를 갚기 위해 사격 연습을 시작했다. 오랜 연습 끝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실력을 시험하였는데, 자기 어머니가 지고 있는 물둥이에 엽전을 붙인 후 총을 쏘서 엽전 구멍으로 내보내는 것이었다. 이를 성공하자 아들은 실력을 갖추었으니 드디어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다고 여겨 호랑이를 찾아 나섰다. 여러 고개를 넘어 깊은 산속에 도착했는데 날이 저물어 그만 깜빡 졸았다. 그때 아버지의 환생인 듯한 까치가 나타나 졸던 아들을 깨워 산중에 문이 열두 개나 있는 기와집으로 데려갔다. 아들이 주인을 부르자 처녀가 나와 맞이한다. 포수의 아들이 그곳에 머물기를 청했으나 처녀는 자신의 집에 마흔여덟 식구가 살았는데 모두 호랑이가 잡아먹었고, 오늘 밤 마지막으로 자신을 잡아먹으러 올 것이라며 거절했다. 포수의 아들은 그 호랑이를 잡으러 왔다고 고백하고는 처녀와 같이 호랑이를 물리칠 계획을 세웠다. 한편, 호랑이는 원숭이와 토끼를 시켜 짐을 쳤는데, 운세가 좋지 않다는 소리를 듣고서도 호걸인 자신을 건드리지 못한다며 큰소리쳤다. 사람으로 변신한 호랑이가 그날따라 의관정제하여 들어가니, 벽장에서 총을 겨누고 있던 포수의 아들은 감히 쏠 수가 없었다. 마침 호랑이가 처녀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하자, 처녀는 포수의 아들에게 호랑이가 술을 먹으면 총을 쏘라고 하고는 호랑이에게 독주(毒酒)를 먹였다. 이때 포

수의 아들이 호랑이를 쫓다. 결국 호랑이는 날뛰다가 죽고, 원숭이와 토끼도 열 두 대문을 나가기 전에 죽었다.

변이 호랑이 변신담은 호랑이가 인간으로, 인간이 호랑이로 변신하는 두 종류가 있다. 전자는 〈사람으로 둔갑한 호랑이에게 잡히기〉, 〈여자로 둔갑한 호랑이의 수단에 넘어가기〉와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후자는 효자가 호랑이로 변해 부모를 봉양하는 이야기가 있다. 한편 전라남도 해남군 지역 설화에서는 신부가 산신령이 되기를 기도하자 호랑이로 변신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또 중으로 둔갑한 호랑이가 자신의 눈썹을 떼어 주자, 호랑이의 눈썹을 붙이고 보았을 때는 호랑이로 보이고 호랑이의 눈썹을 떼고 보았을 때는 다시 중으로 보인다는 〈호랑이 눈썹〉 이야기도 전한다.

분석 호랑이는 주로 노승老僧으로 변신하는데, 이때 영웅과 이인異人을 만나면 그들에게 굴복하게 된다. 이처럼 호랑이가 변신하여 인간이 되기도 하나 인간도 호랑이로 변신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호랑이로 변신한 후에는 인간으로 되돌아 오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친다.

특징 이 유형의 설화는 호환형虎患型으로 형상화되는데, 이는 오래전부터 호랑이에게 화禍를 자주 당했던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702: 2-3, 122.
참고문헌 옛 문학의 비평적 시각(김명희, 태학사, 1997), 한국설화문학연구(장덕순, 서울대학교출판부, 1970), 한국호랑이 이야기(이가원, 민조사, 1977).
필자 김명희(金明姬)

사람을 사랑한 호랑이

부처의 법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암호랑이의 인간 남성애 대한 사랑을 담은 설화.

역사 사람을 사랑한 가장 이른 시기의 호랑이 이야기는 『삼국유사三國遺事』 김현감호 金現感虎 조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현재 구비전승되는 〈사람을 사랑한 호랑이〉 이야기가 〈김현감호〉 이야기로부터 생성되었는지 아닌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현전 구비전승 이야기를 보면 〈김현감호〉 이야기의 유형을 계승한 것과 김현과 부처의 법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이와는 구별되는 이야기로 나뉜다.

줄거리 옛날 당진 신평에 사는 성 씨라는 사람이 장가를 가기 위해 열심히 탐을 돌았다. 탐을 돌던 어느 날 문득 앞서서 들고 있는 예쁜 아가씨를 발견했다. 탐돌이가 끝나자 그는 아가씨에게 자신은 장가가기 위해 탐을 돈다고 하고 아가씨는 어떠한 이유로 탐을 도는지 물었다. 아가씨는 살생을 저질러 이를 참회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가 자기와 결혼해 달라고 하자 그녀는 문득 성 씨의 손을 잡고 숲으로 데리고 가 인연을 맺었다. 그는 그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가씨를 뒤따라 가 그녀의 집에 도착했다. 아가씨의 어머니는 사정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그를 골방에다 넣었다. 얼마 후 서너 명의 남자가 방으로 들어섰다. 그들이 들어서자, 하늘에서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듣고 아가씨가 하늘을 향해 자신이 죽을 테니 오빠들을 살려 달라고 애원했다. 오빠들이 떠난 뒤 그 남자가 골방에서 나와 보니 아가씨의 자태가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아가씨는 성 씨에게 자신은 인간이 아니니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다. 성 씨는 인간이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하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노라 했다. 아가씨는 마을로 내려가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 벼슬을 준다는 방이 붙으면 자신을 죽여 달라고 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 벼슬과 현상금을 주겠다는 방이 붙었다. 그것을 본 성씨는 마을의 영감에게 찾아가 자신이 호랑이를 잡겠다고 했다. 성 씨가 창과 칼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아가씨를 다시 만났다. 아가씨는 전에 만난 절 옆에 고인 물을 상쳐 난 사람들에게 바르면 낫는다는 것을 알려 주고는 성 씨의 칼을 빼서 스스로 자결했다. 그러자 아름다운 아가씨는 큰 호랑이로 변하여 죽음을 맞이하였다. 성 씨는 호랑이를 잡은 대가로 현상금을 받고 큰 벼슬길에 올랐다. 이후 성 씨는 아가씨를 위해 망각산에 망각재 절을 지었다. 그 절은 현재 이름이 신흥사로 바뀌었다.

변이 현재 구비전승되는 이야기들을 보면 남성 호랑이가 여성 인간을 사랑하는 예도 있고 그 반대인 예도 있다. 이들 이야기를 결말 처리 방식에 따라 나누면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희극적 결말 처리를 보여 주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호랑이는 남성이며 여성 인간을 사랑하여 평생 부귀영화를 누리며 함께 행복하게 산다. 둘째, 희비극적 결말 처리를 보여 주는 이야기로 김현감호 이야기의 계통이다. 여성 호랑이는 결말에서 자신의 육신을 희생하고 영혼의 아름다운 가약을 이어간다. 마지막으로 비극적 결말을 보여 주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호랑이는 남성과 여성 둘 다 등장한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한 호랑이는 인간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다. 이처럼 이 설화는 그 변이형이 다채롭다.

분석 이 설화에 관한 연구는 <김현감호> 이야기로 한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 연구의 주된 관점은 한국 소설의 발생 문제에 놓여 있다. 다른 관점에 선 연구에서는 호랑이 처녀의 행위를 무한 영역으로 통하는 신화적 발상인 대칭적 사고로 보기도 하고, 더 큰 사회적·우주적 질서의 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이야기로 보기도 한다. 한편, 이 설화를 신성혼(神聖婚)에서 인간혼(人間婚)으로 이행하는 중간 단계의 매개 논리로 보기도 한다.

특징 여성 호랑이가 남성을 사랑한 희비극적 결말 처리의 이야기로 한정하여 보면, 여성 호랑이는 순수하게 인간 남성에게 대한 사랑과 부처의 법으로 동기가 부여된다. 즉, 부처의 가르침과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몸을 바침으로써 스스로 신성의 한가운데서 있음을 입증한다. 영적으로 본다면 이는 물론 자아실현이다. 자신을 희생하는 죽음은 차원 높은 신성으로의 변화를 재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을 통하여 스스로 신성을 입증하는 호랑이 이야기는 다른 유형의 호랑이 이야기들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의의 영적 존재로서 사람을 사랑한 호랑이는 기이함과 낭만성을 넘어 그 이상을 의미한다. 죽음을 통해 스스로 신성의 중심에 선 호랑이는 두려움과 매혹, 부드러운 삶과 사나움, 온순함과 거침을 함축하면서 무질서한 이중 세계를 조화로운 우주로 변형하는 성스러운 힘을 상징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4-1, 177: 7-3, 588.

참고문헌 김현감호설화의 형성과정과 탈불교적 의미(정상진, 한국민학논총17, 한국민학회, 1995), 김현감호의 환상적 주제(송호섭, 국어국문학95, 국어국문학회, 1986), 사람을 사랑한 호랑이 설화의 전통과 사유체계(김기호, 민족문화논총3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5), 호랑이처녀의 변신과 희생에 나타난 대칭적 사고 고찰(김정은, 남도민속연구22, 남도민속학회, 2011), The Korean Tiger-trickster and Servant of the Sacred(R. Canda, Korea Journal21, Korea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81).

필자 김기호(金基鎬)

시묘살이 도와준 호랑이

시묘하는 효자를 도와준 호랑이가 위기에 처하지만 효자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건진다는 설화.

역사 호랑이 관련 설화는 신화에서부터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호위하는 호랑이에 대한 설화는 후백제 건국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견훤의 인물됨을 알아본 호랑이는 갓난아이인 견훤을 호위한다. 이어 고려 태조 왕건의 5대조 할아버지인 호경의 이야기에서도 호위하는 호랑이가 등장한다. 이러한 호랑이의 형상



점필재 묘소 옆 호랑이 무덤 | 경남 밀양 | 2010 | 배도식

이 민담으로 전승되면서 건국영웅이 아닌 효자, 효부, 열녀와 같이 약하지만 윤리성이 강한 인간을 호위하는 존재로 바뀐다.

줄거리 최 씨가 아버지의 선산(先山)에 가서 시묘(侍墓)를 하는데 호랑이가 늘 호위해 줘서 고맙게 생각했다. 그러다가 최 씨는 왕산골에서 호랑이가 잡혔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호랑이의 가죽을 벗겨서 팔려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 최 씨가 가서 보니 자신을 보호해 준 그 호랑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값을 얼마든지 줄 테니 놓아 달라고 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를 어떻게 놓아 주냐면서도 무서워서 우리에게 들어가기를 꺼렸다. 그때 최 씨가 직접 들어가 호랑이를 꺼내 주고 만산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당장 돈이 없어 나중에 물어 주기로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고을 원님(나랏님)이 대신 물어 주고 효자각을 세워 줬다.

변이 기본적인 서사구조는 비슷하나 이 설화에 현몽(現夢)이라는 이야기가 더해지거나 호위의 대상이 효자에서 효부, 열녀로 변이되어 전승된다.

분석 호랑이 이야기의 자료들은 문헌설화, 구비설화에서 나아가 소설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중 가장 많은 수에 이르는 것이 구비설화로, 『한국구비문학대계』와 『한국구전설화』에 실려 있다.

호랑이는 선악善惡의 양면성을 지닌 동물로 설화에 전해진다. 민담에 나타나는 호랑이는 신화와 전설에 비해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로 전승된다. 그러나 윤리담倫理談에 전하는 호랑이는 효자, 효부, 열녀를 도와주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난다. 특히 자비심과 의협심을 가진 존재로 부각되면서 전설이나 민담에서 주로 충신, 효자, 열자, 의인을 도와주는 조력자로서, 정의롭거나 지조 있는 사람에게 아량과 은혜를 베푸는 동물로 등장한다.

의의 이 설화에서는 호랑이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오히려 인간에게 윤리적 교훈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승화시켜 이야기로 담아낸 우리 선조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1, 152; 6-1, 609.
참고문헌 구비설화에 나타난 호랑이의 성격 고찰(라인정, 어문연구18, 충남대학교 어문연구회, 1988), 옛 문학의 비평적 시각(김명희, 태학사, 1997), 호랑이(손도심, 서울신문사, 1974).
필자 김명희(金明姬)

신립 申昝

조선 중기의 무신 신립申昝(1546~1592)에 관한 인물전설.

역사 신립은 조선 중기의 무장으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삼도도순변사가 되어 충청북도 충주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왜군과 싸우다 순국하였다. <신립설화>의 핵심인 '신립 장군 이야기'는 그의 이적異蹟과 충주 전투를 내용으로 한다. 신립에 관한 인물전설은 문헌·구전을 통해 전승되어 왔다. 문헌설화는 『어우야담於野談』, 『대동야승大東野乘』,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대동기문大東奇聞』 등에 실려 있고, 구비설화는 각 시·군지와 『한국구비문학대계』 등에 실려 있다.

줄거리 신립관련 설화를 '출생 - 성장 - 결혼 - 이적 - 출사 - 사망'의 6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신립은 고자의 아들로 기생의 몸을 통해 출생하였다고 한다. 신립이 저잣거리에서 걸식을 하고 다니다 율곡의 눈에 들어 공부를 하게 되었으며, 호랑이를 부리고 귀신도 알아볼 수 있는 신이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권을



탄금대 | 충북 충주 | 문화재청



신립장군 순절비 및 비각 | 충북 충주 | 문화재청

이 관상을 잘 보는데 신립이 삼국대장 재목이라서 사위를 삼는다. 이적은 <신립설화>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 한 이야기를 소개하면, 신립이 사냥을 나갔다가 산중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인가를 발견했다. 사람을 찾으려 하니 소복을 한 여인이 홀로 있었다. 그 여인은 자기 집에 종의 아들이 있었는데 주인집 식솔과 종들을 모두 죽여 자신만 남게 되었다고 하였다. 처녀는 종의 아

내가 되든지 맞아 죽든지 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신립이 의기가 나서 종을 없애려고 그 집에서 묵었는데 한밤중이 되자 종이 나타났다. 신립이 화살을 쏘아 죽이고 처녀를 구해 주었다. 처녀가 자신은 의지할 데가 없는 처지라며 데려가 달라고 간청을 하였다. 신립이 자신은 이미 취처를 한 몸이라 청을 받아 줄 수 없다고 하자, 거절을 당한 처녀가 이튿날 집에 불을 지르고 자결을 하였다. 신립이 장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니 장인이 듣고 잘못된 일이라고 꾸짖었다. 그 원혼이 신립으로 하여금 조령이 아닌 탄금대에 진을 치게 하여 왜군에게 패하게 했다고 한다. 한편, 이인인 그의 장인에게 선택을 받아 무관으로 출사한 신립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도순변사로 임명을 받고 조령에 포진을 한다. 그 날 밤 꿈에 처녀가 나타나 “장군님 어찌 험산에서 포진을 하려고 하십니까? 저 넓은 충주평야로 적을 유도해서 초개처럼 섬멸시키는 것이 천하명장의 기개라고 생각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탄금대에 배수진을 치고 왜적과 전투를 하게 되었다. 왜군과의 접전이 벌어지자 대문산 탄금대 북쪽의 기암절벽인 열두대에 화살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번개처럼 활시위에 화살을 먹여 쏘았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활시위에 열이 올라 불덩이처럼 뜨거워지자 백여척이나 되는 암벽을 열두 번이나 오르내리며 강물에 열을 식혔다고 하여 열두대라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신립이 배수진을 친 탄금대는 원래 대문산 또는 견문산으로 불리던 산으로, 북으로는 남한강이 흐르고 서쪽으로는 속리산에서 발원한 달천이 흘러내려 서로 만나는 곳에 있는 독산(獨山)이다. 산세는 평탄하면 서도 남한강 쪽으로 암석이 첩첩이 솟아 기암절벽을 이루고, 경치가 좋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이다. 탄금대라는 지명은 신라 때 악성 우륵이 이곳에서 가야금을 탄주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망은, 조령에 진을 치지 않고 꿈에 나타난 처녀의 말을 듣고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왜군과 싸우다가 패하여 투신 자결하였다.

변이 신립의 이적 중 처녀의 집에 나타나 가족을 해치는 존재는 귀신, 도깨비, 이무기, 장사, 장군 등 다양하게 변이되어 나타나고 있다. 신립의 패전을 유도하는 존재도 처녀 원귀 외에 산신, 백발노인, 귀신 등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사망과 관련해서는 신립이 패전한 뒤 강물에 투신해 자결하려고 하였는데 새들이 방해하여 화살에 맞아 죽었다, 금마산에서 죽었다, 눈에 고춧가루를 뿌려 죽었다, 고향에 돌아가 자살했다,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등 다양하게 변이되어 있다. 사후담은 문헌설화에는 나타나지 않고 구비설화에 주로 지명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분석 <신립설화>는 출생부터 사망까지 고르게 일화가 전승되고 있으며, 영웅의 일생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출생에 대한 이야기는 문헌설화에는 나타나지 않고 구비설화에서 비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이야기되며, 성장 시 율곡의 눈에 들어 수학하는 등 구출 양육자를 만난다. 이는 그가 비범한 인물임을 암시하고 있다. 결혼담은 신립이 권율의 사위이며 권율을 이인이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는 임진왜란의 영웅인 권율의 선택을 받았다면 장차 그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인물이라는 복선을 깔고 있으며, 그가 훌륭한 장군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이적담에서는 용력과 지혜가 뛰어나 종을 퇴치하는데, 이는 신립이 장차 문무를 겸비한 장군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가 청혼을 하는 처녀의 청을 거절하자 처녀가 자결을 하여 원귀가 되는데, 이런 원귀형 전설에서 억울하게 죽은 원혼은 보상을 받기 위한 현실적 방법으로 인간 세상에 재생하고 있다. 원귀 모티프는 신립 장군이 탄금대 전투에서 패한 것을 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원귀의 탓으로 돌려 패배에 따른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신립이 처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내용에서 전승자들은 신립을 통해 도덕적 명분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양반들의 형식적 사고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이 전설은 신립이 포용력이 부족해서 왜군에게 패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통해 암암리에 전달하고 있다.

특징 문헌설화에서는 신립이 충주 전투에서 패한 것은 무능하고 용렬하며 지략이 부족한 그의 개인적인 능력의 한계 때문이라고 하는데, 구비설화에서는 이를 원귀의 작용으로 해명하고자 했다. 신립을 실패한 영웅으로 이해하고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의의 <신립설화>는 신립이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패사했다는 역사적 사실과 관련하여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립과 처녀의 은원관계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처신과 인간관계의 본질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유형은 인물의 실제 행적과는 상관없이 향유층에 의하여 변형될 수 있다는 단서를 제공해 주는 자료이다.

출처 大東奇聞, 大東野乘, 於野談, 燃藜室記述,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2, 70: 3-1, 309: 4-2, 133: 7-8, 947: 7-18, 342, 전설지(충청북도, 1982).

참고문헌 신립설화의 역사적 의미와 기능(임철호, 구비문학연구12, 한국구비문학회, 2001), 신립장군설화의 세계 인식(신동훈, 연가재신동익박사 정년기념논총, 경인문화사, 1995), 신립전설연구(이준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필자 한종구(韓宗求)

여름에 홍시 구한 효자

정성이 지극한 자식이 부모가 먹고 싶어하는 구하기 힘든 과일을 구한다는 내용의 효행설화.

- 역사** 『삼국사기三國史記』 열전의 지은, 설씨녀, 『삼국유사三國遺事』 「효선」의 진정, 대성 그리고 『고려사高麗史』 열전과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조선 후기 문헌 설화집 등에서 시대별 효자들의 효행담을 볼 수 있다.
- 줄거리** 병으로 오랫동안 누워 있는 모친이 홍시를 찾았다. 때는 6월 여름이어서 효심이 깊은 아들이 아무리 찾아도 홍시를 구할 수가 없었다. 깊은 밤 장에 다녀오는 길에 호랑이가 나타나 아들에게 등에 타라고 했다. 아들이 호랑이를 타고 어느 집으로 가니 마침 제삿날이었다. 아들은 제사상에 올렸던 홍시를 얻었다. 아들이 호랑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홍시를 어머니께 드렸더니 맛나게 드셨다.
- 변이** 효행담의 주인공은 아들, 며느리, 수양아들, 수양며느리, 딸 순위로 나온다. 부모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인 예가 많다. 홍시 대신에 잉어, 죽순과 대추, 천도복숭아, 능금, 예게나무, 꿩 알 등이 나오기도 한다.
- 분석**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전승하는 민담이다. 효는 유교 사회에서 국가적 이념이지만, 그 실체는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극히 일상적인 사건이다. 효는 자식이 부모에게 드리는 존경과 애정으로 충과 열에 앞서는 가치이지만, 실제로 치사량은 어려워 자식이 부모를 잘 섬기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효행담의 서사구조는 ‘환경의 제시 - 장애 - 효(불효)의 발생 - 효과 - 결과에 따른 보상’이라는 절차를 밟는다. 유학에서의 효는 부자 중심이지만 실체는 모자간의 이야기가 많은데,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살기 때문이다. 효행의 중심 인물은 며느리이다. 효행은 먹고사는 일, 즉 생활의 문제이므로 가정 안에서 의식주를 전담하는 며느리의 의사와 행동이 관건이다. 딸은 출가외인으로 양아들, 수양며느리 보다는 못하다. 효행담의 제보자는 40대 이상 60~70대가 많으며, 화자는 부모 처지에서 이야기를 구술한다. 효행이 노년층의 중요한 관심이기 때문이다.
- 특징** 여름에 홍시를 구하고 겨울에 잉어를 구하는 보상은 일견 기적으로 보이나 그 내면에는 지극한 정성이 중요하다는 교훈이 들어 있다. 호랑이를 타고 남의 제사에서 홍시를 얻어오는 일은 마치 동화화도 같이 환상적이지만, 이가 모두 상

하고 없어 물렁물렁한 것만 씹을 수 있는 노인이 되어 단것을 먹고 싶어하는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 의의** 『삼국사기』 열전의 지은과 『삼국유사』의 <손순매아>처럼 유학이 한국에 들어와 충효열이 중심 이념이 되기 전에도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는 한국인에게 이미 중시되었다. 하지만 <고려장설화>나 부모를 팔아먹는 이야기처럼 효행은 실천이 어렵다는 관점도 드러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3-3, 36; 6-11, 600; 7-17, 319; 8-4, 592.
참고문헌 구비 효행설화의 거시적 조망(김대숙, 구비문학연구3, 한국구비문학회, 1996), 한국 효행설화의 성격 연구(최래옥, 한국민속학10, 한국민속학회, 1977), 효행설화의 고난 해결방식과 그 의미(박영주, 도남학보16, 도남학회, 1997), 효자 호랑이설화에 나타나는 효 관념(강진옥, 민속연구1,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1).
필자 김대숙(金大淑)

여자 음부 보고 도망간 호랑이

여자 음부를 보고 괴물이라 착각하여 도망간 바보 호랑이 이야기를 담은 설화.

- 역사** 여성의 성기를 소재로 삼는 설화의 성적 담론을 활용하여 호랑이의 어리석음을 극대화하였다. 하지만 성인의 담론에 속하는 성적인 소재 때문에 전승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 줄거리** 봄날에 만동서와 둘째 동서, 막내 동서가 산나물을 캐러 산에 갔다가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호랑이를 만난다. 아직 아이가 없는 막내 동서가 호랑이의 밥이 되겠노라고 하고 두 동서를 산에서 내려가게 한다. 막내 동서는 기왕 죽게 된 상황이니 호랑이가 먹기 편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발가벗는다. 호랑이 밥이 되기로 작심은 하였으나 겁이 난 막내 동서는 엉덩이를 호랑이 쪽으로 향하고 뒷걸음치며 다가간다. 호랑이는 다가오는 여자의 엉덩이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겁에 질린다. 다른 동물은 다 입이 가로인데 다가오는 동물의 입은 세로인데다가 그 입에서 빨간 피가 흐르고 검은 수염이 보였기 때문이다. 호랑이는 잘못하다가는 이 동물에게 죽고 말거라 생각하고 슬슬 뒷걸음치면서 도망가다가 마침내 절벽에 떨어져 죽고 만다.
- 변이** 호랑이와 여성이 대립하는 구조로, 호랑이를 만난 여자가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나타난다. 여자가 발가벗거나 치마를 뒤집

어쓰고, 또 산발한 머리를 뒤로 넘긴 채 뒷걸음치는 예가 있다.

분석 호랑이의 바보스러움을 부각하기 위해 금기시된 여성의 성기를 활용한 것은 기발하지만, 바보 호랑이 이야기의 주 전승 집단인 아동이 향유하기엔 표현상 적절하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로 짧은 일화 형식을 띠며 전승 또한 활발하지 못하다. 이 유형의 이야기는 바보 호랑이 이야기의 한 유형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특징 이 이야기는 호랑이의 바보스러움을 부각하기 위해 남성의 성기를 활용한 이야기와 대비된다. 남성의 성기는 여성의 성기든 둘 다 호랑이의 어리석음을 극대화하기 위해 활용되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여성의 성기를 소재로 삼은 이야기는 호랑이의 여성성과 관련된 의미망을 형성하는 것으로 추측한다.

의의 여성의 성기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의 사회학적 의미를 추출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3~5세 아동기를 남근기라 하여 성에 대해 활발하게 상상하는 시기로 본 프로이트Freud의 관점을 원용하면, 이 이야기는 자기중심적인 남근기 아동의 성적 상상에 기댄 성인의 이야기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6-6, 588; 7-6, 403.
참고문헌 구비문학 속에 나타난 호랑이의 원형(김필래,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한국의 호랑이 민담 연구(황정화,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한국트릭스터담 연구(김기호,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한국 호랑이설화의 서민적 상상력 연구(신종원,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호랑이설화에 나타난 민중 의식(김혜진,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필자 김기호(金基鎬)

임지한

林支漢

고려 때 경상북도 경주에서 일어난 반란을 평정한 아전衛前 임지한에 관한 설화.

역사 임지한은 고려 원종 때 충신으로 본관이 예천이다. 『양양기구록襄陽耆舊錄』에는 강원도 양양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았을 때 경상북도 예천 사람으로 추정된다. 임지한은 아전으로서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도적 무리 최종, 최적, 최사를 평정하는 공을 세워 나라에서 벼슬을 주려고 하였으나, 상주 관내에 소속된 다인현을 예천군에 귀속시켜 군세를 확장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진정陳情하였다. 원종이 이를 허락한 뒤 다인현은 일제강점기인 1906년까지 예천군의 행정구역이 되었다. 이처럼 임지한은 후손들의 영광을 위해 개인의 영달을

희생할 줄 알았던 덕 있는 사람이며, 분수를 지킨 인물이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임지한은 호랑이를 부릴 줄 아는 날렵하고 출중한 인물이자 출세욕을 가진 인물로 전설화되었다.

줄거리 임지한과 관련한 대표적인 이야기는 호랑이를 부린 일화이다. 임지한이 아전으로 있을 때, 예천에 부임한 원이 임지한을 서울에 심부름 보내려고 하였다. 일을 맡은 임지한은 곧바로 시작하지 않고 밤에 호랑이를 불러서 타고 서울에 갔다 왔다. 심부름한 결과로 임지한이 원에게 선물을 받거나 호랑이를 타고 다니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한다. 일부 설화에는 반란군을 꾀로 물리치는 활동담과 임진왜란과 호열자에 관련된 후일담이 전승되기도 한다. 또 경북 봉화 지역 설화를 보면 임지한과 명확하게 연결되지 않지만 탄생담으로 여길 수 있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변이 <임지한설화>에 나타난 변이양상을 보면, 우선 그의 신분은 공방, 아전 또는 농촌의 이름 없는 인물로 되어 있다. 서울에 갔다 오는 이유도 원의 부모를 위한 생신 선물이나 약을 사거나, 내란 소식이나 다른 편지를 전하는 것이다. 심부름한 대가는 원이 다른 곳으로 부임하여 못 받기도 하지만, 다인현을 상주에 속하게 해 주거나 뒷자리나 산을 받기도 하며, 그 내용이 아예 나오지 않는 예도 있다. 한편, 강원도 양양에서 채록한 설화는 양양 지역과 억지로 연결해 놓은 무리한 내용이지만, 반란을 평정하는 과정이나 임진왜란이나 호열자에 관련된 후일담이 나타나므로 다른 곳에 없는 종합적인 이야기이다.

분석 이 설화는 전승 지역에 따라 탄생지와 활동지 그리고 무덤의 위치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 설화의 가장 큰 요소는 임지한이 호랑이를 타고 다니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가 경주에서 일어난 반란을 척결하였다는 데서 비롯된 것 같다. 그런데 공을 세운 임지한은 실제로 대우를 받지 못한 인물로 보인다.

의의 이 설화는 호랑이를 타고 다니는 민중적 영웅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그리고 명확하게 연결되지 않지만 아기장수와 관련된 탄생담을 가지고 있으며, 반란을 척결한 결과에 제대로 보답 받지 못한 대신 다인현을 예천군 관할로 소속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

출처 내 고장 예천(이영호, 예천군, 1984), 예천군지(예천군지편찬위원회, 2005),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5, 50; 7-10, 770; 7-17, 45; 7-18, 57; 289.
참고문헌 장수설화의 구조와 의미(강현모, 역락, 2004).
필자 강현모(姜賢模)

춤추는 호랑이

삼 형제가 집안의 보잘것없는 물건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하여 돌아온다는 내용의 모험담 성격의 설화.

줄거리 옛날에 삼 형제가 아버지에게 지팡이·농작·방울을 유산으로 받는다. 삼 형제는 유물을 들고 각자의 길을 떠난다. 첫째는 산속에서 여우가 무덤 속에서 꺼낸 해골을 뒤집어쓰고 할머니로 둔갑한 것을 목격한다. 둔갑한 여우가 마을 잔칫집으로 들어가 신부를 건드리자 신부가 쓰러진다. 첫째가 신부 맥을 짚는 척하다가 지팡이로 둔갑한 여우를 후려치자 신부가 살아난다. 첫째는 신부를 살려 보상을 받고 여우 잡은 지팡이도 팔아서 고향집으로 돌아온다. 둘째는 종에게 쫓겨 목숨이 위험한 여자를 농작에 숨겨 주어 목숨을 구한다. 둘째도 여자를 데리고 고향집으로 돌아온다. 막내는 큰 나무 밑에서 잠을 자다가 호랑이때를 만난다. 막내가 나무 위로 피신하자 호랑이들이 무동을 타고 올라선다. 막내가 방울을 흔들자 맨 아래 호랑이가 방울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바람에 무동을 탄 호랑이들이 모두 떨어져 죽는다. 막내는 호랑이 가죽을 팔아서 형들이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온다.

변이 삼 형제가 지닌 물건은 지팡이·북·장구이거나 활·쇠망치·장구 또는 맷돌·북·나팔로 설정되기도 한다. 삼 형제가 물건으로 도깨비를 놀라게 하여 도깨비방망이를 얻거나 도깨비들의 말을 엿듣고 사경을 헤매는 정승 딸을 구하고 결혼하는 예도 있다. 활을 쏘아 달려드는 백호를 혼내 주거나 쇠망치로 도깨비를 혼내 주고 처녀를 구하기도 한다. 무동을 탄 호랑이를 춤추게 하는 도구는 장구, 나팔, 버들피리, 북과 같은 다양한 악기로 설정된다. 이 설화는 <여우 잡은 소금 장수>, <무당 호랑이>로 각각 독립된 유형으로 전승되기도 한다.

분석 삼 형제가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받거나 집을 떠날 때 가지고 가는 물건은 지팡이, 북, 나팔, 농작, 방울, 장구로 하나같이 보잘것없는 것들이다. 삼 형제는 각자 다른 길로 흩어진다. 이는 삼 형제가 이제 부모 형제도, 재산도, 어떤 배경도 없이 오로지 혈혈단신으로 세상과 맞닥뜨려야 하고, 자신의 힘으로 역경을 이겨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삼 형제의 숨겨진 내면의 힘은 보잘것없는 물건으로 대변된다. 지팡이로는 과감한 결단력과 냉철한 변별력을 발휘하여 둔갑한 여우를 잡고, 농작으로는 포용력을 발휘하여 한 생명을 구한다. 방울·장구·북·나팔·피리로는 예술적 영감, 감각을 발휘하여 본능적이고 야성적인 호랑이를 춤을 추게 만들어 성공을 이끌어 낸다.

특징 <춤추는 호랑이>의 독립된 삽화插話는 핀란드, 스페인, 프랑스, 독일, 헝가리, 러시아, 인도 등 전 세계에 분포한다. 아르네 - 톰슨의 설화 분류 유형 중 <무동을 타고 나무 위로 오르는 이리Wolves climb on top of one another to tree, AT121>로 분류되는 소담笑談·소화笑話·희극적 민담이다. 한국 설화에서는 <춤추는 호랑이> 삽화가 각각의 삼 형제 삽화와 결합하여 전승되기도 한다.

의의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설화인 만큼 다른 나라 설화와 비교함으로써 보편성·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출처 조선설화집(손진태, 최인학 역, 민속원, 2009),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5-6, 161; 7-8, 555,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1, 88; 4, 221.
참고문헌 용, 호랑이 탄 한국인과 놀다(이나미, 민음인, 2010), 한국민족설화와 호랑이(황재강, 국어국문학55-57, 국어국문학회, 1972).
필자 박현숙(朴賢淑)

토끼의 재판

은혜 잊은 호랑이를 꾀 많은 재판으로 다시 함정에 빠뜨린 토끼에 대한 설화.

역사 꾀 많고 지혜로운 토끼의 형상은 일찍이 인도의 불경 『본생경本生經』에 실린 <용원설화龍猿說話>의 원숭이와 『삼국사기三國史記』 김유신 조에 나오는 <구토지설>의 토끼, 판소리 <수궁가>와 고전소설 <토끼전>의 토끼와 닮았다.

줄거리 옛날 어떤 사람이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만난다. 호랑이는 그를 보자 살려만 주면 은혜를 갚겠다고 애원한다. 그 사람은 함정의 문을 열어 호랑이를 구해주지만, 함정에서 나온 호랑이는 그를 잡아먹겠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그는 억울하니 재판을 해 보자고 호랑이에게 제안한다. 호랑이는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려 줄 곳만 찾아간다. 먼저 바위에게 가서 부탁하는데, 평소 사람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은 바위는 호랑이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 다음으로 토끼한테 가서 재판을 부탁하자 토끼는 호랑이가 빠졌던 함정으로 가 보자고 한다. 함정에 도착하자 토끼가 호랑이에게 함정에 어떻게 빠졌는지 다시 들어가 보라고 한다. 호랑이는 토끼의 말에 따라 다시 함정으로 들어가고, 이것을 본 토끼는 사람에게 함정의 문을 닫게 한다. 이렇게 토끼는 사람을 위해 현명한 재판을 해 주고는 떠난다.

변이 <토끼의 재판>은 각 인물에 부여된 역할이 분명하여 각편에 따른 내용의 차이가 거의 없다. 다만, 사람이 사냥꾼이나 중으로 바뀌는데, 그 역할에도 차이가 없다. 보조 재판관 역시 바위, 나무, 가재로 바뀌며 등장하지만, 사람에게 부정적인 판결을 내리는 역할은 같다.

분석 이 이야기는 자기중심성에 빠진 호랑이의 비극적 결말과 토끼의 탈중심화된 행동을 보여 주어 성장기 아동들에게 탈중심화를 자극할 만한 문학적 도구로 이해된다. 한편,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를 착취자로, 약하지만 지혜로운 토끼를 민중으로 보아 착취자에 대한 민중의 승리로도 해석한다.

특징 설화에서 토끼는 약자를 대변하는 지혜로운 인물이기도 하지만 비도덕적이고 잔혹한 인물이기도 하다. 전자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토끼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 하겠고, 후자는 원초적이고 유년기적인 심성을 반영한 트릭스터적인 토끼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 하겠다.

의의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토끼는 약자이지만, 부당한 상황에서 강자에게 지혜로써 대항하여 이길 수 있다는 민중의 염원을 대변하는 자이다. 또한, 아동발달심리학의 관점에서 피 많은 토끼는 자기중심성을 가진 아동에게 발달론적 자극을 제공하여 탈중심화를 이끄는 문학적·교육적 상징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6-2, 706; 7-16, 359.
참고문헌 구비문학 속에 나타난 호랑이의 원형(김필래,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민담의 한국화 변이양상(성기열, 구비문학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설화문학개설(장덕순, 이유, 1975), 한국의 호랑이 민담 연구(황정화,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한국트릭스터담 연구(김기호,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필자 김기호(金基鎬)



영모도 | 국립민속박물관

팔죽할멈과 호랑이

반복담으로 할머니가 여러 동물과 지게와 같은 도구의 도움으로 호랑이의 위협에서 벗어난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손진태는 이 설화가 불전佛典설화에서 유래하여 티베트와 몽골을 거쳐 우리나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줄거리 산골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밭에 팔을 심고 있는데,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나서 할머니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할머니는 팔농사를 다 지어 동짓날 팔죽 쑤어 먹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다. 여름, 가을이 지나고 동짓날이 되어 호랑이가 올 때가 가까워지자 할머니는 팔죽을 쑤면서 눈물을 흘린다. 그런데 할머니 앞에 알밤, 송곳, 개똥, 맷돌, 자라, 명석, 지게가 차례로 와서 팔죽을 달라고 한다. 그리고 팔죽 한 그릇씩 얻어먹더니 호랑이를 물리치도록 도와주겠다고 한다. 밤이 되어 산에서 내려온 호랑이가 팔죽을 달라고 하자, 할머니는 호랑이에게 부엌에 가서 먹으라고 한다. 부엌으로 들어간 호랑이는 알밤에게 눈을 얻어맞고 앞을 못 보게 된 상태에서 자라에게 코를 물린다. 또 개똥에 미끄러지고, 송곳에 찔린 후 맷돌에 맞아 죽는다. 명석이 돌돌 말은 호랑이를 지게가 등에 싣고 가 깊은 강 속에 던져 버린다.



노파와 호랑이 삽화 | 20세기 전반 | 국립민속박물관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해와 달의 기원을 설명하는 설화.

변이 할머니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려는 상황은 각편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그냥 잡아먹으려 하거나, 팔 까기 내기에 저서, 혹은 농사지은 팔으로 팔죽을 끓여 준 뒤에, 아니면 발매기 시합에 저서 등 다양하다. 팔죽을 끓인 뒤 할머니는 자신이 억울하게 죽게 되었다며 서럽게 우는데, 이때 나타난 원조자들의 존재나 도움 방식, 순서도 작품마다 조금씩 다르다. 할머니 방의 등잔불을 끄는 역할은 날파리가, 아궁이에서 호랑이의 눈을 못 뜨게 하는 역할은 알밤(또는 달걀, 총알)이 맡는다. 눈을 물통에서 씻으려 할 때 게(또는 자라)가 발을 깨물고, 송곳이 호랑이의 등 또는 엉덩이를 찌르며, 개똥(쇠똥)이 호랑이를 넘어지게 한다. 멧돌(또는 절구통)이 호랑이의 머리를 쳐서 죽게 하며, 명석과 지게는 늘 일정하게 보복의 마지막 순서를 맡는다.

분석 핀란드 설화학자 아르네A. Aarne의 비교문학 연구에 의하면, 이 이야기는 한 갈래가 아시아에서 발생하여 서남아시아로부터 발칸 반도를 거쳐, 러시아·독일·이탈리아·스페인까지, 동쪽으로는 중국·한국을 거쳐 일본에 이르렀고, 다른 갈래는 몽골을 거쳐 베링 해협을 건너 캐나다·북미 서안西岸으로, 또 한 갈래는 수마트라·자바로 전파되었다고 한다.

의의 뼈 빠지게 농사지은 팔과 할머니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던 호랑이는 탐욕스러운 권력자를 상징하고, 이에 맞서 할머니를 구해내는 동물과 물건들은 약자와 민중을 상징한다. 이 설화는 아무리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라도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6, 560,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2, 58; 4, 165; 5, 121; 6, 67.

참고문헌 조선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7), 한국설화의 유형적 연구(조희용, 한국연구원, 1983), 한국 호랑이이야기의 현황과 유형(허원기, 동화와번역5,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03).

필자 권혁래(權赫來)

줄거리 호랑이가 이웃 부잣집에 품일을 갔다 오던 늙은 어머니를 잡아먹고는 어머니의 옷과 머릿수건으로 변장을 하고 오누이가 있는 집으로 찾아가 문을 열고 한 다. 오누이는 문구멍으로 내다보고는 호랑이인 줄 알고 뒷문으로 도망쳐 나무 위로 피한다. 이를 추격하여 호랑이가 나무로 올라오자 오누이는 하늘에 빌어 하늘에서 내려준 쇠줄을 타고 올라가 해와 달이 된다. 호랑이도 오누이를 쫓아 썩은 동아줄을 타고 하늘에 오르다가 줄이 끊어져 수숫대 위로 떨어져 죽는다. 하느님이 오빠는 해, 동생은 달이 되게 하였지만 동생이 밤이 무섭다고 하여 역할을 바꾸어 오빠는 달, 여동생은 해가 된다. 여동생은 낮에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이 부끄러워 강력한 빛을 뿜어낸다.

변이 이 이야기는 민담화되면서 많은 변이들이 발생한다. 호랑이가 개입하여 동물담으로 구연되면서 “살려주시려면 굶은 동아줄을, 죽이시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라는 오누이의 기원을 호랑이가 따라하다가 실패하는 모방담 형식이 덧붙었고, 호랑이의 추락과 죽음으로 인해 수숫대가 붙어진 유래담도 형성되었다. 이본에 따라서는 호랑이의 위치에 개나 늑대가 오기도 한다. 또, 해와 달에 관한 기원담은 생략되고 수숫대가 붉게 된 유래만 내용으로 삼는 유형도 있다.

하지만 천상에 올라간 오누이의 역할 바꾸기가 민담의 장에서는 큰 논란이 되어서 여러 변이형들이 나타났다. 본래 신화에서는 오빠가 늘 누이를 쫓아가므로 오빠는 달, 누이는 해가 된다. 그런데 민담에서는 누이가 밤이 무섭다고 해서 오빠가 달이 되거나, 오누이가 싸우다가 오빠가 누이의 눈을 찢어서 누이가 해가 되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누이가 무섭다고 해도 오빠가 한 번 정해진 것을 바꿀 수가 없다고 하여 오빠가 해가 되는 유형도 있다. 해와 달이 양과 음의 표상이 되면서, 원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쪽과 남성이 양이라는 고착화된 이미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쪽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논란이 이 민담의 변이 유형으로 나타난 것이다.

분석 해 - 누이, 달 - 오빠 또는 해 - 오빠, 달 - 누이 형식의 민담은 전 세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 해와 달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일월日月기원신화로도 불린다. 한국에서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또는 ‘해님 달님’ 등의 제목으로 널리 구전되어 왔다. 가장 일찍 채록, 보고된 자료가 위에 제시한 내용인데, 1911년에

경상남도에서 오수화가 구연한 <해와 달>(정인섭 채록)이다. 한국의 민담을 소개하고 있는 영문 도서에 ‘The Sun and the Moon’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자료에서 줄거리만 정리되어 있지만 이 유형 민담의 기본 화소를 잘 갖추고 있다. 호랑이의 어머니 살해, 호랑이와 오누이의 대결, 오누이의 승천과 호랑이 칭치, 남매의 일월 자리 바꾸기가 그것이다. 기본적으로는 호랑이가 등장하는 동물담 형식의 민담이지만 온전히 동물담만은 아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신화적 맥락과 민담적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한다.

특징 쫓고 쫓기는 관계가 이 이야기의 동력인데, 쫓는 존재가 반드시 동물인 건 아니고 사람인 경우도 흔하다. 만주족과 이누이트족 신화에는 오빠가 누이를 쫓는다. 나나이족은 남자가 여자를 쫓고, 일본의 경우는 쫓는 자의 위치에 계모가 있다. 또 다른 만주족 신화에서는 올케와 시누이의 관계에서 올케들이 시누이를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다.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공인 경우에는 가족 내에서의 갈등이 쫓고 쫓기는 관계로 나타난다. 따라서 오누이의 경우도 가족 관계 내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누이 관계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는 근친상간 터부이다. 홍수신화에도 남매혼 모티프가 나타나는데, 근친상간 금지가 문제로 제시된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도 이 맥락에 있다. 이누이트 신화를 보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가 밤마다 여자를 찾아오는데, 여자가 남자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램프 그을음을 기름에 섞어 젓꼭지에 바른다. 다음 날 오빠의 입술이 시커멓게 된 것을 본 누이가 부끄러워 마을을 떠나자 오빠가 뒤따라간다. 계속 쫓고 쫓기며 동생은 해가 되고 오빠는 달이 되었다. 오빠가 동생을 따라잡는 경우에는 일식이 일어난다. 일월의 기원과 일월식의 기원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화는 근친상간 문제를 일월 기원의 핵심적인 동기로 제시하고 있다. 약간의 변형이 있기는 하지만 만주족 신화도 동일한데, 쫓아가는 오빠의 거울이 달이 되고 도망치는 누이의 등불이 해가 된다.

이런 신화적 맥락에서 보면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오누이도 유사한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쫓는 존재는 오빠가 아니고 호랑이다. 쫓기는 존재도 누이가 아니라 오누이로 차이가 크다. 그러나 호랑이는 신화가 민담화되는 과정에서, 다시 말하면 근친상간 모티프가 지워지는 과정에서 오빠를 대체한 동물일 수 있다. 오누이가 쫓고 쫓기는 신화에는 ‘일을 나가 집을 비운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는다. 늑대가 쫓는 아이누족, 표범이 쫓는 징포족 신화에도 어머니는 없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어머니의 존재는 한국 민담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심층에는 오빠가 누이를 쫓는 일월기

원신화가 있고, 그 위에 오빠를 대신하는 호랑이, 또 그 위에 어머니를 잡아먹는 호랑이 모티프가 덧입혀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의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이 민담은 한국 일월기원신화의 자취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신화가 민담화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구비문학적 의의가 있다. 동시에 민담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적 변이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의도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4, 811; 1-5, 308; 2-6, 473; 2-7, 513, Folk Tales from Korea(Zong In Sob, London Univ. 1952).
참고문헌 한국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7),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 나타난 변형된 모성, 나르시시즘적 욕망(노제운, 어문논집47, 민족어문학회, 2003), 해와 달이 된 오누이형 민담의 창조신화적 성격 재론(조현설, 비교민속학33, 비교민속학회, 2007).
필자 조현설(趙顯高)

호랑이 눈썹

전생 모습을 보여 주는 호랑이 눈썹을 구해 발복한 사연을 전하는 민담.

줄거리 옛날에 어떤 남자가 결혼해서 사는데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고 괴롭기 그지없었다. 남자는 차라리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겠다고 결심하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호랑이가 남자에게 눈썹을 하나 뽑아 주면서 그걸 대고 사람들을 살펴보면 전생의 모습이 보일 거라고 했다. 남자가 눈썹을 대고 살펴보니 많은 이들이 사람이 아닌 동물로 보였다. 자기 부부를 보니 자신은 본래 사람이고 아내는 암탉이어서 일이 그렇게 안 풀린 것이었다. 마침 집에 어느 부부가 손님으로 들었는데 눈썹을 대고 살펴보니 남자는 수탉이고 여자는 사람이었다. 그 부부 또한 되는 일이 없었던 터라, 두 부부는 상의 끝에 서로 짝을 바꾸어서 살기로 하였다. 짝을 바꾼 뒤로 남자는 하는 일마다 잘되어 큰 부자가 되었다. 나중에 보니 전 아내의 부부도 부자가 되어 잘살고 있었다.

변이 호랑이가 눈썹 대신 안경을 준다고 되어 있는 각편도 몇 있다. 그리고 눈썹에 비친 남자와 여자의 본모습이 무엇이었는지도 자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자가 사람이고 남자가 동물인 예도 있으며, 동물은 닭이 아닌 개나 돼지, 너구리, 소인 예도 있다. ‘호랑이 눈썹’ 화소는 <구렁덩덩신선비> 민담의 현각시와 새각시 시험 과정에서 탐색 대상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분석 이 설화는 겉으로는 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그 본모습은 제각각이며, 그것은 사람의 전생과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호랑이 눈썹을 눈에 댄다는 것은 ‘호랑이 눈’이 되어 대상의 본질을 본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 설화는 서로 본성이 통하는 사람끼리 짝을 이루어야 삶이 잘 풀린다는 인식을 ‘부부 바꾸기’라는 화소를 통해 부각하고 있다. 이는 문학치료 연구에서 성격 차이에 따른 부부간 갈등을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별과 새 출발이 유력한 문제 해결 방법임을 시사해 준다는 것이다.

특징 전생의 인연과 현세의 운명에 관한 전통적인 사유를 반영하면서도, ‘부부 바꾸기’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과격적인 설정을 담고 있다.

의의 ‘호랑이 눈썹’이라는 화소가 독특하며, 부부간 인연에 대한 관점이 특징적이다. 민간의 유희론과 인연설을 단면적으로 보여 준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2, 184; 302; 7-15, 157; 9-3, 664.
참고문헌 문학치료와 자기서사의 성장(정운채, 우리말교육현장연구4-2,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0), 배우자밀치기서사의 문제해결을 위한 문학치료 프로그램(김정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필자 신동흔(申東昕)

호랑이 배 속 구경

사람이 호랑이에게 잡아 먹혔다가 그 배 속에서 살아 나와 호랑이를 잡은 희극적 민담.

줄거리 옛날에 커다란 호랑이가 사람들을 많이 해쳤다. 그래서 나라에서 대호를 잡는 사람에게 벼슬을 준다고 했다. 체구가 작은 어떤 사람이 호랑이를 잡으러 산으로 갔다. 그는 호랑이에게 약을 올려 호랑이가 자신을 삼켜 버리게 했다. 호랑이 배 속에 들어간 체구가 작은 사람은 칼로 호랑이 간을 여러 차례 베어 먹었다. 호랑이가 아프다고 날뛰다가 주위에 있는 호랑이들을 다 물어뜯어 죽였다. 그러자 작은 사람이 칼로 호랑이 배를 가르고 나왔다. 작은 사람은 벼슬을 얻었다. 예전에는 호랑이가 많았는데, 이때 호랑이 씨가 말랐다.

변이 등장인물은 짚신장수, 포수, 할아버지, 작은 사람 등으로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혼자 호랑이 배 속으로 들어가는 예가 많다. 각편에 따라서는 포수·소금장수·쌀장수·개장수·노름꾼·석유장수·잡화장수·풍물 치는 팔 형제 등 여러 사람이 차례로

호랑이 배 속으로 들어간 뒤 서로 힘을 합쳐 탈출하는 예도 있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 가져가는 도구는 도리깨, 칼, 방앗공이, 총 등 다양하다. 또한 호랑이 배 속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칼로 호랑이 배를 가르고 나오는 경우, 호랑이 똥구멍으로 나오는 경우, 호랑이 꼬리를 배 속에서 잡아당겨 뒤집어 잡는 경우가 있다. 사람을 통째로 삼킨 호랑이를 고래가 삼키는 경우도 있다.

분석 거대하고 무서운 존재에게 통째로 먹힌 인물들은 죽음과 맞닥뜨린다. 호랑이 배 속은 죽음을 예고하는 검검한 터널과 같다. 호랑이 배 속에서 불을 지피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만들고, 호랑이 살점으로 굶주림을 해결하는 등 주인공은 살 길을 적극 모색하여 살아 나온다. 인물들은 죽음의 상황을 절망과 포기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여유와 유머로 승화시킨다. 이 설화는 힘든 과정을 견디는 이들에게 영감과 힘을 주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특징 〈호랑이 배 속 구경〉, 〈호랑이 배 속 잔치〉라는 제목에서 시사하듯이, 호랑이의 배 속은 이야기 향유자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미지의 공간이다.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모험하는 것은 성장기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이자 축제이고 잔치이다. 이 이야기는 미지의 세계로의 탐험과 모험을 다루고 있고, 힘든 시련과 역경의 과정을 즐거움과 유쾌함으로 풀어낸다는 점에서 어린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오늘날 많은 옛이야기 책이나 그림책으로 출판되고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6, 453; 4-6, 538; 7-4, 231; 7-7, 460; 7-8, 51; 809; 8-8, 384; 8-14, 214.
참고문헌 응, 호랑이 탄 한국인과 놀다(이나미, 민음인, 2010), 조선설화집(손진태, 최인학 역, 민속원, 2009).
필자 박현숙(朴賢淑)

호랑이 별주부 상면 대목

〈수궁가(水宮歌)〉중 별주부가 토끼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호랑이를 만나 죽을 위기를 피로써 극복하는 내용의 대목.

내용 온갖 짐승들의 상좌다툼을 본 후 별주부는 그 자리에 토끼도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토끼를 부른다. 하지만 ‘토 생원’이라 부른다는 것이 ‘호 생원’이라 잘못 불러 호랑이를 만나게 된다. 호랑이가 별주부를 잡아먹으려고 하자 별주부는 자신은 수궁을 새로 짓다가 추녀에서 떨어져 목이 우멍거지가 되었으며, 명



수궁가 | 2000 |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의에게 물어보니 호랑이 쓸개가 약이 된다 하여 도로랑 귀신을 잡아타고 호랑이 사냥을 나왔다 위협하여 호랑이를 쫓는다. 호랑이를 쫓은 후 별주부는 자신의 지기志氣를 보려고 산신이 호랑이를 보낸 것으로 생각하여 산신제를 지낸다는 것이 〈호랑이 별주부 상면〉 대목의 대략의 줄거리다.

호랑이와 별주부가 만나는 장면에서, 이선유 창본은 ‘뱀 내려온다(엇모리장단)’ 하나의 창으로 되어 있어 소략한데 비해 임방울 창본, 박초월 창본, 김연수 창본은 ‘뱀 내려온다(엇모리장단)—호랑이 듣고서 좋아라고(중중모리장단)’의 두 개의 창으로 되어 있어 좀 더 확장된 모습을 보인다. 이 장면이 가장 확장되어 있는 바디는 정광수 창본이다. 정광수 창본은 ‘뱀 내려온다(엇모리장단)—일 씨구나 좋을씨고(중중모리장단)’ 외에 호랑이가 자신을 잡아먹는다는 말을 듣고 별주부가 수궁에 돌아가지 못함을 한탄하는 내용의 ‘자라가 망극하여 못 보

겼네(중모리장단)’ 창 사설이 하나 더 삽입되어 있다. 박봉술 창본, 정권진 창본, 박동진 창본도 이와 같다.

별주부가 자신의 내력을 말하며 호랑이를 쫓는 장면을 보면, 이선유 창본은 ‘우리 수궁 퇴락하여(자진모리장단)’ 하나의 창 사설로 되어 있다. 임방울 창본, 박초월 창본, 박봉술 창본, 정권진 창본 등도 하나의 창 사설로 되어 있는데, 박초월 창본은 유일하게 이 대목이 휘모리장단으로 되어 있다. 김연수 창본, 정광수 창본, 박동진 창본은 ‘우리 수궁 퇴락하여(자진모리장단)—호랑이가 도망가는 모습(휘모리장단)’은 공통적으로 들어 있다. 하지만 각각 독특한 창 사설들이 하나씩 들어 있는데, 김연수 창본은 별주부가 호랑이에게 살려줄 것을 애걸하는 ‘별나리전 비나이다(중모리장단)’가 들어 있고, 박동진 창본은 호랑이가 달아나다가 별주부에 물린 자국을 보고 고자가 되었다고 한탄하는 ‘아이고 아

이고 내 신세야(중모리장단)'가 들어 있으며, 정광수 창본은 호랑이가 달아나다가 남생이를 보고 놀라는 '태산을 넘고 강수를 지내여(중모리장단)'가 들어 있다.

호랑이를 쫓은 후 별주부가 산신제를 지내는 장면은 약간의 사실 차이가 있기는 하나 모든 창본이 대동소이하다. 한편 신재효 개작본은 〈호랑이 별주부 상면〉 대목이 아예 탈락되고 없다.

특징 및 의의

별주부가 호랑이를 만나 위기에 닥치자, 자기는 자라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남생이·개·돼지·두꺼비 등으로 둘러대는 장면은 '정체 확인형 사설'에 해당된다. 분명한 대상이 터무니없는 대상으로 지칭되는 것에서 청중의 예상이나 기대는 깨지고, 등장인물의 발화와 청중의 기대감 사이의 거리가 웃음을 낳게 되는데, 판소리·탈춤·설화 등 구비 연행 장르에 정체 확인형 사설이 주로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유희적 속성 때문이다. 상대방의 정체를 알면서도 계속 확인하는 정체 확인형 사설은 대상에 대한 의미를 지연시키고 유보함으로써 상대 존재의 부각, 상황의 강조, 호기심의 자극, 흥미 유발, 긴장감의 고조, 해학과 풍자 등 다양한 문맥적 기능을 한다. 따라서 〈호랑이 별주부 상면〉 대목 그 자체로서도 흥미가 있으나 토끼의 위기 극복담과 짝을 이룸으로써 별주부로 하여금 수궁가의 주인공다운 면모를 확고히 하도록 만드는 기능을 겸한다.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떠난 별주부에게 호난(虎難)은 매우 절박한 위기이다. 육지에서 최고의 지위인 호랑이를 물리치면서 별주부의 지략이 강조되고, 산신제를 지내는 부분에서는 별주부의 '충(忠)'이 강조된다. 〈호랑이 별주부 상면〉 대목을 통해 충직한 신하에서 지략가로 재정립된 별주부는 이후에 벌어지는 토끼와의 지략 대결에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흥미진진한 서사 전개를 가능하게 만든다.

참고문헌 수궁가 연구(최동현·김기형, 민속원, 2001), 정체 확인형 사설의 놀이성과 언어 이해의 확장(최홍원, 선정어문3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8), 춘향전의 사설형성원리(전경옥,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토끼전 연구(김동건, 민속원, 2003), 토끼전 전집1(김진영 외, 박이정, 1997).

필자 김동건(金東建)

호랑이 잡은 기름강아지

강아지에 참기름을 발라 고소한 냄새로 호랑이를 유혹해 줄줄이 꿰어 잡는다는 내용의 민담.

줄거리 옛날 강원도 금강산에는 호랑이가 많았다. 어떤 사람이 강아지 한 마리를 앞에 놓고 계속해서 참기름을 듬뿍 발라댔다. 그런 뒤 강아지 허리에 칠포를 매어 금강산으로 데리고 갔다. 금강산에 도착하여 강아지를 나무에 묶어 두자 호랑이가 고소한 참기름 냄새를 맡고 나타났다. 호랑이가 보니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있으므로 그것을 단번에 삼켰는데, 참기름으로 미끌미끌해진 강아지가 쭈욱 내려가더니 그대로 똥구멍으로 빠져 버렸다. 저절로 호랑이가 줄에 꿰어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호랑이도 고소한 냄새를 맡고 왔다가 강아지를 보고 단번에 삼켰는데 역시나 미끄러워 강아지가 똥구멍으로 빠져 버렸다. 다른 호랑이도, 또 다른 호랑이도, 그 다음도 그런 식으로 계속 꿰어져서 이 사람은 힘들이지 않고 호랑이를 많이 잡을 수 있었다.

변이 주인공이 게으름뱅이로 설정되기도 한다. 부모가 게으르다고 타박하자 그는 기름 바른 강아지로 호랑이를 잡아 자신의 면모를 과시해 보인다. 또 다른 각편에서는 이 사람이 기름 바른 강아지로 호랑이를 많이 잡자 다른 사냥꾼들이 몰려들어 호랑이를 빼앗는다. 이에 이 사람은 호랑이 왼쪽 귀를 조금만 잘라갈 수 있도록 청하는데, 그런 뒤 잘라낸 호랑이 귀 조각을 갖고 원님을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해 호랑이를 되찾는다.

분석 설화에서 호랑이는 다양한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신성한 존재인 산신령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단순한 공포의 대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바보처럼 모자란 존재로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공포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명칭한 존재로 드러난다. 사람들에게는 사냥을 해야만 하는 공포의 대상이면서도,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눈앞의 먹이에 눈이 멀어 주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명칭한 존재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러한 명칭함은 탐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약자인 주인공은 미끼를 잘 이용하여 힘의 상징인 호랑이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특징 우리 설화에는 동물을 힘들이지 않고 손쉽게 잡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 호랑이 잡는 법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호랑이에게 술을 잔뜩 먹여 취하게 한 뒤 칼로 얼굴에 '열 십+' 자를 그려놓고는 뒤로 가서 꼬리를 밟고 "예끼 놈!"

하고 소리치면 깜짝 놀란 호랑이가 튀어 올라 알몸만 쑥 빠져나가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사람을 절벽 근처의 높은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많은 호랑이들이 그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뛰어오르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힘들이지 않고 쉽게 잡을 수 있다고도 한다. 또, 줄로 올라가미를 만들어 그것을 휘휘 휘둘러 호랑이 목을 휘감은 다음 호랑이가 뒤쫓아 오게 해서 입 속으로 들어가 똥구멍으로 나가면 호랑이 가죽이 뒤집어지며 벗겨져 호랑이가 죽게 된다고도 한다. 이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재치 있는 이야기로 호환虎患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호랑이 관련 설화들에서 호랑이가 바보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272; 8-1, 39; 8-4, 154,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8, 240; 10, 289.
참고문헌 설화 속 동물 인간을 말한다(심우장 외, 책과함께, 2008), 설화에 나타난 호랑이의 다중적 상징과 민중의 권력의식(임재해, 실천민속학연구19, 실천민속학회, 2012).
필자 조선영(曹善映)

호랑이 잡은 비루먹은 강아지

약한 강아지가 강한 호랑이를 이기는 내용의 설화.

줄거리 호랑이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 민가로 내려왔다. 먹이를 찾아 집들을 기웃거리다 보니 강아지, 그것도 아주 볼품없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다. 저 강아지라도 잡아먹어야지 하고 달려들었더니 강아지가 개구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렇게 개구멍에 들어간 강아지는 가만히 있기는커녕 반대편 개구멍으로 나가더니 ‘캐깅캐깅’ 하고 짖어대기까지 하였다. 마치 날 잡아봐라 하는 식이었다. 이에 열 받은 호랑이가 반대편 개구멍으로 달려들었더니, 이번엔 또 반대편 개구멍으로 나와서 ‘캐깅캐깅’ 하고 짖어댔다. 이러기를 수십 번 하니, 이번에는 호랑이가 피를 내었다. 마치 반대편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달려가지 않고 이쪽 편에서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그래서 강아지는 호랑이 아가리로 들어가게 되었다. 호랑이 아가리로 들어간 강아지는 호랑이 똥구멍으로 나올 때까지 마냥 달렸다. 결국 강아지는 호랑이 똥구멍으로 나오고, 호랑이는 죽었다.

변이 사실 강아지가 호랑이 똥구멍으로 나올 개연성은 부족하다. 이 설화와 유사한 설화로, 강아지에게 기름을 먹여 매끄럽게 해 줄을 꿰어 호랑이가 잡아먹게 놔

둔 다음, 강아지가 기름칠 때문에 호랑이 배 속에서 미끄러져 똥구멍으로 빠져 나와 결국은 호랑이를 꿰어잡는다는 내용으로 변이된 설화가 있다. 두 설화의 선후 관계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분석 ‘빌어먹을’이란 말은 원래 ‘비루먹을’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한다. ‘비루’란 동물들에 생기는 고약한 피부병을 뜻한다. 따라서 ‘비루먹은 강아지’란 병들고 아주 말라서 별 볼 일 없는 강아지란 뜻이다. 개도 아닌 강아지이므로 크기 또한 작은데, 이처럼 정말 약하고 작은 강아지가 강하고 덩치도 큰 호랑이를 잡았다는 것은 강자와 약자의 싸움에서 약자가 이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의 민중의 상상력에서 호랑이는 힘센 산중의 왕이다. 그럼에도 민중이 만든 다양한 설화에는 자기 께에 빠진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다. 이 설화도 자기 께에 빠진 호랑이 설화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 설화 속 호랑이는 강자의 표상이다. 반대로 비루먹은 강아지는 약자의 표상이다. 이 설화는 강자가 약자를 너무 억누르기만 하면 도리어 당할 수 있다는 교훈을 말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272; 4-4, 284; 683; 7-12, 739,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2, 122; 8, 240; 10, 289; 328; 12, 163.
참고문헌 설화 속 동물 인간을 말한다(심우장 외, 책과함께, 2008).
필자 이한길(李漢吉)

호랑이가 잡아준 명당

죽을 위기에 처한 호랑이를 살려 주고 그 보답으로 밋자리를 얻는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보은설화와 풍수설화가 결합된 이 설화는 고려 초기 유효금柳孝金の 이야기가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전한다. 유차달柳車達의 아들 효금이 구월산九月山으로 놀러 갔다가 앞을 막아서며 눈물을 흘리는 호랑이를 만나 목에 걸린 은비녀를 뽑아 주었다. 그날 밤 꿈에 호랑이가 나타나 자신이 산신이라 하면서, 구해 준 보답으로 효금의 자손이 대대로 재상이 되게 해 주겠다고 했다. 이후 효금은 벼슬이 좌윤左尹에 이르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실려 있는 설화는 5세손 유공권柳公權과 4대에 걸친 후손의 벼슬 내력을 기록하여 호랑이의 신령함을 부각했다. 조선 중기 『어우야담於于野談』에는 호랑이의 목에 걸린 비녀가 기녀의 것이 되고, 호랑이의 신성 요소가 탈락한다. 구전설화는 그 형성 시기를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고려 초기 인물의 역사적 사실과 연관되어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줄거리 어떤 담대한 사람이 산에서 호랑이와 맞닥뜨린다. 호랑이의 모습이 이상하여 살펴보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 사람은 호랑이가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것인가 의심했는데, 호랑이가 고개를 저으며 입을 벌린다. 가까이 가서 입 안을 살펴보니 목에 비녀가 걸려 있어 손을 집어넣어서 비녀를 빼 준다. 호랑이는 자기 등에 타라는 시늉을 하여 이 사람을 태우고 가서 명당 터에 내려 주고, 하관할 장소를 발로 가리켜서 알려 준다. 호랑이가 알려 준 장소에 묘를 쓰고 대대로 부귀하게 산다.

변이 구전설화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과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그렇지만 산신의 현몽 대신 호랑이가 직접 터를 잡아 주는 것으로 변용된 것이 많다. 또한 대변을 보는 중에 호랑이를 만난다거나 황소 같은 호랑이가 포효하는 앞에서도 침착하게 행동하는 식으로 주인공의 됨됨이를 부각하는 요소가 첨가된다. 보은하는 동물이 대부분 호랑이(8편)로 나오는데, 꿩(1편)이나 사슴(1편)이 나오는 변이형도 보인다. 이때 주인공의 담대함보다는 측은지심이나 인정이 더 강조된다.

분석 이 설화는 동물의 보은으로 얻은 명당에 관한 이야기로, 동물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보은하기 위하여 명당을 잡아 주는 명풍수의 역할을 한다. 명당을 얻을 수 있는 주인공은 그에 상응하는 인품을 갖추고 선행을 해야 한다. 이 설화는 자연(동물)과 사람, 땅과 사람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자연의 섭리, 땅의 논리임을 설명하는 문학적 은유이기도 하다.

특징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이 설화의 배경과 채록 장소를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후산리로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문화 유씨文化柳氏 집성촌은 청풍면 황석리이다. 충주댐 수몰 이후 많이 떠나갔지만 그곳에는 지금도 유씨 일가 몇 가구가 남아 있다. 또한 호랑이 목에 걸렸던 비녀는 현재 금성면 사곡리에 있는 한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다.

출처 亡羊錄, 新增東國輿地勝覽, 於于野談,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5, 793: 3-1, 419; 5-7, 705; 7-9, 855; 8-8, 33.

참고문헌 한국문헌설화7(김현룡,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한국 풍수설화의 분류 연구(양은모, 중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필자 강성숙(姜盛淑)

호랑이로 변한 남편

효를 실천하기 위해 사람이 호랑이로 둔갑한 호랑이 전설.

역사 이 설화는 중국의 『선실지宣室志』에 실려 전하는 <이징전설李徵傳說>과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으리라 추정된다.

줄거리 옛날 한 효자가 살았다. 그는 어머니가 병이 들자 밤낮으로 치성을 드린다. 어느 날 개의 간을 먹어야 어머니의 병이 낫는다는 말을 듣고서 호랑이로 둔갑할 수 있는 주문이 적힌 책을 얻는다. 이후 그는 날마다 책을 읽고 호랑이로 변신하여 개를 잡아 그 간을 어머니께 드린다. 무서운 호랑이로 변신하는 남편을 본 부인은 그 모습이 보기 싫어 책을 아궁이에 넣어 불살라 버린다. 주문 책을 더는 볼 수 없게 된 아들은 사람으로 변신하지 못하게 된다. 호랑이가 된 효자는 마을의 산과 들로 다니는데, 그를 아는 사람이 “황 선생, 어디 가는가?”라고 하면 고개만 끄덕끄덕한다. 그렇게 마을 사람을 만나면 눈만 깜빡하다가 산으로 올라가곤 한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그도 죽었는지 더는 나타나지 않았다.

변이 <호랑이 황팔도>라는 제목으로도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며, 전국적으로 구전되는 자료이지만 주 전승지는 충청도 지역이다. 이 유형의 이야기는 결말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대체로 호랑이가 포수의 총에 맞아 죽는다.

분석 효자 주인공의 운명이 비극적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지고지순한 효의 실천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범주를 넘고 나쁜 수단을 쓸 때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전승 집단의 도덕의식이 내린 판단이다. 한편,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와 이 둘의 관계를 파탄 낸 부인의 개입을 근거로 금기시된 욕망이 표출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특징 중국의 <이징전설>은 주인공 이징이 호랑이로 변한 후 사람을 잡아먹으며 살다가 홀연히 사라졌다는 내용이다. 한국의 이야기는 그 동기가 효이지만, 중국의 이야기는 효와 무관하다. 이는 한국인의 뚜렷한 효 관념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의의 사람이 호랑이로 둔갑한다든가 효자 주인공이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보기 드문 유형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호랑이만 놓고 보면 이 설화 속 호랑이는 성스럽거나 마법을 지닌 동물이 아닌 특별한 동물로서의 호랑이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4-3, 172; 4-4, 607; 4-6, 340.
참고문헌 구비문학 속에 나타난 호랑이의 원형(김필래,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한국구비전설의 연구(최래욱, 일조각, 1981), 한국구비전설의 연구(성기설, 일조각, 1976), 호랑이담에 나타난 여성의 욕망(김수연, 한국어문학연구53,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9).
필자 김기호(金基鎬)

호랑이와 꽃감

어리석은 호랑이가 꽃감을 자기보다 무서운 존재인 줄 착각하고 도망하는 과정을 묘사한 동물담에 속하는 설화.

역사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온 설화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교과서에 수록했고, 1920년대에 들어 전래동화로 개작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조선동화집』,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 박영만의 『조선전래동화집』에 실렸다. 동화작가 고 마해송 선생은 1933년 이 설화를 동화로 각색하였고, 최근에는 그림책으로도 자주 간행한다. 유럽에도 이와 비슷한 〈도둑과 호랑이〉가 널리 분포되어 있고, 4세기경 완성된 인도의 『판차탄트라』에도 유사한 이야기가 전하고 있어 기원이 매우 오래된 설화임을 알 수 있다.

줄거리 어느 날 밤 호랑이가 마을에 내려와 어느 집 외양간에 숨어 있다가 우는 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의 소리를 엿들었다. 어머니가 “호랑이가 왔다. 울지 마라.”라고 하는데도 아이가 계속 울자 호랑이는 내심 자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대단한 아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어머니가 꽃감을 이야기하니 아이가 울음을 그쳤다. 그러자 호랑이는 꽃감이라는 놈이 자신보다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했다.

이때 소도둑이 소를 훔치러 왔다가 호랑이를 소로 착각하고 등에 올라탔다. 호랑이는 자신의 등 위에 탄 놈이 ‘꽃감’이라고 착각하고, 무서워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났다. 하지만 도둑도 곧바로 자신이 호랑이 등 위에 탄 줄 알아채고 떨어지면 잡아먹힐까 봐 등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날이 밝자 소도둑은 호랑이 등에서 뛰어내려 고목 속으로 숨고, 호랑이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도망갔다. 그런데 호랑이를 만난 곰(또는 토끼)이 꽃감은 사람일 뿐이라며 잡으러 가자고 호랑이를 부추겼다. 하지만 소도둑이 자신을 괴롭히는 곰의 불알을 잡아당겨 곰은 죽고, 호랑이는 다시 도망갔다.

변이 이 설화는 구성상 호랑이가 꽃감 얘기를 듣고 도망치는 단형서사 유형, 호랑이가 소도둑을 태우고 도망치는 유형, 도망쳤던 호랑이가 소도둑을 잡으러 왔다가 혼이 나 다시 도망치는 유형의 변이가 있다. 그리고 결말에서 호랑이가 소도

둑의 계략에 넘어가 죽기도 한다. 또한, 호랑이가 소도둑을 잡으러 오는 과정에서 홀로 오는 유형, 토끼나 곰과 같은 동물과 함께 오는 유형 등으로 다시 변이가 일어난다. 한편, 지역에 따라서는 소도둑을 ‘팍지’라고도 호칭하였다.

분석 이 유형의 민담은 중국과 일본에도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 발단 부분에서 지붕에서 비가 새는 것을 걱정하는 말을 듣고 호랑이가 자기보다 무서운 게 있다고 생각하는 차이점이 있다.

의의 어리석은 호랑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강자는 어리석음으로 패배하고, 약자는 재치 있는 상황 대처로 승리한다는 것을 해학적으로 표현한다.

출처 조선동화집(조선총독부, 권혁래 역, 집문당, 2003), 조선민담집(손진태, 향토연구사, 1930), 조선전래동화집(박영만, 학예사, 1940),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7, 774; 4-4, 943; 4-5, 239; 5-7, 461.
참고문헌 일제강점기 호랑이·토끼 서사의 양상과 문학교육(권혁래, 온지총22, 온지학회, 2009), 조선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7).
필자 권혁래(權赫來)

호랑이의 보은

호랑이가 주인공에게 자신의 곤경이나 고통을 호소하여 주인공이 호랑이의 불행을 제거해 주고 호랑이가 주인공의 은혜에 보답하는 내용의 민담.

역사 삼국시대 서사문학에 등장하는 ‘신격형 호랑이’는 아무런 조건 없이 주인공의 불행을 제거하고, 결핍을 충족하며 공간적 이동을 도와주는 초월적 원조자였다. 그런데 후대에 등장하는 ‘보은형 호랑이’에서는 주인공에게 자신의 곤경이나 고통에 대하여 구원을 요청한 후에 주인공을 도와주는 상호 공리적 도움의 형태를 가진 서사구조로 나타난다.

줄거리 한 사람이 나무를 하러 산속에 들어갔다. 그런데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앉아서 움짍도 못하게 길을 막았으나 그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았다. 사람이 호랑이의 입속에 있는 것을 꺼내어 주겠다고 하자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는 호랑이의 입속에 손을 넣어 목에 걸린 비녀를 꺼내 주었다.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이지만 은혜를 알고 고마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갔다. 그 사람은 산중에서 홀로된 어머니를 모시며 가난하게 사는 노총각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쿵’ 소리가 나서 밖에 나가 보니 호랑이가 나무를 태산같이 해서 갖다 놓고 갔다. 그 후로

호랑이 덕에 힘들게 나무하지 않고도 나무를 때며 살았다. 또 어느 날 ‘쿵’ 소리가 나서 밖을 내다보니 이번에는 호랑이가 예쁜 처녀를 업어다 났다. 그 처녀는 어느 재상의 딸로 호랑이한테 물려와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깊은 산중이라 집을 찾기가 어려웠다. 처녀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 어떤 이유가 있음을 짐작하고 그 충각과 혼인하고 살았다. 두 사람은 호랑이가 늘 도와줘서 어머니를 모시며 아들을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호랑이가 와서 자신이 죽을 날이 다 되었음을 알렸다. 그리고 남자에게 장안에 가서 작패를 할 것이라며 그때 자신을 잡으라고 했다. 이윽고 호랑이가 장안에 나타나 포악한 짓으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니, 호랑이를 잡아오면 벼슬과 상금을 준다는 포고가 내려졌다. 그래서 남자는 장안에 가서 호랑이를 총으로 쏘 죽이고 벼슬과 상금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

변이 전설에서는 호랑이 목에 걸린 비녀를 빼 주고 명당을 지명 받아 유씨 가문이 번창한 이야기, 왕건시대에 연안 차씨가 호랑이 목의 비녀를 빼 주고 명당을 지명 받아 정승을 몇 대째 했다는 이야기, 순흥 안씨가 같은 이유로 명당을 얻어 부자가 된 이야기와 같이 성씨 시조들과 명당이 복합되어 조상숭배를 강조하는 일면이 발견된다. 하지만 민담에서는 호랑이의 보은 행위가 결혼을 시켜 주거나 치부致富하도록 해 주거나 명의名醫가 되도록 해 주는 등 민중의 일반적 관심사로 귀결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분석 동물보은설화는 동물이 사람에게 입은 은혜에 보답한다는 이야기이므로 그 전개과정에 시은施恩과 보은報恩이라는 요소를 전제로 하며, 때에 따라 동물이 사람에게 구원을 요청하거나 보은할 것을 미리 예언하는 이야기가 첨가되기도 한다. 보은의 내용은 시은과 마찬가지로 은인의 목숨을 구하거나 출세를 도와주며, 재물을 가져다주기도 하는 등 방법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동물이 명당자리를 알려 주거나 직접 나서서 부부의 획득이나 출세를 돕는 행위를 하기도 한다. 또한 재물이 묻힌 장소를 알려 주거나 비현실적인 음덕陰德에 의한 간접적인 보은을 하는 예도 있다. 그중 호랑이는 무섭고 용맹하다는 점에서 외경의 대상이고, 산신으로 모셔져 수호신이 되었다. 삼국시대 서사문학에서부터 호랑이가 등장하였고, 후대에서는 더욱 다양한 형상으로 전승되었다. 특히 호랑이는 우리 민족과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하나의 독특한 문화적 성격을 형성해 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인이 가지는 호랑이의 이미지는 짐승이라는 일반적인 범주를 넘어서 보다 특수하고 다양한 성격으로 분화되었으며, 이는 전통적이며 민족적인 감정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호랑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정적 측면



호랑이 민화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과 긍정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는 동물이다. 이에 동물보은설화에서 보은하는 호랑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등장하여 인간사에 관여하며, 권선징악의 윤리적 역할을 담당하는 존엄한 절대자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이 설화에서는 주인공에게 자신의 곤경이나 고통에 대해서 구원을 요청한 후에 도와주는, 상호 공조共助의 형태를 가진 중립적 시여자施興者로 등장한다.

특징 이 설화는 주인공과 호랑이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특징인데, 어떤 형태로든 인간이 먼저 시은하면 호랑이가 그 은혜에 보답한다. 특히 인간의 결핍을 제거해주는 과정에서 호랑이의 초월적 존재로서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동물보은설화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포악한 짐승이 아닌 인격화되어 인간적인 면모를 가진 존재로 나와 보은하며, 더 나아가 신이神異한 능력을 지닌 신령스러운 동물로서 신의 대행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호랑이는 위협적이지만 오랜 역사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온, 전통적 민족 감정과 관련 있는 동물이라 할 수 있다.

의의 호랑이와 인간의 상호보완적인 특성을 보여 주는 이 설화는 호랑이에게 인격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작은 것에서도 배우려는 우리 민족의 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 설화는 현대 윤리 교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과거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설화의 교육적인 측면을 확인할 수 있는 실례實例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7, 528; 2-5, 102.

참고문헌 설화에 나타난 호랑이상의 연구(이원용, 강원대학교, 1987), 옛 문학의 비평적 시각(김명희, 태학사, 1997), 한국 호랑이 설화집(한상수, 문지사, 1987).

필자 김명희(金明姬)

호랑이형님

호랑이형님이 인간인 아우와 부모에게 효를 행한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인간과 호랑이가 관련된 이야기는 고조선의 <단군신화>로까지 소급된다. 그만큼 인간과 호랑이의 관계 역사가 깊다는 것이며, 이야기 속에서 호랑이는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호랑이형님> 또한 상고시대까지 그 연원을 소급할 수 있을 것이다.

줄거리 어떤 나무꾼이 가난한 나머지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겠다며 산을 넘어가는데, 도중에 진짜 호랑이를 만났다. 막상 호랑이를 만나 겁이 난 나무꾼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호랑이에게 “아이고, 형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저에게 형이 하나 있는데 죽어서 호랑이가 되었다고 하더니 바로 그 형님이시군요!” 하였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형님을 그리워하니 당장 뵈러 가자고 하였다. 이에 호랑이가 그 말을 믿고서 “지금 당장 어머니를 뵈고 싶지만 호랑이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없다.”라며 거절했다. 그 뒤로 꼬박꼬박 호랑이가 돼지를 가져다 놓으니, 그것으로 나무꾼과 어머니는 부자로 살게 되었고, 나무꾼은 호랑이가 얻어 준 색시에게 장가도 들었다. 몇 년 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호랑이가 돼지를 가져다 놓는 일도 사라졌는데, 궁금해진 나무꾼이 예전 호랑이가 살던 굴에 가 보니 새끼 호랑이들이 꼬리에 흰 베를 드리고 있었다. 이유를 물으니 “우리 할머니는 인간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도 식음을 전폐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꼬리에 흰 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라고 하였다. 나무꾼은 호랑이의 효성에 감동해서 어머니 산소 옆에 나란히 묘를 써주었다고 한다.

변이 <호랑이형님> 설화는 대개 가난한 총각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호랑이 덕분에 장가들고 부자가 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편에 따라 호랑이형님이 주인공의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이야기도 있고, 호랑이가 소년에게 떡을 달라고 하자 소년이 떡 대신 차돌을 주는데 자기는 먹지 못하는 차돌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소년을 보고 놀란 나머지 호랑이 스스로 소년을 형님으로 모신다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다.

분석 <호랑이형님> 설화는 인간의 기지로 위기를 모면한다는 측면에서 지략담인 동시에, 인간에게 효성을 다한다는 점에서 효행담이자 동물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통해 설화 향유자들은 동물마저도 자신의 부모에게 효를 다한다는 효중시 사상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으며, 또한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모면하는 인간과 어리석은 호랑이의 대비를 통해 웃음을 전달하고 있다.

특징 우리나라에서 호랑이는 맹수 또는 산신령으로서 양가적인 속성을 띠는데, 이와는 달리 <호랑이형님>의 호랑이는 어딘가 엉뚱하고 어리석다. 이는 백수의 왕 호랑이가 가장 무서워한 것이 바로 곱감이었다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에서 호랑이와 인간의 친밀감을 높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의의 <호랑이형님> 설화는 현재까지 활발하게 전승되는데, 대표적으로 방정환 선생

이 쓴 〈호랑이형님〉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본 설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종류의 전래동화집과 만화책, 동화극 등이 제작되어 그 맥락을 연연히 이어가고 있을 만큼 교육적 가치도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7, 270, 한국인의 민담(최운식, 시인사, 1999).
참고문헌 한국 소화의 연구(신월균,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효자호랑이 설화에 나타나는 호관념(강진옥, 민속연구1,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1).
필자 한서희(韓抒希)

호식당할 운명

호식(虎食)을 당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점쟁이가 알려준 방도로 액운을 피하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실패하여 호환을 당했다는 민담.

줄거리 어떤 여인이 점을 치니 점쟁이가 말하길 남편이 모일 모시에 호식을 당할 운명을 타고났는데 구들장 아래 단지를 넣고 그 안에 들어가 숨어서 호환(虎患) 시각을 넘기면 살 수 있다고 했다. 드디어 남편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힌다고 한 날이 되자 부인은 점쟁이 말대로 남편을 구들장 아래 숨겨두고, 두 번이나 남편을 찾는 사람을 돌려보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난 후에 아이 업은 여자가 찾아와 남편을 찾았다. 부인이 남편의 행방을 모르겠다고 잡아떼자, 그 여자는 자식을 낳아 놓고 모른 척한다고 행패를 부렸다. 화가 난 부인이 참지 못하고 남편이 숨은 곳을 말해 버렸다. 그러자 그 여인은 곧 커다란 호랑이로 변하여 남편을 물고 사라졌다.

분석 이 설화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초월적 질서를 상징하고, 호식을 피하려는 부부는 이런 초월적 질서에 따라 지배되는 지상적 존재를 상징한다. 따라서 〈호식당할 운명〉 이야기 속에는 초월적 질서와 지상적 존재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런 대립은 초월적 질서의 승리로 귀결된다. 지상적 존재인 인간은 어떤 방도를 취하든 간에 초월적 질서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된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마지막 순간을 참지 못하고 자신이 취한 방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한계를 지닌 불완전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특징 한번 정해진 운명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내용의 설화들은 대체로 ‘운명 예언 - 운명 실현’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에 비해 이 이

야기는 인간의 변역 시도가 실패하는 과정이 세 차례에 걸쳐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세 번째에는 아이 업은 여인 모티프를 이용하여 처첩 갈등을 유발시킴으로써 이야기의 흥미를 돋우고 있다. 한편, 이와 유사한 이야기에는 모일 모시에 죽을 팔자를 타고난 사람이 이를 모면하기 위해 집 안에만 머물렀는데, 때마침 쏟아진 소나기 때문에 담장이 무너져 깔려 죽었다는 것이 있다.

의의 〈호식당할 운명〉 설화는 인위적으로 운명을 변역하려다가 실패해 불행해졌다는 정명론(定命論) 또는 숙명론적 사고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에 해당한다. 특히, 변역의 시도가 실패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운명의 절대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8-5, 404,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5, 321.
참고문헌 설화 속의 호랑이(최인학, 구전설화연구, 새문사, 1994), 설화의 문제해결방식을 통해 본 인식과 그 의미(강진옥, 구비문학연구3, 한국구비문학학회, 1996), 한국운명설화 연구(정재민, 제이앤씨, 2009).
필자 정재민(鄭在珉)

호부와 호랑이

며느리의 효행에 감동한 호랑이가 보답한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삼국유사(三國遺事)』 김현감(金現感) 조에서는 인간을 위해 호랑이가 희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호랑이가 인간에게 보답을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호부와 호랑이〉 설화와 동일 선상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호부와 호랑이〉 설화는 삼국시대로까지 그 연원을 소급하여 볼 수 있다.

줄거리 가난한 집 며느리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 어느 날 이웃마을의 환갑잔치에 간 시아버지가 밤이 늦도록 오지 않자 걱정이 된 며느리가 찾아 나섰는데, 시아버지가 산 속에 술이 취해 누워 있고 그 옆에 호랑이가 앉아 있었다. 놀란 며느리는 등에 업은 아이를 호랑이에게 내놓고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는 시아버지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다. 호랑이는 며느리의 효성에 감동해서 아이를 집 앞에 데려다 놓았다. 이 소식을 들은 관에서는 며느리에게 호부상을 주었다.

효자 태워 나른 호랑이

효성이 지극한 효자를 호랑이도 감동하여 태우고 다녔다는 설화.

변이 각편에 따라서 며느리가 남편 없이 시아버지만 모시고 사는 경우도 있으며, 그럴 경우 젊어서 혼자 된 딸을 친정에서 개가시키려고 하지만 딸이 거절하고 살다가 시아버지를 호랑이에게서 구해 내며, 또한 며느리의 효성에 감동한 호랑이가 양아들을 데려다 주기도 한다. 그리고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홀시아버지가 맹인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많아 지역적 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분석 이 설화는 단독으로 연구되기보다는 동물담이나 <효감호설화(孝感虎說話) 모티프를 차용한 효행담의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특히 <효행설화>는 그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지만, 대부분 전체를 조망하지 않고 부분적인 자료를 유형별 또는 지역별로 분류하거나 특정 유형의 의미망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징 설화 속 호랑이의 모습은 크게 네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신격화된 호랑이, 원조자로서의 호랑이, 사람을 해치는 악한 호랑이, 어리석은 호랑이 유형이 그것이다. 그중에서 <효부와 호랑이> 설화는 원조자로서의 호랑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동물인 호랑이조차 효를 실천하는 내용을 통해 효의 절대적인 가치를 고양시키는 것과 더불어 효행담의 범위를 넓히는 설화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의의 호랑이는 우리 민족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산신으로 숭앙받는 양가적인 감정을 갖는 동물이다. <효부와 호랑이> 설화 속 호랑이는 두려움의 대상인 동시에 며느리에게 아이를 돌려줌으로써 산신으로서의 속성을 모두 보여 준다. 결핍의 상황을 효로써 극복한 며느리는 물성物性的 호랑이는 물론 신성神性的 호랑이까지 감동시키며, 결국 그로 인해 며느리라는 여성은 가족 내에서의 지위 향상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9, 221: 6-3, 522: 7-16, 46.
참고문헌 한국구전효행설화의 연구(강덕희, 국어국문학21,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1983), 한국설화연구(최운식, 집문당, 1991), 한국설화와 여성(김대숙, 월인, 2002), 한국효행설화의 성격연구-효자호랑이 설화를 중심으로(최래옥, 한국민속학11, 한국민속학회, 1977), 효자호랑이설화에 나타나는 효관념(강진옥, 민속연구1,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1).
필자 한서희(韓抒希)

줄거리 옛날 어느 마을에 효자가 살았는데, 집이 가난하여 어머니의 끼니를 드리지 못했다. 그래서 머슴살이하는 집에서 밥을 얻어 호랑이 등을 타고 집에 와서 어머니를 봉양했다. 옛날 어느 곳의 효자는 앓아 누운 부친의 약을 구하러 멀리 가는데 호랑이가 나타나서 태워 주었다. 옛날 어떤 효자가 시묘살이를 하는데, 호랑이가 태워 주고 무덤 옆에서 지켜 주었다. 또 옛날 어느 효자는 겨울에 어머님께 딸기를 구해 드린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호랑이와 함께 시묘살이하고, 호랑이의 도움으로 장가도 간다.

변이 호랑이가 효자를 태워 주는 이유는 그의 효성이 지극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효자가 굶주리는 어머니에게 밥을 구해 준다든지, 병이 난 부모님을 위해 약을 구해 온다든지, 겨울철에 먹고 싶어하는 딸기(두릅, 석이버섯, 죽순, 잉어, 홍시 등)를 구하여 드리는 것으로 변이를 보인다. 이는 물론 호랑이가 태워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 다른 예에서는 호랑이가 목에 비녀가 걸려 고통을 당할 때 효자가 손을 넣어 비녀를 빼 준다. 호랑이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효자를 태워 준다. 또 하나는 효성이 지극한 효자가 부모의 무덤가에서 시묘살이를 하는데, 그 효성에 감동하여 효자를 보호해 주고, 태워 주기도 한다.

분석 호랑이가 효자를 도운 이야기는 비교적 많이 전승한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19편이 실려 있고, 『한국의 민담』에 2편, 『경북민담』에 3편, 『조선희호랑이 이야기』에 2편, 『경남지방의 민담』에 2편, 『한국구비전설』에 2편이 있다.

이 설화는 문헌설화에는 보이지 않으며, 모두 구비설화로 구연되는 것을 채집한 것이다. 사람의 천적인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지 않고 도리어 도와준다는 설정은 효의 실천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의의 효를 인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던 시대에 효의 실천을 보고 호랑이도 감동한다는 것을 드러내 보인다.

출처 경남지방의 민담(김승찬, 제일문화사, 1986), 경북민담(김광순, 형설출판사, 1978), 금강산으로 가는 울산바위(서문성, 창, 1998), 조선희호랑이 이야기(이가원, 학민사, 1993), 한국의 민담(임동권, 서문당, 1972).
참고문헌 한국구비전설의 연구(최래옥, 일조각, 1981), 한국호랑이(김호근·윤열수, 열화당, 1986), 한국 호설화 연구(배도식,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호랑이(손도심, 서울신문사, 1974), 한국 효행설화의 성격 연구(최래옥, 한국민속학10, 한국민속학회, 1977).
필자 배도식(裵桃植)

용어와 표상

Terms and Symbols

- 강감찬
- 개가하지 않은 떠느리
- 도운 호랑이
- 견훤
- 공주동해리산신제
- 곽재우
- 구시월 도지는 호랑이도
- 무서워한다
- 금산진악산물골봉기우제당
- 금산친내리용호석
- 김현감호
- 김호랑이굴
- 가치호랑이
- 꼬리 잘린 호랑이
- 나도밤나무
- 남매탑
- 단군신화
- 라이저
- 매추라기의 꿈지
- 문자 쓰다 장인 잃은 사위
- 밀양 용호놀이
- 반쪽이
- 백두산호랑이
- 백호
- 백호기
- 범골
- 범바위
- 범이 불알을 동지에 열구고
- 입춘에 녹인다
- 변신한 호랑이를 물리친 사람
- 복호
- 사람을 사랑한 호랑이
- 사신
- 사신반흔곳
- 산맥이
- 산신
- 산중호걸
- 삼재부적
- 삼척갈남마을백호서낭제
- 상여장식
- 상인일
- 설화 속 호랑이
- 수호랑
- 시묘살이 도와준 호랑이
- 신림
- 신성과 벽사의 호랑이
- 애호
- 어
- 여름에 홍시 구한 호자
- 여자 음부 보고
- 도망간 호랑이
- 오뉴월 손님은
- 호랑이보다 무섭다
- 용호문배도
- 이빨 빠진 호랑이
- 입지한
- 정호기
- 제호이위신
- 조선표상화
- 종이호랑이
- 착호갑사
- 창귀
- 청양 범놀이
- 츄츄는 호랑이
- 침호두
- 태백황연동유령산령당
- 토끼의 재판
- 팔죽할때와 호랑이
- 포호정책
- 한국표범
- 해수구제사업
- 해와 달이 된 오누이
- 호건
- 호골
- 호돌이
- 호동
- 호랑이 관련 용어와 표상
- 호랑이 눈썹
- 호랑이 배 속 구경
- 호랑이 별주부 상면 대목
- 호랑이 잡은 기름강아지
- 호랑이 잡은 비루먹은 강아지
- 호랑이 장가 가는 날
- 호랑이가 깃든 물건
- 호랑이가 잡아준 명당
- 호랑이굴
- 호랑이꿈
- 호랑이띠
- 호랑이로 변한 남편
- 호랑이발톱노리게
- 호랑이벽화
- 호랑이부적
- 호랑이선생님
- 호랑이연고
- 호랑이와 꽃갑
- 호랑이의 보은
- 호랑이의 생태와 역사
- 호랑이포수
- 호랑이풀
- 호랑이형님
- 호랑이흉배
- 호랭이술
- 호실랑곳
- 호서낭
- 호석
- 호수
- 호식당할 운명
- 호식장
- 호암사
- 호암산
- 호열자
- 호자
- 호탈곳
- 호피
- 호환
- 호부와 호랑이
- 호자 태워 나른 호랑이

호랑이 관련 용어와 표상

강경표(국립민속박물관)

동물과 식물, 사건, 색상, 지명 등은 본래의 의미를 넘어 의미를 함축한 상징이 되기도 한다. 오래전 벌어진 사건의 교훈이 고사성어가 되고, 동물과 식물이 국가와 단체의 성격을 대변하며, 색상이 정치적 지향을 구분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말에 함의되고 표상화된 호랑이 관련 용어와 표상에 관해 다루고자 한다.

호랑이에 관한 우리 민족의 인식은 다양한 언어적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관용어와 속담이 있다. 먼저 관용어를 보면 '산중호걸' '호랑이 꿈' '호랑이 선생님' '호환' '호열자' '종이호랑이' '이빨 빠진 호랑이' 등이 있다.

산중호걸, 호랑이 선생님, 호환, 이빨 빠진 호랑이

이중 산중호걸, 호랑이꿈, 호랑이 선생님, 종이호랑이, 이빨 빠진 호랑이 등은 호랑이의 용맹성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산중호걸'이라는 말은 산속에 사는 영웅이라는 뜻으로 호랑이나 호랑이의 기상氣象을 뜻하며, '호랑이꿈'은 민중이 호랑이를 신성한 존재로 생각하였기에 그가 꿈에 나오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믿은 데서 나온 용어이다. 또한 '호랑이 선생님'은 몹시 사납고 무서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호랑이의 강맹함에서 파생된 표현이다. '종이호랑이'는 겉보기에는 힘이 셀 것 같으나 사실은 아주 약한 것을 이르는 말이며, '이빨 빠진 호랑이'는 이전의 세력을 모두 잃어버린 무능력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용어이다. '종이호랑이'와 '이빨 빠진 호랑이'는 호랑이가 지닌 용맹함과 관련이 있으나 그 힘을 잃었다는 데서 나온 표현이다.

한편 사람들은 호랑이의 용맹함을 찬양하면서도 그 사나움으로 해를 많이 당하였기에 '호환'과 '호열자'와 같은 용어를 만들어 냈다. '호환'은 호랑이에게 당하는 화禍 또는 호랑이로 인해 생기는 재난을 이르는 말이며, '호열자'는 콜레라를 음차한 용어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초창기 콜레라를 요괴스러운 질병이라는 뜻의 '괴질'이라고 불렀으나 '호랑이가 살점을 찢어내는 고통을 준다'라며 '호역' 또는 '호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콜레라의 무서움을 표현하였다.

호랑이 장가 가는 날

다음으로 속담을 살펴보면 '호랑이 장가 가는 날' '범이 불알을 동지에 얼구고 입춘에 녹인다' '오뉴월 손님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구시월 도지는 호랑이도 무서워한다' 등이 있다.

'호랑이 장가 가는 날'은 24절기 중 하나인 동지冬至를 달리 부르는 말이다. 호랑이의 생태적 특성과 관련 있는 속담으로, 민간에서 호랑이는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믿었기에 날씨가 춥고 밤이 긴 동짓날에 암수가 교미할 것이라고 여겨 생겨난 용어이다.¹⁾

'범이 불알을 동지에 얼구고 입춘에 녹인다'는 겨울 추위가 동지쯤 시작되어 입춘立春 무렵 누그러지는 것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속담이다. 동물 가운데 용맹이 으뜸인 호랑이의 불알도 동짓날 뽕뽕 어는 것이 예외가 아님을 해학적으로 표현하였다.²⁾

'오뉴월 손님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여름철 손님 접대의 어려움을 나타낸 속담으로, 무더운 데다 먹거리도 변변치 않은 여름철 찾아온 손님이 호랑이처럼 두려운 대상으로 느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³⁾

'구시월 도지는 호랑이도 무서워한다'는 음력 구시월에 부는 돌풍은 호랑이도 무서워할 정도로 매우 강하다는 의미를 지닌 속담이다.⁴⁾

관용어와 속담을 살펴봤을 때 호랑이는 예로부터 맹수 중의 맹수, 산중의 왕, 산을 지키는 영물로 표현되며 용기·위엄·무서움 등을 상징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한국세시풍속사전-겨울(국립민속박물관, 2006), p184.

2) 한국세시풍속사전-겨울(국립민속박물관, 2006), p198.

3) 한국세시풍속사전-여름(국립민속박물관, 2005), p354.

4) 한국세시풍속사전-가을(국립민속박물관, 2006), p409.

우리 민족의 표상이 된 호랑이

우리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에도 등장하며,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설화와 민화에도 나타나는 호랑이가 우리나라의 대표 표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호랑이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한 그 시기에 민족주의적 표상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1900년대 일본은 우리나라 영토를 닭 또는 토끼로 비유하였다. 이와 함께 1910년대 해수구제(海獸驅除) 정책을 펼치며 한반도에서 호랑이를 절멸시켰다. 당시 최남선(崔南善)(1890~1957)은 일본의 이러한 행위에 대응하여 1908년 잡지 『소년(少年)』에 호랑이 형태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한반도 형상을 호랑이로 표상하며 민족주의 인식을 자극하였고, 소년들에게 호랑이와 같은 진취적인 기상을 지니도록 주창하였다(목수현 2014).

또한 1926년에는 호랑이해를 기념하여 동아일보에 7편의 「호랑이」 글을 연재하였는데, 최남선은 그간 흩어져 있던 호랑이 관련 민담, 설화, 기록 등을 모아 연재 글에 실었다. 이는 호랑이가 조선 민족의 표상이 되는 하나의 발판이 되었다(박은정 2015).

1988 호돌이, 2018 수호랑

서울올림픽대회(1988) 마스코트로 경쟁 끝에 호랑이가 결정되었다. 당시 서울 올림픽조직위원회는 호랑이가 민화와 설화 등을 통해 한국인에게 친숙하고 그 씩씩한 기상이 약진하는 한민족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적절하기에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마스코트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⁵⁾

최종 승자 호랑이는 이후 애칭이 ‘호돌이’로 결정되었고, ‘호돌이’는 다른 나라의 무상원조를 받을 정도로 궁핍하였던 한국이 올림픽까지 개최한 나라로 성장하였다는 발전 신화를 표상하였다(김수민 2021).

30년이 흐른 평창 동계올림픽대회(2018)에서도 마스코트로 백호(白虎)를 형상화한 호랑이가 선정되었다. 당시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신화와 설화에서 산과 자연을 지키는 신성한 상상의 동물로 묘사되는 백호가 하얀 설원에서 펼쳐지는 동계올림픽과 최상의 조화를 이룬다고 마스코트 선정 이유를 설명하며 애칭을 ‘수호랑’이라고 전하였다.⁶⁾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마스코트로 백호 ‘수호랑’이 결정되자 많은 사람은 수호랑을 호돌이의 직계 후손이라 칭하였다. 서울올림픽대회 호돌이 이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독보적인 위상을 가지게 된 국가 브랜드 호랑이의 정서를 수호랑이 전승하였다고 본 것이다.

5) 올림픽 마스코트 호랑이로(조선일보, 1983.2.24.)

6)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는 백호 수호랑(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6.6.2.)

맹호부대, 호국이, 기아 타이거즈, 축구 국가대표 엠블럼

호랑이는 우리나라를 표상하는 상징뿐 아니라 군부대, 대학, 스포츠 팀 등에서도 상징으로 활용되고 있다. 호랑이가 상징인 부대는 육군의 맹호부대와 특전사 707특임대대,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 111전투비행대대 등이 있다. 특히 육군은 백두산호랑이를 그려 넣은 ‘호국이’를 공식 캐릭터로 선정해 홍보에 이용 중이다.

대학교는 고려대학교가 입을 짝 벌리고 있는 안암골 호랑이를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스포츠팀은 대표적으로 야구의 기아KIA가 호랑이를 팀명과 마스코트로 사용하고 있으며, 축구의 울산 현대가 호랑이를 마스코트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 축구 대표팀은 태극마크 대신 호랑이 엠블럼을 2001년부터 사용 중이다.

호랑이는 우리 민족의 삶 속에 녹아들어 관용어와 속담으로 나타나 선조의 경험과 지혜를 전하는 매개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표상으로서 우리나라를 상징하고 민족의식과 자존감을 고취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동물로 여겨지고 있다.

참고문헌 국가 브랜드로서 호랑이를 이용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디자인 안(황순선, 일러스트레이션포럼39,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2014), 국토의 시각적 표상과 애국 계몽의 지리학(목수현, 동아시아문화연구57,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4), 동물 속담과 관용어의 의미 학습(최용수,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2), 한국세시풍속사전-가을(국립민속박물관, 2006), 한국세시풍속사전-겨울(국립민속박물관, 2006), 한국세시풍속사전-여름(국립민속박물관, 2005), 한국호랑이의 발명(김수민,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호랑이의 조선표상화와 육당 최남선(박은정, 동아시아문화연구61,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5), 수호랑 평창 인기 스타로!...전 세계인 흥린 매력은?(KBS뉴스, 2018.2.17.), 평창 마스코트 수호랑 88올림픽 호돌이 정서 이었다(하준호, 중앙일보, 2018.1.1.),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는 백호 수호랑(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6.6.2.), 역사채널e(ebs.co.kr).

구시월 도지는 호랑이도 무서워한다

음력 구시월에 부는 돌풍은 호랑이도 무서워할 정도로 매우 강하다는 의미의 속담.

도지는 여름과 겨울 사이 또는 가을에 비와 함께 일어나서 거친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가리키는 말로 이 돌풍이 불면 열심히 지은 농사를 망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물어가는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하였다. 한승원의 소설 『해변의 길손』에 “구시월 도지는 호랑이보다도 무섭고, 비 한 방울에 바람이 석 섬이란다. 바람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 나가지 말아라.”라는 구절이 쓰여 있다.

유사속담 비슷한 의미의 속담으로는 “구시월 돌풍은 호랑이보다 무섭고, 비 한 방울에 바람이 석 섬이다.”, “구시월 돌풍은 호랑이도 무서워한다.”, “구시월 돌풍에는 비 한 방울에 바람 석 섬이다.”가 있다. 또 “가을비 한 번에 열흘 추수가 늦어진다.”, “가을 장맛비 이삭 싹 난다.”에도 추수할 때 날씨가 순조롭기를 바라는 농민들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구시월의 돌풍은 호랑이도 무서워할 정도로 강해 가을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나왔다. “처서에 비가 오면 십리 안 곡식 천석을 감한다.”와 같은 속담도 농사일에 날씨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의 속담 용례사전(전종진 엮음, 태학사, 1993),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두산동아, 1999), 해변의 길손(한승원, 문이당, 1999).

필자 정병현(鄭炳憲)

범이 불알을 동지에 얼구고 입춘에 녹인다

겨울 추위가 동지^{冬至} 무렵 시작되어 입춘^{立春} 무렵 누그러지는 것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속담.

우리나라 추위는 동지인 양력 12월 22일 무렵부터 시작됐다가 입춘인 양력 2월 3일 무렵이면 풀리기 시작한다. 요즘은 추위가 더 일찍 찾아와 더 늦게 떠나는 듯 느껴지지만, 말 그대로 겨울이 이르는 동지와 봄이 고개를 드는 입춘은 오랜 경험에서 형성된 전통적인 관념이다. 동짓날이 추워야 풍년이 든다는 속신에서 알 수 있듯이 동지가 되면 제대로 추웠고 또 추워야 한다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니 겨울잠을 자지 않고 겨울을 나는 동물들의 몸도 푹푹 열게 마련이다. 동물 가운데 용맹이 으뜸이고 화기^{火氣}나 양기^{陽氣}를 상징하는 범의 불알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민중들의 경험과 관념에 바탕을 둔 상상력이 범의 불알이 얼고 녹는다

는 해학적인 표현을 일구었다.

참고문헌 상말속담사전(宋在琮 編, 東文選, 1993), 우리속담사전(원영섭, 세창출판사, 1993), 한국속담 성어 백과사전1-속담 편(박영원 외 편, 푸른사상사, 2002).

필자 조현설(趙顯高)

산중호걸

山中豪傑

‘산속에 사는 뛰어난 영웅’이라는 뜻으로, 산속에 사는 호랑이를 일컫는 말.

개관 산속에서 동물의 왕으로 군림하는 맹수 호랑이의 위상에 산의 주인·산의 왕·산신의 표상이라는 호랑이의 표상을 더하여 호랑이를 산중호걸이라 하였다.

내용 호랑이의 다른 이름으로는 산군^{山君}·산왕·산지킴·산주인·산영감·백액장군^{白額將軍}·수군^{獸君}·반인장군^{斑寅將軍} 등이 있는데, 호랑이가 산에 사는 맹수의 왕이었기 때문에 호랑이의 다른 이름에 임금이나 왕·장군 등의 글자가 많이 들어갔다. 호랑이의 다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호랑이는 사람들에게 산중의 왕이고 산의 주인, 산속의 장군으로 인식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호랑이는 산신으로 숭배되기도 하였다. 1926년 동아일보에 실린 글에서 최남선^{崔南善}(1890~1957)은 『삼국지三國志』의 “호랑이에게 제사 지내서 신으로 삼았다.”라는 구절을 예로 들면서 ‘사람들이 호랑이에게 제사를 지낸 것은 연원이 오래되었고 전 조선의 풍속이었으며, 최고 맹수인 호랑이가 조선에서 최고 신성시됨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최남선은 호랑이가 금수의 왕다운 위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위력 때문에 사람들에게 ‘호랑이는 무엇이든지 제압하여 이길 수 있으며 나쁜 기운도 막아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고 하였다. 최남선은 산악이란 지상에 있는 최고의 신령스러운 곳이고 하늘을 주재하는 자가 땅에서 자신의 형상을 드러낸 것이며, 호랑이를 산신이라 부르는 것은 산악의 주인인 호랑이가 하늘의 주재자를 표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산속에서 천천히 걸어 다니는 호랑이를 보면서 산속의 왕이자 산속의 주인이며 산신의 표상인 호랑이의 위엄 있는 자태를 아름답게 여겼고, 이를 이름하여 산속의 영웅호걸이라는 뜻으로 산중호걸이라 불렀다.

참고문헌 구비문학에 나타난 호랑이(오세길, 호랑이의 생태와 관련민속, 국립민속박물관, 1997), 근대 이전 호랑이 상징성 고찰(박은정, 온지논총43, 온지학회, 2015), 호랑이1~7(최남선, 동아일보, 1926.1.1.~2.11.).

필자 박은정(朴銀正)

수호랑

백호를 형상화한 평창 동계올림픽대회(2018)의 마스코트.

개관 수호랑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2018) 마스코트이며, 전통적으로 수호의 상징인 백호를 모티브로 제작되었다.

내용 평창 동계올림픽대회(2018) 홈페이지에는 수호랑의 이름에 대하여 “한국어로 ‘보호’를 의미하는 ‘수호’는 2018년 대회의 선수, 관중 및 기타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보호를 상징한다. ‘랑’은 우리말 ‘호랑이’의 중간글자이자 강원도 민요 ‘정선아리랑’의 마지막 글자이다. 수호랑은 도전정신과 열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림픽의 선수와 관중, 그리고 모든 참가자를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이기도 하다.”라고 되어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대회(2018) 마스코트인 수호랑의 이름은 백호가 가지는 ‘수호’라는 상징에서 가져왔다. 백호가 수호의 상징이 된 것은 사신四神 중의 하나인 백호白虎와 관련 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 사방으로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사신이 그려진 이후 백호는 서쪽의 수호신이었다. 백호라고는 하지만 고분 벽화에 그려진 그림은 호랑이보다는 용에 가깝다. 서방西方 백호는 원래 서방을 지키는 신을 그린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에 따르면 서방을 지키는 신이 호랑이의 모습을 일부 지녔다고 한다. 따라서 백호는 용의 모습이건 호랑이 모습이건

상관없이 서방을 지키는 ‘수호의 신’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의궤에 그려진 백호도白虎圖에도 날개 달린 용 모양의 백호 그림도 있고, 흰색 호랑이 몸에 불꽃 날개를 그려 넣기도 했으며, 보통의 흰색 호랑이 그림도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대회(2018)의 마스코트인 수호랑은 수호의 호랑이인 백호의 상징을 계승한 것뿐만 아니라, 서울올림픽대회(1988)의 마스코트인 호돌이를 계승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참고문헌 근대 이전 호랑이 상징성 고찰(박은정, 온지논총43, 온지학회, 2015), 평창 2018 동계올림픽(olympics.com).
필자 박은정(朴銀正)



수호랑 조형물 | 너비150 높이170

오뉴월 손님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여름철 손님 접대의 어려움을 나타낸 속담.

음력 오뉴월은 무더운 여름철인데다 입맛을 돋을 먹거리도 변변치 않아 집안 살림을 맡고 있는 아녀자들에게 걱정을 안겨주는 시기이다. 이런 때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더 난처해진다. 마땅히 대접할만한 음식이 없고 흐트러진 살림살이를 보이게 되니, 흥 잡힐 것이 걱정되어 찾아온 손님이 호랑이처럼 두려운 대상으로 느껴지기 십상이다. 그리하여 옛분들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바쁜 농번기나 한여름에 남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실례로 알고 삼가는 것이 양식 있는 사람의 도리로 알았던 것이다.

참고문헌 속담사전-개정판(이기문, 일조각, 1962).
필자 고재환(高在)

이빨 빠진 호랑이

이전의 세력을 모두 잃어버린 무능력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개관 김윤식金允植의 『운양집雲養集』에 실린 〈호랑이와 표범 이야기(호표설虎豹說)〉라는 글에 보면 “호랑이와 표범은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으나 또한 사람을 두려워한다. 호랑이와 표범이 믿는 것은 발톱과 이빨뿐이다. 그러나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을 만나면 발톱과 이빨도 쓰지 못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호랑이가 믿는 것이 발톱과 이빨이라 했지만, 사람들이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것도 호랑이의 발톱과 이빨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하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권력이나 힘을 모두 잃어버려서 더 이상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다.

내용 호랑이에 대한 기록은 『산해경山海經』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데, 실제 동물 호랑이에 대한 기록과 상상 호랑이에 대한 기록으로 나눌 수 있다. 상상 호랑이로는 호랑이 몸통, 호랑이 이빨이나 발톱, 호랑이 무늬 등 호랑이 신체의 일부가 섞인 동물에 대한 기록이 있고, 또한 호랑이 몸통, 발톱, 이빨, 무늬를 가진 신들에 대한 내용이 있다.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맹수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동물을 상상할 때 호랑이와 닮았다고 하고, 신을 가장 멋지고 강하게 수식할 수 있는 동물도 호랑이었다.

이렇듯 상상의 동물이나 신의 형상에 호랑이 신체의 일부가 포함되었다는 기록은 같은 문자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상상을 하게 하였고, 사람들은 호랑이 무늬, 발톱, 이빨 등에서 왕의 권위, 신의 권위, 맹수의 위용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호랑이의 신체 부위 중에 호랑이의 권위나 맹수 호랑이의 특성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것이 호랑이의 이빨과 발톱이고, 동시에 호랑이의 발톱과 이빨은 용맹함의 상징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하면, 호랑이로서의 권위와 맹수로서의 특성을 모두 잃어버린 호랑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빨이 빠진 호랑이는 무능하고 힘없는 존재이며,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것이다.

참고문헌 雲養集, 근대 이전 호랑이 상징성 고찰(박은정, 온지논총43, 온지학회, 2015), 산해경(편집부, 최형주 역, 자유문고, 2004).
필자 박은정(朴銀正)

조선표상화 朝鮮表象化

호랑이가 조선朝鮮이라는 나라를 표상하게 되는 과정

개관 호랑이의 조선표상화란 호랑이가 언제, 어떻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표상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논의와 그 과정을 표현한 말이다. 호랑이를 일본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며 조선에 대한 긍정적 기운으로 사용한 시초는 1908년 『소년少年』 창간



최남선 '호랑이' 朝鮮歷史及民俗志上的虎 | 1926 | 동아일보

내용 조선은 호랑이의 나라로 불릴 만큼 호랑이가 많았다. 근대 이전 조선에서 호랑이는 사악한 기운을 막아주는 벽사辟邪, 지켜주는 수호守護의 상징이었고, 신령神靈, 위용威容, 권위權威, 길상吉祥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호랑이가 많다는 것과 호랑이가 조선이라는 나라의 표상이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다.

근대 이전 호랑이 자료에서는 호랑이가 조선의 표상이라는 인식을 찾을 수 없다. 더하여 '표상表象'이라는 단어 자체가 근대 이전에는 없었다. 무엇을 드러낸다고 하여 '표表'라는 말을 쓰기는 했지만, '표상表象' 즉 '드러내는 이미지'라는 개념이 조선에는 아예 없었다. 게다가 태양이 임금을 대신할 수는 있지만, 동물이 나라를 대표할 수 있다는 생각도 근대 이전 조선에는 없었다. 프랑스의 땅 모양이 주전자를 닮았다거나 이탈리아의 땅 모양이 장화를 닮았다 등 나라의 지형을 동물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도 19세기 말 서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한반도를 호랑이 형상으로 그린 것은 20세기 초였다. 1908년 최남선은 『소년』이라는 잡지를 발간하면서 한반도를 호랑이 형체로 설명하였다. 일본 지리학자 고토 분지로小藤次郎가 1903년에 한반도의 형상을 토끼 모양으로 형상화한 데 대한 반발로 최남선이 한반도의 호랑이 형상론을 주장한 것이다. 최남선은 한반도에 호랑이 이미지를 덧입혀 진취적이고 팽창적 기운을 불어넣으려 했다.

더하여 최남선은 1926년 동아일보에 「호랑이」라는 7편의 글을 연재했는데, 최남선은 호랑이가 산신山神이 사람들의 눈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형태로 신성을 가졌다는 것과 고조선 이전부터 호랑이가 우리 민족의 토템으로 숭배받아 왔다는 점을 들어, 의도적으로 호랑이를 조선의 신령스러운 동물로 만들었다.

최남선은 '호랑이' 연재 글에서 호랑이 이야기를 집대성하고 체계화한 데서 더 나아가, “조선 역사 및 민속지상의 호랑이, 건국 초두 이래 구원한 조선의 표상”이라고 하며 대놓고 호랑이를 ‘조선의 표상’으로 규정했다.

호랑이를 조선의 신령스러운 동물이며 조선의 표상으로 만든 것이 최남선 개인이라고 단정하기에



소년 창간호 67면 | 1908 | 국립중앙도서관

는 조심스럽다. 그러나 최남선의 7편 「호랑이」 글이 그간 흩어져 있던 호랑이 관련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고, 호랑이가 조선의 표상이라는 관념을 정립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후 최남선의 호랑이 조선표상화 노력은 여러 잡지의 글이나 표지에 호랑이를 등장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903년 고토 분지로가 한반도의 토끼 형상론을 주장한 이후 최남선은 한반도 호랑이 형상론을 주장했고, 1912년부터 1926년까지 일본에서 호랑이 말살 정책을 펼 때 최남선은 잡지와 신문을 통해 신령스러운 동물인 호랑이의 조선표상화를 추진했다. 일본이 조선을 상징하기 위해 금수 호랑이를 내세웠다면, 최남선이 조선을 표상하기 위해 내세운 호랑이는 포효하는 호랑이로 조선의 긍정적 기운을 상징하는 신령스러운 동물이었다. 이때 호랑이는 조선에서 역대로 승배 받아온 벽사辟邪의 상징이고 수호守護의 상징이며 산신의 권현權現인 호랑이었다.

참고문헌 국토의 시각적 표상과 애국 계몽의 지리학(목수현, 동아시아문화연구57,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4), 한반도 호랑이 지도론(정민, 한국학 그림을 그리다, 태학사, 2013), 호랑이의 조선표상화와 육당 최남선(박은정, 동아시아문화연구61,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5).
필자 박은정(朴銀正)

종이호랑이

겉으로는 강하고 사나워 보이거나 실제로는 힘이 없고 속이 빈 사람을 비유하는 말.

개관 호랑이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종이에 그려진 호랑이는 그저 그림일 뿐이다. 외형이 아무리 강하고 두려운 존재라 하더라도, 종이에 그려진 호랑이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없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내용 조선은 호랑이의 나라로 불릴 만큼 호랑이가 많았고, 호랑이가 많은 만큼 호랑이로 인한 피해도 많았다. 유몽인柳夢寅(1559~1623)은 『어우집於集』에서 호환을 당한 사람들이 원귀가 되어 밤에 우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했고, 이익李穡(1681~1763)은 호랑이에게 물려간 백성이 셀 수 없으니 외적의 침공과 같다고 했다. 한말 외국인의 기록에도 조선 사람들이 일 년에 받은 호랑이를 사냥하고 나머지 받은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람의 문상을 다니며 보낸다고 했고, 호환 때문에 한 마을이 없어졌다고도 했다. 그만큼 호랑이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실재하는 호랑이와 달리 종이에 그려진 호랑이는 힘이 없다. 고려시대 시인인 이규보李奎報(1168~1241)는 그림 속 호랑이를 보고 지은 시인 〈제화호題畫虎〉(『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내 수록)에서 “이미 진짜가 아닌데도, 여전히 두려운 위엄 있네已是非眞態, 猶存可怕威.”라고 하였다. 이규보는 그림 호랑이에게서 맹수 호랑이의 모습과 동시에 진짜 호랑이가 아닌 종이호랑이로서의 허울을 본 것이다. 이렇듯 그림으로 그려진 호랑이는 겉으로는 맹수로서의 위엄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실재하는 호랑이의 공격성이나 맹수로서의 포악함이 제거된 힘없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종이호랑이’라고 하면 맹수로서의 포악함이 사라진 채 모양만 호랑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참고문헌 東國李相國集, 於于集, 국역 성호사설2(이익, 민족문화추진회 역, 한국학술정보, 2007), 근대 이전 호랑이 상징성 고찰(박은정, 온지논총43, 온지학회, 2015),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Isabella Bird Bishop, 이인화 역, 살림, 1994).
필자 박은정(朴銀正)

호들이

호랑이를 형상화한 서울올림픽대회(1988)의 마스코트.

개관 한국을 대표하는 호랑이를 친근하고 귀여운 아기 호랑이로 형상화한 것으로, 서울올림픽대회(1988)의 마스코트이다.

내용 서울올림픽대회(1988) 개최지로 선정된 서울의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는 올림픽 마스코트를 제작하기 위해, 1982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마스코트 대상물 현상 공모를 진행했다. 현상 공모에서 호랑이와 토끼가 최종 후보로 올랐는데,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는 1983년 2월 23일 집행위원회를 열어 토끼와 호랑이를 놓고 마스코트 대상물로서의 타당성을 심의한 결과,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호랑이’를 서울올림픽대회(1988) 마스코트로 삼기로 결정했다.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가 제시한 호랑이의 선정이유는 첫째, 민화, 민담, 설화 등을 통해 전통적으로 민중과 친근감이 있고, 둘째, 웅혼하고 씩씩하여 약진하는 민족의 기상을 살릴 수 있으며, 셋째, 디자인할 때에 해학적인 표정 등을 살릴 수 있어 한국적 특징을 부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넷째, 국내 학술계에서도 한국산 호랑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이었다.

전문가들에게 마스코트 디자인을 지명 공모하여, 1983년 11월 29일에 호랑

이 마스코트 디자인을 김현의 작품으로 선정했다. 김현은 호돌이의 기본형을 디자인할 때 “호랑이답게, 무섭지 않고 친근감이 들도록”을 가장 중요한 컨셉으로 정했다고 했다. 김현은 또한 아기 호랑이로 밝고 천진스럽게 보이며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갖게 하려 했고, 호돌이의 목에 오륜 메달을 걸어 올림픽을 상징하게 했으며, 한국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머리에 상모를 비스듬히 씌우고 돌리는 자세로 표현했다고 한다. 또한 상모 끈으로 S자를 표현하여 개척 도시가 서울임을 상징했다.

이후 호돌이 마스코트의 이름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했고,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는 1984년 4월 6일 마스코트의 이름을 ‘호돌이Hodori’로 결정했다. 여성형 마스코트에는 ‘호순이Hosuni’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마스코트의 이름이 호돌이로 확정된 이후 국가가 벌이는 각종 올림픽 관련 사업과 관제 캠페인에 호돌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고, 1988년까지 각종 상품의 포장과 광고에 호돌이가 사용되었으며 관청에서 벌이는 각종 동원 사업과 홍보물 속에서도 호돌이는 올림픽의 대표 상징물로 끊임없이 등장했다. 호돌이는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대회뿐만 아니라 1986년 제10회 서울 아시안 게임의 마스코트로도 사용되었다.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마스코트 호랑이가 1980년대에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예로부터 조선은 호랑이의 나라였다. 일본의 1880년대 판화 그림에도 조선 호랑이가 등장하는데,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조선 호랑이를 때려잡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은 호랑이를 때려잡는 가토 기요마사를 통해 호랑이로 상징되는 조선을 응징하는 승리자 일본의 위용을 묘사했다. 일본이 조선의 상징이라고 제시한 호랑이는 미개한 문명의 금수, 맥 빠진 호랑이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최남선은 1908년 한반도의 호랑이 형태론을 주장했고, 1920년대에는 호랑이를 조선의 표상으로 만들려는 작업을 진행했다. 최남선이 표상한 호랑이는 천제(天帝)가 지상에 모습을 드러낸 존재이고, 오래전부터 숭배받았던 신수(神獸) 호랑이, 앞발을 들고 포효하는 진취적이고 팽창하는 조선의 기운을 상징하는 호랑이었다.

조선 시대까지 호랑이는 벽사, 수호, 길상, 권위, 용맹의 상징이었다면 일제 강점기 시대 호랑이는 식민지 조선인의 일본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었고, 조선이라는 나라의 표상이었다. 현대로 넘어오면서 한반도 호랑이는 멸종했고, 호랑이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서울올림픽대회(1988)의 마스코트 ‘호돌이’를 계기로 한반도의 호랑이 표상은 부



호돌이 인형 | 너비21 | 높이38 | 국립민속박물관

활했고, 평창 동계올림픽대회(2018)의 마스코트인 백호 수호랑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참고문헌 88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의 도상학(서유리, 한국근현대미술사학36, 한국근현대미술학회, 2018), 서울올림픽대회 마스코트 호돌이 디자인에 관한 연구(김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한국호랑이의 발명(김수민,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한반도 호랑이 지도론(정민, 한국학 그림을 그리다, 태학사, 2013), 호랑이의 조선표상화와 육당 최남선(박은정, 동아시아문화연구61,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5),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랑이로(매일경제, 1983.2.24.).

필자 박은정(朴銀正)

호랑이꿈

호랑이가 등장하는 꿈.

개관 호랑이꿈은 호랑이가 등장하는 꿈을 통칭하며, 꿈의 특성상 호랑이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유형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한 해몽도 정해진 원리가 있을 수 없으므로 개인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호랑이꿈에 대한 해석에서 특정한 호랑이꿈의 내용을 특정한 의미로 단정하여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꿈은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호랑이가 우리의 문화에서 가지는 상징성에 빚대어 그와 유사한 의미로 호랑이꿈을 해석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우리 민족에게 호랑이꿈은 호랑이의 용맹함과 신성함에 견주어 길몽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포악함과 경솔함 등에 결부되어 흉몽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내용 우리 문화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은 용과 호랑이다. 우리 민족은 호랑이에 대해 양가적(兩價的) 인식을 형성하게 되는데, 호랑이의 용맹함과 날렵함은 우리에게 공포의 감정을 가지게 하였으며, 동시에 경외의 감정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래서 호랑이는 두려우면서도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상반된 의미를 지닌 동물로 자리 잡게 된다.

민간신앙에서 호랑이는 신성성을 지닌 존재로 통한다. 이러한 신앙대상으로서의 호랑이는 산신령, 산신의 사자, 기우제의 희생물, 수호신의 상징으로 구체화된다. 또 신성성은 다소 약화되었지만 민간의 의식 속에서 호랑이는 효의 수호자이자 후원자이며 보은의 상징이기도 하다. 호랑이는 그 용맹함과 날렵함으로 인해 벽사의 방편으로도 활용되며 절대적인 권위와 힘을 상징하여 권세·명예·승리 등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반대로 호랑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

한 민간에 널리 퍼져 있다. 설화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러한 호랑이의 부정적인 면은 포악함과 경솔함 그리고 어리석음 등이다.

이러한 호랑이에 대한 양가적 인식은 호랑이꿈을 해석하는 데 적용된다. 호랑이꿈은 크게는 길몽과 흉몽으로 나뉘며 길몽의 대표적인 것에는 태몽이 있다. 대개 호랑이가 등장하는 태몽은 장차 태어날 아이의 고귀한 신분과 인격, 명예, 권세 등을 의미한다. 또 꿈에 호랑이에게 물리거나 호랑이와 싸워 이기는 등 호랑이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 길몽으로 여겼다. 아울러 사업과 관련하여 호랑이꿈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호랑이는 백수의 왕으로서 그 강력한 힘과 우렁찬 울음소리로 상징되는데, 꿈에서 호랑이의 위엄 있는 모습을 보면 사업체를 크게 일으키거나 큰 명예를 얻는 등의 의미로 해석한다. 호랑이의 포효소리를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것은 장차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사회적 명예나 부귀를 성취하게 될 징조로 여겼다. 특히 호랑이 중에서도 백호가 집이나 방 안으로 들어오는 꿈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높아지거나 귀한 자손을 잉태할 길몽 중의 길몽으로 여겼다. 이외에 호랑이 등에 올라 타거나 호랑이를 죽이거나 가죽을 얻는 등의 꿈도 대개 길몽으로 보았다.

호랑이꿈은 부정적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는 호랑이의 포악함과 경솔함에 대한 민간의 인식이 반영된 까닭이다. 꿈속에서 호랑이가 마구 날뛰는 것은 집안과 직장 및 일신상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징조로 여겼으며, 호랑이를 보고 크게 두려움을 느꼈다면 대개가 흉몽으로 해석한다. 또 태몽으로 호랑이꿈을 꾸 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팔자가 사나울 것이라 해몽하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다른 띠동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호랑이꿈 또한 특정한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기본적으로 호랑이꿈을 길몽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여, 대개는 고귀한 신분, 부와 명예, 사업의 성공 등의 의미로 여겨진다. 반면 호랑이가 인간에게 끼치는 해악을 반영하여 호랑이꿈을 일신상의 불미스러운 일이 닥칠 것을 예고하는 쪽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렇듯 우리 민족은 호랑이꿈을 해석하는 데 양가적 감정을 적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내고장 우리향토(김천서, 1983), 한국 띠동물의 상징체계 연구(천진기,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호랑이의 생태와 관련 민속(오창영 외, 국립민속박물관, 1997).

필자 오세길(吳世吉)

호랑이선생님

몹시 사납고 무서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호랑이'에서 파생된 표현.

개관 맹수 호랑이는 무섭고 사나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권위와 용맹을 상징했다. 호랑이가 가지는 무섭지만 위엄 있는 상징이 선생님이라는 권위와 결합하여, '호랑이선생님'이라고 하면 권위와 위엄과 존경을 받을 만한 무서운 선생님을 뜻하게 되었다.

내용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자리는 스승이 학문을 가르치는 자리라는 뜻으로 쓰였다. 중국 송나라 장재張載가 항상 호랑이 가죽을 깔고 앉아서 『주역周易』을 강론했기 때문에 후세에 스승이 학문을 가르치는 자리를 호랑이 가죽이라는 뜻으로 고비畢比라고 했다.

또한 호랑이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맹수의 왕으로서 용맹, 권위의 상징이었다. 1926년 동아일보에 실린 글에서 최남선은 호랑이가 '무용武勇'의 상징이 된다면, 무관의 관복 흉배가 호랑이인 것과 군복의 주립 사방에 백모술을 세우고 호랑이 수염이라는 뜻으로 '호수虎鬚'라 부르는 것과 2품 이상의 벼슬아치가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방석으로 위엄을 자랑하는 등 호랑이 가죽으로 위엄을 상징한다고 했다. 조선 시대 초상화에서도 호랑이 가죽으로 위정자들의 권위를 드러냈고, 임금이 신하에게 가상히 여기는 뜻을 표할 때 주는 하사품도 호랑이 가죽이었다. 이렇듯 맹수 호랑이는 가죽 무늬의 아름다움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맹수의 왕으로서 호랑이가 가지는 위엄 때문에 호랑이 가죽, 호랑이 무늬만으로도 그 권위와 용맹을 인정받았다.

더하여 맹수 호랑이의 포효, 호랑이의 눈빛은 사람들을 압도했다. 이러한 맹수 호랑이의 맹수성이 선생님의 권위와 결합되어 '호랑이선생님'이라고 하면 무섭고 위엄 있으며 아름다운 스승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참고문헌 근대 이전 호랑이 상징성 고찰(박은정, 온지논총43, 온지학회, 2015), 역사인물 초상화대사전(이강철 외, 현암사, 2003), 호랑이1~7(최남선, 동아일보, 1926.1.1.~2.11.).

필자 박은정(朴銀正)

호랑이 장가 가는 날

음력 11월에 들어있는 24절기 중의 하나인 동지^{冬至}를 달리 부르는 말.

이 말은 호랑이의 생태적 특성과 관련되어 유래되었다. 민간에서 호랑이는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날씨가 춥고 밤이 긴 동짓날에 암수가 교미를 할 것이라고 여겨 이날을 ‘호랑이 장가 가는 날’이라 하였다. 한편 이날은 부부간의 방사^{房事}를 금기시한다. 그 이유는 호랑이가 동짓날 교미를 하여 평생 한 마리의 새끼만 낳기 때문에 사람도 방사를 하면 자식이 적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이러한 세시풍속이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 그 의미는 다소 변하였다. 곧 호랑이의 생태적 특성에 대한 언급은 탈락되고 단순히 방사를 금해야 한다는 의미로만 전승되고 있다. 방사 금기의 이유도 달라졌다. 동지는 일년 중 밤이 가장 길기때문에 잠귀의 활동이 왕성하다고 하여 방사를 하면 잠귀가 시기하여 남자에게 액운이 닥치며 심지어는 급사하게 된다고 믿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상남도편(문화재관리국, 1972), 한국시풍속연구(임동권, 집문당, 1985),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오세길(吳世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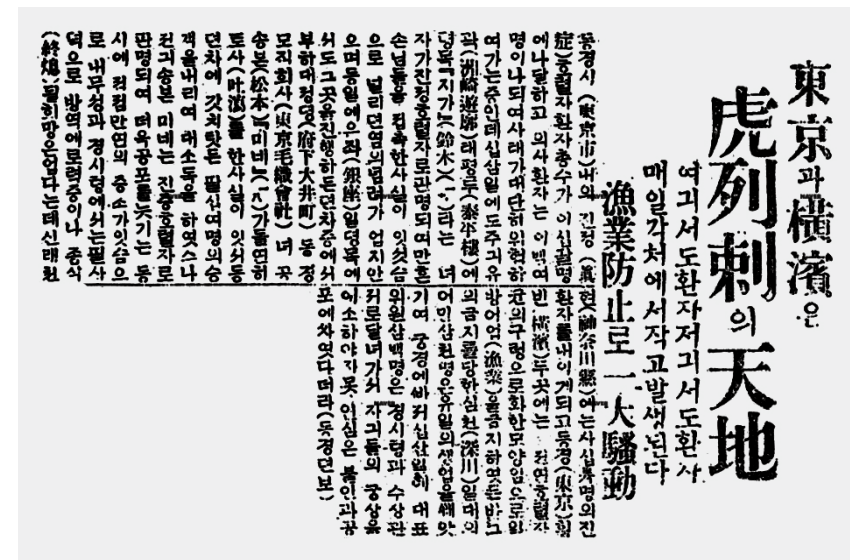
호열자 虎列刺

콜레라의 음역어로 구토와 설사·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탈수가 빠르게 진행됨으로써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급성 전염병.

역사 콜레라 명칭은 1883년 독일 과학자 코흐(Koch, R. 박사가 현미경으로 나타난 세균의 모양이 마치 쉼표(·)처럼 끝이 약간 구부러져 있다고 해서 ‘콤마 바실러스 comma bacillus’라고 명명한 데서 유래한다. 일본에서는 1822년 콜레라 대유행 이후 음역어로 ‘고레라コレラ’라는 명칭을 사용해 오다가 1867년 메이지유신 이후 한자어 ‘호열랄虎列刺’로 정착되었다. 중국에서는 질병의 증상과 특징을 나타내는 ‘호열랍虎列拉’ 혹은 ‘호역虎疫’ 등으로 일컫는 바 있다. 호열자는 ‘호열랄’의 ‘랄刺’을 ‘자刺’로 잘못 써오는 말이다. ‘랍拉’은 쥐는다는 것이고, ‘랄刺’은 어그러지게 한다는 것이고, ‘자刺’는 찢는다는 것이므로 세 가지는 모두 호열자 전염병의 끔찍함을 나타낸다. 호열자 명칭은 ‘호랑이가 살점을 찢어내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내용 한국 최초의 법정전염병은 1899년 8월 19일 대한제국이 내부령 제19호인 <전염병 예방규칙>을 제정하여 선포한 것들로, 두창·장티푸스·발진티푸스·콜레라·이질·디프테리아 등 6종이다. 이 중에서 전문 14개 조로 구성된 <호열자 예방규칙>이 1899년 8월 23일 가장 먼저 반포되었다. 이 규칙에서는 콜레라(호열자)의 원인이 세균이며, 토사물과 오염물질에 대한 소독이 필요하다는 지침이 제시되었다. 콜레라에 걸리면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해 온몸이 비틀거리며 입으로 모든 것을 토하고 설사는 멈추지 않는다. 심장이 약해지고 사지가 차갑게 식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다가 숨을 거두게 된다. 대한제국은 <호열자 예방규칙>에 의거하여 병의 정도와 유행에 따라 임시방역위원과 검역위원 등으로 콜레라 소독을 전담할 행정기구를 설립하여 대처하였다.

호열자는 1821년 첫 유행이 있었고, 1919~1920년 무렵에는 수만 명이 사망하였다. 비록 부산과 인근 지역에 국한되었을지라도 이보다 앞서 1879년에는 일본으로부터 유입되기도 하였다. 1821년(순조 21) 최초 유행 때 ‘괴질’이라



동경과 횡성은 호열랄의 천지 | 1925.9.15. | 동아일보



전염병 방재 교육 제14기 교습생 | 부산 | 1946 | 국립민속박물관

고 불리던 이 병에 걸리면 설사와 구토를 하고 근육이 뒤틀리면서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 극심한 신체 통증이 수반되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발병하였다. 중국을 거쳐 한반도 북부지역으로 유입되어 한성(서울)·경기·영남지역으로 확대되었고, 이듬해에는 호남·함경·강원 등 전국으로 퍼졌다. 1821~1822년 두 해에 걸친 사망자는 수십만 명에 달하였다. 이후에도 1858·1859·1862·1886년에 유행하였고, 1895년에는 수만 명이 희생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도 1902·1907·1909·1912·1916·1919·1920년에 발생하여 1910년대까지 대유행하였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여름에도 해외동포의 대량 유입으로 호열자가 다시 발생하였다.

특징 및 의의

조선 후기 호열자가 발생하자 민간에서는 쥐가 발을 물어 발뒤꿈치에 심한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을 보고 이 병을 ‘쥐통’이라고 일컬었다. 주술적인 대응책으로 쥐를 잡는 고양이 부적을 대문에 붙이기도 하였다. 이는 집안에 들어오는 액을 쫓는 방편으로 대문에다 호랑이 그림을 붙이는 오래된 풍속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료민속학적 의의를 엿보게 해 준다.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해 대문 앞에 금줄을 치거나 처용 그림을 붙이고, 마을 어귀에 장승을 세웠던 것도 유사한 처방책이었다. 대한제국은 광제원을 중심으로 방역과 치료 외에 전국적으로 여제(癘祭)와 성황제(城隍祭)까지 지냈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근대 의료의 풍경(황상익, 푸른역사, 2013), 지구촌 콜레라 유행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현황(정태화·이복권·김호훈, 대한임상감사과학회지27-1, 대한임상감사과학회, 1995), 한국의학사(여인석 외, 역사공간, 2018),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신동원, 역사비평사, 2004), 호환 마마 천연두(신동원, 돌베개, 2013).
필자 박경용(朴敬庸)

호환

虎患

호랑이에게 당하는 재앙과 사고.

내용 호환과 이에 대한 대응은 『삼국사기三國史記』 『고려사高麗史』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목민심서牧民心書』와 외국인이 쓴 기록 등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호랑이 출몰 현황과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영조실록英祖實錄』에는 “1735년(영조 11) 5월 29일 팔도에 모두 호환이 있었는데, 영동지방이 가장 심하여 호랑이에게 물려서 죽은 자가 40여 명에 이르렀다.”라는 기록이 전한다. 이처럼 호랑이가 출몰하였거나, 호환을 당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많은 자료에서 나타난다. 이들 자료에는 호환 관련 기록뿐만 아니라 호환을 당한 가족을 끝까지 찾아서 장사 지낸 열부와 효자에 대해 칭찬하는 기록도 있다.

정약용丁若鏞이 쓴 『목민심서』 「제해除害」에는 백성을 괴롭히는 해독害毒으로 도적·귀신불이와 더불어 호랑이를 들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에도 호랑이로 인한 피해가 모든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 잡지인 『Le Petit Journal』 1909년 12월 12일 자에는 호랑이 두 마리가 민가로 들어와 사람을 해치는 모습의 삽화가 실려 있다. 이를 통해 호랑이가 1900년대에도 일반인들에게 큰 피해를 줬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호환을 당한 사람은 창귀(瘴鬼)가 된다고 여긴다. 이와 관련하여 『청우기담聽雨記談』은 “전하는 말에 의하면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그 영혼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고 호랑이의 노예가 되어 섬기는데, 그 이름을 ‘창귀’라 한다. 호랑이가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면 반드시 함께 나가 호랑이를 위해 안내하며, 호랑이를 장군이라 부르고, 죽으면 곡을 한다.”라는 설명으로 창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위호작창(爲虎作倀)’은 ‘호랑이를 위해 창귀가 되다’라는 뜻인데, 나쁜 사람의 앞잡이가 되어 나쁜 짓을 일삼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호환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 또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호랑이를 잡는 정규군사인 착호갑사捉虎甲士에 대한 제반 규정과 잡은 사람에 대한 포상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수가 1474년(성종 5)에 1만 4,800명으로 절정에 달하였다. 그리고 호랑이 피해를 막는 것을 지방관의 중요한 책무로 규정하였다. 또한 호랑이 가족에 비싼 값을 매겨 그 가족을 벗겨오면 누구나 큰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에 더하여 고을마다 의무적으로 호랑이 가족을 내도록 하여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호랑이 사냥에 나섰다.

민간에서도 호랑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호발, 빗장, 호망(虎網), 호랑이 퇴

치용 부적 등을 만들어 활용하였다. 호발은 굵은 목재로 만든 긴 발을 문밖에 걸어 호랑이가 문을 쉽게 부수지 못하도록 만든 도구이다. 빗장은 문 안쪽이나 바깥쪽에 별도의 홈을 내어 끼우는 두꺼운 나무판자로, 이것이 이중문의 역할을 하기에 범이 머리로 받거나 앞발로 쳐도 끄떡없게 된다. 호망은 굵은 밧줄로 엮은 땅을 서까래에서 마당으로 늘어뜨려 범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구조물이다.

이와 함께 동해안 지역에서는 호환을 입었던 마을에서 호랑이에게 물려가 죽은 영혼을 위로하고 호환을 예방하기 위해 서낭굿이나 별신굿을 할 때 '범굿' 또는 '호탈굿'이라 불리는 굿거리를 하였다.

호랑이가 사람을 물고 가서 먹는 곳을 호식터 또는 호람虎噬이라고 한다. 또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고 난 후에 남긴 유구遺軀를 거두어 장사葬事 지내는 것을 호식장虎食葬이라고 한다.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은 후 남긴 시신을 유족들이 찾으면 그 자리에서 화장한 다음 그 위에 돌무덤을 쌓고 시루를 얹어놓은 후 시루 구멍에 가락을 꽂아 놓는 형태의 무덤인 호식총虎食塚을 만든다.

이처럼 인간에게 큰 피해를 주기에 공포의 대상이 된 호랑이와 인간의 악랄한 심성을 비교하여 풍자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올바른 인간성 함양의 교훈을 주려는 글들이 예부터 많이 쓰였다. 『어우집於集』에 수록된 「호정문虎辨文」, 이광정의 「호예虎倪」, 박지원의 「호질虎叱」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는 호담국虎談國이라 불릴 정도로 호랑이 이야기가 많고, 호랑이 출몰을 외적의 침공과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호랑이가 많았던 나라이다. 이로 인한 호환과 관련하여 김윤식金允植은 흑자의 말을 빌려 “호표虎豹의 환患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니 면하면 다행이고 면하지 못하면 운명이다.”라고 하였다.

즉 호환을 단순한 사고가 아닌 신神에 의한 운명적 사건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산제山祭를 정성껏 지내지 않으면 호환을 당한다는 등 호랑이에 의한 피해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실로 여긴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들은 호랑이를 두려움과 존경의 이중적인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런 감정들이 모여서 마침내 호랑이를 신성한 존재로 인식하게끔 하였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聽雨記談, 근대 이전 호랑이 상징성 고찰(박은정, 온지논총43, 온지학회, 2015), 강원도 호랑이와 멧돼지(국립민속박물관·강원도산림박물관, 2018), 송배와 수렵의 이중주 강원도 호랑이와 멧돼지(국립민속박물관, 2018), 위호작창(김성일, 고사성어대사전, 2013), 호식장(김강산, 태백문화원, 1988), Le règne du tigre en Corée(Le Petit Journal, 1909.12.12).

필자 김도현(金道賢)



LE RÈGNE DU TIGRE EN CORÉE
Depuis que les Japonais y ont interdit le port d'armes, les tigres répandent la terreur

부록

호랑이 문화재
Tiger: Cultural Heritages

호랑이 이야기
Tiger: Tales

우리말 속 호랑이
Tiger: Oral Tradition

호랑이 소식
Tiger: News

대중매체 속 호랑이
Tiger: Mass Media

색인
Index

필자
Author

호랑이 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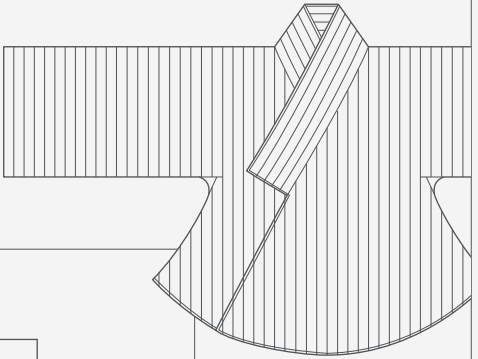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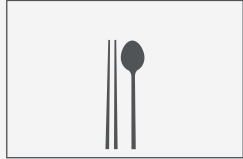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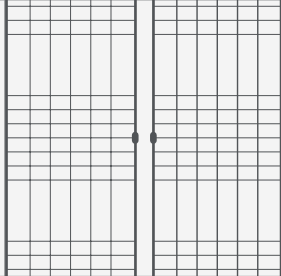






Tiger: Cultural Heritages

호랑이 관련 국립박물관 소장품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수목원산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p>문화예술 p.272</p> 	<p>의생활 p.283</p> 	
<p>식생활 p.285</p> 		
<p>주생활 p.287</p> 	<p>산업/생업 p.292</p> 	
<p>전통과학 p.294</p> 	<p>사회생활 p.295</p> 	<p>교통/통신 p.293</p> 
		<p>종교신앙 p.297</p> 



호랑이상

寅像
박찬수
나무
국립민속박물관 | 참고자료 2099



강기호 필 암하맹호도

姜基浩筆岩下猛虎圖
강기호
종이
가로77cm 세로88cm
국립중앙박물관 | 증 7522



작호도 족자

鵲虎圖簇子
종이
가로37.8cm 세로60cm
국립전주박물관 | 황 1559



작호도

鵲虎圖
종이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7496



칠리향지당 필 죽호도

七里香芝堂筆竹虎圖
칠리향지당
종이
가로30cm 세로133cm
국립중앙박물관 | 본관 8001

석산 필 죽호도

石山筆竹虎圖
석산
종이
가로31cm 세로115cm
국립중앙박물관 | 본관 8147



두령 작품 1980년 5월 8일 삼민 호랑이

미술동인 두령
종이
가로52.7cm 세로73cm 두께 3cm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한박 12487

분청 사기 토우편

粉靑沙器土偶片
도자기
현재길이5.8cm
국립대구박물관 | 상주 778



말하는 얘기책 토끼와 호랑이 음반

종이
가로21.5cm 세로21.5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39347



맹호도

猛虎圖
종이
가로218cm 세로221.5cm
국립중앙박물관 | 남산 1240



산신도

山神圖
섬유
가로68.6cm 세로85.6cm
국립전주박물관 | 황 1618



산신도

山神圖

종이

가로63cm 세로97cm

국립중앙박물관 |

신수 14203



김양기 필 송하맹호도

金良驥筆松下猛虎圖

김양기

섬유

가로40.1cm 세로122cm

국립중앙박물관 | 본관 7976



호랑이 문양 거꾸집

금속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30775



송호도

松虎圖

전 형암

섬유

가로29.8cm 세로30.2cm

국립중앙박물관 | 동원 2427

산신도

山神圖

섬유

너비50cm 길이71.5cm

국립중앙박물관 | 남산 1420

송하맹호도

松下猛虎圖

섬유

가로121cm 세로44cm

국립진주박물관 | 진주 1115



십이지신상 탁본

十二支神像拓本

종이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51251



송호도

松虎圖

종이

가로86cm 세로86.5cm

국립중앙박물관 | M번 6



십이지 도판

十二支陶板

도자기

가로16.7cm 세로21.9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82751



호랑이연

鳶

종이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4774



맹호도
猛虎圖
종이
가로55.1cm 세로96cm
국립중앙박물관 | M번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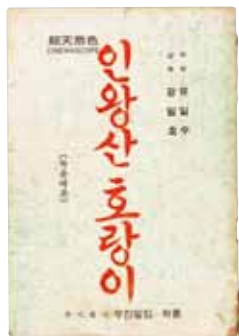


자수 맹호도
刺繡猛虎圖
홍인선
섬유
가로83.5cm 세로151.5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56451

용호도
龍虎圖
섬유
가로95.1~108cm 세로73~155.5cm 축114.3cm
국립중앙박물관 | 덕수 2300



인왕산 호랑이 녹음 대본
종이
가로17.6cm 세로25.2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74313



죽호도
竹虎圖
종이
가로32.3cm 세로96cm
국립중앙박물관 | 신수 16404

죽호도
竹虎圖
종이
가로26.5cm 세로75.4cm
축45cm
국립중앙박물관 | 구 4393

친자호도
親子虎圖
섬유
가로40.2cm 세로106.9cm
국립진주박물관 | 진주 1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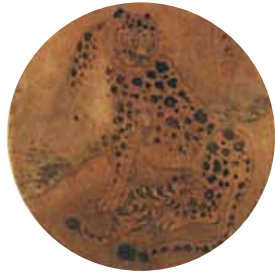


필자미상 호도
筆者未詳虎圖
섬유
가로39.2cm 세로116.8cm
국립중앙박물관 | 구 4286

민화 호도
民畫虎圖
종이
전체너비81.4cm
전체길이110.2cm
가로54cm 세로81.8cm
국립중앙박물관 | 중 7520



호도
虎圖
섬유
가로23cm 세로23cm
국립중앙박물관 |
신수 15904



호도
虎圖
섬유
가로86.5cm 세로130.2cm
국립진주박물관 | 진주 1113



호도
虎圖
섬유
가로70cm
세로192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81403



해태응·호응 판화
獬豸鷹·虎鷹版畫
종이
가로64.8cm 세로97.2cm
국립중앙박물관 | 증 7528

호도
虎圖
종이
가로44.2cm
세로62.5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90325



운포 필 호도
雲浦筆虎圖
운포
종이
가로62.5cm 세로74.7cm
국립중앙박물관 | 본관 4411

호랑이 부적 그림
종이
가로79cm 세로58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38825



호도
虎圖
종이
너비60cm
길이121cm
국립중앙박물관 |
남산 2553



호랑이 목각인형
木刻人形
나무
너비33~35cm 높이28~29.5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70297



호랑이 조각상
木製虎像
나무
높이49.5cm
국립중앙박물관 | 남산 2397



호랑이 탐본

虎搨本
종이
가로53.4cm
세로59.2cm
국립중앙박물관 |
증 7525



호랑이 그림

虎圖
종이
가로36.5cm 세로54.5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7493



호랑이 그림 나무

가로61cm 세로50.5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35005



호작도

鵲虎圖
종이
가로80.6cm 세로134.6cm
국립중앙박물관 | 동원 2613



호도

虎圖
나무
가로48cm
세로42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35007



호도

虎圖
섬유
가로62cm
세로52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35006



격호도·격룡도

擊虎圖·擊龍圖
윤덕희
섬유
가로20.7cm 세로28cm
국립중앙박물관 | 본관 2208

호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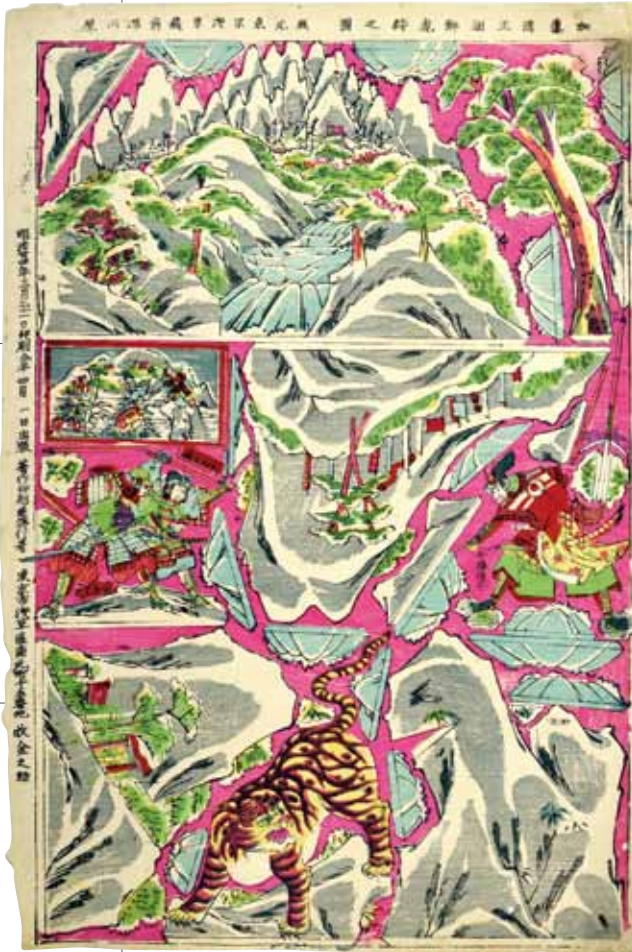
胡獵圖
종이
전체높이169.7cm 가로50~55.6cm 세로124~124.7cm
국립중앙박물관 | 신수 15297

호렵도병풍

胡獵圖屏風
종이
가로31.6cm 세로116.7cm
국립전주박물관 | 전주 5138



목판 호랑이
 加藤清正朝鮮虎狩之圖
 종이
 가로26cm 세로39cm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 국립수목원 140262



호랑이모양토제품
 虎形土製品
 흙
 높이17.5cm
 국립경주박물관 | 국은 205



자라는 호랑이(1·2·3)
 종이
 가로18.5cm 세로25.5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39313



의생활

단호흉배
 單虎胸背
 섬유
 세로22.2cm~22.3cm
 가로20.2~20.3cm
 국립중앙박물관 |
 증 7321



단호흉배
 單虎胸背
 섬유
 가로15.8cm
 세로17.8cm
 국립중앙박물관 |
 신수 11466



쌍호흉배
 雙虎胸背
 섬유
 국립중앙박물관 |
 남산 797



쌍호흉배
 雙虎胸背
 섬유
 가로16.9cm
 세로18.3cm
 국립중앙박물관 |
 남산 798



쌍호흉배
 雙虎胸背
 섬유
 너비20.5cm
 길이22.8cm
 국립중앙박물관 |
 고적 29258



호랑이모양 띠고리
 靑銅製虎形帶鉤
 금속
 너비2.8cm 현재길이3.1cm
 국립대구박물관 | 성주 180



칠보 호랑이발톱 단작 노리개
 七寶虎鉤爪單作佩物
 금속
 전체길이27.5cm
 국립중앙박물관 | 신수 16954



호랑이모양 허리띠고리
 靑銅虎形帶鉤
 금속
 현재너비9.2cm 길이7.4cm
 국립청주박물관 | 청주 57997



단호흉배
單虎胸背
섬유
가로 16.7cm
세로 18.3cm
국립중앙박물관 |
남산 245



호랑이 모양 대구
虎形帶鉤
금속
길이 11cm
국립중앙박물관 | 홍산 1014



호랑이 모양 허리띠 고리
靑銅製虎形帶具
금속
너비 5.9cm 길이 12.5cm
국립중앙박물관 | 신수 1606



호랑이 모양 띠 고리
虎形帶鉤
금속
길이 18.7cm
국립대구박물관 | 경산 4523



호랑이 모양 띠 고리
虎形帶鉤
금속
현재길이 16.6cm
국립대구박물관 | 경산 4899



단호흉배
單虎胸背
섬유
가로 26cm
세로 26.8cm
국립중앙박물관 |
신수 15978



호랑이발톱 노리개
금속
길이 6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16947



백자 청화 사자 호문 호
白磁靑花獅子虎文壺
도자기
국립중앙박물관 | 남산 492



백자 청화 송호문 호
白磁靑畫松虎文壺
도자기
바닥지름 14.8cm 높이 37.5cm 입지름 13.8cm
국립중앙박물관 | 남산 497

백자 청화 용호문 소각병
白磁靑畫龍虎文小角瓶
백자 청화 용호문
도자기
바닥지름 2.3~5.2cm 높이 8cm
입지름 1.8cm
국립중앙박물관 | 동원 208



호족반
虎足盤
나무
지름 40cm 높이 27cm
국립춘천박물관 | 수증 260



호족반
虎足盤
나무
지름(위) 36.5cm 높이 24.5cm
국립춘천박물관 | 수증 654



호족반

虎足盤
나무
지름38.5cm 높이27.4cm
국립춘천박물관 | 수증 345



호족반

虎足盤
나무
지름44.3cm 높이23cm
국립춘천박물관 | 수증 655



호족반

虎足盤
나무
지름47cm 높이31.5cm
국립중앙박물관 | 증 9321



호족반

虎足盤
나무
전체너비69.3cm 높이42.5cm
국립중앙박물관 | 증 9136



호족반

虎足盤
나무
지름42cm 높이24cm
국립중앙박물관 | 증 9322



호족반

虎足盤
나무
지름41cm 높이28cm
국립중앙박물관 | 증 9325

주생활

인상

寅像
금속
너비8.5cm 길이37.7cm 높이14.4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666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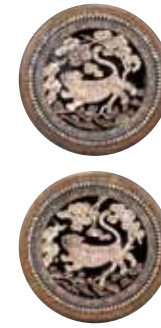
맹호일성

猛虎一瞥
섬유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46080



나전 칠 배꺾모

螺鈿枕板
패갑
지름17.9cm
국립중앙박물관 | 덕수 1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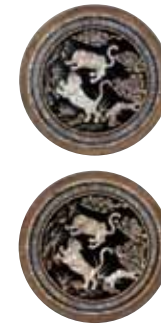
나전 용·호랑이무늬 문갑

螺鈿長生文文匣
나무
가로72cm 세로37.3cm 높이41.5cm
국립진주박물관 | 진주 1136



나전 칠기 호랑이무늬 배꺾모

螺鈿漆器案席
패갑
지름21cm
국립중앙박물관 | 신수 498



나전 함

螺鈿函
나무
가로13.2cm 세로46.5cm 높이15cm
국립중앙박물관 | 신수 15922



동제 호랑이무늬 둥근 거울
銅製雙虎紋圓形鏡
금속
지름10.1cm
국립중앙박물관 | 덕수 3924



호랑이 인형
나무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48582



백자 양각 동물무늬 지통
白磁陽刻瑞獸瑞禽文紙筒
도자기
바닥지름12cm 높이14cm 입지름14.5cm
국립중앙박물관 | 수정 16



백자 청화 양각 철화 소나무·호랑이무늬 필통
白磁靑畫陽刻松下猛虎文筆筒
도자기
지름13.6cm 높이13.3cm
국립중앙박물관 | 덕수 6400



백호무늬 벽돌
白虎文磚
흙
가로36.7cm 세로10.7cm 두께 5.6cm
국립중앙박물관 | 신수 33



베갯모
枕飾
섬유
지름19.6cm
국립중앙박물관 | 신수 12517



벽걸이 장식품
나무
가로53cm 세로22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39529



부채
종이
너비35.5cm 길이49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71549



서수무늬 거울
瑞獸文鏡
금속
지름14.5cm
국립중앙박물관 | 신수 16519



성냥갑
종이
가로5.5cm 세로4.5cm 높이1cm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
국립수목원 160262-334



은상감 까치 호랑이무늬 자석벼루
銀象嵌虎鵲紋紫石硯
돌
높이2.3cm
국립중앙박물관 | 신수 6920

장식용 액자
종이
가로97cm 세로36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46081



까치호랑이 집게
 금속
 너비4cm 길이6.5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83116



까치호랑이 책갈피
 종이
 가로5.3cm 세로7.6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83093



청동 쌍호랑이 무늬 방향 거울
 銅製雙虎文方形鏡
 금속
 지름11.8cm
 국립중앙박물관 | 덕수 63



청동 호랑이 무늬 거울
 銅製四神文圓形鏡
 금속
 지름15.8cm
 국립중앙박물관 | 덕수 1690



필자미상 민화 십이지신도·호작도 양면 병풍
 筆者未詳 民畫十二支神圖虎鶴圖兩面屏風

종이
 전체너비381.7cm 전체높이49.3cm
 가로25.8cm 세로43.6cm
 국립중앙박물관 | 구 4988

호랑이 인형
 흙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48573



호랑이무늬 나전칠기 베갯모
 螺鈿漆器虎文枕頭頂
 패갑
 국립중앙박물관 | 남산 1551



호랑이무늬 베갯모
 螺鈿虎文枕頭頂
 패갑
 지름19cm
 국립중앙박물관 | 남산 2371



호랑이무늬 베갯모
 木製虎文枕頭頂
 나무
 국립중앙박물관 | 남산 2389



호랑이무늬 베갯모
 木製虎文枕
 나무
 지름19.3cm
 국립중앙박물관 | 남산 1159



호랑이사슴무늬 암키와 편
 虎鹿文平瓦片
 흙
 너비16.5cm 길이29.6cm 두께2.8cm
 국립청주박물관 | 청주 946



석제 호랑이 조각
 돌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7556

화각 필통
 華角筆筒
 골각
 너비12.5cm 높이20cm
 국립중앙박물관 | 남산 1645





산업/생업

호랑이 꼬리뼈

虎尾椎骨

골각

현재길이5.8cm

국립청주박물관 | 청주 36438



호랑이 모양 먹통

虎形墨桶

나무

너비5.8cm 길이12.9cm 높이5cm

국립중앙박물관 | 덕수 1862



호랑이 무릎뼈

虎膝蓋骨

골각

현재너비3.8cm 현재길이5cm

국립청주박물관 | 청주 36440



호랑이 발등뼈

片

골각

너비2.2cm 길이3.1cm

국립청주박물관 | 청주 675



호랑이 발가락뼈

虎足趾骨

골각

길이4cm 현재길이1.7cm

국립청주박물관 | 청주 28251



호랑이 발가락뼈

虎足趾骨

골각

길이3.4cm 길이3.1cm

국립청주박물관 | 청주 26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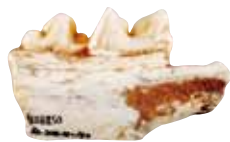
호랑이 아래턱

虎下顎骨

골각

현재길이6.2cm

국립청주박물관 | 청주 28250



호랑이 손등뼈

虎中手骨

골각

현재길이11.6cm

국립청주박물관 | 청주 36439



교통/통신

1962년 호랑이띠 해 우편 소인이 찍힌 엽서

체신부

종이

가로9cm 세로14cm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아고 6700



크리스마스 썰

대한결핵협회

종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한박 5298



해와 달 이야기 우표

종이

가로3.7cm 세로2.3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86634



해와 달 이야기 우표

종이

가로3.7cm 세로2.3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86635



도인장·석인장
陶印章·石印章
흙
국립중앙박물관 | 신수 1175



부적판
符籍板
나무
두께1.4cm
국립중앙박물관 | 신수 9579



12지신 목판-호랑이
나무
가로36.8cm 세로24.3cm 두께3.5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28167



88서울올림픽 기념 호랑이한반도 수건
섬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한박 4038



나무로 만든 호랑이를 타고 있는 인물상
木造騎虎人物像
나무
높이33.4cm 길이18.5cm
국립중앙박물관 | 신수 14495



석관
石棺
돌
국립중앙박물관 | 신수 5883



석관
石棺
돌
국립중앙박물관 | 신수 1356



석관
石棺
돌
국립중앙박물관 | 신수 5880



청동 호랑이모양 허리띠 고리
靑銅虎形帶鉤
금속
가로8.1cm 세로4cm
국립김해박물관 | 김해 66143





종교신앙

청동 십이지상-호랑이
靑銅十二支寅像
금속
현재높이7.5cm
국립경주박물관 | 경주 7531



청동제 호랑이모양 허리띠 고리장식
靑銅製虎形帶飾
금속
길이15.5cm
국립경주박물관 | 경주 63022



청동제 호랑이모양 허리띠 고리장식
靑銅製虎形帶飾
금속
현재길이13.2cm
국립경주박물관 | 경주 36698



청동 호랑이모양 띠고리
靑銅虎形帶鉤
금속
전체길이16.2cm 높이6.4cm 두께 0.8cm
국립경주박물관 | 사라 2088



청동 호랑이모양 띠고리
靑銅虎形帶鉤
금속
국립경주박물관 | 사라 2095



허재 묘지명
許載墓誌銘
돌
국립중앙박물관 | 신수 5877



호랑이와 회색 쥐 응변 원고
김혜경
종이
가로25.5cm 세로17.8cm 불신높이0.1cm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구입 3253



목제 나한상
木製羅漢像
나무
너비24.7cm 높이38cm
국립중앙박물관 | 신수 9617



산신도
山神圖
섬유
전체높이137.8cm
전체너비100cm
가로69.5cm 세로106cm
국립중앙박물관 | 신수 15483



산신도
山神圖
섬유
가로67cm 세로80cm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29057



산신도
山神圖
섬유
국립민속박물관 | 민속 6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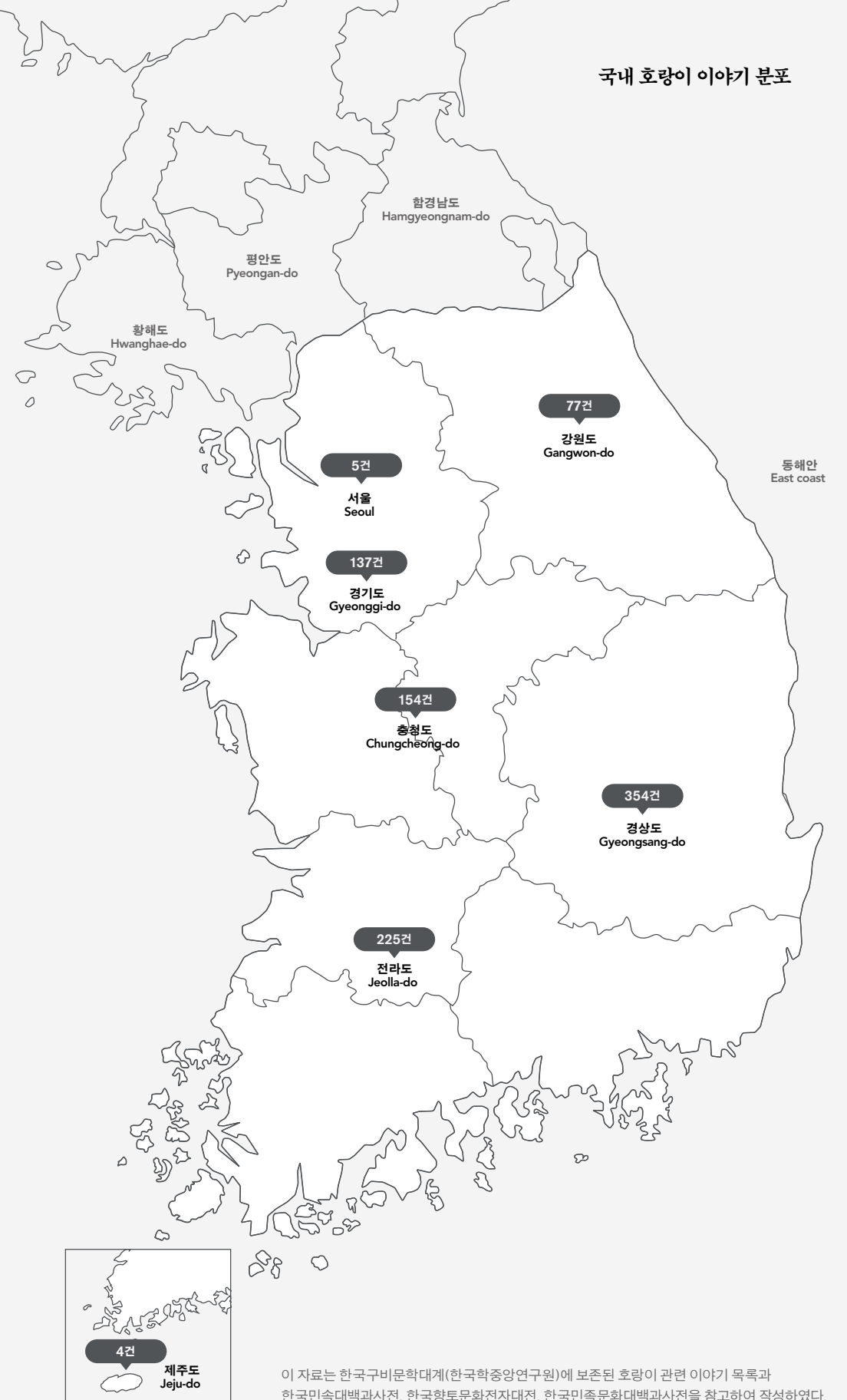
산신도
山神圖
섬유
전체높이146.1cm 전체길이99.8cm
가로81cm 세로109.5cm
국립중앙박물관 | 신수 15313

십육나한도
十六羅漢圖
섬유
가로188.6cm 세로104.1cm
국립중앙박물관 | 신수 13566

호랑이 이야기

Tiger: Tales

국내 호랑이 이야기 분포



지역별 호랑이 설화

강원도	
ㄱ	강감찬과 호랑이 괴로 호랑이 잡아먹고 할머니 놀린 토끼
ㄴ	나무하러 갔다 호랑이에게 물려간 어린아이 내장이 큰 호랑이
ㄷ	대변보며 호랑이 잡은 할아버지 돌로 호랑이 잡은 배돌석 떡함지로 호랑이를 이긴 엄마 띠놈띠놈소리/호랑이쫓는소리
ㄹ	말곡리 호랑이의 횡포 망상동 만우에서 만난 호랑이
ㅁ	발가벗고 호랑이 잡은 밥 장사 밤재호랑이 물린 강감찬
ㅂ	사람 몸통만 먹는 호랑이 삼대 독자를 살린 호랑이 삼대독자 살린 호랑이 삼척 호랑이의 네 가지 재주 서낭 치성드려 도망간 호랑이 술이 취해 산속에서 잠든 사람을 깨워준 호랑이
ㅇ	아기 물어간 호랑이의 최후 아들대신 토동지킨 호랑이 아버지 죽인 호랑이 잡게 도와준 이장사 얼떨결에 호랑이 잡은 포수 여자의 거시기로 호랑이 잡은 여자 오누이와 호랑이
ㅈ	조상드릴 쌀을 먹어서 나타난 호랑이
ㅊ	치마를 뒤집어쓰고 호랑이 쫓은 여인
ㅋ	토끼에 속은 호랑이
ㆁ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ㅇ	한재(大峙)의 호랑이 혀 빠진 호랑이 호랑이 강 건너기 호랑이 골린 이야기 호랑이 구한 엄 효자 [충효열 삼절이 난 엄씨집안] 호랑이 굴 수신 중 호랑이 꼬리는 끝이 희고, 토끼 꼬리는 짙은 이유 호랑이 꼬리에 흰털이 생긴 이유 호랑이 눈썹 호랑이 때문에 도둑으로 몰린 아버지 호랑이 때문에 술 끊은 사람

ㅎ	호랑이 목에 걸린 비녀 꺼내준 의원할머니 호랑이 목에 걸린 비녀 빼준 이야기 호랑이 물린 과부 호랑이 미끼 호랑이 바위의 유래 호랑이 배 까뒤집고 나온 사람 호랑이 뱃속 호랑이 사냥 호랑이 잡는 도리깨 호랑이 잡은 아이들 호랑이 잡은 여인 호랑이 잡은 장사 호랑이 쫓는 비방 호랑이가 감복한 효자 호랑이가 구한 학생 호랑이가 도와 준 효부 권씨 호랑이가 따라다니는 할머니 호랑이가 잡아 준 명당 자리 호랑이가 절벽에 부딪혀 죽은 호암소 호랑이도 제 새끼 예뻐하는 건 아니다. 호랑이로 변신한 여자 호랑이를 소에 빼뜨려 죽인 도사 호랑이를 잡은 아이들 호랑이를 잡은 이야기 호랑이를 잡은 황씨 할머니 호랑이를 중국으로 모두 보낸 강감철 호랑이를 쫓은 노인 호랑이를 타고 다닌 효자 호랑이를 타고 단종을 뵈 조여 호랑이에게 배운 도술로 부자 된 막내 호랑이에게 복수 호랑이에게 죽은 부잣집 아들 호랑이에게 패한 김장군 호랑이에게 흘렸다 돌아온 아이 호랑이와 중 호랑이의 도주 호랑이의 보은 황포수와 백호랑이
경기도	
2	2대 독자만 태워서 사라진 호랑이

ㄱ	강화도로 귀향 온 호랑이 검단산 호랑이 검단산 호랑이 본 시아버지 검단산 호랑이 산신 검단산 호랑이굴에서 발견된 아이 고사 지내는 호랑이 공동묘지에서 본 호랑이 구름산에 살던 호랑이 새끼 구해 준 호랑이가 잡은 뿔자리 굴 속에 숨어 있던 호랑이 기지로 호랑이 고개 넘어간 여자 기지로 호랑이와 형제 맺은 사람 길 밝혀준 호랑이
ㄴ	나물 바구니를 돌려 준 호랑이 나물바구니 돌려준 호랑이 능고개에서 만난 호랑이 새끼
ㄷ	담뱃불을 무서워하는 호랑이 도고내 고개 성황당의 호랑이 도고내 고개에서 만난 호랑이 도리깨를 무서워한 호랑이 도섭(변신)한 호랑이 만난 할머니 동네까지 바래다 준 호랑이 돼지 물어간 호랑이 떡장수와 호랑이
ㄹ	마을에 내려온 호랑이와 공동묘지에서 시체 파먹는 여우 말실수로 호랑이 만난 조부 매바위에서 만난 호랑이불 매와 호랑이가 지켜주는 개섬 모래를 뿌린 호랑이(호랑이를 만나 사람) 미사리 수령바위 호랑이
ㅁ	밤에 호랑이와 마주친 사연 발을 매다 호랑이를 본 어머니
ㅂ	사람 데려다 주고 개 물어간 호랑이 사람 말귀 알아듣는 호랑이 사람 머리 달아놓은 호랑이 사람 오가는 길에 나와 있던 호랑이 사람을 태워 준 호랑이 사람이 주워 온 새끼를 데려간 호랑이 사자를 무서워한 호랑이 산에 숨어 있던 호랑이

ㅅ	새끼 귀히 해 준 아낙들에게 보답한 호랑이 새끼를 예쁘다면 좋아하는 호랑이 술개와 호랑이가 도운 효자 송호랑이터 술 마시면 해코지하는 호랑이 신발 물었다 준 상계동 호랑이
ㅇ	아기 살려준 호랑이 아기를 잡아 먹은 호랑이 여자 음문 보고 달아난 호랑이 여자 음부 보고 도망간 호랑이 영험한 호랑이 옷을 벗어 호랑이 쫓은 선비 울산바위 아래 호랑이 월경 혈로 호랑이 쫓은 여자 인색한 상갓집에서 돼지 물어간 호랑이
ㅈ	자기 새끼 예쁘다고 해서 보은한 호랑이 제 새끼를 예쁘다면 좋아하는 호랑이 제사 지내고 오다가 호랑이불 본 사람 종을 절에 데려다 준 호랑이
ㅊ	청계산 호랑이 산신 총각의 부탁으로 호랑이를 붙잡다 늙은 처녀 취녕굴과 호랑이를 쫓은 강감찬 취녕굴로 호랑이 잡은 이야기
ㅎ	할머니를 바래다준 호랑이 호랑이 고개를 넘어간 여인 호랑이 나타난 장림 호랑이 내쫓은 강감찬 호랑이 덕분에 살아난 대학생 호랑이 뒷 무덤 유래 호랑이 만난 어머니 호랑이 목에 걸린 비녀 호랑이 목에 있던 비녀를 뽑아준 사람 호랑이 물리치고 고개를 넘은 여인 호랑이 물리친 신부 호랑이 보고 혼이 나가 죽은 사람 이야기 호랑이 본 경험담 호랑이 새끼를 가져온 사람 호랑이 새끼를 예뻐한 사람 호랑이 새끼를 잡아온 사람 호랑이 잡는 도령

ㅎ	호랑이 잡은 이야기
	호랑이, 원숭이, 토끼의 전래
	호랑이가 같이 다닌 사람
	호랑이가 데려다 준 사람
	호랑이가 떡 뺏아 먹은 이야기
	호랑이가 무섭나 배고픔이 무섭나(경험담)
	호랑이가 앉아서 운 바위
	호랑이가 있는 자피골
	호랑이가 정해준 암자 터
	호랑이가 지켜준 학생
	호랑이가 집까지 바래다 준 할머니
	호랑이가 쳐다보는 삼성리 마을
	호랑이가 하룻밤을 재운 아이
	호랑이굴 소나무의 동티
	호랑이는 보는 사람만 본다
	호랑이도 감동한 형제 우애
	호랑이도 제 새끼 예쁘다 하면 은혜를 갚는다
	호랑이를 놀래킨 며느리
	호랑이를 달래 아기를 지킨 여인
	호랑이를 달랜 할아버지
	호랑이를 만난 아버지
	호랑이를 만난 할아버지
	호랑이를 만났던 경험들
	호랑이를 물리친 송장군
	호랑이를 물리친 여자
	호랑이를 물리친 염장군
	호랑이를 물리친 재치
	호랑이를 본 경험 이야기
	호랑이를 잡은 머슴
	호랑이를 잡은 첩소
	호랑이를 잡은 첩소
	호랑이를 타고 내려오는 칠사산의 산신령
	호랑이를 타고 다닌 아버지
	호랑이보다 무서운 곳감
	호랑이보다 무서운 말(言)
	호랑이에 잡혀간 동생(호환으로 혼이 빠진 사람)
	호랑이에게 시아버지 대신 아들을 준 효부
	호랑이에게 주인을 지켜준 소
	호랑이에게 죽어 새가 된 아이
	호랑이에게 흘린 사람

ㅎ	호랑이에게서 부잣집 처녀 구해 사위된 가난한 총각
	호랑이와 곳감
	호랑이와 메밀떡 할멈
	호랑이와 산골만신
	호랑이와 싸운 소
	호랑이와 싸울 때 응원하지 않은 주인을 죽인 소
	호랑이와 씨름하여 이긴 사람
	호랑이와 장수
	호랑이의 시험
	효부와 호랑이
	효자 묘를 지켜준 호랑이
	효자를 도와 준 호랑이
	효자를 도와 준 호랑이
	효자에 감동한 호랑이
	효자에게 연시 얻어준 호랑이
	효자와 호랑이

경상도

ㄱ	가난한 할머니를 태워 준 호랑이 이야기
	가설리 최호랑이
	가족을 지킨 사람과 외발이 된 호랑이
	가족 외투를 물고 간 호랑이
	가출한 며느리의 밤길을 지켜준 호랑이
	감응사 굴의 호랑이
	감홍시를 구한 효자와 호랑이
	개를 잡아 어머니에게 효도한 호랑이 아들
	개와 호랑이의 싸움
	거제도에 호랑이가 없는 이유
	경주 최부자와 호랑이의 보은
	곰티재 호랑이
	곳감 덕분에 호랑이 쫓고 곰 잡은 사람
	곳감 무서워 한 호랑이
	곳감과 호랑이
	곳감과 호랑이 이야기
	곳감과 호랑이와 토끼
	곳감을 무서워 한 호랑이
	곳감을 보고 울음 멈추는 아이를 보고 곳감을 두려워 호랑이 이야기
	곳감을 주자 울지 않는 아이를 보고 호랑이가 곳감을 무서워했다는 이야기
	곳감이 무서워 도망 간 호랑이
	과부를 지켜준 호랑이

ㄱ	곽 장군과 호랑이
	곽각 장군과 호랑이
	금강산 호랑이
	금강산 호랑이 잡기
	금강산 호랑이를 잡은 아들
	길목 지키는 세 호랑이가 있던 삼석바위의 단혈
	꽃갸미와 호랑이
	피로 호랑이를 잡은 공양주
ㄴ	내기한 호랑이와 할머니
	네 발로 기어 호랑이를 피한 사람
	노루를 호랑이로 착각하여 놀란 이야기
	노인으로 둔갑한 호랑이가 선비와 장기 두는 이야기
	노총각을 도운 호랑이
	누이를 잡아먹은 호랑이에게 복수한 오빠
ㄷ	다라 같은 호랑이
	도리깨로 잡은 호랑이
	도리깨로 호랑이 잡은 이야기
	돌을 굴려서 호랑이 쫓은 이야기
	동자승의 피를 먹고 쫓겨난 해인사의 호랑이 이야기
	두 귀가 찢어진 골무산의 늑은 호랑이
	둔덕골 호랑이와 물밭골 토끼
	딸을 잡아먹으려다 수숫대 위로 떨어져 죽은 호랑이
	떡을 달라는 호랑이
	떡장수 할멈과 호랑이
	뜨거운 돌을 먹어 호랑이를 잡은 사람
ㄹ	마을 청개구리가 호랑이 덕분에 효자가 된 전설-효대마을 유래
	메주콩 많이 먹으면 호랑이에게 잡혀간다는 이야기
	명의 편작과 호랑이 침
	모래고개에 나타나는 호랑이 이야기
	목구멍에 걸린 비녀를 빼 준 사람에게 은혜 갚은 호랑이
	목에 걸린 비녀를 뽑아 준 사람에게 은혜 갚은 호랑이
	목 할머니 손주들을 잡아먹으려고 한 호랑이
	목을 준 할머니를 품어 준 호랑이
	목할머니와 호랑이
	문화 유씨 조상과 호랑이
	물구나무로 호랑이를 잡은 여자
ㅁ	발가벗고 호랑이 쫓은 부인
	밤송이를 무서워 한 호랑이
	밭에서 마주친 지리산 외발 호랑이와 이웃 사람
	밭을 매는 할머니를 잡아먹은 호랑이

ㅂ	뱀대로 잡은 호랑이
	벽소령 재에서 호랑이와 친구처럼 지낸 이야기
	비녀를 빼준 각시에게 좋은 못자리 잡아준 호랑이
	뽕뿌리에 쫓겨 간 호랑이
ㅅ	사냥꾼의 부모를 봉양한 호랑이 형님
	사람 잡아먹은 호랑이
	사람으로 변하지 못하고 호랑이가 되어 백년굴에서 죽었다는 이야기
	사람을 위로 던져 입으로 받아 물고 가는 호랑이
	사람을 잡아먹고 비녀가 걸려 죽은 호랑이
	사위 호랑이
	산길을 가던 여자가 옷을 벗어서 호랑이를 쫓았다는 이야기
	산신령이 쫓아낸 호랑이가 잠을 자서 유래된 범어 이야기
	산에 나물 캐러 가서 호랑이를 본 이야기
	산에서 호랑이 만난 이야기
	삼봉산의 김호랑이가 부모에게 봉양한 이야기
	삼줄에 들깨기름 발라서 호랑이 잡기
	새끼 호랑이를 키운 지포수
	새끼호랑이를 잡은 이야기
	서가장 신호자와 호랑이
	서당꾼과 호랑이
	선비를 지켜준 호랑이
	선비와 호랑이의 대결담
	세발 호랑이 이야기
	소 먹이는 아이를 물고 가 버린 호랑이 이야기
	소도둑에게 혼쭐 난 곰과 호랑이
	소를 따라온 호랑이 이야기
	소와 호랑이가 싸울 때 소가 이기는 방법
	수수깁이 빨갈게 된 호랑이 이야기
	수수발에 떨어져 죽은 호랑이
	수수에 찢린 호랑이
	술 취한 장꾼을 깨워 준 호랑이
	시묘사는 효자를 지켜 준 호랑이
	시묘살이 하는 효자와 호랑이의 우애
	시아버지 눈뜨게 한 효부와 호랑이
	신발을 돌려준 호랑이
	신부를 잡아먹으려는 호랑이를 물리친 정일도 선생
	신장수의 호랑이 잡기
ㅇ	아기를 잡아먹은 호랑이
	아이 잡아먹으려는 호랑이

○	아이들에게 소쿠리와 칼을 가져다준 호랑이
	아홉 사람이 호랑이 굴에서 죽은 구룡산
	어리석은 호랑이의 효심
	어린 손자가 호랑이를 이긴 이야기
	어머니를 위해 호랑이를 타고 홍시를 구해준 효자 이야기
	어머니를 잡아 먹은 호랑이를 피해 도망간 공쥐팔쥐
	어머니를 잡아먹은 호랑이를 피해 하늘로 올라가서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
	어머니를 잡아먹은 호랑이와 샘으로 뛰어내려 살아남은 아이들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호랑이로 변신한 효자
	어미 행세 한 호랑이를 죽인 딸의 지략
	영터리 풍수와 호랑이가 잡은 명당
	여자 살리려고 호랑이와 싸우다 죽은 도봇장수
	연안 차씨와 호랑이
	염소와 호랑이
	영험한 호랑이 바위에 산신각을 짓다.
	예쁜 새끼 호랑이
	예쁜 호랑이 새끼와 나무꾼
	오효자와 호랑이
	옷을 벗고 거꾸로 기어가서 호랑이를 쫓아 버린 여자
	옷을 벗고 뒤로 걸어 호랑이를 물리친 할머니
	옷을 벗어 호랑이를 기절 시킨 며느리
	와조리에 호랑이가 많았던 이유
	외딴집에 달려든 호랑이
	우영차로 호랑이를 쫓은 이야기
	우탁선생과 호랑이
	울던 아이가 꽃감을 보고 울음을 그치는 것을 보고 꽃감을 무서워한 호랑이 이야기
	은혜 값은 호랑이 이야기
	은혜 값은 산신령 호랑이
	은혜 값은 호랑이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	자굴산 신선담의 호랑이
	자기보다 꽃감이 무서운 줄 알고 도망친 호랑이
	자기새끼를 예뻐해 준 이에 대한 호랑이의 보답
	자신의 성기로 호랑이를 물리친 사람
	재치로 호랑이 잡은 할머니
	정장군과 호랑이
	정장사와 호랑이
	조개를 캐던 오누이가 호랑이를 피해 하늘로 올라가서 해와 달이 된 이야기

✕	종손을 지켜준 호랑이
	종손을 지켜준 호랑이의 영험
	주인을 지키면서 호랑이와 싸워 이긴 소
	죽은 줄 안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포수
	중으로 둔갑한 호랑이
	중으로 둔갑한 호랑이(계속)
	중으로 둔갑한 호랑이와 오대독자
	지계 작대기로 호랑이 잡던 영감
ㄸ	참기를 바른 강아지로 호랑이 잡은 이야기
	청주 박씨와 호랑이
	치마 벗고 뒷걸음쳐서 호랑이를 물리친 여자
	치마 쓰고 뒷걸음으로 가서 호랑이를 물리친 할머니
	치마 쓰고 호랑이를 잡은 여자
	치마를 벗고 뒷걸음 쳐서 호랑이를 쫓은 여자
ㄷ	칼 하나로 호랑이 잡은 사람
	공단이 팔단지와 호랑이
ㄹ	토끼가 껍을 부려 호랑이를 잡았다는 이야기
	토끼가 호랑이 잡은 이야기
	통방아와 호랑이
ㅎ	할머니의 뒷모습 덕분에, 호랑이에게 살았다는 이야기
	현몽으로 물리친 호랑이
	현몽으로 호랑이 구한 남강
	호랑이 가족을 판 부자에게 복수한 호랑이
	호랑이 감복시킨 효부
	호랑이 고개 넘어가기
	호랑이 금침
	호랑이 꼬리가 길고 토끼 꼬리가 짧은 연유
	호랑이 꼬리는 길고, 토끼 꼬리는 짧은 이유
	호랑이 노래
	호랑이 눈썹 덕에 장가든 노총각
	호랑이 눈썹의 효험
	호랑이 눈썹이 맺어준 인연
	호랑이 담배 핀 내력
	호랑이 담배 필 때 이야기
	호랑이 담뱃불 이야기
	호랑이 덕분에 죽을 면한 아이
	호랑이 덕에 홍시 구한 효자
	호랑이 덕으로 며느리 묘를 지킨 시아버지
	호랑이 덕으로 횡사 면한 아이와 노인
	호랑이 덕택에 잘 산 이야기
	호랑이 도움으로 출세한 산지기 아들

ㅎ	호랑이 동행한 사람
	호랑이 따돌리고 목숨 구한 남매
	호랑이 때문에 죽은 사람
	호랑이 만나 목숨을 건진 심해수
	호랑이 만나서 살아난 이야기
	호랑이 목에 비녀를 뽑아 준 노파
	호랑이 물리치고 시아버지 구한 현풍 광씨 며느리
	호랑이 물리친 남편
	호랑이 물리친 이야기
	호랑이 물리친 처녀
	호랑이 배속에서 살아온 사냥꾼
	호랑이 배속에 들어간 이야기
	호랑이 배속에서 고래잡기
	호랑이 배속에서 살아 돌아온 처녀
	호랑이 배속에서 살아나온 사람
	호랑이 보다 더 무서운 꽃감
	호랑이 보다 엉덩이
	호랑이 본 경험담
	호랑이 본 이야기
	호랑이 불 본 이야기
	호랑이 살려준 공으로 부자된 나무꾼
	호랑이 새끼 만난 경험담
	호랑이 새끼 훔치려다 가슴에 호랑이 발톱자국 남긴 이야기
	호랑이 수영에 불 붙여서 호랑이 잡은 아이
	호랑이 이야기
	호랑이 이야기 엮고 흥재한 동생
	호랑이 입 안의 비녀를 빼준 나그네
	호랑이 잡고 남편 구한 부인
	호랑이 잡기
	호랑이 잡는 밤아고
	호랑이 잡아 부자된 이야기
	호랑이 잡은 강아지
	호랑이 잡은 삼형제
	호랑이 잡은 신장수
	호랑이 잡은 어린 형제
	호랑이 잡은 진언(眞言)
	호랑이 잡은 포수
	호랑이 쫓아낸 큰 동서
	호랑이가 가져다 놓은 나무
	호랑이가 가져다 놓은 나무바구니
	호랑이가 감동한 남강의 효심

ㅎ	호랑이가 감복한 효부
	호랑이가 개를 물고 간 이야기
	호랑이가 꽃감을 무서워해서 도망간 이야기
	호랑이가 꽃감에게 진 이야기
	호랑이가 나타나는 마을 뒷산에 단체로 나무를 캐러 가는 이야기
	호랑이가 돌본 효자
	호랑이가 된 효자 이야기
	호랑이가 따라와 개를 던져주고 모면한 이야기
	호랑이가 떡도 먹고 사람도 잡아먹었다는 이야기
	호랑이가 무서워하는 것
	호랑이가 물을 뿌리는 이야기
	호랑이가 버스를 세워 사람을 잡아먹은 이야기
	호랑이가 살린 3대독자
	호랑이가 아이를 품고 잔 이야기
	호랑이가 알려준 명당
	호랑이가 없는 연유
	호랑이가 없던 형국의 돌북마을과 소구대
	호랑이가 인정한 효부
	호랑이가 잡아먹은 중
	호랑이가 잡아준 구씨네 묘터
	호랑이가 잡아준 묘자리
	호랑이가 점치해 준 명당을 몰라 본 창녕 성씨
	호랑이가 정해 준 명당
	호랑이가 짐 보따리 물었다 준 이야기
	호랑이가 집에 데려다 준 이야기
	호랑이가 포수의 남근이 총인 줄 알고 도망간 이야기
	호랑이논과 밥논의 유래
	호랑이는 놀려먹는 토끼
	호랑이도 감동한 며느리의 효성(1)
	호랑이도 감동한 며느리의 효성(2)
	호랑이도 감동한 효부
	호랑이도 감동한 효성
	호랑이도 무서워하는 꽃감
	호랑이로 둔갑하는 왕선달
	호랑이로 변한 사람이 백년굴에서 죽었다는 이야기
	호랑이를 감동시킨 열녀이야기
	호랑이를 감동시킨 초당공의 효심
	호랑이를 감동시킨 효부
	호랑이를 감동시킨 효심
	호랑이를 골탕먹인 여우의 슬기

ㅎ	호랑이를 구한 아가씨
	호랑이를 다스리는 활법
	호랑이를 때려잡은 함양 권병사
	호랑이를 만나 여자가 옷을 벗고 뒷걸음 쳐서 호랑이를 쫓았다는 이야기
	호랑이를 만나서 살아남는 법
	호랑이를 만난 말더듬이 영감
	호랑이를 만난 이야기
	호랑이를 만난 할머니가 물구나무를 서서 위기를 모면한 이야기
	호랑이를 많이 잡은 사나이
	호랑이를 많이 잡은 소금장수 생원님
	호랑이를 물리치고 주인을 죽인 소
	호랑이를 물리치기 위해 돌로 쌓은 서낭당
	호랑이를 부린 임지한 장군
	호랑이를 속여 호식을 면한 아이들
	호랑이를 이긴 대마(大馬)
	호랑이를 잡은 김해 송장군
	호랑이를 잡은 부인
	호랑이를 쫓고 염소 살린 토끼
	호랑이를 타고 다닌 임지한 장군 (1)
	호랑이를 퇴치한 강감찬
	호랑이를 형제삼아 출세한 숲장사
	호랑이를 효자로 만든 사람
	호랑이바위의 유래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곳감
	호랑이보다 무서운 곳감
	호랑이불 이야기
	호랑이불을 본 이야기
	호랑이산의 유래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
	호랑이에 맞선 아들의 효심
	호랑이에게 껌데기가 벗겨진 개
	호랑이에게 목을 다 빼앗겨 빈털터리가 된 할머니
	호랑이에게 목을 다 빼앗긴 할머니
	호랑이에게 물려간 파계승
	호랑이에게 물려간 아이
	호랑이에게 살아남은 상주의 비결
	호랑이에게 살아남은 처녀의 비결
	호랑이에게 손가락 뜯겨 죽은 시아버지 이야기
	호랑이에게 잡아 먹히려다가 산 사람

ㅎ	호랑이에게 잡아 먹힌 목할머니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은 우애 깊은 형제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변한 등금장수
	호랑이에게 잡혀 갈 운명을 극복하고 환생한 사람
	호랑이에게 잡혀간 아이
	호랑이에게 죽을 위기 넘긴 떡 장수와 아이들
	호랑이에게 팔 하나 떼어주고 살아난 할머니
	호랑이에게 호식당한 이야기
	호랑이에게 혼 난 이야기
	호랑이에게 홀린 여자
	호랑이에게 홀린 이야기
	호랑이에게서 살아남는 방법
	호랑이와 개의 대결담
	호랑이와 결의형제하여 잘 살게 된 엽장수
	호랑이와 고슴도치
	호랑이와 곳감 이야기
	호랑이와 나눈 우애
	호랑이와 도둑
	호랑이와 범벅
	호랑이와 벗이 된 효자
	호랑이와 사위
	호랑이와 서당꿀당제
	호랑이와 순사
	호랑이와 싸운 이야기
	호랑이와 싸워 주인을 지킨 소
	호랑이와 여우의 금강산 주인 다툼
	호랑이와 오누이
	호랑이와 이비
	호랑이와 토끼
	호랑이와 포수
	호랑이와 할매
	호랑이와 할머니
	호랑이와의 싸움
	호랑이와의 우애
	호랑이의 길 안내
	호랑이의 도움으로 잉어를 구한 효자
	호랑이의 동생이 된 사람
	호랑이의 모성
	호랑이의 보은과 의남매
	호랑이의 손자가 된 고아

	호랑이의 형[호랑이 덕에 잘 살게 된 사람]
	호랑이이보다 무서운 곳감
	호랑이한테 피로 살아난 할머니
	호랑이한테 물려가서도 살아난 아이
	호랑이한테 잡혀 먹은 이야기
	호랑이한테 혼난 사람
	호랑이한테서 얻은 보물
	호랑이한테서 처녀 구한 권병사
	효부 며느리와 호랑이가 데려다 준 아들
	효성 많은 며느리와 호랑이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를 호랑이가 지켜 준 이야기
	효자의 시묘살이를 도와준 호랑이
	효자할아버지와 호랑이
	힘 센 장사와 호랑이
서울특별시	
ㄱ	기름 강아지로 호랑이 잡는 애기
ㄷ	대신 잡은 호랑이 꼬리
ㅁ	문화유씨의 유래-호랑이 목에 걸린 비녀-
ㅅ	사람을 미끼로 잡은 호랑이
ㅍ	평촌 엇저리의 호랑이잡기
전라도	
ㄱ	간대 맞은 호랑이는 산에서도 안 받아준다
	개고기 먹고 호랑이 만나다
	경도(월경)로 호랑이 쫓은 여자
	계룡산 호랑이
	고사리 끊으러 갔다가 본 호랑이굴
	곡성 오장사와 호랑이
	관광버스 앞을 가로 막는 호랑이
	광덕리 농장의 개호랑이
	광양 백운산 호랑이
	국사봉에서 들린 호랑이소리
	굿을 구경한 호랑이
	금산의 김생원 호랑이
	길을 인도하는 호랑이
	길을 인도해준 호랑이
ㄴ	나물 보따리를 가져다 놓은 호랑이
	나물바구니 가져다 놓은 호랑이
	노름꾼과 호랑이
	능부감투로 은혜 갚은 호랑이
ㄷ	담배먹는 호랑이

	당산제 모실 때 호랑이가 나타나면
	대나무로 호랑이 막는 법
	도깨비불보다 큰 호랑이불
	도깨비불보다 큰 호랑이불
	도깨비에게 속아 함정에 빠진 호랑이
	도깨비와 호랑이의 혼(魂)
	돌을 던지는 호랑이
	두 호랑이 잡은 술취한 영감
	두꺼비에게 속은 호랑이와 토끼
	뒷골에서 만난 호랑이
	땅보소님과 호랑이
ㅁ	마을사람들을 괴롭혔던 호랑이
	마중 나온 호랑이
	무등산 안양재에서 본 호랑이
	무등산의 호랑이불
ㅂ	바구니 물어다 준 호랑이
	발가 벗은 여자에게 놀란 호랑이
	밤길 밝혀준 호랑이
	밤길 인도하는 호랑이
	밤길을 밝혀준 호랑이
	밤나무골에서 목격한 호랑이
	방망이로 호랑이를 때려잡은 사람
	방죽가에서 사람 먹는 호랑이
	백씨 할아버지와 호랑이
	버스를 막아 선 호랑이
	보은밭고 은혜갚은 호랑이
	보은으로 효자 어머니 묘자리 잡아준 호랑이
	봉효자와 호랑이
	부부 연분을 맺어준 호랑이
	불 켜서 길 안내해준 호랑이
	불을 무서워하는 호랑이
	불을 밝혀주는 호랑이
	불을 밝히며 길을 인도해준 호랑이
	비호재는 호랑이 꼬리
ㅅ	사람 따라 온 호랑이
	사람 말을 믿다가 굴에 빠진 호랑이
	사람 잡아 먹고 체한 호랑이
	사람을 도와주는 호랑이
	산그늘이 내리면 호랑이 온다
	산신제와 호랑이

산에서 내려온 호랑이
새끼 찾은 호랑이
소 도둑과 호랑이
소금장수와 호랑이
손자 잡아간 호랑이를 죽인 할아버지
수수깡의 빨간 것은 호랑이의 핏자국
수수깡의 빨간것은 호랑이 핏자국
술 취한 사람 구해준 호랑이
송림사에 핏자국을 남긴 호랑이
시묘살이 하는 효자를 지켜준 호랑이
시묘살이와 호랑이
심부름 다녀오다 호랑이 만난 이야기
○ 아낙네들과 장난하고 살던 친근한 호랑이
아이를 데리고 간 호랑이
아흔 아홉칸 집 주인이 호랑이를 잡다
알몸으로 호랑이를 물리친 며느리
어리석은 호랑이
어미호랑이의 웃음
엉터리 지관과 호랑이 명당
영파마을 효자와 호랑이
오씨 제각과 호랑이
운조루에 호랑이뼈 걸게 된 사연
운조루에 호랑이뼈 걸린 사연
유자광과 호랑이
유평천 집안 묘자리 잡아 준 호랑이
유평천과 호랑이
육판이마을은 호랑이 주막
이빨빠진 개호랑이
임금자리인 용상에 앉았다 가는 호랑이
✕ 자고 있는 아이를 물어간 호랑이
저승재에서 본 호랑이
절까지 안내한 호랑이
절에 사람을 태워다 준 호랑이
정자나무에 호랑이를 끼워놓은 용유사 주지
조상이 호랑이에 물려 가면 자손도 호랑이에 물려 간다
조충에 놀란 금강산 호랑이
줄줄 따라오는 호랑이
중장터 정씨와 호랑이
지리산 호랑이 만난 이야기
지리산 호랑이 최낙순

지리산과 호랑이
지리산신과 호랑이
지혜로 호랑이 잡은 사람1
지혜로 호랑이 잡은 사람2
지혜로 호랑이를 잡은 토끼
직접 들은 호랑이 울음소리
직접 본 호랑이새끼
집으로 들어온 호랑이
✕ 천리가 되지 않아 호랑이가 없다
초도의 호랑이
■ 탐돌이와 호랑이 처녀
토끼와 호랑이
ㅎ 할머니로 변한 호랑이에게 잡혀먹은 동생과 살아남은 언니
할아버지를 따라 온 호랑이
함성이 큰 호랑이 영감
허우재에서 호랑이를 만난 할머니
호랑이 굴
호랑이 눈썹을 붙이면
호랑이 덕에 장가간 나뭇군
호랑이 동생
호랑이 목격담
호랑이 물리치는 소리
호랑이 발가락 사이에 혼이 있다
호랑이 발자국
호랑이 뱃속에서 팔도강산을 구경하다
호랑이 보다 무서운 곳감
호랑이 보릿대 추리듯이 한다
호랑이 사랑바우
호랑이 산신
호랑이 새끼를 데려온 할머니
호랑이 소리에 놀란 할머니
호랑이 아내가 된 처녀
호랑이 앞에서 죽은 척 하기
호랑이 잡는 법
호랑이 잡은 시아버지
호랑이 잡은 유평천
호랑이 잡은 제자
호랑이가 가져다 놓은 나물바구니
호랑이가 강아지로 보인다
호랑이가 남긴 흉터

ㅎ 호랑이가 데려간 아이
호랑이가 도와 준 효부(1)
호랑이가 도와준 효자
호랑이가 되어버린 이진사
호랑이가 되어서 효도한 아들
호랑이가 된 김용담
호랑이가 된 신부
호랑이가 된 효자 김용담
호랑이가 된 효자 남편
호랑이가 물고 간 스님
호랑이가 불 밝히다
호랑이가 업고 간 친정아버지
호랑이가 잡아 준 명당
호랑이가 잡아준 명당
호랑이가 잡아준 문화유씨 시조산
호랑이가 잡아준 외갓집 못자리
호랑이가 젖을 먹인 아이
호랑이가 좋아하는 것
호랑이가 지나가다
호랑이가 지켜봤다는 연동마을 산신제
호랑이가 지켜준 정참판
호랑이가 호위해 준 사람
호랑이고기 맛
호랑이는 간대를 무서워한다
호랑이는 꽃감을 무서워하다
호랑이는 대나무를 무서워한다
호랑이는 대나무를 무서워한다.
호랑이는 대를 무서워한다.
호랑이는 대창을 무서워한다
호랑이는 붉은 것을 무서워한다
호랑이는 사람이 짐승으로 보이면 잡아간다
호랑이는 수수떡을 무서워한다.
호랑이는 외줄로 간다
호랑이도 막아주는 정자나무
호랑이도 산신령이 허락해야 사람 잡아먹는다
호랑이도 자기 새끼 예뻐하면 좋아한다.
호랑이도 자기 새끼 이빨하면 안 잡아 먹는다
호랑이도 짝한 사람은 잡아먹지 않는다
호랑이로 둔갑해서 여자를 희롱한 중
호랑이로 변신을 했던 벽채도사

ㅎ 호랑이로 착각한 다람쥐
호랑이를 물리친 처녀
호랑이를 살린 어머니의 공
호랑이를 예뻐한 언니
호랑이를 잡은 한씨
호랑이를 타고 다닌 정효자
호랑이불
호랑이불 목격담
호랑이불과 도깨비불
호랑이새끼를 집으로 데려온 장흥덕
호랑이에게 물려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호랑이에게 물려간 여자
호랑이에게 물려갈 운명
호랑이에게 물린 나씨부인
호랑이에게 밝힌 사촌형
호랑이에게 빼앗긴 떡
호랑이에게 잡혀간 누나를 구출한 동생
호랑이에게서 시아버지를 구한 며느리
호랑이와 개구리의 내기
호랑이와 나물 보따리
호랑이와 나물바구니
호랑이와 나물바구니
호랑이와 나물보따리
호랑이와 남매
호랑이와 돼지고기
호랑이와 산신령과 간짓대
호랑이와 여우 무서워서 물려다닌 유년시절
호랑이와 열녀
호랑이와 열녀(烈女)
호랑이와 지혜로운 여자
호랑이와 할아버지
호랑이와 호형을 지낸 사람
호랑이와 효자
호랑이와 효자
호랑이의 도움
호랑이한테서 남편 살린 열녀
호랑이한테서 시아버지 목숨을 구한 며느리
호식 당한 집안 사람 노리는 호랑이를 잡은 포수
화방마을에 호랑이가 없어진 유래

효자 인도해준 호랑이
효자를 지킨 호랑이
흙을 던져 자신의 흔적을 알리는 호랑이
힘센 장사와 호랑이의 대결
제주특별자치도
ㄹ 나팔 분 호랑이
ㅅ 사람 잡아 먹는 호랑이
신기한 호랑이 눈썹
ㅇ 열녀와 호랑이
충청도
5 5대 독자 살린 차동개 호랑이
ㄱ 개를 물어간 호랑이
고사리 꺾으러 갔다가 만난 호랑이
관솔볼로 쫓은 호랑이
길 안내를 한 호랑이
꼬리 잘린 호랑이
평소리에 놀라 도망간 호랑이
ㄴ 나물 그릇을 돌려준 호랑이
나물 망태기 물어다 놓은 호랑이
나물 캐다 만난 호랑이
나물바구니를 가져다 준 호랑이
나팔과 면도칼만으로 호랑이 잡기
나팔수와 호랑이
ㄷ 담뱃대로 호랑이를 잡은 이야기
도끼질하다 호랑이에게 먹힌 사람
둔갑법으로 호랑이가 된 채 죽은 사람
뜨거운 호박 먹고 이빨 빠진 호랑이
ㄹ 먹이를 포기하지 않는 호랑이
모래를 뿌리는 호랑이
무서움을 쫓아주는 호랑이 발톱
물 흐르는 소리를 내는 호랑이
ㅂ 밤 자루를 물어다 놓은 호랑이
밤새 따라온 호랑이
버스 막은 호랑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호랑이를 만난 이야기
부정한 사람 혼내는 호랑이
불 밝히는 호랑이
불붙은 호랑이
불을 밝혀주는 호랑이
불을 밝혀주는 호랑이 산신님
비녀가 목에 걸린 호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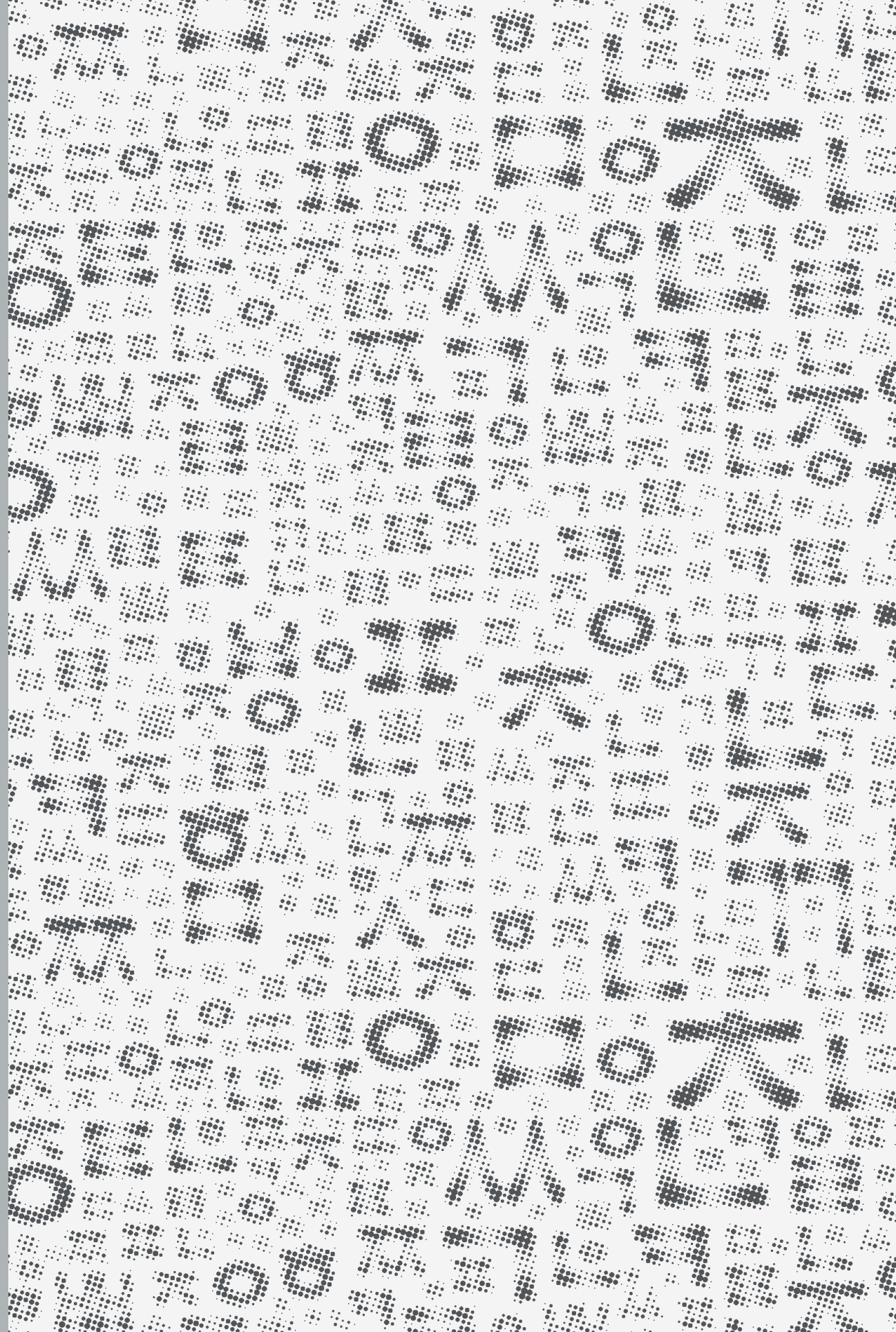
ㅅ 비루먹은 강아지 호랑이를 잡다
뽕땅굴 호랑이
ㅅ 사람에게 불을 밝혀준 호랑이
사람을 도와준 호랑이
사람을 따라하는 호랑이
사람을 태워주는 호랑이
산에서 데려온 호랑이 새끼
산제당 산신 호랑이
상복 입은 호랑이
새끼 호랑이를 데려온 사람
소금장수와 변신한 호랑이
시아버지 살리려고 아이를 호랑이에게 던져준 부인
시아버지를 구한 효부와 호랑이
ㅇ 아버지 술 깨워준 호랑이
아버지 죽인 호랑이 원수값은 이야기
아이 살리려 버스 막은 호랑이
아이 잡아 먹은 호랑이
안면도 호랑이를 쫓은 당산말
어미호랑이의 보복
열녀와 호랑이
왕자골에서 호랑이 잡은 이야기
원두막에서 자는 호랑이
유 씨는 해치지 않는 호랑이
은혜값은 호랑이가 잡아준 명당
ㅈ 주인을 다리 사이에 감추고 호랑이와 싸운 소
지극한 효성에 호랑이가 파준 샘물
집 지키는 아이들과 호랑이
ㅊ 청학사 호랑이
체장수와 변신한 호랑이
총 한 방으로 노루 두 마리, 호랑이 한 마리
ㅋ 칼바위 호랑이
ㅎ 할머니와 호랑이
호랑이 가족을 잘 벗겨서 부자된 남자
호랑이 꼬리터에 묘를 쓴 효자
호랑이 꿈지 뺨 사람
호랑이 덕에 부자된 노름꾼
호랑이 덕에 흥시 구한 효자
호랑이 등을 타고 강을 건넌 총신
호랑이 등을 탄 이퇴계
호랑이 똥에 얼굴 데벗은 사람
호랑이 만난 뒤 당한 횡액

ㅎ 호랑이 많이 잡은 포수
호랑이 뱃속에 들어간 사람
호랑이 보고 놀란 장모
호랑이 보고 죽은 사람
호랑이 보다 더 무서운 여자
호랑이 비
호랑이 살려주고 귀물(貴物) 얻은 부자
호랑이 새끼를 돌려준 마을사람
호랑이 잘잡은 명포수
호랑이 잡고, 가족을 빼앗긴 이서방
호랑이 잡는 방법
호랑이 잡는 애기
호랑이 잡아 먹은 사람들
호랑이 잡아 절된 사람
호랑이 잡아먹은 토끼의 껍
호랑이 잡은 게으름뱅이
호랑이 잡은 꼬마
호랑이 잡은 이야기
호랑이 잡은 토끼의 껍 (1),(2)
호랑이 쫓으려고 산불을 낸 할아버지
호랑이 쫓은 어머니
호랑이가 구해준 아들
호랑이가 구해준 흥시
호랑이가 나물바구니 물어다 준 이야기
호랑이가 도와 준 효자
호랑이가 도와준 수절과부
호랑이가 무서워서 망신당한 서울 사람
호랑이가 물어다 준 처녀
호랑이가 불을 밝혀준 우암
호랑이가 살린 학생
호랑이가 알려 준 유차달의 묘자리
호랑이가 업고 온 허씨 할머니
호랑이가 잡아준 묘자리
호랑이가 잡아준 문화유씨의 묘소
호랑이가 잡아준 주교리 유씨 명당
호랑이가 지켜 준 중노마을 효녀
호랑이가 춤춘 바위
호랑이가 터를 잡아준 집
호랑이가 턱걸이를 하던 호랑이바위
호랑이가 품어서 비를 피한 사람
호랑이는 산신령

호랑이도 감동한 효부
호랑이도 제 새끼는 예뻐한다
호랑이로 변신한 효자
호랑이로 변한 남편
호랑이를 구해주어 잘 살게 된 문화 유씨
호랑이를 구해준 청주 한 씨
호랑이를 두마리나 잡은 흥장
호랑이를 만난 체장수
호랑이를 산신령으로 숭배한 이야기
호랑이를 속인 토끼
호랑이를 이긴 소
호랑이를 이긴 수소
호랑이를 잡은 개
호랑이를 잡은 할머니의 기지
호랑이를 타고 서당을 다닌 할아버지
호랑이를 타고 온 사람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짝지
호랑이새끼를 강아지로 오인한 일
호랑이에게 개를 대접한 할아버지
호랑이에게 물려 고생한 사람
호랑이에게 물려간 사람
호랑이에게 잡아 먹힌 여자
호랑이에게 쫓기며 공부하신 아버지
호랑이에게 팔을 떼어준 어머니
호랑이와 눈싸움한 사람
호랑이와 떡장수 어머니
호랑이와 명당자리
호랑이와 비녀
호랑이와 싸우고 죽은 사람
호랑이와 싸워 이긴 소
호랑이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죽은 목수
호랑이의 도움으로 성공한 머슴
호랑이의 도움을 받은 유씨 할머니
호랑이의 모정
호랑이의 안내로 시묘살이 한 효자
호랑이의 장난
호랑이한테 잡혀 갔다 살아 온 사람
황호랑이 황팔도(黃八道)
효자 전업을 위해 호랑이가 파준 샘
효자를 도와 준 호랑이 무덤

우리말 속 호랑이

Tiger: Oral Tradition



ㄱ	귀신을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다	좋지 않은 어떤 일을 피하려다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을 당한다는 말.
	까마귀 짚어 범 죽으랴	사소한 방자가 있더라도 큰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껍질 상처 없게 호랑이를 잡을까	호랑이 가죽을 상하지 않고는 호랑이를 잡을 수 없다는 뜻으로,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여야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음을 이르는 말.
ㄴ	날개 돋친 범	몹시 날쌔고 용맹스러운 기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노루 피하니 범이 온다	일이 점점 더 어렵고 힘들게 되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ㄷ	돈이라면 호랑이 눈썹이라도 빼 온다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위험한 일이라도 무릅쓰고 행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ㄹ	무는 호랑이는 뿔이 없다	입으로 무는 호랑이에게는 받는 뿔이 없다는 뜻으로, 한 가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듯이 무엇이든 다 갖추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물 건너 범 보듯 한다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이 무심하게 바라보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미친개가 호랑이 잡는다	미친개가 날뛰다가 호랑이까지 잡는다는 뜻으로,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겁 없이 날뛰면 어떤 무서운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말.
ㅁ	배고픈 호랑이가 원님을 알아보나	배고픈 호랑이가 원님이라고 사정을 보아주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사람이 극히 가난하고 굶주리는 지경에 이르면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분별없는 짓까지 마구 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범 꼬리를 잡은 격	몹시 어렵거나 난처한 입장에 처해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게 된 경우를 이르는 말.
	범 나비 잡아먹듯	쌍태를 낳느라고 배가 훌쩍한 호랑이가 아주 적은 먹이를 잡아먹은 것과 같다는 뜻으로, 먹는 양은 큰데 먹은 것이 변변치 못하여 양에 차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범 보고 애 보라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대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위험성이나 어리석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범 잡아먹는 담비가 있다	산중의 왕이라고 하는 범을 잡아먹는 담비라는 작은 짐승이 있다는 뜻으로, 위에는 위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범 탄 장수 같다	위세가 대단한데 거기다 또 위력이 가해진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범도 죽을 때 제 굴에 가서 죽는다	누구나 죽을 때는 자기가 난 고장을 그리워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범은 그려도 빼다귀는 못 그린다	비록 범은 그릴 수 있으나 가죽 속에 있는 범의 뼈는 그릴 수 없다는 뜻으로, 겉모양이나 형식은 쉽게 파악할 수 있어도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알기가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범을 그리어 뼈를 그리기 어렵고 사람을 사귀어 그 마음을 알기 어렵다	비록 범은 그릴 수 있으나 가죽 속에 있는 범의 뼈는 그릴 수 없다는 뜻으로, 겉모양이나 형식은 쉽게 파악할 수 있어도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알기가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범을 길러 화를 받는다	새끼 범을 데려다 길러 놓으니 맹수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어 주인을 해친다는 뜻으로, 화근을 스스로 길러서 큰 피해를 입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범을 보니 무섭고 범 가죽을 보니 탐난다	힘든 노력은 하기 싫고 이득에만 욕심을 낸다는 말.
ㅂ	산 밖에 난 범이요 물 밖에 난 고기라	범이 자기의 터전인 산에서 나와 움푹달싹 못 하게 되고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 움푹달싹 못 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의지할 곳을 잃어 움푹달싹 못 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산 호랑이 눈썹 찾는다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을 구하려고 함을 이르는 말.
	산 호랑이 눈썹도 그리울 게 없다	매우 귀한 산 호랑이의 눈썹까지도 그리울 게 없을 정도라는 뜻으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 무엇 하나 아쉬운 것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산보다 호랑이가 더 크다	주가 되는 산보다 부차적인 골이 더 크다는 뜻으로, 사리에 맞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산에 들어가 호랑이를 피하라	이미 피할 수 없는 일이나 피하여서는 안 되는 일을 피하려고 무모하게 행동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산이 깊어야 범이 있다	자기에게 덕망이 있어야 사람들이 따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새벽 호랑이	활동할 때를 잃어 깊은 산에 들어가야 할 호랑이라는 뜻으로, 세력을 잃고 물러나게 된 신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새벽 호랑이 중이나 개를 헤아리지 않는다	다급해지면 무엇이든지 가릴 여지가 없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세 사람만 우겨 대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낼 수 있다	셋이 모여 우겨 대면 누구나 골이들게 된다는 뜻으로, 여럿이 힘을 합치면 안되는 일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소문난 호랑이 잔등이 부러진다	세상에 떠들썩하게 소문이 나면 오히려 좋지 아니한 일이 끼어들기 쉽다는 말.
	송곳니를 가진 호랑이는 뿔이 없다	모든 것을 다 갖출 수는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술 담배 참아 소 샐더니 호랑이가 물어갔다	돈을 모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쓸데는 써야 한다는 말.
	썩은 새끼로 범 잡기	허술한 계획으로 큰일을 이룬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ㅇ	앞 남산 호랑이가 뭘 먹고 사나	호랑이에게라도 잡혀 먹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어리석고 못된 사람을 보고 미워써 죽어 없어지라는 말.

앞문으로 호랑이를 막고 뒷문으로 승냥이를 불러들인다	겉으로 공명정대한 체하나 뒷구멍으로 온갖 나쁜 짓을 다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여우를 피해서 호랑이를 만났다	갈수록 더욱더 힘든 일을 당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오뉴월 손님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더운 오뉴월에는 손님 접대가 무척 어렵고 힘들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용이 여의주를 얻고 범이 바람을 탐과 같다	큰 인물이 크게 위세를 부릴 만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우둔한 것이 범 잡는다	앞뒤를 살피지 아니하고 덩석 대드는 사람이 뜻밖에 큰일을 하는 수가 있다는 말.
이빨 빠진 호랑이	이전의 세력을 모두 잃어 버린 무능력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인왕산 모르는 호랑이가 있다	한국의 호랑이는 반드시 인왕산에 와 본다는 옛말에서 나온 말로,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
ㅈ 자식 잘못 기르면 호랑이만 못하다	자식을 올바르게 기르지 못하면 큰 후환을 입게 됨을 이르는 말.
재미난 골에 범 난다	편하고 재미있다고 위험한 일이나 나쁜 일을 계속하면 나중에는 큰 화를 당하게 됨을 이르는 말.
지는 호랑이 코 찌르기	그대로 가만히 두었으면 아무 탈이 없을 것을 공연히 건드려 문제를 일으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ㅍ 포수 집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보잘것없는 사람이 큰 세력을 등에 지고 무서운 것 모르고 건방지게 구는 경우를 비교하여 이르는 말.
포수 집 개는 호랑이가 물어 가야 말이 없다	자신이 저지른 일로 화를 당하여야 남에게 트집을 잡지 못한다는 말.
ㅎ 하늘로 호랑이 잡기	하늘의 힘을 빌려 호랑이를 잡는다는 뜻으로, 온갖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 못하는 일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철없이 함부로 덤비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호랑이 개 어르듯	속으로 해칠 생각만 하면서 겉으로는 슬슬 달래서 환심을 사려고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	뜻하는 성과를 얻으려면 그에 마땅한 일을 하여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호랑이 날고기 먹는 줄은 다 안다	그런 짓을 하는 줄 다 아는데 굳이 숨기고 안 하는 체할 필요가 없다는 말.
호랑이 담배 피울 적	지금과는 형편이 다른 아주 까마득한 옛날을 이르는 말.
호랑이 새끼는 자라면 사람을 물고야 만다	무엇이나 어떤 단계에 이르면 최종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호랑이 어금니 같다	아주 든든하고 믿음직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호랑이 어금니 아끼듯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긴다는 말.
호랑이 없는 골에 토끼가 왕 노릇한다	뛰어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득세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호랑이 잡고 불기 맞는다	좋은 일을 하고도 비난을 받거나 화를 입게 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호랑이 제 새끼 안 잡아먹는다	사람이 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
호랑이가 굶으면 환관도 먹는다	다급해지면 무엇이든 자기 길 여지가 없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호랑이가 새끼 치겠다	김을 매지 않아 논밭에 풀이 무성함을 꾸짖거나 비교는 말.
호랑이는 제 새끼를 벼랑에서 떨어뜨려 본다	자식을 훌륭하게 기르려면 어려서부터 엄하게 하여야 한다는 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사람은 살아생전에 훌륭한 일을 하여 후세에 빛나는 이름을 남겨야 한다는 말.
호랑이도 곤하면 잔다	누구나 피곤할 때는 쉬어야 한다는 말.
호랑이도 쏘아 놓고 나면 불쌍하다	아무리 밍던 사람도 죽게 되었을 때는 측은하게 여겨진다는 말.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깊은 산에 있는 호랑이조차도 저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찾아온다는 뜻으로, 어느 곳에서나 그 자리에 없다고 남을 홍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를 그린다	시작할 때는 크게 마음먹고 훌륭한 것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생각과는 다르게 초라하고 엉뚱한 것을 만들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호랑이를 잡으려다가 토끼를 잡는다	시작할 때는 크게 마음먹고 훌륭한 것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생각과는 다르게 초라하고 엉뚱한 것을 만들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호랑이에게 고기 달란다	고기반찬이라면 사족을 못쓰는 고양이에게 반찬을 달라고 한다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호랑이에게 물려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아무리 위급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정신만 똑똑히 차리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다는 말.
호랑이에게 물려 갈 줄 알면 누가 산에 갈까	처음부터 위험할 줄 알면 아무도 그 일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
햇대 밑에서 호랑이 잡고 나가서 쥐구멍 찾는다	집 안에서는 큰소리치고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창피만 당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고사성어

ㄱ	가정맹어호 苛政猛於虎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움을 이르는 말.
	견호미견호 見虎未見虎	호랑이를 보기는 보았으나 실지(實地)로는 보지 않았다. 무엇이나 실제(實際)로 다하지 않으면 생각이 간절(懇切)하지 못하다는 말.
	고망착호 藋網捉虎	썩은 새끼로 범을 잡는다. 어수룩하고 허술한 준비로 큰일을 계획하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
	기호지세 騎虎之勢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 시작한 일을 중간에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을 이르는 말.
ㄴ	낭탐호시 狼貪虎視	이리처럼 탐내고 범같이 본다. 기회를 노리고 형세를 살핌, 야심만만함을 이르는 말.
	담호호지 談虎虎至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화제(話題)의 대상이 된 사람이 그 자리에 나타났을 때 하는 말.
ㄹ	맹호복초 猛虎伏草	사나운 범이 풀숲에 엎드려 있다. 영웅(英雄)은 숨어 있어도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말.
	맹호위서 猛虎爲鼠	사나운 범이 쥐가 된다. 범이 위엄을 잃으면 쥐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이 되듯, 제왕(帝王)도 권위를 잃으면 신하에게 제압당함을 비유하는 말.
	맹호출림 猛虎出林	사나운 호랑이가 숲에서 나온다. 맹렬하고 빠른 기세 또는 그러한 위엄을 보이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묘호류견 描虎類犬	호랑이를 그린다고 한 것이 개와 비슷하게 되고 말았다. 큰 목표나 이상을 품고 시작하였다가 차질을 빚어 훨씬 못한 결과로 끝났음을 이르는 말.
	무호동중이작호 無虎洞中狸作虎	범 없는 고을에서 너구리가 범 노릇 한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 저 혼자 잘난 체함을 비유하는 말.
ㅁ	불감포호 不敢暴虎	맹주먹으로 맹수를 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모험을 하지 않음을 이르는 말.
	불면호구 不免虎口	호랑이 아가리를 면치 못한다. 위험을 피하지 못함을 이르는 말.
	불입호혈부득호자 不入虎穴 不得虎子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호랑이 새끼를 잡을 수 없다. 모험을 하지 않고는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말.
ㅂ	사석성호 射石成虎	돌을 범인 줄 알고 쏘았더니 화살이 꽃혔다. 성심을 다하면 아니 될 일도 이룰 수 있음을 이르는 말.
	사석위호 射石爲虎	돌을 범인 줄 알고 쏘았더니 돌에 화살이 꽃혔다. 열과 성을 다하면 어떤 일이든지 성취할 수 있음을 비유하는 말.
	삼인성시호 三人成市虎	세 명이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곧이 믿게 된다. 거짓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똑같이 하면 믿게 된다는 말.
	삼인성호 三人成虎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 거짓된 말도 여러 번 되풀이하면 참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말.
	숙호충비 宿虎衝鼻	자는 범의 코를 찌른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려서 화(禍)를 스스로 불러들인다는 말.
	시호삼전 市虎三傳	사실(事實)이 아닌 것이라도 많은 사람이 말하면 듣는 자도 언젠가는 믿게 된다는 말.

	신호지세 晨虎之勢	굵주린 새벽 호랑이와 같은 맹렬한 기세를 이르는 말.
	심산맹호 深山猛虎	깊은 산속의 사나운 호랑이. 매우 사나운 위세나 그런 위세를 가진 사람을 이르는 말.
ㅇ	아호지혜 餓虎之蹊	굵주린 범이 다니는 길. 매우 위험한 곳을 비유하는 말.
	양질호피 羊質虎皮	양의 몸에 호랑이가죽을 걸치다. 본바탕은 아름답지 않으면서 겉모양만 꾸밈을 비유하는 말.
	양호공투 兩虎共鬪	두 마리 범이 맞붙어 서로 싸운다. 힘이 센 두 편이 맞붙어 다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양호대치 兩虎對峙	두 마리의 범이 서로 맞서서 버틴다. 힘이 센 두 편이 맞서 버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양호상투 兩虎相鬪	두 마리의 호랑이가 서로 다툰다. 힘센 두 영웅 또는 두 나라가 서로 싸우는 것을 이르는 말.
	양호후환 養虎後患	범을 길러 화근(禍根)을 남긴다. 은혜를 베풀었다가 도리어 해를 당함을 비유하는 말.
	여호모피 與虎謀皮	호랑이와 호랑이가죽을 벗기자고 의논하다. 이해관계가 서로 맞지 않는 사람과 의논하게 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는 말.
	여호첨익 如虎添翼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준다.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것과 같이 하늘로 비상하여 더 큰 일을 이룬다는 말.
	연합호두 燕頰虎頭	제비 새끼처럼 옆으로 퍼진 턱과 호랑이처럼 단단한 머리. 먼 나라에서 봉후(封侯)가 될 상(相)으로, 훗날 크게 이름을 날릴 인상을 이르는 말.
	용나호척 龍拏虎擲	용과 범이 맞붙어 싸운다. 막강한 두 사람의 싸움을 이르는 말.
	용반호거 龍蟠虎踞	용이 서리고 범이 걸터앉은 듯한 웅장한 산세. 힘준하여 적을 막아내기 용이(容易)한 지형(地形)을 이르는 말.
	용안호미 龍顏虎眉	용의 얼굴과 호랑이의 눈썹. 엄숙하고 위엄 있는 용모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
	용양호박 龍攬虎搏	용처럼 돌격하여 물리치고 범처럼 맹렬하게 친다. 맹렬히 싸우는 모습을 이르는 말.
	용양호시 龍驤虎視	용처럼 벌떡 뛰어오르고 범같이 노려본다. 기개가 높고 위엄에 찬 영웅의 태도를 이르는 말.
	용행호보 龍行虎步	용처럼 움직이고 호랑이처럼 걷는다. 위풍당당한 행동을 이르는 말.
	용호상박 龍虎相搏	용과 호랑이가 서로 싸운다. 실력이 뛰어난 두 사람이 경쟁하여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말.
	용호지자 龍虎之姿	용과 범의 자태. 뛰어난 영웅호걸의 자질을 이르는 말.
운룡풍호 雲龍風虎	운은 구름을 쫓고, 범은 바람을 따른다. 의기와 기질이 서로 맞거나 성주(聖主)가 현명한 신하를 얻음을 이르는 말.	
위호부익 爲虎傅翼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 준다. 위세 있는 악인에게 가세하여 더욱 맹위를 떨치게 함을 이르는 말.	

이천착호以天捉虎	하늘로써 범을 잡는다. 아주 쉬운 일을 이르는 말.
일일지구부지외호 一日之狗不知畏虎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을, 제 힘에 겨운 것을 철모르고 함부로 덤비는 것을 이르는 말.
입산기호入山忌虎	산에 들어가 놓고 범 잡는 일을 기피한다. 정작 바라던 일을 마주하면 꿈무늬를 뺀다는 말.
ㄱ 전호후랑前後狼	앞문에서 호랑이를 막으니 뒷문으로 늑대가 들어온다. 재앙이 끊임 없이 닥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주룡시호酒龍詩虎	술 마시는 용과 시 짓는 호랑이. 시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ㄷ 차호위호借虎威狐	호랑이의 위엄을 빌려 여우. 남의 권세에 의지하여 위세를 부림을 이르는 말
초망착호草網着虎	썩은 새끼줄로 엮은 그물로 범을 잡는다. 되지도 않을 일을 허황되게 꾀함을 이르는 말.
치목호문鷓目虎吻	올빼미의 눈과 범의 입술. 탐욕(貪慾)이 많은 상(相)으로, 사납고 잔인함을 비유하는 말.
ㅍ 포호빙하暴虎馮河	범을 맨손으로 때려잡고 황허강을 걸어서 건넌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모한 용기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
포호함포咆虎陷浦	개펄에 빠진 호랑이가 으르렁거린다. 으르렁거리는 호랑이 개펄에 빠지다. 떠들기만 하고 성취함이 없음을 비유하는 말.
피장봉호避筊逢虎	노루를 피하다 범을 만난다. 작은 해를 피하려다 큰 화를 당함을 비유하는 말.
ㅎ 호가호위狐假虎威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다. 남의 권세를 빌려 허세를 부림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호거용반虎踞龍盤	범이 웅크리고 용이 서려 있다. 웅장한 산세(山勢)를 이르는 말.
호구여생虎口餘生	호랑이 아가리에서 살아났다.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은 것을 비유하는 말.
호구참언虎口讒言	매우 위험(危險)한 참언이라는 뜻으로, 남을 궁지(窮地)에 몰아넣는 고자질이나 험담하는 말을 이르는 말.
호두사미虎頭蛇尾	범의 머리와 뱀의 꼬리. 처음은 성하나 끝이 부진한 형상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호랑지국虎狼之國	호랑이와 늑대의 나라. 포악하고 신의가 없는 강대국을 비유하는 말
호랑지심虎狼之心	호랑이와 이리 같은 마음. 사납고 모질어서 인자하지 못한 마음을 이르는 말.
호미난방虎尾難放	쥐었던 범의 꼬리를 놓기가 어렵다. 위험한 일을 시작하여 놓고 그냥 계속할 수도 없고 중단할 수도 없는 난처한 사정을 이르는 말.
호미춘빙虎尾春氷	범의 꼬리와 봄철의 얼음. 몹시 위험함을 이르는 말.
호변서虎變鼠	호랑이가 쥐로 변한다. 임금도 권세(權勢)를 잃으면 신하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존재가 됨을 이르는 말.
호보당당虎步堂堂	호랑이 걸음처럼 당당하게 나아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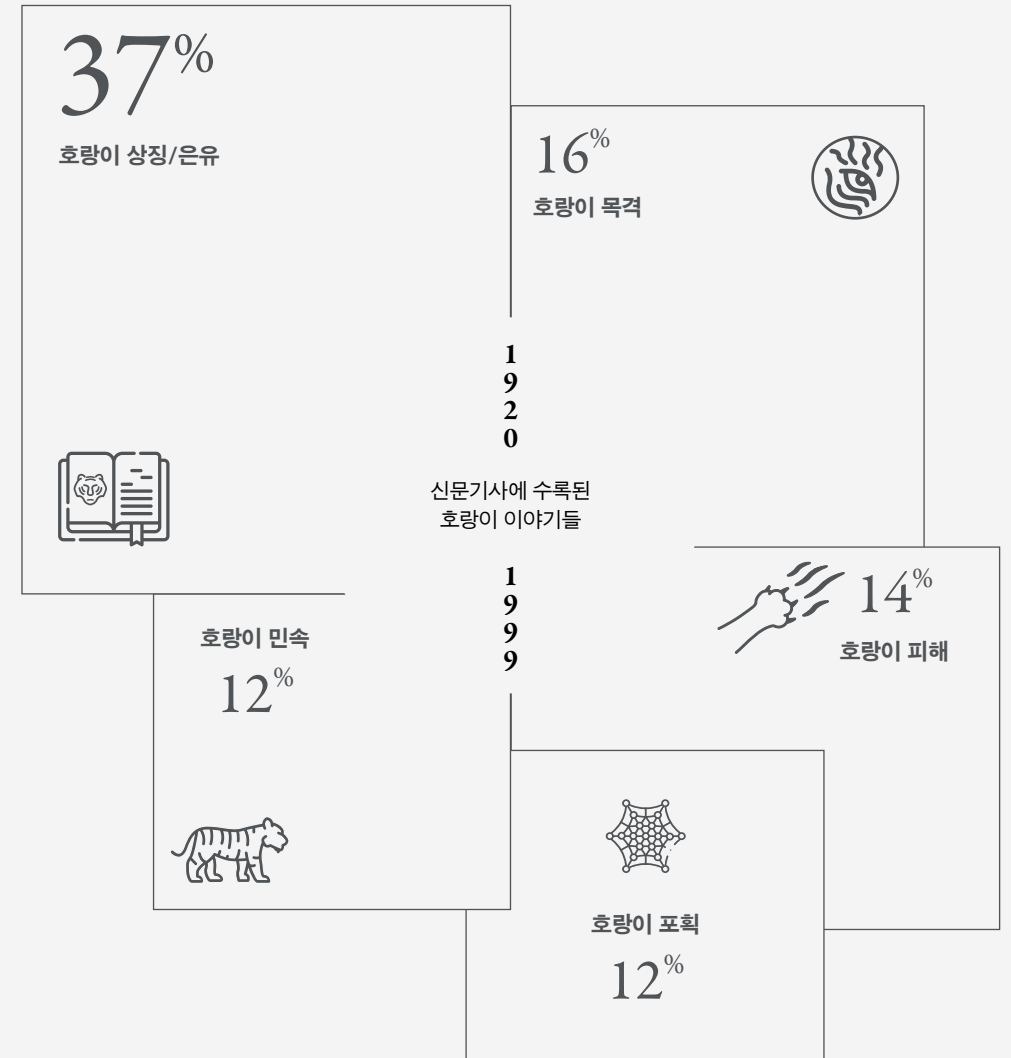
호부견자虎父犬子	호랑이 아버지에 개의 새끼. 훌륭한 아버지에 못난 자식을 이르는 말.
호불식이虎不食兒	범은 배가 고파도 제 새끼를 먹지 않는다.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제 식구는 함부로 대하지 않음을 이르는 말.
호사유피虎死留皮	범이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사람도 죽은 뒤에 이름을 남겨야 한다는 말.
호시우보虎視牛步	호랑이같이 예리하고 무섭게 사물을 보고, 소같이 신중하게 행동한다.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함을 뜻하는 말.
호시탐탐虎視眈眈	범이 먹이를 노린다. 기회(機會)를 노리며 형세(形勢)를 살핍을 비유(比喩·譬喩)하는 말, 날카로운 눈으로 가만히 기회를 노려보고 있는 모습을 이르는 말.
호전걸육虎前乞肉	호랑이에게 고기를 달라고 한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이르는 말.
호척용나虎擲龍拏	범과 용이 맞잡고 친다. 영웅(英雄)끼리 다툼을 이르는 말.
호혈호자虎穴虎子	범의 굴에 들어가야 범의 새끼를 잡는다. 무슨 일이든 큰 위험(危險)을 각오(覺悟)하지 않으면 큰 수확(收穫)을 얻지 못함을 비유(比喩·譬喩)하여 이르는 말.
화호불성畫虎不成	범을 그리려다가 강아지를 그린다. 서투른 솜씨로 훌륭한 사람의 언행을 흉내 내려 하거나, 큰일을 하려다가 실패함을 비유하는 말.
화호불성반류구 畫虎不成反類狗	호랑이를 그리다가 이루지 못하면 도리어 개와 비슷하게 된다. 심불리 훌륭한 사람의 언행을 따라하려고 하면 도리어 경박한 사람이 됨. 또는 제 소양이나 능력을 돌보지 않고 큰 일을 꾀하다 실패함을 이르는 말.
화호유구畫虎類狗	호랑이를 그리려다 개를 그린 꼴이 된다. 자신의 능력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큰 욕심을 부리면 결국 우스운 결과만 가져온다는 말.

호랑이 소식

Tiger: News

연도별 호랑이 소식

- ◆ 1920년대 기사는 주로 피해담이 많음
- ◆ 본격적인 일제의 수탈이 이루어진 1930년대에는 포획기사가 많음
- ◆ 호랑이 목격담은 1970년대에도 드물지 않게 나타남
- ◆ 현대에는 호랑이를 상징·은유한 브랜드, 야구팀 등에서 나타남



1920 猛虎出野(맹호출야) 색기들을거나린 호랑이가나타나
농민들 호랑이 목격
동아일보 | 1921.9.3.

虎子(호자)의去處(거처) 대던디방의소동
물려죽은 돼지
동아일보 | 1922.6.26.

잠자는少女(소녀)를 호랑이몰어가 평북선천에서
다섯살 아이 몰아가다
동아일보 | 1924.8.26.

山淸(산청)에大虎出現(대호출현)
소 먹는 호랑이 목격
동아일보 | 1924.10.1.

大虎捕獲(대호포획)
포수가 호랑이 잡다
조선일보 | 1924.12.22.

安州東面(안주동면)에 호랑이가橫行(횡행)
돼지 몰어가 인명피해 염려
조선일보 | 1924.12.29.

大虎(대호)가메를지여村中(촌중)으로橫行(횡행)
호랑이 무리 떼지어 울다
조선일보 | 1926.1.11.

丙寅年首(병인연수)에 호랑이에게물려
호랑이에게 당해 사라지다
조선일보 | 1926.1.12.

호랑이해에 혼인을하면 불길하다지 오
호랑이 해에 결혼하면 불길
조선일보 | 1926.8.26.

맨주먹으로 猛虎(맹호)를打殺(타살)
맨손으로 호랑이 잡다
조선일보 | 1926.12.28.

효랑이를 따려잡아
한쪽 손 물린 채 호랑이 죽이다
조선일보 | 1929.1.21.

1930 十五歲處女(십오세처녀)를 호랑이몰어가
호랑이가 몰어가 죽다
조선일보 | 1930.2.23.

大虎出現(대호출현) 開城天摩山(개성천마산)에
討伐隊(토벌대)가出動(출동)
호랑이 매일 나타나 불안
동아일보 | 1931.6.16.

大虎(대호)를捕獲(포획)
포수가 호랑이 쏘아 죽이다
조선일보 | 1932.2.7.

동물원 암 호랑이가 六歲(육세) 兒(아)를 할켜
重傷(중상)
6세 아이 몰어 활린 호랑이
동아일보 | 1933.4.1.

호랑이 나몰개는婦女(부녀)를 無慘(무참)히
잡어먹어
호랑이가 잡아먹은 부녀
조선일보 | 1933.6.8.

瑞山郡下(서산군하)에 大虎出沒頻頻
(대호출몰빈빈)
가축피해 크고 주민들 불안과 공포
조선일보 | 1933.8.30.

호랑이가 사람을먹어
나무하러 갔다가 잡아먹혀
조선일보 | 1936.7.1.

白晝(백주)호랭이橫行(횡행)!!
人畜殺害(인축살해)가頻繁(빈번)
사람 몰려 중상, 가축에 피해막심
동아일보 | 1936.7.11.

妙齡(묘령)의妊婦(임부)가 호랑이에 물려가
임산부 호랑이에게 먹힌 듯
동아일보 | 1939.6.5.

1950 家畜被害莫甚(가축피해막심) 益沃(익옥)에
호랑이 出現(출현)
가축 잡아먹은 호랑이
경향신문 | 1953.11.15.

生捕(생포)한호랑이入京(입경) 景武臺官邸
(경무대관저)로護送(호송)
지리산에서 생포
경향신문 | 1954.6.1.

東萊(동래)에호랑이 出現(출현) 사냥개를
몰어 가다
사냥개 몰어간 호랑이
경향신문 | 1955.1.4.

호랑이를生捕(생포)
산돼지 함정으로 호랑이 포획
조선일보 | 1956.3.18.

애기호랑이 少年(소년)이飼育(사육)
소년, 호랑이 1년간 키워
조선일보 | 1957.5.2.

호랑이두마리 를倉庫內(창고내)에서
生捕(생포)
집 창고에서 두 마리 생포
경향신문 | 1957.7.13.

『호랑이』를生捕(생포) 토끼網(망)에걸려들어
토끼망에 호랑이 잡히다
동아일보 | 1957.12.11.

1960 호랑이 새끼 生捕(생포)
오소리뒹에 걸린 새끼 호랑이
조선일보 | 1962.8.14.

호랑이에 물려죽어
20대 청년 물려 죽어
조선일보 | 1963.1.16.

호랑이새끼 세마리生捕(생포)
마을 뒷산에서 호랑이 잡다
동아일보 | 1963.5.20.

任實(임실)에호랑이出現(출현)
임실에 호랑이 나타나다
조선일보 | 1963.7.11.

下學(하학)길의13歲少年(세소년) 호랑이새끼를
生捕(생포)
돌맹이 던져 호랑이 잡다
동아일보 | 1963.8.8.

호랑이잡은 老益壯(노익장)
60세 노인 호랑이 잡다
조선일보 | 1964.1.9.

닭장에 호랑이
닭장에 들어간 호랑이 잡다
경향신문 | 1964.12.17.

대낮에호랑이두마리
가축피해 주민들 공포
경향신문 | 1965.2.23.

李朝(이조)때 호랑이그림 展示(전시) 14日(일)부
터 新世界(신세계) 화랑서
호랑이 전시회
동아일보 | 1969.5.13.

1970 독수리-호랑이 모두 強(강)했다
우열 가릴 수 없었던 연고전
조선일보 | 1970.11.1.

호랑이그림1百(백)여점 에밀레 미술관서
展示(전시)
호랑이 그림 미술관 전시
경향신문 | 1973.4.23.

곳곳에 호랑이-猛獸(맹수)소동
호랑이 소동
조선일보 | 1973.12.12.

「君子(군자)의얼굴」…韓國(한국)호랑이
매력적인 군자호랑이
조선일보 | 1974.1.1.

호랑이民話(민화)

개국신화부터 동화까지
경향신문 | 1974.1.1.

산골마을에 호랑이 出現(출현)신고

호랑이 출현 신고
조선일보 | 1974.6.7.

原城郡(원성군)에 호랑이 出現說(출현설)

호랑이가 귀향객 죽이다
조선일보 | 1975.12.26.

호랑이出現說(출현설)에 대피소동

호랑이 발자국으로 판명
경향신문 | 1976.2.24.

호랑이에 과자주던 30代醉客(대취객) 팔뚝잘려
昌慶苑(창경원)

취객 팔뚝 잘리다
동아일보 | 1976.11.11.

호랑이 生捕(생포) 3年生(년생)…高靈(고령)서

노루뿔으로 호랑이 잡아
경향신문 | 1977.10.25.

설악산 주변에 호랑이출몰說(설)

호랑이 발자국 발견
조선일보 | 1978.11.25.

1980

◇멸종된것으로 알려졌던 한국산 호랑이가 58년 전 남한에서 마지막으로 잡혔던 바로 그 대덕산에서 등산갔던 朴龍觀(박용관)씨에의해 사진으로 잡혔다

멸종 호랑이 목격
조선일보 | 1980.1.25.

光州(광주)사직動物園(동물원) 호랑이 새끼 3마리順産(순산)

동물원에서 3마리 순산
동아일보 | 1980.2.8.

「韓國(한국)의 호랑이」 주제 學術(학술)강연회
膺懲(응징)·守護(수호)의 兩面性(양면성)상징

호랑이 학술강연회
경향신문 | 1980.11.24.

호랑이 마크 결정

해태 심벌 호랑이로 결정
조선일보 | 1982.1.6.

호랑이 기르는 中共(중공)의 韓國人(한국인)

호랑이 집에서 기르다
동아일보 | 1982.7.23.

昌慶苑(창경원) 20년생호랑이 自然死(자연사)

우리 안에서 자연사
조선일보 | 1982.12.8.

「만능선수」라야 할 88五輪(오륜) 심벌마크 호랑이·토끼 막판 격돌

올림픽 마스코트 호랑이와 토끼 경쟁
동아일보 | 1982.12.10.

韓國産(한국산)호랑이 棲息(서식) 北韓(북한) 白頭山(백두산)등지에

백두산에 사는 호랑이
동아일보 | 1982.12.30.

올림픽 마스코트 「호랑이」로

올림픽 마스코트 호랑이로 확정
조선일보 | 1983.2.24.

88올림픽 마스코트 호랑이

올림픽 마스코트 디자인
동아일보 | 1983.3.5.

北傀(북괴)방송 보도 咸北(함북)「칠보山(산)」에 도 호랑이

칠보산에 서식하는 호랑이
동아일보 | 1984.1.26.

호랑이굴 찾아든 強盜(강도) 아들警官(경관) 격투로 검거

잡자던 호랑이 강도 검거
경향신문 | 1984.2.11.

白頭山(백두산)에 韓國(한국)호랑이 北傀(북괴)방송「출몰」보도

백두산에 출몰
경향신문 | 1984.4.10.

서울대공원 호랑이 「맹순氏(씨)」 새끼 順産(순산)

뽕굴산 호랑이 순산
동아일보 | 1985.6.22.

◇호랑이도 얼음이 좋아

호랑이 얼음목욕
조선일보 | 1985.7.31.

국립극장 「10월축제」 프로…13~16일 공연

「호랑이說話(설화)」를 마당놀이로

호랑이 마당놀이
동아일보 | 1985.10.12.

위엄있고 부드럽고…해학 넘친「千(천)의 얼굴」民畫(민화)속의 호랑이 民俗(민속)자료수집가 金虎根(김호근)씨 丙寅年(병인년)맞아 「한국호랑이」 출간

민화 속 호랑이
동아일보 | 1985.12.21.

“韓國(한국)호랑이를 찾아라”

한국 직계혈통 호랑이
조선일보 | 1985.12.26.

교양 단군神話(신화) 民俗(민속)놀이 傳來(전래)동화 민담등에 비친 호랑이像(상) 한국의 호랑이

호랑이와 한민족의 관계규명
동아일보 | 1986.1.1.

丙寅年(병인년)에 알아본 한국의 호랑이 「힘」과 「웃음」 갖춘 民族(민족)의 靈物(영물)

한국의 호랑이
매일경제 | 1986.1.1.

◇호랑이 民家(민가) 습격

그림으로 보는 과거 호랑이 습격
조선일보 | 1986.3.9.

韓國(한국) 호랑이 深山(심산)에 서식

북한 산속 호랑이 서식
조선일보 | 1986.4.12.

인터뷰 美(미) 미네소타州(주) 韓人會長(한인회장) 金基龍(김기룡)씨 “한국호랑이 母國(모국)에 들여와 뿌듯한 보람”

호랑이 기증받다
경향신문 | 1986.6.12.

호랑이·바다표범·악어 사육“恐怖(공포)의 愛玩(애완)”

매완 호랑이
경향신문 | 1987.2.7.

白頭山(백두산) 호랑이 滅種(멸종)위기 직면

백두산 호랑이 멸종위기
경향신문 | 1988.6.11.

「한국 호랑이」 民芸(민예)특별展(전)

전국의 호랑이를 한 자리에
조선일보 | 1988.8.2.

五佳山(오가산)서 몸길이3m 한국산호랑이 잡아

북한에서 호랑이 포획
조선일보 | 1988.9.1.

한국의 호랑이 民藝(민예) 특별전

호랑이 민예 특별전
동아일보 | 1988.9.14.

한국의美(미) 호랑이展(전)에 외국인 붐버

호랑이 전시에 외국인 인파 넘치다
동아일보 | 1988.9.21.

1990

87년 합사한지 2년만에 두마리의 새끼를 순산한 한국산 호랑이커플

새끼 호랑이 순산
동아일보 | 1989.8.11.

韓國産(한국산) 호랑이새끼

새끼 호랑이 첫 공개
동아일보 | 1989.9.21.

어린이대공원 새끼호랑이 수호랑이가 물어죽여

자식 물어 죽인 호랑이
동아일보 | 1989.12.4.

시베리아 호랑이 새끼 세마리냥아

서울대공원 새끼 호랑이
조선일보 | 1990.6.28.

“호랑이봤다”잇따라 목격住民(주민) 두문불출도

마을에서 호랑이 목격
경향신문 | 1991.9.14.

우리나라 호랑이·표범 일제 마구잡이 씨말려

일본의 호랑이 학살
한겨레 | 1992.2.18.

호랑이굴 뛰어들 강도 담장넘고보니 경찰서

경찰서로 간 강도
경향신문 | 1992.3.8.

호랑이 통해 인간세상 풍자

호랑이를 통한 풍자 마당놀이
조선일보 | 1993.9.29.

국제화...韓國(한국)의 선택 (6) 「호돌이」를

「호랑이」로 키우자
호돌이를 호랑이로!
경향신문 | 1994.1.10.

日(일)·獨(독)소장 문화재 「환국」 金得臣作(김득신작) 호랑이그림 李命基作(이명기작) 忠貞公(충정공)(趙珩(조형))畫(화)

호랑이 그림, 돌아오다
동아일보 | 1994.4.5.

광릉수목원 서울대공원 백두산 호랑이 사육장소 공방

호랑이 사육관리
경향신문 | 1994.7.11.

고양이가 호랑이로

고양이만한 반도에 호랑이 같은..
매일경제 | 1994.11.23.

강릉 산간마을 호랑이 출몰설

강릉에 짐승 발자국 발견
한겨레 | 1996.11.29.

마음속에 키우는 호랑이들

호랑이 같은 감정, 분노
동아일보 | 1997.2.2.

시베리아 호랑이 생포장면 촬영

생포장면 촬영
조선일보 | 1997.4.12.

“호랑이,야생으로 간다”

호랑이 자연방사
한겨레 | 1997.11.27.

“어흥” 깊은 산속에 호랑이 살게된다

적응훈련 뒤 호랑이 방사 추진
조선일보 | 1997.11.28.

「까치호랑이」 시리즈 (보림 펴냄·전6권)

“호랑이가 담배먹던 때...”구수한 민담

호랑이 민담집 출간
동아일보 | 1997.11.29.

“서울시 호랑이 이름 달아주세요”

마스코트 디자인 결정

서울시 마스코트 호랑이로 결정
한겨레 | 1997.12.23.

새해벽두 “호랑이 시선받네”

호랑이 특집방송
한겨레 | 1997.12.31.

신년특집 가자!16강 <상> ‘아시아 호랑이’ 다시 뵈다

다시 일어서는 한국축구대표팀
조선일보 | 1998.1.1.

용맹스런 민족의 상징 호랑이

호랑이 민족 이야기
매일경제 | 1998.1.1.

그림으로 보는 호랑이 이야기

인간 위선 꾸짖는 심판관
한겨레 | 1998.1.1.

시베리아 호랑이-표범 14개월간 추적 촬영

추적 촬영
동아일보 | 1998.5.9.

◇무인센서 카메라를 향해 다가오는

시베리아 호랑이<사진원쪽>

야생호랑이 촬영
조선일보 | 1998.8.10.

멸종위기 야생 호랑이의 처절한 ‘포효’

호랑이 자연다큐
한겨레 | 1998.8.11.

시사-다큐 시베리아 호랑이 성장과정

야생호랑이 보호
조선일보 | 1998.8.27.

멸종위기의 시베리아 호랑이 KBS1

‘내셔널 지오그래픽—시베리아의 호랑이’

밤 11시 45분

시베리아 호랑이 관찰
매일경제 | 1999.1.7.

인터뷰 한국야생호랑이 연구소 임순남 소장

“호랑이 넘나들게 철책선 일부 걷어내야”

호랑이를 통일의 연결고리로
한겨레 | 1999.7.16.

‘멸종위기’ 호랑이 다시 늘어난다

늘어나는 호랑이 개체
동아일보 | 1999.10.18.

위풍당당 ‘백두산 호랑이’ 日(일)만화계 호령

호랑이 만화, 일본에 이어 대만까지
동아일보 | 1999.11.23.



대중매체 속 호랑이

영화·드라마

유형	제목 연도 창작자			
TV- 다큐멘터리		한국의 이미지-호랑이 1986		밀림 이야기 2003
TV- 애니메이션		동화나라 ABC 1987 김대중		은비까비의 옛날옛적에 1 1991
		은비까비의 옛날옛적에2 1991		동글동글 짹짹 2005 한동일
극영화		대원군과 민비 1959 유진식		돌아오지 않는 해병 1963 이만희
		호랑이 꼬리를 밟은 사나이 1963 이강원		광야의 호랑이 1965 김묵
		철부지 아씨 1968 김기풍		후취택 1969 나봉한
		돌아온 팔도사나이 1969 편거영		호랑이 꼬리를 잡은 여자 1970 김종래

이자료는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한국영상자료원), 음악 저작권 등록 목록,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도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Tiger: Mass Media

유형	제목 연도 창작자			
극영화		동경사자와 명동호랑이 1970 이장호		수호지 1970 임원직
		화조 1972 노진섭		인왕산 호랑이 1972 장일호
		호랑이장군 1973 정일택		호랑이 아줌마 1974 심우섭
		극락조 1975 김수용		슬픔은 저별들에게도 1978 설태호
		시라소니 1979 이혁수		수병과 제독 1979 설태호
		울지 않는 호랑이 1984 이혁수		설마가 사람잡네 1985 조문진
		야망의 대륙 1992 임선		잃어버린 욕망 1994 마주행

유형	제목 연도 창작자			
극영화		시라소니(도전자 편) 1995 이제규		최후의 만찬 2003 손영국
		호랑이 프로젝트 2004 이지행		이강원 2부: 〈사십대여인〉(반석, 1958), 편집담당 예고편, 〈이 순간을 위하여〉(1961), 〈이십구세의 어머니〉 (1962), 〈호랑이 꼬리를 밝은 사나이〉(1963) 2005 이강원
		호랑이라 불리우는 사나이 2007 권혁재		인사동 스킨들 2009 박희곤
		최종병기 활 2011 김한민		호구 2013 금태경
		해님달님 2014 목운초 영화반		구공탄의 소매치기 2014 김중호
		구공탄의 한강 2014 김중호		대호 2015 박훈정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손님 2017 이광국		옥상에 호랑이 2017 윤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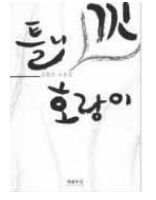



유형	제목 연도 창작자			
극영화		장롱 안 호랑이 2018 오한울		봉천 호랑이 이상대 2019 구상범
		당신의 이름으로 2020 심제용		해치지않아 2020 손재곤
다큐멘터리		백제문화기행-부여, 공주 1992 김향원		작별 2001 황윤
		침묵의 숲 2004 황윤		백두산 호랑이를 찾아서 2006 구분환
		우린 액션배우다 2008 정병길		누구에게나 찬란한 2014 임유철
		그루잠 2018 류형석		정브르의 동물일기 2021 박동훈
		월드리그의 호랑이 1971 김윤모		
문화영화				

유형	제목 연도 창작자			
실험영화		미륵동 서커스 2010 늘샘		
애니메이션		홍부와 놀부 1967 강태웅		도깨비 방망이 1986 박승철
		태백산 호랑이 1995 이춘산		청해진 호랑이-해상왕 장보고 1997 김대중
		누들 누들 1998 박병산, 오승진, 전창록, 백동렬, 이승익, 최기석, 장효식		호와 초이 2003 장문식
		소녀와 호랑이 2004 방종욱, 송미연		환 2004 주재형, 송승민
		호랑이님 나가신다 2006 김민		아이 삼국유사 2006 이상훈
		호랑이와 꽃감 2006 김동수, 임찬수, 박세용		








유형	제목 연도 창작자			
애니메이션		고시레 이야기 2009 김정선, 이숙현		내셔널 트레저 285 2012 이량훈
		호랑이형님과 나무꾼 2017 곽기혁		호잡도 2017 이지혜
		호랑이와 소 2019 김승희		

도서

제목 연도 창작자		제목 연도 창작자	
	옥돌호랑이 1973 박홍원		호랑이할머니 1993 신애균
	정치사냥: 정치장군과 백두산 호랑이 1983 문경석		백두산 호랑이.2-3, 암호명36호 1994 이이녕
	나무꾼과 호랑이 형님 1988 이나미		'95 우리 시대의 문제소설 1995 한국현대소설연구회
	이 땅의 딸로 태어나: 서면 뛰고 누우면 호랑이를 꿈꾸는 여성들의 이야기 1988 이소라 외		황금 열쇠와 호랑이 수염 1997 김숙자
	호랑이의 유산 1988 장태운		햇빛 속에 호랑이는 광휘로 가득하다 1998 강연호 외
	호랑이한테 물러가도 1988 임병식		도래기재에 우리나라 호랑이가 1999 강희산
	호랑이는 뿔이 없다. 上·下 1993 김성길		호랑이를 봤다 1999 성석제

제목 연도 창작자	
	장산곶매 2000 황석영
	(백마리 호랑이와) 황금과 병법: 백한번째 푸른 호랑이 2002 윤성지
	조선 호랑이 백호 2003 안수길
	틀니 낀 호랑이 2006 김원중
	호랑이에 대한 열 두 가지 생각 2006 임선화
	호랑이의 생일선물: 수리·사교력을 키워 주는 그림책 2008 꼬네상스
	어흥, 우리 호랑이 국립제주박물관 2009

제목 연도 창작자	
	어흥, 호랑이 나가신다! 한민족의 상징, 호랑이 2009 유다정, 한태희
	호랑이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2009 강은경
	나와 호랑이님 2010 카넬
	호랑이는 왜 바다로 갔나 2010[2005] 윤대영
	가야산 호랑이의 체취를 맡았다 2013 서명원
	일곱 개의 수염을 가진 호랑이: 한국의 동물, 호랑이 이야기 2013 윤진화, 이선희
	호랑이 표류기 2013 이동희

제목 연도 창작자	
	가르뫼호: 산을 가로지르는 호랑이 2014 윤찬식
	한국 호랑이 1~5 2014 진호철
	호랑이를 뒀다 2014 엄태경
	호랑이 시집가는 날 2014 연두
	학교로 간 무등산 호랑이 2017 최대호
	까치 호랑이 2019 성지혜
	따져 읽는 호랑이 이야기 2019 김종광

제목 연도 창작자	
	햇빛 속에 호랑이 2019[1998] 최정례
	호랑이 눈썹 2020 손석춘
	호랑이 바람 2020 김지연
	호랑이 세프랑 똑딱 초등 글쓰기 2020 서지원
	호랑이는 풀을 안 좋아해 2020 박덕희
	호범이랑 호랑이랑 호랑이 이야기 2020 박은정, 김도연
	호랑이 들어와요 2021 배세혁

음악

곡명	저작자	창작연도
구포호랑이굿	최길성	1971
상모쓴호랑이	방미	1984
강사리 범굿	김수남	1989
토끼와호랑이	이재용,이현진	1993
수궁가	박동진	1994
Hide And Seek (술래잡기/아기 호랑이때 사랑이야기)	타이거 JK	1995
호랑이 내려오는 대목~별주부 호랑이로부터 살아나는 대목	남해성	2000
별주부호랑이만나는데	박초월	2000
망가진 청색호랑이 (Feat. Ginnwon)	디지털마스타(DigitalMasta)	2000
호랑이 장가가는 날	그림(The 林)	2002
산중호걸	프리즈	2007
호랑이 굴에 들어가자	박상문뮤직웍스	2008
고양이도잠을자고 호랑이도잠을자고	백창우	2009
그래 그곳에 가면 & 사사로운 호랑이	이디라마	2009
호랑이발톱	한태주	2011
호랑이	라이프 앤 타임(Life And Time)	2014
호랑수월가	나래	2015
호랑풍류가	나래	2015
배고픈 호랑이	정문길	2015
호랑이 사냥	더사운드트랙킹스(The Soundtrackings)	2016
호랑이 (Feat. Ja Mezz)	Boy Wonder(보이원더)	2016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요	스카웨이크스(SKAWAKERS)	2016

곡명	저작자	창작연도
인왕 산호랑이와 효자동	박시형	2016
호랑이와 사자	옹달샘(정혁진)	2016
호랑이	로꼬	2017
평창 호랑이	털보이(Turboy)	2017
허리잘린 호랑이	최용준	2018
호랑이 Crawl	Room306	2018
호랑이소굴 (Feat. Jvcki Wai)	기리보이	2019
사자 vs 호랑이	주니토니	2020
호랑이 뒷다리	이날치	2020
범 내려온다	이날치	2020
호랑이 (Tiger Inside)	SuperM	2020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우리는 이름을	홈보이(Homeboy), 에네이 에미(Enei Emi)	2020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이준화	2020
호랑이 눈썹	홍대성	2020
호랑이의 숲	알레프(Aleph)	2020
호랑이는 죽어서	홍크(Honk)	2021
팔죽할멈과 호랑이	마주프로젝트	2021
인생 후반전 (남자 호랑이)	강창열	2021
호랑이의 발	유하	2021

색인

기역	
ㄱ	
강아지	229, 230
거북놀이	105
견훤	206
경국대전	036, 039, 160, 265
계급	163
고구려	161, 166
고금소총	199
고려사	027, 067, 142, 212, 265
관모	166
국조오례의	027
굿거리	116, 122
굿놀이	124
궁합	113
권율	208
그릇	168
기우제	065, 105
길상	131
길상어문	151
김윤식	253, 266
김현감호	203, 205, 241
김홍도	136
까치호랑이	048, 161

너은	
ㄴ	
나그네	107
노리개	132, 150
더글	
ㄷ	
단군신화	053, 057, 088, 090, 091, 196
단오	099
당집	107
도교	145
동국세시기	082, 088, 092, 099, 113
동국여지승람	195
동지	247, 250, 262
동짓날	219, 247, 250, 262
미음	
ㅁ	
마스코트	025, 249, 252, 257
마을곳	119
매일신보	035
맹수	247, 251, 257, 261
맹수성	170
맹호도	136, 140
명나라	136
명당	112, 232, 236
목민심서	265
뫓자리	112
무가	118
무당	117, 121, 127

무당곳	102
무덤	164
무용총	026, 047, 074
무인석	164
문배도	147
문인석	164
민간신앙	145
민속놀이	070
비음	
ㅂ	
백호	026, 047, 057, 067, 070, 073, 076, 078, 095, 097, 134, 161, 203, 216, 248, 252
백호기	071
범골	044, 045
범곳	080
범 내려온다	025
범놀이	103
범바위	021, 045
벽사	057, 131, 144, 149, 153, 154, 164, 255, 256, 259
변신담	204
별신곳	103, 119, 124, 126
병풀	133, 156
보은	236, 259
부적	094, 150, 154
불교	145

시옷	
ㅅ	
사신	026, 057
사신도	025, 026, 047, 073, 076, 161
산군	116
산령	107
산신	057, 069, 081, 083, 086, 088, 090, 097, 100, 122, 141, 231, 242, 251, 256, 259
산신령	025, 060, 066, 098, 101, 104, 111, 169, 229, 239, 259
산신신앙	140
산신제	060, 082
산제	108
삼강행실도	212
삼국사기	019, 183, 184, 212, 217, 265
삼국유사	052, 116, 183, 184, 188, 195, 204, 212, 241
삼국지	090, 251
삼신	086
삼재	058
삼재부적	090, 092, 115
서낭당	094
서낭신	140
서낭제	094
서울올림픽대회	025, 248, 257
석물	164
성호사설	039
세시풍속	147
세종실록	027, 036
세종실록지리지	195
소	234
소년	248, 255

승하맹호도	136
수궁가	217
수호신	259
시베리아호랑이	019, 023, 039, 040, 043, 151
시조탄생담	185
신립설화	188, 211
신목	140
신수	094
신증동국여지승람	065, 231
신체	120
십이지	058
십이지신	057, 058

이음

ㅇ

아르네	220
아악	145
악기	134, 145, 146
애니미즘	120
액막이	147
아래자설화	185
약	155
약재	152
어우집	266
여우	216
열녀	207
영물	247
영웅	204, 215
영조실록	265
오주연문장전산고	090, 092, 098, 116
요강	168
용	065, 066, 067, 105, 147

용신당	086
용왕	082
용호도	148
용호문배도	048, 134
운양집	253
원나라	136
음양	098, 111
음양오행	098
이물교혼	178
이순신설화	187
일제강점기	159, 177
임원경제지	075, 078
임진왜란	051, 186, 215
입춘	247

지읒

ㅈ

작호도	136
장광제	104
장군	208
장식	154, 166
장신구	169
장자정치담	030
정월 대보름	072, 103
정충신설화	187
정호기	020
제사	110
제왕운기	196
조선동화집	234
조선왕조실록	019, 090, 166, 265
조선의 향토오락	087
주작	026, 047, 073, 076

중국	141
지신밧기	105

치읓

ㅊ

착호갑사	019, 039, 040
착호군	036, 039
창귀	098, 101, 122, 123, 265
첫호랑이날	097
청룡	026, 047, 070, 073, 076, 078, 144
최남선	025, 089, 248, 251, 255, 258, 261
치료제	156
침호두	065

키읔

ㅋ

콜레라	099
-----	-----

티읕

ㅌ

탑돌이	205
태조 왕건	206
토끼	191, 217, 225, 234, 255
트릭스터	191, 218

피읖

ㅍ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025
포수	032, 033, 034, 035, 038, 043, 048, 049, 051, 116, 124, 233
포호정책	019, 024, 038, 042
표범	023, 034, 037, 039, 040, 043, 044, 160
표상	255
품계	171
풍수	071, 078, 112
풍수지리	028, 030, 031, 068, 075, 076
풍자	141

히읇

ㅎ

한국구비문학대계	175, 183, 189, 190, 208, 243
한국구비전설	243
한국구전설화	208
한의학	152
해수구제	020, 024, 025, 032, 042, 043, 044, 171
현무	026, 047, 073, 076, 078
호골	133
호담국	025, 090, 175, 266
호동	029, 053
호랑이 가족	124, 151
호랑이 고기	032
호랑이 꿈	149
호랑이띠	111
호랑이(범)띠	098
호랑이뼈	155

필자

호랑이수염	166
호랑이연고	133
호랑이풀	133
호랑이홍배	132
호서낭	094
호석	067, 131
호식	079, 101, 102, 119, 176, 192, 240
호식장	266
호식총	102, 266
호신용	153
호영산	080
호작도	136
호표	060
호피	131, 154
호환	019, 024, 025, 032, 036, 038, 039, 049, 051, 057, 058, 060, 079, 080, 090, 098, 102, 116, 118, 120, 123, 124, 176, 178, 186, 192, 230, 240, 246, 256
효	190, 212, 239, 242
효부	207, 241, 242
효성	239, 243
효심	029
효자	107, 190, 207, 233, 243
효행담	212, 239, 242

필자

강경표(姜昶杓)	국립민속박물관
설화 속 호랑이	175
신성과 벽사의 호랑이	057
호랑이 관련 용어와 표상	246
호랑이가 깃든 물건	131
호랑이의 생태와 역사	019

강성복(姜成福)	충청민속문화재연구소
금산천내리옹호석	067
공주동해리산신제	060

강성숙(姜盛淑)	인제대학교
문자 쓰다 장인 잃은 사위	199
호랑이가 잡아준 명당	231

강영환(姜榮煥)	울산대학교 명예교수
사신	076

강재철(姜在哲)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호피	169

강현모(姜賢模)	전 한남대학교
임지한	214

고재환(高在)	제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오뉴월 손님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253

권혁래(權赫來)	용인대학교
팔죽할멈과 호랑이	219
호랑이와 곶감	234

김경희(金璟姬)	가천대학교
메추라기의 꿈지	198

김기설(金起高)	전 강릉영동대학교
태백황연동유령산령당	107

김기호(金基鎬)	영남대학교
꼬리 잘린 호랑이	191
사람을 사랑한 호랑이	204
여자 음부 보고 도망간 호랑이	213
토끼의 재판	217
호랑이로 변한 남편	233

김대숙(金大淑)	전 평택대학교
여름에 흥시 구한 효자	212

김덕묵(金德默)	한국민속기록보존소
사신반혼굿	079

김도현(金道賢)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백호	073
삼척갈남마을백호서낭제	094
제호이위신	100
호랑이부적	113
호석	164
호환	265

김동건(金東建)	경희대학교
호랑이 별주부 상면 대목	225

김명희(金明姬)	전 강남대학교
변신한 호랑이를 물리친 사람	203
시묘살이 도와준 호랑이	206
호랑이의 보은	235

김은희(金銀姬)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호살량굿	116

김정아(金廷兒)	한남대학교
호건	149

김창일(金昌一)	국립제주박물관
산신	088
삼재부적	092

김태수(金泰水)	전 삼척시립박물관
산맥이	081

노영근(盧暎根)	국민대학교
반쪽이	201

류건욱(柳建旭)	국립민속박물관
호자	168

박경용(朴敬庸)	대구대학교
호골	151
호랑이연고	155
호랑이풀	156
호열자	262

박록담(朴碌潭)	한국전통주연구소
호랭이술	158

박은정(朴銀正)	한양대학교
산중호걸	251
수호랑	252
이빨 빠진 호랑이	253
조선표상화	254
종이호랑이	256
호돌이	257
호랑이선생님	261

박종익(朴鍾翼)	한밭대학교
남매탑	193

박현숙(朴賢淑)	건국대학교
춤추는 호랑이	216
호랑이 배 속 구경	224

배도식(裴桃植)	전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개가하지 않은 머느리 도운 호랑이	181
김호랑이굴	189
밀양 용호놀이	070
효자 태워 나른 호랑이	243

변혜민(邊慧敏)	국립민속박물관
상여장식	142

서대석(徐大錫)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단군신화	195

송호섭(宋孝燮)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김현감호	188

신동흔(申東昕)	건국대학교
호랑이 눈썹	223

심승구(沈勝求)	한국체육대학교
백호기	026
정호기	032
착호갑사	036
포호정책	038
해수구제사업	043
호랑이포수	048

오세길(吳世吉)	동의과학대학교
범굴	029
범바위	030
복호	031
호동	044
호랑이 장가 가는 날	262
호랑이굴	045
호랑이꿈	259
호랑이띠	111
호암사	052
호암산	053

위철(魏哲)	국립민속박물관
어	145

이균옥(李均玉)	전북대학교 무형문화연구원
호탈굿	124

이창식(李昌植)	세명대학교
상인일	097

이한길(李漢吉)	동해안바다연구회
호랑이 잡은 비루먹은 강아지	230

이항(李恒)	서울대학교
라이거	022
백두산호랑이	023
한국표범	040

이해준(李海濬)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금산진약산물굴봉기우제당	064

임철호(林哲鎬)	전주대학교 명예교수
곽재우	186

장장식(張長植)	전 국립민속박물관
호서낭	120

장정룡(張正龍)	강릉원주대학교
강감찬	178

정병모(鄭炳模)	경주대학교
까치호랑이	136
용호문배도	147
호랑이벽화	046

정병헌(鄭炳憲)	전 숙명여자대학교
구시월 도지는 호랑이도 무서워한다	250

정연학(鄭然鶴)	국립민속박물관
애호	099

정재민(鄭在珉)	육군사관학교
나도밤나무	192
호식당할 운명	240

감 수

김명자	안동대학교 명예교수
------------	------------

정형호(鄭亨鎬)	전북대학교 무형문화연구원
청양 범놀이	103

조선영(曹善映)	국립무형유산원
호랑이 잡은 기름강아지	229

조현설(趙顯高)	서울대학교
범이 불알을 동지에 열구고 입춘에 녹인다	250
해와 달이 된 오누이	221

천진기(千鎭基)	국립중앙박물관
창귀	101
호식장	123

최은수(崔銀水)	국립민속박물관
호랑이발톱노리개	153
호랑이흉배	160
호수	166

최종성(崔鍾成)	서울대학교
침호두	105

한서희(韓抒希)	전남대학교
견훤	183
호랑이형님	238
효부와 호랑이	241

한종구(韓宗求)	한국교통대학교 명예교수
신림	208

**Encyclopedia of
Korean Folk Symbols**

Tiger